



용인의 옛성턱

처인성·할미산성·보개산성 정용인시립도서관 지표조사 보고서



RE6831

1999

용 인 시 · 용 인 문 화 원 용 인 시 사 편 찬 위 원 회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용인의 옛성터

처인성 · 할미산성 · 보개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 車勇杰·盧秉植 朴重均·趙順欽 尹大植

1999

용 인 시 · 용 인 문 화 원 용 인 시 사 편 찬 위 원 회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차 례

도면차례

사진차례

1.	조	사경위	17
2.	조	사 대상 성터와 조사 방법	19
	1)	처인성(處仁城)	19
	2)	보개산성(寶蓋山城 : 石城山城)	19
	3)	고모성(姑母城 : 할미성)	20
	4)	선장산성(禪長山城)	20
	5)	조사 방법	21
	_		
3.	성	터들의 위치와 주변 환경	23
	1)	할미성과 보개산성의 위치	24
	2)	처인성터의 위치	24
	3)	성터들 주변의 고고학적 환경	25
	4)	성터들 주변의 역사적 환경	26
4.	처	인성(處仁城)	29
	1)	역사적 배경	29
	2)	처인성터의 위치와 주변환경	31
	3)	처인성터의 현상	32

4) 처인성터 수습유물	40
5) 처인성터의 성격	4 5
5. 할미성(老姑山城, 姑母城, 魔姑城, 魔城 혹은 麻城)	4 9
1) 위치와 환경	49
2) 산성의 현상	50
3) 문터와 내부의 시설	58
4) 채집 유물	59
5) 축조 유형과 성격	62
6) 할미성의 보존 방안	63
6. 보개산성(寶蓋山城 : 石城山城)	65
1) 위치와 환경	65
2) 보개산성(寶蓋山城 : 石城山城)의 현황	66
3) 보개산성의 성문과 내부 시설	79
4) 성내 출토 유물	83
5) 보개산성의 축조 유형과 성격	113
6) 보개산성의 보존 방안	115
7. 보개산 봉수터	116
1) 봉수대의 위치	116
2) 봉수대의 현황	117
도 면	121
사 진	911
1 T	

도면차례

- [도면 1] 처인성·노고성·보개산성 위치도(1:100,000)
- [도면 2] 처인성·보개산성 고지도(대동여지도)
- [도면 3] 처인성 부근 지형도(1:5,000)
- [도면 4] 처인성 평면실측도
- [도면 5] 처인성 등고선 실측도(용인시 제공)
- [도면 6] 처인성 부근 임야도(용인시 제공)
- [도면 7] 처인성 단면 실측 지점 표시도
- [도면 8] 처인성 단면 실측도(#1·#2)
- [도면 9] 처인성 단면 실측도(#3·#4)
- [도면 10] 처인성 단면 실측도(#5·#6)
- [도면 11] 처인성 단면 실측도(#7・#8)
- [도면 12] 처인성 단면 실측도(#9·#10·#13)
- [도면 13] 처인성 단면 실측도(#11·#12)
- [도면 14] 처인성 수습유물 실측도
- [도면 15] 처인성 수습유물 실측도
- [도면 16] 처인성 수습유물 실측도
- [도면 17] 노고성 부근 지형도(1:5,000)
- [도면 18] 노고성 평면실측도
- [도면 19] 노고성 주변 임야도
- [도면 20] 노고성 단면 실측 지점 표시도
- [도면 21] 노고성 단면 실측도(#1·#2)
- [도면 22] 노고성 단면 실측도(#3·#4)
- [도면 23] 노고성 #5 지점 단면・입면 실측도
- [도면 24] 노고성 단면 실측도(#6·#7)
- [도면 25] 노고성 단면 실측도(#8~#10)

- [도면 26] 노고성 단면 실측도(#11·#12)
- [도면 27] 노고성 단면 실측도(#13·#14)
- [도면 28] 노고성 단면 실측도(#15·#16)
- [도면 29] 노고성 단면 실측도(#17·#18)
- [도면 30] 노고성 단면 실측도(#19~#20)
- [도면 31] 노고성 #21 지점 단면·입면 실측도
- [도면 32] 노고성 수습 유물 실측도(토기류)
- [도면 33] 보개산성 부근 지형도(1 : 5,000)
- [도면 34] 보개산성 평면 실측도
- [도면 35] 보개산성 주변 임야도
- [도면 36] 보개산성 현황 및 단면 실측 지점 표시도
- [도면 37]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1·#2)
- [도면 38]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3~#4)
- [도면 39]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5~#6)
- [도면 40]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7·#8·#10)
- [도면 41] 보개산성 #9 지점 단면·입면 실측도
- [도면 42]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11~#12)
- [도면 43]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13~#15)
- [도면 44] 보개산성 #16지점 단면 · 입면 실측도
- [도면 45] 보개산성 동문지 평면 실측도
- [도면 46]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17~#19)
- [도면 47]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20~#22)
- [도면 48]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23~#25)
- [도면 49] 보개산성 단면 실촉도(#26~#28)
- [도면 50]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29~#31)
- [도면 51]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32·#33)
- [도면 52] 보개산성 봉수대 평면 실측도
- [도면 53] 보개산성 봉수대 단면 실측도(A-A'·B-B'·C-C')
- [도면 54]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촉도(토기 구연부편)
- [도면 55]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토기 구연부편)
- [도면 56]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토기 저부편)
- [도면 57]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토기 저부편)

- [도면 58]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촉도(토기 저부편)
- [도면 59]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동체부편·파수부편)
- [도면 60]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토기편)
- [도면 61]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촉도(토기편)
- [도면 62]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수키와편)
- [도면 63]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수키와편)
- [도면 64]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수키와편)
- [도면 65]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촉도(수키와편)
- [도면 66]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수키와편)
- [도면 67]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수키와편)
- [도면 68]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수키와편)
- [도면 69]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수키와편)
- [도면 70] 보개산성 수숩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 [도면 71]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 [도면 72]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 [도면 73]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촉도(암키와편)
- [도면 74]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 [도면 75]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 [도면 76]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 [도면 77]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 [도면 78]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 [도면 79]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축도(암키와편)
- [도면 80]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 [도면 81]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촉도(암키와편)
- [도면 82]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전편)
- [도면 83]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촉도(자기류)

사진차례

- [사진 1] 아곡교에서 바라본 처인성 모습
- [사진 2] 사장터에서 바라본 처인성 모습
- [사진 3] 남서쪽에서 바라본 처인성 모습
- [사진 4] 처인성 입구의 문화재 안내판
- [사진 5] 처인성 동남벽 외측의 처인성숭첩기념비
- [사진 6] 처인성 서남벽 외측 모습
- [사진 7] 처인성 서남벽 상부 모습(서쪽에서)
- [사진 8] 처인성 서북벽 외측 모습(북쪽에서)
- [사진 9] 처인성 서북벽 상부 모습(북쪽에서)
- [사진 10] 처인성 서북벽과 모서리 모습(북쪽에서)
- [사진 11] 처인성 서북벽 모서리 내측 모습(남쪽에서)
- [사진 12] 처인성 북동벽 외측 모습(남동쪽에서)
- [사진 13] 처인성 북동벽 외축 모습(북서쪽에서)
- [사진 14] 처인성 북동벽 상부 모습(남쪽에서)
- [사진 15] 처인성 동북벽 동측의 현 출입구(밖에서)
- [사진 16] 처인성 북동벽 동측의 현 출입구(안에서)
- [사진 17] 처인성 남동벽 외측 모습(동남쪽에서)
- [사진 18] 처인성 남동벽 상부 모습(남서쪽에서)
- [사진 19] 처인성 내부 모습(서쪽에서)
- [사진 20] 처인성 내부 모습(북서쪽에서)
- [사진 21] 처인성에서 바라본 성들과 사장터 모습(서쪽에서)
- [사진 22] 사장터에서 바라본 처인성과 그 남쪽 모습
- [사진 23] 처인성 수습 토기류 1
- [사진 24] 처인성 수습 토기류 2
- [사진 25] 처인성 수습 기와(배면)

- [사진 26] 처인성 수습 기와(이면)
- [사진 27] 처인성 수습 기와(배면)
- [사진 28] 처인성 수습 기와(배면)
- [사진 29] 처인성 수습 기와(배면)
- [사진 30] 처인성 수습 기와(이면)
- [사진 31] 처인성 수습 기와(배면)
- [사진 32] 처인성 수습 기와(이면)
- [사진 33] 포곡면 삼계리에서 바라본 노고성·보개산성 모습
- [사진 34] 에버랜드 입구에서 바라본 노고성 모습
- [사진 35] 보개산성에서 바라본 노고성 모습
- [사진 36] 노고성 #1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동쪽에서)
- [사진 37] 노고성 #1 지점 외부 모습(동쪽에서)
- [사진 38] 노고성 #2 지점 외부 모습(안에서 밖으로)
- [사진 39] 노고성 #2~#3 지점 사이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40] 노고성 #2~#3 지점 사이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41] 노고성 #3 지점 잔존 성벽 모습(북쪽에서)
- [사진 42] 노고성 #4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43] 노고성 #5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44] 노고성 #5 지점 성벽 외부 모습(북쪽에서)
- [사진 45] 노고성 #5 지점 내부 내환도 모습(남쪽에서)
- [사진 46] 노고성 #6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47] 노고성 #7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48] 노고성 #7 지점 내부 평탄지 및 남북 구분 석축 붕괴 모습
- [사진 49] 노고성 #7 지점 내부 남북 구분 석축 붕괴 모습
- [사진 50] 노고성 #8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51] 노고성 #9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52] 노고성 #9 지점 내외결축 성벽 모습
- [사진 53] 노고성 #10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54] 노고성 #10 지점 내외겹축 모습
- [사진 55] 노고성 #11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56] 노고성 #8~#11 지점 사이 외부 성벽 모습(북쪽에서)
- [사진 57] 노고성 #8~#11 지점 사이 외부 성벽 모습(남쪽에서)

- [사진 58] 노고성 #11 지점 내부 성내 평탄지 모습(북쪽에서)
- [사진 59] 노고성 #12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60] 노고성 #13 지점 내외겹축 성벽 모습
- [사진 61] 노고성 #13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62] 노고성 #14 지점 내외겹축 성벽 모습
- [사진 63] 노고성 #14 지점 외부 토루 모습(안에서 밖으로)
- [사진 64] 노고성 #15~#17지점 사이 성벽 모습(남쪽에서)
- [사진 65] 노고성 #15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66] 노고성 #16 지점 내외겹축 성벽 모습
- [사진 67] 노고성 #16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68] 노고성 #17 지점 내외겹축 성벽 모습
- [사진 69] 노고성 #17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70] 노고성 #18~#19지점 사이 성벽 모습(북쪽에서)
- [사진 71] 노고성 #18 지점 내외겹축 성벽 모습
- [사진 72] 노고성 #18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73] 노고성 #18 지점 남북 구분 석축 모습
- [사진 74] 노고성 #19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근경)
- [사진 75] 노고성 #19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원경)
- [사진 76] 노고성 #19 지점 성벽 및 내부 모습(남쪽에서)
- [사진 77] 노고성 #20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북서쪽에서)
- [사진 78] 노고성 #20 지점 성벽 내부(헬리포트) 모습
- [사진 79] 노고성 #21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80] 노고성 #1~#21 지점 사이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81] 노고성 수슙 토기류
- [사진 82] 노고성 수습 토기류
- [사진 83] 영동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보개산성 모습
- [사진 84] 유방동 윗버드실에서 바라본 보개산성 모습
- [사진 85] 영동고속도로 마성인터체인지에서 바라본 보개산성 모습
- [사진 86] 중리에서 바라본 보개산성 모습
- [사진 87] 봉수대 남쪽에서 바라본 보개산성 서벽 모습
- [사진 88] 보개산성 #1 지점 내부 헬리포트 모습
- [사진 89] 보개산성 #2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90] 보개산성 #3 지점 성벽 상부 및 내부 모습
- [사진 91] 보개산성 #3 지점 성벽 외부 모습
- [사진 92] 보개산성 #4 지점 성벽 위 모습(서쪽에서)
- [사진 93] 보개산성 #4~#5 지점 사이 성벽 모습(동쪽에서)
- [사진 94] 보개산성 #5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95] 보개산성 #5~#6지점 사이 성벽 모습(서쪽에서)
- [사진 96] 보개산성 #6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97] 보개산성 #7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98] 보개산성 #8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99] 보개산성 #8~#9 지점 사이 성벽 모습
- [사진 100] 보개산성 #9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01] 보개산성 #10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02] 보개산성 #9~#11 지점 사이 성벽 모습
- [사진 103] 보개산성 #11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04] 보개산성 #12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05] 보개산성 #13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06] 보개산성 #11~#13 지점 내부 평탄지 모습(북쪽에서)
- [사진 107] 보개산성 #14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08] 보개산성 #15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09] 보개산성 #14~#15 지점 내부 평탄지 모습(남서쪽에서)
- [사진 110] 보개산성 #16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11] 보개산성 #16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12] 보개산성 #I5~#16 지점 사이 내외겹축 성벽 모습
- [사진 113] 보개산성 동문지 모습(안에서)
- [사진 114] 보개산성 동문지 모습(밖에서)
- [사진 115] 보개산성 동문지 서쪽 측벽 모습
- [사진 116] 보개산성 동문지 동쪽 측벽 모습
- [사진 117] 보개산성 동문지 내부 평탄지 모습
- [사진 118] 보개산성 동문지 위쪽 통화사 전경
- 「사진 119] 보개산성 #19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20] 보개산성 #20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21] 보개산성 동문지~#20 지점 사이 성벽 모습

- [사진 122] 보개산성 #22 지점(곡성)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23] 보개산성 곡성부 서측 성벽 모습(서쪽에서)
- [사진 124] 보개산성 곡성~#23 지점 사이 성벽 모습 🕛
- [사진 125] 보개산성 #24 지점 외부 성벽 모습
- [사진 126] 보개산성 #24 지점 내부 조광조 사당 모습
- [사진 127] 보개산성 #25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28] 보개산성 #26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29] 보개산성 #27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30] 보개산성 #27~#29(남암문지) 사이 성벽 모습(남쪽에서)
- [사진 131] 보개산성 #28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32] 보개산성 #28~#29지점 사이 성벽 모습(북쪽에서)
- [사진 133] 보개산성 #29(남암문지) 지점 내부 계단 모습
- [사진 134] 보개산성 #29(남암문지) 모습(밖에서)
- [사진 135] 보개산성 #29(남암문지) 모습(안에서)
- [사진 136] 보개산성 #30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37] 보개산성 #29~#30 지점 사이 성벽 모습(남쪽에서)
- [사진 138] 보개산성 #31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39] 보개산성 #30~#31 지점 사이 남문지(?) 외부 모습(동쪽에서)
- [사진 140] 보개산성 #31 지점 돌확 모습
- [사진 141] 보개산성 #32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42] 보개산성 #33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43] 보개산성 군부대내 곡성부 위쪽 잔존 성벽 모습
- [사진 144] 보개산성 봉수대터 모습
- [사진 145] 보개산성 봉수대터 동측벽 모습
- [사진 146] 보개산성 봉수대터 서측벽 및 내부 모습
- [사진 147] 보개산성 봉수대터 남측벽 모습
- [사진 148] 보개산성 북쪽 정상부 건물지 모습
- [사진 149] 보개산성 북쪽 정상부 건물지 석축 기단 모습
- [사진 150] 보개산성 북쪽 정상부 건물지 초석 모습
- [사진 151] 보개산성 내 건물지 석축 기단 모습
- [사진 152]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 구연부편)
- [사진 153]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 구연부편)

- [사진 154]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 저부편)
- [사진 155]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 저부편)
- [사진 156]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 저부편)
- [사진 157]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 동체부편ㆍ파수부편)
- [사진 158]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편)
- [사진 159]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편)
- [사진 160] 보개산성 수숩 유물(토기편)
- [사진 161]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편)
- [사진 162]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 [사진 163]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 [사진 164]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 [사진 165]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 [사진 166]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 [사진 167] 보개산성 수숩 수키와편(이면)
- [사진 168]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 [사진 169]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 [사진 170]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 [사진 171]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 [사진 172]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 [사진 173]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 [사진 174]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 [사진 175]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 [사진 176]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 [사진 177]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 [사진 178] 보개산성 수습 명문와편(배면)
- [사진 179] 보개산성 수습 명문와편(이면)
- [사진 180]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 [사진 181]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 [사진 182]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 [사진 183]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 [사진 184]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 [사진 185] 보개산성 수숩 암키와편(이면)

- [사진 186]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 [사진 187]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 [사진 188] 보개산성 수숩 암키와편(배면)
- [사진 189]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 [사진 190]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 [사진 191] 보개산성 수슙 암키와편(이면)
- [사진 192]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 [사진 193]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 [사진 194]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 [사진 195]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 [사진 196]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 [사진 197]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 [사진 198]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 [사진 199]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 [사진 200]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 [사진 201]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 [사진 202]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 [사진 203]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 [사진 204]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 [사진 205]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 [사진 206]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 [사진 207]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 [사진 208] 보개산성 수습 전
- [사진 209] 보개산성 수습 자기류
- [사진 210] 보개산성 수습 자기류

1. 조 사 경 위

1996년 6월에 용인시에서는 "고려시대의 용인"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학술회의를 가졌다. 이 학술회의는 용인시와 용인문화원에서 주관·주최하여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용인시 문예회관 다목적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학술회의의 한 커다란 주제는 1232년에 용인 처인성에서 있었던 몽고 침략군과 고려의 한 지방민과의 싸움에서 침략군의원수인 살리타이를 전사시킨 사실에 대한 고증이었다. 이 학술회의의 결과는 『고려시대의용인』(용인시사총서 1,용인시·용인문화원,1998.12,학연문화사)으로 출간되었다.

이러한 학술회의의 결과, 이제까지 크게 주목하지 못한 역사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은 용인시 주민들의 여론으로 형성되어, 용인지역에 남아있는 중요한 문화유적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하나의 분야가 용인시에 남아 있는 옛 성터에 대한 지표조사였다.

용인시에서는 이러한 조사의 필요성을 곧바로 인식하고 조사 사업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용인시에 소재한 중요한 성터들인 처인성터·보개산성터(석성산성)·노고성터(할미성)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조사는 전문적인 학술적 조사이니만큼, 이 방면에 대한 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내외에 객관적인 학술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연구 기관을 물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맡기로 하였으며, 용인시와 용인문화원, 그리고 이 지역의 향토문화연구 모임과 그에 관계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온 분들이 조사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번의 조사는 1998년 11월에 시작하여 1999년 2월까지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우선 약보 고로 한 후, 조사 사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내외의 학계에 널리 알리도록 계획되었다.

이번 조사는 다음과 같은 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조 사 단 장 : 박 선 주(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전 중원문화연구소장)

책임조사원 : 차 용 걸(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 사 위 원 : 양 기 석(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현 중원문화연구소장)

신 호 철(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심 광 주(한국토지공사 문화재담당실장)

정 양 화(전 용인상고 국사교사)

조 사 원 : 노 병 식(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원)

박 중 균(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 충북대학교 강사)

한 병 길(충북대학교 대학원생)

조사보조원 : 조 순 홈(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우 철 균(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윤 대 식(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김 용 대(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조 록 주(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2년)

최 관 호(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2년)

이 조사는 당초 處仁城에 대한 실측과 유물의 정리를 차용걸의 지도 아래 노병식, 박중균이 실시한 것을 토대로, 다시 단면실측 등의 작업을 조순홈과 윤대식이 담당하였다. 1998년 가을부터 1999년 3월에 이르기까지 노고성과 보개산성을 주로 실측하고, 유물정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차용걸의 지도 아래 조순홈, 윤대식, 우철균 등이 참여하여 고생을 하였다. 현장 사진의 촬영은 조순홈이 주로 하고, 도면의 정리는 조순홈, 윤대식이 주로 하였다. 원고의 정리는 유구에 대하여는 차용걸이 하였으나, 유물의 설명은 노병식과 조순홈, 윤대식 등이 작성한 것을 최종 수정하였다. 최종 사진의 편집에 이르기까지 고생을 아끼지 않은 조사원, 조사보조원들에 대하여 그리고 용인시의 양정석 전문위원의 끈질긴 성원에 새삼감사드린다.

2. 조사 대상 성터와 조사 방법

이번 조사의 대상은 용인시에 소재하면서 기왕에 문헌상 알려진 3개의 성터이다. 처인성 (處仁城)·보개산성(實蓋山城: 石城山城)·노고성(老姑城: 할미성)의 3개의 성터로서 이들에 대한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처인성과 보개산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확실한 기록이 있다.

- 1) 처인성(處仁城)
- ○『新增東國輿地勝覽』卷 10 龍仁縣 古跡

在縣南二十五里 土築 今盡頹廢 有軍倉 〇高麗高宗時 遷都江華 元帝怒 遺兵問狀 元帥撒 罗繁御史雜端薛愼於軍中 到松京 將渡江南下 愼謂撒歹曰 國諺有之 異國大官渡南江者不吉 撒 夕不聽 抵漢陽山城拔之 次至處仁城 爲流矢所中而死 元兵回到松京 謂愼有知識 遣入江華

- ○『京畿誌』 在縣二十五里 土築 今盡頹廢 有軍倉 今無 ○高麗高宗時…
- 〇『增補東國文獻備考』卷 26 輿地考 14 關防 2 城郭 處仁山城 在南二十五里 土築 今皆廢
- ○『大東地志』卷 4 龍仁 城池 處仁古城 土築周三里
- 2) 보개신성(寶蓋山城: 石城山城)
- ○『世宗實錄』卷 148 地理志 京畿 龍仁縣 寶盖山石城 在縣東 高險 周回九百四十二步 內有小井 遇旱則渴 烽火一處 石城 在縣東 東准竹山巾之山 北准廣州穿川山
- ○『新增東國輿地勝譼』 券 10 龍仁縣

山川

寶盖山 在縣東十三里

烽隊

寶盖山烽燧 東應竹山縣中之山 北應廣州穿川峴 古跡

寶盖山城 石築 周二千五百二十九尺 今皆頹圯

- ○『増補東國文獻備考』卷 26 興地考 14 關防 2 城郭 寶盖山城 石築 周二千五百二十九尺
- ○『大東地志』卷 4 龍仁

山水

寶盖山 一云石城山 東十三里

城池

寶盖山古城 俗稱姑城 地形險要 且在直路之衝 右控秃城 左連南漢城 周二千五百二十九尺 烽燧

石城山 古城內

이와 같이 기록에 보이는 처인성과 보개산성(석성산성)은 오늘날의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에 소재한 처인성터와, 용인시 포곡면 유방리와 모현면 마성리, 구성면 중리의 경계를 이루는 석성산에 있는 산성터가 거의 확실하다.

할미성으로 알려진 성터는 현재 구성면 동백리(東柏里)와 모현면 가실리, 포곡면 마성리와의 경계를 이루는 산위에 있다. 현재의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을 중심하여 북측 산상의 것이 할미성이며, 남측 산상의 것이 보개산성(석성산성)이다.

지리지에는 고모성과 선장산성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 3) 고모성(姑母城 : 할미성)
- ○『增補東國文獻備考』卷 26 輿地考 14 關防 2 城郭 〈補〉姑母城 備局謄錄 並有廢城
- 4) 선장산성(禪長山城)
- ○『大東地志』卷 4 龍仁

山水

禪長山 東北十五里

城池

禪長山古城 有遺址

이러한 기록과 근대 이래의 용인시 지역에 대한 성곽의 기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제시대의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서는 용인의 성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하였다.

- (番號) 19 (種別) 城址 (場所) 浦谷面 麻城里·邑三面 東柏里 (所有)老姑城址・國有林 (摘要) 石壘 周圍約 400間 全部 崩壞되고, 高麗 때 한 늙은 할미가 있어 하룻밤에 築造하였다는 데서 이름하여 老姑城이라 함. (備考) 乙種要存豫定林野
- (番號) 20 (種別) 城址(場所) 水餘面 柳防里·浦谷面 麻城里·邑三面 中里(所有) 石城山城址·國有林(摘要) 石壘 周圍約 700間 水餘面에 屬한 部分은 제법 完全 다른 곳곳 은 形迹만 남김 石城山城이라 함.(備考) 乙種要存豫定林野
- (番號) 22 (種別) 城址 (場所) 南四面 衙谷里 (所有) 土木局所管 (摘要) 處仁縣 廢址 라 하며 土築 높이 1間半 내지 2間 周圍 約 240間 곳곳이 崩壊됨. (備考) 大正 6年 月 日 土木局에 圓面 引機
- (番號) 27 (種別) 城址 (場所) 邑三面 寶亭里·水枝面 豊德川里里 (所有) 豊德川陣址 ・國有林 (摘要) 丘陵上의 땅을 고른 것인데 둘레 약 50間 豊德川陣址라 부르며 壬辰亂 때 日本軍이 쌓은 바라 함. (備考) 乙種要存豫定林野

위의 기록에서 번호 19는 오늘날의 할미성(고모성)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번호 20은 곧 보개산성(석성산성), 번호 22는 처인성에 해당되고, 번호 27은 수지면과 구성면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최근에 경기도 박물관에 의하여 발굴조사 된 예진산(芮陳山)의 유적을 말하는 것이다.

5) 조사 방법

용인시 소재의 성터들에 대한 전면적인 분포의 조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성터들에 대한 조사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만 이미 알려진 대표적인 성터에 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따라서 할미성(노고

성)과 보개산성(석성산성) 및 처인성에 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알려고 노력하였다.

조사는 첫째로 평면 실측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벽 위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다음으로는 측량을 위하여 일정한 좌표를 설정하고 구획마다 일일이 성벽의 잔존상태를 확인하면서 평판 실측을 하였다.

평판 실촉에 이어서 성벽이 남아 있거나, 문터가 확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평판 측량을 하고,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는 성벽의 단면 상황을 측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지점별 지표상의 유물을 채집하고, 주요 부분에 대하여 촬영을 실시하였다.

석성산의 경우에는 일부 구간이 군사시설로 말미암아 실측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허가를 얻어 현황을 스케치하였으며, 대신에 석성산의 봉수지를 확인하고 실측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현행의 지도를 활용하여 등고선상에 성벽의 통과지점을 표시하고, 유물은 지역별로 대표성을 가진 것을 위주로 정리하여 도면화하였다.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은 현장에서의 기록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성벽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아직 우리나라 성곽에 대한 개설이 없는 관계로 일정한 방향을 미리 정하고 설명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구분되는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3. 성터들의 위치와 주변 환경

용인시는 1996년 3월 1일자로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되었다. 과거의 용인군은 조선시대의 용인현(龍仁縣)을 1895년에 군으로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의 용인현은 고려시대의 용구현(龍駒縣)과 처인현(處仁縣 : 당초 수원 소속의 部曲이었음)을 합한 것이라 한다.

고려시대의 용구현은 본디 高句麗의 땅으로 구성현(駒城縣) 혹은 멸오(滅鳥)라 하던 것을 신라 경덕왕 때 거서(互黍)로 고쳐진 것이 고려 초기에 바뀐 이름이라 한다.

이곳의 세거 성씨는 따라서 용인의 진(秦)·이(李)·송(宋)·용(龍)·엄(嚴)의 5개 성씨와, 처인을 본관으로 하는 이(李)·서(徐)·지(池)·섭(葉)·김(金)·강(康)의 6개 성씨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1)

용인은 동쪽으로 양지(陽智)까지 25리, 서쪽으로는 수원까지 13리, 남으로는 양성(陽城)까지 50리, 북으로는 광주(廣州)까지 15리가 되는 범위를 관할하였으며, 서울까지가 65리의 거리라 하였다.²⁾

용인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하며, 조선시대에도 구홍역(駒輿驛)과 금령역(金嶺驛)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개산(寶蓋山 : 石城山)의 봉수는 추풍령과 죽령 및 조령을 넘은 봉수가 망이성(望夷城) 봉수에서 합쳐서 죽산의 건지산(巾之山) 봉수를 지나, 이곳 보개산을 거쳐 광주 천천산(穿川山 : 穿嶺山)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통신로의 통과처였다.

따라서 북쪽과 남쪽으로 통하는 교통·통신의 요로인 점에서 이미 우리나라에 성곽이 처음 발생할 시기부터도 성곽이 축조될 수 있는 곳이었다고 여겨지며, 이번에 조사한 성터들은 삼국시대 이래로 축조되어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들이라 여겨진다.

성터들이 위치한 곳은 용인의 동쪽에 2개의 산성이 있으며, 남쪽에 읍성으로서의 기능

^{1) 『}世宗實錄』地理志 및『新增東國輿地勝覽』의 龍仁縣 建治沿革과 姓氏。

^{2) 『}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이며, 서울까지의 거리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이다. 『新增東國輿地 勝覽』에서는 사방의 거리를 동쪽 양지현 경계까지 24리, 남쪽 양성현 경계까지 45리, 진위현 경계까지 45리, 서쪽으로 수원부 경계까지 16리, 북쪽 광주 경계까지 15리라 하였다.

을 가졌던 처인성이 있다. 이제 보다 자세히 이들 성터들이 위치한 곳의 지리적 위치와 성격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할미성과 보개산성의 위치

할미성과 보개산성은 현재의 용인시 북쪽에 남북으로 길다랗게 뻗은 산 위에 있다. 이산은 북쪽의 현재 성남시와 광주군의 경계를 이룬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과 그 남쪽의 금단산의 산줄기와 연결되고 있으면서, 서쪽으로 청계산·국사봉·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마주하면서 중간에 탄천(炭川)이 북류하여 한강에 유입된다.

한편 보개산의 줄기 동쪽에서는 경안천(京安川)이 북류하고 있다. 오늘날의 용인시 중심부는 경안천의 상류 물줄기인 금학천(金鶴川)·운학천(雲鶴川)·양지천(陽智川)이 합류하는 유역이며, 이 물이 북동으로 흘러 주북천(朱北川)까지 합류하여 경안천이 된다.

보개산의 서쪽에서 발원한 신갈천(新萬川)은 서남류하여 신갈저수지를 지나 오산천(烏山川)이 되며, 이 오산천은 용인의 남쪽 옛 처인과 진위 방면에서 흘러간 완장천(完庄川)과 진위천(振威川)을 합한 진위천으로 들어가 서류한다.

결국 보개산 산줄기에서 발원한 물은 크게 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나는 동북향하여 경안천이 되고, 하나는 서남류하여 오산천·진위천이 되며, 보개산의 북쪽에 있는 할미성의서쪽에서는 탄천의 물로 북류한다. 결국 보개산성은 오산천의 최상류에 해당하는 동시에 경안천과 탄천의 상류를 공제(控制)하는 위치에 해당되며, 동쪽과 서쪽으로 양쪽의 물줄기 연변에 있는 곳들을 조감하고 있다. 할미성은 세 물줄기의 상류쪽에 있으면서 안부(鞍部)를이룬 곳에 위치하고 있고, 탄천과 경안천, 오산천과 경안천을 이어주는 고개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서 방향의 교통을 통제하는 위치가 된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오늘날 경부고속도로에서 동쪽으로 분기된 영동고속도로의 가장 중요한 길목이라 할 수 있는 마성(麻城)터널이 위치한 것과도 관련된다. 할미성은 마성터널의 북축에 있으며, 보개산성은 마성터널의 남쪽에 있다.3)[도면 1·17·33]

2) 처인성터의 위치

처인성은 옛 처인현이 있었던 지역으로 현재의 용인시 남사면 아곡2리 산 43번지 일대이

³⁾ 최근에 간행된『駒城面誌』(1998.11, 용인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516~520쪽에서는 보개산성을 소개하면서 할미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성은 말머리 형태를 나타내 보이고, 마고선인 (魔姑仙人)이라는 할머니가 쌓았다고하여 노고성(老姑城), 할미성, 또는 마성(魔城), 할미산성(豁未山城:『대동야승』제8권 9541)등으로 호칭되어 내려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기록에 나타난 보개산성이 곧 할미성으로 보고 있다. 이는 보개산성과 할미성이 별도의 것임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다. 현재의 용인시 남사면은 본래 처인현의 지역으로 용구현과 합쳐 용인현이 된 뒤에는 용인군 현내면이 되어 아곡을 비롯하여 남산(南山)·매능(梅陵)·완장(完庄)·창동(倉洞)·월곡(月谷)·방축(防築)의 7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남촌면·서촌면·도촌면과 진위군 일북면 일부를 합하여 남사면이 성립된 것이며, 통삼(通三)·봉명(鳳鳴)·북(北)·봉무(鳳舞)·진목(眞木)·원압(元岩)·전궁(全宮)·방아(防牙·완장(完庄)·창(倉) 및 아곡리로 된 것이다.4) 아곡리는 본래 처인현의 치소였고, 처인현의 관아가 있었으므로 처인골·관아(官衙)골·아골 또는 아동(衙洞)·아곡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남산동(南山洞)을 합쳐 아곡리가 되고 남사면에 편입되었다.5)

성터는 아곡 2리의 남쪽 입구를 이루는 해발 70.9m가 되는 낮은 구릉의 선단(先端)부에 있으며, 주변이 묘지와 도로 및 전답으로 둘러 싸여 있어서 약 2km의 범위에서 멀리 바라다 보아도 표시가 난다. 현행 지도(1:5,000 지형도 용인 047, 도엽번호 nj52-9-26-047)에는 고적 표시 ::를 하고 處仁城이라 표기하고 있다.

성이 위치한 곳의 바로 북쪽은 "성들" "안터골" "아곡"이 있고, 동북쪽에 역시 :표를 한 곳이 "사장터"로 표시되어 있다.

처인성터가 있는 능선은 서북쪽으로 형제봉(兄弟峰, 93.7m)에서 鞍部를 지난 곳이며, 형제봉의 서북 鞍部는 "후리고개"이다. 이 후리고개의 북쪽인 아곡 2리에는 풍목골과 뒷골이란 작은 골짜기가 있으며, 이 고개의 서남쪽은 고새울골이다. 이 고새울골의 하류가 안터골이며, 이 안터골이 처인성터의 남동쪽이다. 처인성의 동쪽으로는 파태들이라 불리는 전답이완장천의 서쪽에 남북으로 길다랗게 충적 평야를 이루고 있다.[도면 1·3·6]

3) 성터들 주변의 고고학적 환경

용인시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서울대학 교 박물관에 의하여 많은 유적지가 알려졌다.⁶⁾

처인성 주변의 경우에는 이에 의하면, 봉무리 도장골은 구석기시대 유적과 청동기시대 유적, 절터가 있는 것으로 주목되고, 봉무리 외기부락에서는 옹관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발견된 바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궁리 26번지 언덕의 통일신라시대 도요지, 창리의 선돌 1기와 마제석검이 발견된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 이 밖에는 거의 조선시기에 해당하는 자기류 산포지가 대부분이다.7)

^{4) 『}龍仁郡誌』(1990, 龍仁郡誌編纂委員會) 1173~1174零

⁵⁾ 앞의 책, 1178쪽.

⁶⁾ 국립중앙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新岩里』I, 부록 1. 용인군 지표조사(권오영, 한봉규, 1988) 서울大學校博物館·龍仁市『龍仁市의 文化遺蹟』-용인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崔夢龍·李憲宗・吳世筵(1996).

이러한 유적지의 분포는 적어도 청동기시대 이래 이 지역의 구룡지대에는 마제석기와 무 문토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들의 계승자 들이 삼국시대 이후, 특히 통일신라 시기에 일정한 생산 기반을 가지고 그릇을 생산하는 전 문적 업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일부가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9 세기까지 소급될 수 있는 고려 자기의 생산이 이 지역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들은 이어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기 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할미성과 보개산성이 있는 지역은 우선 포곡면 신원리 48번지의 선돌 2기와 유운리 출토의 돌검이 알려져 있고, 모현면 지역은 초부리 85-89번지 산중턱에서 세형동검의 거푸집과고인돌 2기가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왕산리 498번지에도 북방식의 고인돌 2기가 알려져 있다. 구성면 상하리 387번지에도 고인돌 2기가 있으며, 보정리 연원부락의 야산에서는 돌도끼가 출토된 바 있다. 한편 麻城里에서 고려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이 1972년에 나온바 있고, 구성면 麻北里 520-9번지에서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된 바 있다. 東柘里의 어정초등학교 뒷편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토기편들이 수습되고, 용인읍 마평리 574-62번지와 운학리 190번지에는 돌무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돌방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북동 혹은 柳防洞 구성부락의 석실분 등은 이 지역이 삼국시대 이래의 유적이 조밀하게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4) 성터들 주변의 역사적 환경

할미성과 보개산성은 옛 용인현의 치소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으며, 처인성터는 옛 처인현, 혹은 처인 부곡의 치소였다고 여겨진다.[도면 2]

할미성과 보개산성이 있는 용인현의 지역은 본디 고구려의 땅이라 기록되어 있다. 즉, 『三國史記』권 35, 雜志 제 4, 地理 2에서

漢州 本高句麗漢山郡 新羅取之 景德王改爲漢州 今廣州 領縣二 黃武縣 本高句麗南川縣 新羅幷之 眞興王爲州 置軍主 景德王改名 今利川縣 巨黍縣 本高句麗駒城縣 景德王改名 今龍駒縣

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 이남을 점령한 이후부터 고려시대 전기까지의 역사적 연혁이 그러하다는 것이며, 같은 책의 잡지 제 6, 지리 4, 고구려에서는

⁷⁾ 앞의 책, 65~74쪽.

라고 하였다. 이 기록이 기준이 되어, 이후의 지리지에서는 고려 이후, 조선 초기까지의 연혁을 기록하고 있다. 즉,『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龍仁縣 龍駒縣 本高句麗駒城縣 新羅改名巨黍 為漢州領縣 高麗改為龍駒縣 顯宗戊午 仍屬廣州任內明宗壬辰 始置監務 後陞為令

處仁縣 本屬水原為部曲 顯宗戊午 已有此名 本朝太祖丁丑 始置令 太宗癸巳 倂二縣 號龍仁

이라 하였다. 즉 고려 현종 9년(1018 戊午)에 전의 영속관계대로 광주에 소속되었던 龍駒縣은 고려 명종 2년(1172 壬辰)에는 監務가 되어 수령이 중앙에서 파견되었고, 뒤에 縣令으로 승격되었다. 처인은 수원에 소속된 부곡으로 이미 1018년 이전부터 존속되었고, 조선 태조 6년(1397 丁丑)에 처음으로 현령을 두었으나, 태종 13년(1413 癸巳)에 용구현과 처인현율합하여 용구의 첫글자와 처인의 뒷글자를 합하여 용인현이라 이름한 것이다.

『高麗史』 권 56, 志 10, 地理 1에 의하면 楊廣道는 본디 高句麗와 百濟의 땅이라 하고, 細注로 한강 이북은 고구려이고, 이남은 백제의 땅으로 파악하고 있다. 高麗 成宗 14년(995 乙未)에 전국을 10道로 나눌 때 楊州와 廣州 지역의 州縣을 關內道라 하였다가, 睿宗 원년(1106 丙戌)에 楊廣忠淸州道가 되고, 다시 明宗 원년(1171 辛卯)에 나뉘고, 忠肅王 원년(1332 壬申)에 양광도, 恭愍王 5년(1356 丙申)에 충청도라 하였다. 용구현은 고려시대에는 대략 廣州 소속의 현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인의 가장 오랜 이름은 滅鳥와 駒城이라 할 수 있다. 滅鳥는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滅은 '亡'이나 '絶', 혹은 '除'와 같은 의미의 한자로 '用大師日滅 滅不言入 取其國日滅 滅者亡國之善辭也'라 하였고, 鳥는 우리말의 까마귀를 말하며, 태양의 가운데에 있다는 三足鳥를 의미하기도 한다.

駒城一巨黍의 경우에는 駒가 2살된 말(馬), 혹은 높이 5자 되는 말의 의미로 새끼 말, 즉 망아지를 의미한다. 巨는 規와 鉅로 定規(자)와 크다의 의미를 가진 글자이고, 黍는 5곡의 하나로 수숙을 말한다. 이러한 이름은 어떤 일정한 의미의 우리말을 한자화한 것이라 여겨지나, 아직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실정이다.

滅鳥에 대하여 음운학적 해석은 말(馬)의 옛 어형을 표기한 것으로 보거나, 駒가 말아지, 망아지이므로 마루(宗)의 뜻을 표기하였고, 大의 뜻에 말이 있는 것과 巨黍의 臣도 함께 풀이하여 '大城'의 뜻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8) 이 지역의 연혁과 유래에 대하여는 百濟 초기

⁸⁾ 용인군지편찬위원회, 『용인군지』(1990, 용인군) 2~3쪽.

의 기록인 온조왕 때에 나타나는 마수성(馬首城)이 곧 할미성일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 이에 의하면 성의 평면형태가 말머리 모양이라는 점과, 할미성으로 불리는 것은 마수성이 마성으로 마고선인이 쌓았다는 전설에 따라 마고성으로 불리다가 의역되어 할미성이 된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다. 駒城의 어원을 큰성(대성) 또는 마라재(높은 곳)라는 의미로 풀이하고, 滅鳥도 우리 고어의 크다는 뜻의 "마라", "말아"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말(馬)나 말아(駒)의 뜻으로 쓴 것으로 보며, 전해지는 속설인 "고구려의 원정군이 패주하는 백제군을 수 없이 격멸시켰는데, 그 시체가 마치 떼죽음한 까마귀떼와 같았다고하여 멸오라고 하였다"라는 전설을 인용하고 있다. 이 지명을 지금의 구 용인읍 삼가리의 속지명인 멱조현(質 配峴)이 아닐까 하고 유추하기도 한다.9)

^{9) 『}駒城面誌』(1998, 용인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77~79쪽, 주 3,4,5.

4. 처인성(處仁城)

1) 역사적 배경

오늘날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아곡 2리 산43번지 일대에 소재한 처인성(處仁城)터에 대하여는 그간 면밀한 조사와 고찰이 진행되지 못한채, 고려(高麗) 고종(高宗)때에 몽고족의침입과 관련한 승첩(勝捷)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고려때의 이 성이 무슨 이유로 축조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형태와 구조로 되어 있었는가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 이민족(異民族)이 침입하여 오면 그에 대항하여 항쟁(抗爭)하였던 성터들이 거의 산성이 위주가 되었던 것이 보통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직 이 처인성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와 그때 활약한 인물들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그저 평면적 역사기술에 의존하여 이해하는 피상적 역사인식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인성에 대한 지표조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업이다.

처인성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에 역사를 정리한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① 『고려사』 권23 세가 23 고종 2 고종 19년 12월

撒禮塔攻處仁城 有一僧避兵在城中 射殺之 答東眞書曰…至今年十二月十六日 水州屬邑處仁 部曲之小城 方與對戰 射中魁帥撒禮塔殺之 俘虜亦多 餘衆潰散…

②『고려사절요』권16 고종 19년 9월

三軍平忠州而還…○撒禮塔攻處仁城 有一僧避兵在城中 射殺撒禮塔 國家嘉其功 授上將軍 僧讓功于人曰 當戰時 吾無弓箭 豈敢虚受重賞 固辭不受乃拜攝郎將 僧卽金允侯也

③ 『고려사』 권103 열전 16 김윤후

金允侯 高宗時人 當爲僧 佳白峴院 蒙古兵至 允侯避亂于處仁城 蒙古元帥撒禮塔來攻城 允

侯射殺之 王嘉其功 授上將軍 允侯讓功于人曰 當戰時 吾無弓箭 豈敢虚受重賞 固避不受 乃改 攝郎將 後為忠州山城防護別監 蒙古兵來團州城凡七十餘日 糧儲幾盡 允侯諭瓜士卒曰 若能效 力 無貴賤悉除官爵 爾無不信 遂取官奴簿籍焚之 又分與所獲牛馬 人皆效死赴敵 蒙古兵稍挫 遂不復南 以功拜監門衛上將軍 其餘有軍功者至官奴白丁亦賜爵有差 出為東北面兵馬使 時東北 面已沒於蒙古 故不赴 官至守司空右僕射致仕

우리측의 사료가 이와 같은데 대하여 『원사(元史)』와 『신원사(新元史)』 및 『원고려기사 (元高麗紀事)』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①『원사』 권2 본기 태종 4년 8월 撤禮塔 復征高麗 中失卒
- ①『원사』권208 열전 95 외이 1 고려撒里塔攻高麗處仁城 中流失卒 別將鐵哥引兵還
- ©『신원사』권249 열전 146 외국1 고려 (太宗四年) 是年 札剌赤兒台 攻處仁城 有一僧避兵城內 射殺之

② 『원고려기사』

(太宗皇帝)四年壬辰 八月 降旨 復遺撒里塔火里赤 領兵討之 至王京南處仁城攻擊 撒里塔火 里赤 中流失卒 別將鐵哥火里赤領兵回

이라한 기록으로 보아 처인성에서의 싸움은 서기 1232년 8월에 몽고 태종의 명령으로 침략이 단행되어, 그해 12월 16일에 전투가 있었음과 처인성은 수주(水州: 지금의 수원과 그부근) 소속의 처인부곡(處仁部曲)에 있었던 소규모의 성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외교문서로서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이 싸움에서 고려는 상당수의 몽고군을포로로 획득하였다고 여겨진다.(사료 ①의 俘虜亦多 餘重演散) 처인부곡의 성이라면 그것은처인부곡의 치소가 있는 옵성(邑城)의 성격을 가진 것이며, 동시에 당시 주변의 백성들이이 작은 성으로 피난하여 여러 사람들이 성안에서 싸움에 참가하였다고 여겨진다. 김윤후는이곳에 모여든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인물이며, 그의 신망은 그의 천성이 신분을 초월하여 백성들을 단결시킨 것으로 잘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처인성터에 대하여는 지리지에 기록되어 나타나 있다. 처인(處仁)이

란 땅이름에 대하여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지리지에서는 고려 현종(顯宗) 9년에 이미 이러한 이름이 있었다고 하였을 뿐이나¹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에서는 고적(古跡)에서 처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在縣南二十五里 土築 今盡頹廢 有軍倉 〇高麗高宗時 遷都江華 元帝怒 遣兵問狀 元帥撒歹絷御史雜 端薛愼於軍中 到松京 將渡江南下 愼謂撒歹曰 國諺有之 異國大官渡南江者不吉 撒歹不聽 抵漢陽山城拔 之 次至處仁城 為流矢所中而死 元兵回到松京 謂愼有知識 遣入江華

이러한 기록은 처인성의 축조재료가 토축(土築)인 점과 조선왕조의 전기에는 이미 성벽이 많이 퇴락하여 폐하였겠으나, 군창(軍倉)이 있었음을 전하고, 김윤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설신(薛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왔음을 알려준다.

1882~1843년경의 『경기지(京畿誌)』에서는 처인성에 대하여

在縣二十五里 土築 今盡頹廢 有軍倉 今無 〇高麗高宗時…

라하여 처음으로 군창이 이미 없어졌음을 밝히고 있으며, 『신중동국여지승람』에서 기록된 전고(典故)를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처인성에 대한 기록은 1860년대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있어서는 처인고성(處仁古城) 이라하여 토축(土築)이고 둘레가 3리라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기록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불명이지만 성의 규모가 3리라고 하였음을 주목할만하다.

2) 처인성터의 위치와 주변환경

오늘날 처인성은 용인시 남사면 아곡 2리의 마을 입구 구릉상에 남아있다. 이곳은 북쪽이 "성들"이라 불리는 전답지대이고, 안쪽으로 아곡동 마을이 있다. 이 아곡동 마을은 서쪽과 동쪽에 낮은 구릉이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아곡동 마을의 북서쪽으로는 함봉산(咸峰山: 해발 306m)에서 화성산(華成山: 해발 171.4m)에 이르는 산줄기이고, 거기서 낮아진 구릉 가운데 하나가 처인성이 위치한 곳이고, 그 북쪽의 것이 "사장터"라 불리는 구릉으로, 이 두 구릉 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 200m 쯤이다.[도면 3, 사진 1・21・22]

이곳을 중심하여 교통로를 살펴 보면, 남북 교통로의 한편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10)『}世宗實錄』卷 148 地理志 京畿 龍仁縣에서 處仁縣 本屬水原為部曲 顯宗戊午 已有是名 本朝太祖丁 丑 置置令 太宗癸巳 並二縣 號龍仁이라 하였다.

다. 옛 교통로에 대하여 『청구도(靑丘圖)』에서는 용인에서 남으로 구흥역(駒興驛)을 지나수유현(水踰峴)에서 길이 두갈래로 나뉘어 동쪽 길이 곧바로 안성(安城)으로 그려지고, 서쪽 길은 고처인현성(古處仁縣城)을 지나 양성(陽城)으로 이어져 있다.11) 그러나 『여지도서 (輿地圖書)』의 용인현 도로에서는

- ① 自官門東距陽智縣界 大路三十里
- ② 自官門南距陽城縣界 中路五十里
- ③ 自官門西南間距振威縣界 大路三十里
- ④ 自官門西北間距廣州府界 大路十五里

라고 하였고, 지도에는 수유현(水踰縣)에서 갈려 화곡산(花谷山)의 서쪽을 통과하는 결과, 보다 남하하여 화곡산의 동쪽에서 서향한 길이 처인창(處仁倉)에 이르기 전에 합쳐서 냇물의 북쪽으로 서남향하고 있는 길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도로망을 현재로는 용인에서 남쪽의 무네미고개(水踰峴)를 넘어 용인시 동면천리(泉里)에 이르러 서남향하는 길과, 더욱 남항하여 덕성리(德城里)에서 달봉산(達峰山)의 북쪽으로 넘어 완장리(完庄里) 상동으로 넘거나, 화산리(華山里)와 송전리(松田里)에 이르러 "안어고개"를 넘어 서쪽의 창리(倉里)로 넘는 길을 표시한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진위천(振威川)을 따라 내려오는 길과 진위천의 서쪽 지류인 완장천을 따르는 직로(直路)의 차이가 있다.

결국 처인성은 용인에서 진위(振威)나 중로(中路)로 이용되는 남북의 요충에서 수원(水原) — 오산(烏山) — 안성(安城)으로 통하는 동서로 연결되는 길과의 교착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3) 처인성터의 현상

(1) 조사의 연혁

처인성터로 전해오는 오늘날의 아곡리에 위치한 토축의 성에 대하여는 그동안 다음과 같은 조사기록이 있다.

①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서는 남사면(南四面) 아꼭리(衙谷里)에 있으며, 처인현의 폐지(廢址)라 한다고 하고, 토축으로 높이가 1間半 내지 2間, 둘레가 약 240間이며, 곳곳이 붕괴되었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비고에서 1917년에 토목국으로

^{11) 『}青邱圖』乾 17層 13版

도면을 인계하였다고 한다.

이 조사기록은 처인성의 규모를 성벽의 높이가 2.7~3.6m의 토루이고, 둘레가 432m에 가 깝다는 것이다.

- ② 『전국유적목록』에서는 길이 800m의 토성이라 하였다.
- ③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성내 면적이 약 3,000평이고, 둘레가 400m, 높이 3~5m의 토축이 남아 있고, 김윤후가 살리타이를 사살한 곳은 사장(死將)터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 ④ 『경기도백제문화유적』에서는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꼭동 마을로 들어가는 길 입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음과, 해발 72.7m의 형제봉의 한 지류의 구릉상에 만들어진 평지성으로 梯形의 토축성이고, 현재는 360m의 둘레인 점에 이어서,

"城周는 350.69m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주변보다 약간 높은 지형을 이용하여 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土壘는 削土와 版築을 병행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城壁의 높이는 475~630cm에 이르는데 지형적으로 서쪽이 동쪽보다 265cm 가량 높아 성벽도 그에 비례하여 서쪽이 동쪽보다 높다. 城壁의 內部는 段이 져 있고 그 폭은 2m이다.

門址는 동쪽에 한곳이 있는데 그 幅은 아래쪽은 70cm 위쪽은 1093cm로 원래의 상태에서 많이 무너져 내렸다. 城內部는 平地이고 동서로 나뉘는 단이 형성되어 서쪽이 50cm가량 높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략의 윤곽을 도면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다.

⑤ 『한국의 성곽과 봉수』에서는 토축으로 둘레가 약 350m, 높이가 4.8~6.3m라 하였다. 대체로 앞의 것을 전재하고, 1977년 10월 12일 경기도 지방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된 것과 그후 남쪽부분의 성곽 205m가 수축된 사실만 부기하였다. 현존하는 처인성은 1979년에 남서쪽 성벽 120m를 복원하고, 1980년에 동남북 방면의 성벽 205m를 수축하였다고 한다. 이 때성곽 복원공사의 자문은 고 李瑄根 박사가 하였고, 그가 이 성이 백제때에 축성된 것이라고확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12)

이와 같은 조사기록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비적으로 이 성에 대한 얼마간의 정보를 알 수 있으나, 성벽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근대적 방법으로 최초로 조사된 기록에서 둘레를 대략이라 하더라도 240間(약432m)이라 하였고,

^{12) 『}駒城面誌』(1998, 용인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83쪽의 주 9.

또 그에 대한 圖面이 작성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의 것이 곧 당시의 성벽 규모와 같은 것인지에 의문이 간다. 한편으로는 이미 『大東地志』에서 주위가 3리라는 기록이 있었으며, 문화공보부에서 발행한 기록에서 둘레를 800m, 혹은 400m로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는 점도 석연치 않다. 한편으로는 이 성이 과연 고려시기에 사용한 성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물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의문을 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다시 이 성에 대하여 간단한 실측을 하고, 유물을 수습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2) 처인성터의 현존 상황

아곡리 산43번지 일대에 있는 성터에 대하여 평면도를 작성한 것이 [도면 4]와 [도면 5]이다. 도면에서 보듯이 성터는 해발 70m 남짓한 구릉의 선단부(先端部)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과의 상대고도(相對高度)가 15~20m에 불과한 나즈막한 구릉이며, 성벽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서남벽에서 북동쪽으로 낮아지는 완만한 경사면을 이용하여 토루가 마련되었다.

성벽은 전체적인 평면이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구릉의 선단쪽인 동쪽이 좁다. 서쪽 모서리의 회절부(回折部)가 서북쪽으로 구릉의 안부(鞍部)로 이어지는데, 성벽 외측 아래는 이안부가 농로로 단절되었다. 성벽 외곽의 동북방향은 아곡동 마을로 통하는 포장도로이며,이 길에서 이어진 농로가 북서쪽의 성벽 외곽을 따라 나 있고, 남동쪽으로도 성벽의 외곽아래로 농로가 나 있다. 남서쪽은 밭과 무덤구역이 있으나, 경사가 완만하여 성벽의 외곽을 한바퀴 도는데에는 지장이 없다. 서남쪽으로는 계속하여 밭과 논이 이어지면서 완만한 남향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도면 5]에서는 현재의 출입구를 정문이라 하고 서남벽의 중간부분에 후문이라하여 이 성에 두 개의 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최근 필자의 답사에서의 실측에 의한 [도면 4]에서는 이 서남벽의 후문은 자취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어느 시기인가 후문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성벽이 보수되거나, 아니면 실제의 상태와 다르게 보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제 현존하고 있는 처인성터의 각 방향의 실태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남벽[도면 8 #1·#2·도면 9 #3, 사진 6·7]

서쪽 모서리에서 남쪽 모서리까지로 성벽 상단의 길이가 82m이다. 서북쪽에서 내려오는 능선의 줄기를 따라 성벽을 축조한 것으로 여겨지며, 거의 직선을 이루고 있다. 서북벽과는 거의 직각을 이루어 꺾이고 있다. 성벽 상단은 약 2m의 너비로 길이 되었으며, 성안쪽으로 1~1.5m의 높이 차로 윗면이 내외접축의 양상을 보인다. 외측으로는 소나무와 참나무 사이로 아카시아가 무성히 자라고 있으며, 다른 벽의 외측보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기

단의 너비는 13m에서 최고 16m에 이른다. 특히 중간부위에서는 너비가 가장 넓어서 별도의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데 曲城이나 雉城의 존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서북벽과 동북벽은 이 서남벽의 양단에서 회절하면서 북동향하여 완만히 경사져내려가고 있다. 그리하여 회절부는 보다 높고 크게 곡절(曲折)하고 있어서 역시 곡성이나 치성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서북벽[도면 9 #4·도면 10 #5·6·도면 11 #7, 사진 8·9·10·11]

북쪽 모서리에서 서쪽 모서리까지 성벽 위쪽의 길이가 85m이다. 성벽 상단은 약간의 굴곡이 있으나, 대략 2~2.5m의 너비로 길처럼 되어 있고, 성안으로 겹축된 윗면이 30cm 내지 lm 정도의 높이로 성벽 윗면이 드러나 있다. 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즉 능선의 위쪽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벽의 외촉으로는 급한 경사면을 이루며 농로에 닿아 있다. 농로와 닿은 아랫부분에는 절토면이 나타나 있고, 간혹 흘러내린 기와조각과 그릇조각이 표토상에서 발견된다. 절토면은 능선을 자른 서남 모서리 외측에서 현저하며, 당초부터 이러한 절토면이 해자처럼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현상으로 판단하건대, 이 절토면은 농로의 개설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당초는 서북쪽의 능선과 이어진 위에 서남 모서리를 만들어외부와의 높이차가 크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성벽 상단에서 외측으로 농로까지의 너비가 최대 8m까지에 이른다. 성벽의 아래쪽 기초의 전체 너비는 10~15m가 된다.

③ 북동벽[도면 11 #8·도면 12 #9·#13, 사진12·13·14·15·16]

성내의 가장 낮은 지형을 이루며, 외측으로는 아곡동 마을로 통하는 포장도로와 논이 있다. 성벽의 상면에서 안쪽으로의 구획은 불분명하며, 약간의 굴곡이 있으나 대체로 동쪽에서 밖으로 흰 곡선을 이룬다. 윗면을 기준으로 길이가 126m의 구간이자만, 동쪽 모서라에가까운 곳에 통행로가 있어서 약 10m의 구간이 절개지이다. 도로면이 외측 하단부를 일부절개하고 있으며, 외측 경사면의 너비가 7~8m이다. 현재의 이 벽면이 당초의 성벽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길을 동북으로 건너면 바로 논으로 되어 있으며, 이 논의 동북쪽 한계에서 현저한 높이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기와조각과 그릇조각이 발견되고 있기때문이다. 이 벽면에는 현재의 출입구(문터라고 함) 이외에도 북쪽으로 치우쳐 물로 침하된곳이 두곳이 있다. 이는 성의 내부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배수되는 곳이 문터라 일컫는 곳이외에 북쪽에 치우친곳에서도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임을 알려준다.

④ 남동벽[도면 13 #11·#12, 사진 17·18]

서남벽에서 120~130도의 각을 이루어 낮아지면서 거의 직선으로 뻗었으며, 상단에서

56m의 길이가 된다. 성벽의 윗단은 역시 2m 정도의 길이 되어 있고, 성안쪽으로는 서쪽 약 10m의 구간에서는 심하지 않으나, 동쪽의 구간에서는 단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내와의 높이 차가 심하다. 외측으로도 경사를 내려와 단을 이룬 후 다시 경사가 있어서 본디의 성벽은 이 단을 이룬 부분의 위에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단을 이룬 부분의 기단 너비는 16~17m 이다. 다른 부분에 비교하여 내외측의 성벽 윤곽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 벽의 표토에서 기와조각과 그릇조각이 발견되고 있다. 동쪽 끝에 이르러서는 북동쪽 성벽으로 이어지며 회절한다. 이 회절하는 부분의 바깥으로는 급경사를 이루며, 거의 직각을 이루며 회절한다. 이곳에도 곡성이나 치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성내의 지형과 형상[도면 4, 사진 19 · 20]

성의 내부는 서남부와 동북부가 크게 단을 이루어 구분되고 있다. 서남부는 성벽 축조 이전의 자연상태에서도 본디 높은 위치였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동북쪽은 굴곡을 이룬 선으로 마치 사태가 난 것처럼 낮아진 곳이 있고, 약 25도의 경사를 이루어 갑자기 낮아진 형태가 되었다. 특히 남쪽에서는 현저하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깊어지고, 현재의 출입로에서 서남부의 높은 곳으로 오르는 길이 되어 있다.

서남부의 높은 곳은 대체로 평탄면이지만 동향, 혹은 북향으로 경사가 완만하다. 여기에는 서쪽 모서리에 치우쳐 민묘 2기가 아직도 자리잡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5개의 웅덩이가 있다. 이 웅덩이들은 아마도 예비군용의 참호나, 방공포좌 처럼 직경이 1.5~2m 정도의 원형이고, 깊이가 1m 내외이다. 이 높은 지역에서 동남향의 낮은 지역으로 자연적인 배수가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약간씩의 토사가 유출되고, 그에 의해 앞으로도 약간씩 지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성내의 한단 낮은 지역은 중앙에서 북으로 조금 치우친 곳에 민묘를 조성하였던 방대형의 흔적이 있다. 이 위치를 기준하여 북서쪽(성안 전체로는 북쪽)은 평탄하며, 배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표에 나타난다. 중앙에서 동쪽으로는 평탄한 지면이 현재의 출입로를 향하여 경사를 이루며, 이 경사는 동남쪽 성벽의 내측과 성내의 높은 지역 남쪽에서의 물이 배수되는 경사이다. 가장 배수량이 많아서 점차 놓은 곳의 토사가 유출된 결과로 현재의 모양으로 되었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현상은 성내가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에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⑥ 성벽의 단면 상황

처인성의 성벽 현상은 외면에서 보아 성벽의 토루를 이루고 있으나, 내면에서는 불확실 한 부분도 있다. 그 현황은 성벽의 표면을 가로로 표시한 단면 현황에 의하여 설명하므로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인성터의 성벽은 북동쪽 성벽에서는 매우 희미하게 윗쪽에 약간의 겹축된 모양이 있으나, 나머지 성벽은 기본적으로 윗쪽에서 내외겹축의 성벽을 만들고 있다. 특히 남동쪽 성벽은 안쪽에 한 번의 단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성벽의 하부 내외면에 기단을 마련하지 않은 축조형식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게 한다. 단면은 자연 경사면을 이룬 외면을 정리한 후 일정한 높이까지 축조한 다음 그 윗면에서 내외 겹축으로 축조하였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여겨지다.

성벽의 단면 상황은 처인성터의 최남단을 기점으로하여 시계 방향으로 12곳을 실촉하고, 동쪽의 문터에 대하여는 세로 단면을 작성하여 보았다.

[단면 1] [도면 8 #1]

처인성터의 최남단으로 동남쪽 성벽과 서남쪽 성벽이 만나는 回折部이다. 현재 성벽을 그대로 통로로 이용하기도 하는 곳이다. 성내는 평탄하며, 성벽의 윗면은 등근 언덕처럼되어 있다. 성내의 평탄지와 성벽 윗면과의 거리는 약 2.6m에 높이차는 80cm이고 35도의 경사면을 이룬다. 성벽위 정상에서 외측으로는 12m의 너비이며, 평균 30도의 경사를 이룬다. 성벽의 외측 높이는 성벽 밖의 평탄한 길을 기준하면 6.3m가 된다.

【단면 2】[도면 8 #2]

처인성터의 서남벽 남측으로 성안에서 성벽의 윤곽이 확실한 부분이다. 성벽 안쪽에서는 북동 방향으로 약간 낮아지는 평탄지이고, 성벽의 윗부분은 둥근 언덕을 형성하고 있다. 내부에서 성벽 정상까지는 3m의 간격을 두고 35도의 기울기이고, 성벽 외측면은 12m의 간격이 28도의 경사를 이룬 후 평탄한 밭이 되어 있다. 외면의 성벽 높이는 5.5m가 된다.

【단면 3】 [도면 9 #3]

처인성터의 서남벽 북측 부분으로 성내에서 성벽 윗면까지가 가장 뚜렷한 부분이다. 성내 평탄지에서 성벽 정상까지는 2m의 구간에서 45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성벽 정상부는 너비가 2m나 되며, 외측 경사면은 11m의 간격 내에서 28도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외면의 높이는 6~6.5m가 된다. 그 외측은 평탄한 밭이다.

【단면 4】[도면 9 #4].

처인성터의 서북쪽 성벽 서측에 해당한다. 성밖에 좁은 길이 있고, 형제봉 방면의 鞍部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성벽 안쪽은 평탄지이며, 성벽의 윗면은 너비 1.6m의 평탄면이 있다. 성벽 내측으로는 2.4m의 간격에 30도의 경사를 이루어 1.3m의 높이로 되어 있고, 성벽 외

측면은 농로까지 9.2m의 너비 구간에서 평균 35도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너비 2.2m의 농로를 건너서 35도의 경사로 올라가 밭이 된다. 이 밭을 당초의 지면으로 보고, 농로를 일 종의 해자로 볼 수 있다. 성벽 외측 사면 높이는 농로에서 5.8m가 된다.

[단면 5] [도면 10 #5]

처인성터의 서북쪽 성벽 중간쯤에 해당된다. 성안으로 약한 경사면을 이루며, 성벽의 윗면은 너비 1.5m의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둥근 언덕 모양을 이루고 있다. 성벽 윗면에서 성내로는 30도 경사를 이루어 3.2m의 구간에서 1.5m의 높이를 보여준다. 성벽 외측면은 33도의 평균 경사를 이루며, 10m의 외측에 농로가 있다. 농로의 너비는 2m이며, 농로 바깥으로는 鞍部 경사면의 밭이다. 역시 농로는 해자로 볼 수 있으며, 성벽의 외측 높이는 농로를 기준으로 6.2m이다.

[단면 6] [도면 10 #6]

처인성터의 서북쪽 성벽의 북측 지점이다. 성내는 평탄지로 이어지는 약한 경사면을 이루고, 성벽 윗면은 너비 1m의 평탄한 길이지만, 전체적으로 내외 붕괴면이 둥근 언덕 모양이다. 성벽 안쪽의 붕괴 경사면은 3.6m의 구간에서 33도의 경사를 이루며, 높이가 2m나 된다. 성벽의 외측 붕괴면은 약 4m의 구간에서 27도의 경사를 이루다가, 더욱 바깥으로는 약4m의 구간에서 40도 이상의 경사를 보이고 있다. 이 외측 경사면은 약 7.5m의 간격이며, 농로면에서 성벽 윗면까지의 높이는 5.8m이다. 농로는 이곳에서 길이 갈라지는 곳이어서 넓다.

【단면 7】[도면 11 #7]

처인성터의 북쪽 모서리 부분이며, 서북쪽 성벽과 동북쪽 성벽이 만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성벽 윗면이 4.6m의 평탄면을 이루고 있어서 각루터나 곡성이 시설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안쪽으로는 평탄면에서 2m나 되는 높이를 이루며, 33도의 경사면이 2.8m의 구간에 내측 붕괴면을 이루고 있다. 성밖으로는 30도의 경사를 이루어 내려가다가 8m까지 내려가서는 나머지 2m의 구간이 40도의 경사를 이룬다. 외측 붕괴면의 길이는 10m나 되고, 동로면에서 성벽 윗면까지의 높이는 6.2m이다. 내외 붕괴면 전체를 포함한 성벽의 너비는 17.3m나 된다.

[단면 8] [도면 11 #8]

처인성터 북동쪽 성벽의 북쪽으로 성내는 평탄지이다. 성의 안쪽으로는 성벽의 윤곽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평탄지의 외곽 가장자리로 10~15cm 높이의 좁은 두둑이 있어

서 길로 이용되고 있다. 외축으로는 6m의 너비를 28~30도의 경사면이 있어서 도로의 서축 배수구까지 내려간다. 이곳까지의 외면 높이는 4.7m이다. 너비 4.5m의 도로면을 지나서는 23~25도 경사 사면이 6m로 너비로 되어 논으로 이어진다. 논둑을 이룬 이 경사면의 높이는 2.5m이다.

【단면 9】 [도면 12 #9]

처인성터의 북동쪽 성벽 남쪽으로, 문터가 있는 북쪽에 해당한다. 성내의 평탄면에서 성벽 윗면은 20~25cm가 높아져 너비 약 1.2m의 소로를 이루고 있다. 성벽 외측의 붕괴경사면은 6m의 너비에서 32도의 경사를 이룬 후 도로 옆의 배수로까지는 보다 경사가 급해져서 1.5m의 너비가 45도의 경사를 이룬다. 도로면에서 성벽 윗쪽까지의 높이는 5.4m가 된다. 3.5m쯤의 도로를 지나 35도 경사로 1.4m의 아래에 논이 있다.

【단면 10】[도면 12 #10]

처인성터의 동북쪽 성벽 남쪽으로 문터와 동남 모서리 회절부와의 사이 지점이다. 성내의 평탄지에서 성벽 윗면까지는 1m의 높이로 30도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성벽 윗면은 너비 1m쯤의 너비이고 바깥으로의 경사면은 6m까지 33도의 경사를 이룬 후, 다시 1.6m의 구간에서는 45도의 경사로 되어 있다. 너비 5m의 도로면을 지나서는 1.2m의 높이로 40도 경사를 내려가 논바닥이 된다. 도로면에서 성벽 위까지의 높이는 5.9m이다.

【단면 11】[도면 13 #11]

처인성터의 동남 모서리부분의 지접이다. 성내의 평탄지에서 성벽 윗면까지는 한 번의 단을 이루고 있다. 즉 25도 경사로 1.4m가 높아진 뒤, 2.5m 너비의 평탄면이 있고, 여기서 다시 약 70cm의 높이가 높아진 곳이 성벽의 윗면이다. 성벽 윗면에서 내부 평탄지까지는 너비 7.4m가 되며, 2.4m의 높이가 된다.

바깥 경사면은 20m의 너비에서 약 25도의 경사를 이루며, 다시 낮게 단을 이루어 길로 이어진다. 약 8m의 도로면을 지나 30도 경사의 1m 높이를 내려가서 논의 바닥면이 된다. 이 외측 경사면은 경사가 느슨하면서 길다랗고 도로면에서 성벽 위까지의 높이는 9m나 된다. 따라서 이 모서리 부분에는 보다 특별한 시설로 雉城 등의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단면 12】[도면 13 #12]

처인성터의 동남벽 중간부분에 해당한다. 성내 평탄지에서 성벽 위까지는 역시 단을 이루며 높아진다. 20~30도의 경사로 3m쯤 높아진 다음 약 2m의 평탄한 단을 이루고 다시

70cm가 높아져 성벽 윗면이 된다. 성벽 외측의 붕괴경사면은 28~32도의 경사로 13m의 너비를 내려가고, 외연에 2m 너비의 단을 이룬 후, 다시 30도의 경사로 1.8m의 높이를 내려가 6m 너비의 평탄면을 지나 도로에 닿는다. 외측 벽면의 높이는 6.5m가 된다.

【단면 13】 [도면 12 #13, 사진 15·16]

처인성터 동문터의 좌우 문구부를 보여주기 위하여 현재 통행하는 문길의 거의 중앙부 횡면을 나타낸 것이다. 문구부 양측에서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32~35도의 경사면으로 되어 있다. 양쪽 성벽 윗면에서 평균 3.3m의 깊이나 된다. 이러한 현상은 좌우의 측벽 윗쪽의 너비가 9m나 되므로, 아마도 양측 붕괴면 내부에 문의 유구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은 바깥을 향한 경사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길의 바닥은 외측에서 토사가 깎여나갔을 가능성도 있음을 알게한다.

4) 처인성터 수습유물

(1) 토기류

• 토기편[도면 14-①, 사진 23-①]

회청색 경질의 편병편으로 여겨지며, 태토는 정선되었고, 세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내외면에 회전 물손질 흔적이 있다. 기벽이 얇고 고르다.

- ·크기 4×4×0.7cm
- 토기편[도면 14-②, 사진 23-②]

회청색 경질 토기편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경부 아래에 횡침선이 돌아가며 외면은 세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희미하다. 내면은 회전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 ・크기 7.3×10.7cm
- 토기편[도면 14-③, 사진 23-③]

혹색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 ・크기 2×3.5cm
- 토기편[도면 14-④, 사진 23-④]

희백색 토기편으로 경질에 가깝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표면에

는 3조의 횟침선이 돌아가며, 기벽 내면은 물손질 흔적이 있다.

- ・크기 4×5×0.5cm
- 토기편[도면 14-⑤, 사진 23-⑤]

회청색 경질 토기편으로 기심은 연한 자주색을 띠고 있다. 외면은 경부 바로 아래 두줄로 단선파상문이 돌아가며, 횡침선을 사이에 두고 점으로 물방울 모양의 무늬를 연속으로 시문하여 횡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두줄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그 아래에 꽃무늬가 시문되었는데 파손되어 원형을 알 수 없다.

- ・크기 4×3.8×0.7cm
- 토기편[도면 14-⑥, 사진 23-⑥]

회색 경질 토기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다. 외면은 단면삼각형의 덧띠가 두줄로 돌아가고 있으며, 내면은 회전 물손질 흔적이 있다.

- ・ 크기 5×5×0.8cm
 - 토기편[도면 14-7), 사진 23-7]

흑색 연질 토기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외면은 두줄의 굵은 단선 파상문 아래에 다시 두줄의 횡침선이 돌아가며, 내면은 테쌓기한 것처럼 굴꼭이 있고, 횟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 ・ 크기 7×6.5×0.7cm
- 토기편[도면 14-8, 사진 23-8]

회청색 경질 토기편으로 아주 경질이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외면은 띠를 동그란 막대 같은 것으로 좌하향으로 눌러 띠를 꼬는 것처럼 횡으로 붙이고, 그 아래 횡침선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 ・ 크기 4×4.5×0.9cm
- 토기편[도면 14-9, 사진 23-9]

회백색 토기편으로 경질소성에 가까우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외면은 횡침선이 얕게 돌아가고 내면은 좌상에서 우하 방향으로 빗질흔이 있으며 횡침선이 얕게 돌아가고 있다.

・크기 5.6×3×0.7cm

• 토기편[도면 14-mm, 사진 23-mm]

회혹색 토기편으로 아주 경질이며 기심은 자주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가 소량 함유되었다. 외면은 횡침선이 굵게 돌아가고 있다.

- ・ ヨ기 3.2×4×0.8cm
- 토기편[도면 14~⑪, 사전 24-⑪]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가 소량 함유되었다. 경부에서 나팔상으로 살짝 외반하는 구연에 구연단을 밖으로 말아 붙였다.

복원 입지름 : 약 11cm, 잔존 높이 : 4cm

• 질그륫편[도면 14-@, 사진 24-@]

회흑색 질그릇 구연부편으로 연질소성이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가 소량 함유되었다. 기체에서 바로 밖으로 꺾은 후 다시 안쪽으로 꺾어 붙여 구연을 만들었다.

복원 입지름 : 약 22cm, 잔존 높이 : 2.3cm

• 토기편[도면 15-⑬, 사진 24-⑬]

회청색 경질 토기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가 소량 함유되었다. 구연은 나팔상의 경부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며, 굵은 횡침선이 두줄로 돌아가고 있다.

복원 입지름 : 약 9cm, 잔존 높이 : 2.2cm

• 질그릇편[도면 15-44, 사진 24-44]

혹색 질그릇 저부편으로 연질이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배면에는 흑색슬립이 입혀 있으며,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혼이 있다. 평저이다.

복원 바닥지름 : 약 28cm, 잔존 높이 : 4.7cm

• 토기편[도면 15-億, 사진 24-億]

회청색 경질 토기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나팔상으로 외반하다 밖으로 꺾은 후 둥글게 뭉뚱그려 처리하여 말아 붙였다.

복원 입지름 : 약 14cm, 잔존 높이 : 1.4cm

• 토기편[도면 15-(6), 사진 24-(6)]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다. 나팔 모양으로 올라가다 단면삼각형의 입술받이 턱이 전처럼 돌출되었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 안쪽면은 돌대가 회미하게 돌아가고 있다.

복원 입지름 : 약 10.8cm, 잔존 높이 : 2.3cm

• 토기편[도면 15-m], 사진 24-m]

회청색 경질토기 저부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가 소량 함유되었다. 기형은 조잡하며, 평저이다.

복원 바닥지름 : 약 14.6cm, 잔존 높이 : 4cm

토기편[도면 15-08, 사진 24-08]

회청색 경질 토기 저부편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성형상태는 조잡하며, 평저이다.

- ・ **크**기 9×7×1.2cm
- 백자편[도면 15-①, 사진 24-①]

백자 구연부 편으로 유백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다.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다 수직으로 올라가 직립 구연을 이룬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복원 입지름 : 약 15cm, 잔존 높이 : 4cm

• 백자편[도면 15-20, 사진 24-20]

백자 저부편으로 유백색 유약이 전면에 걸쳐 시유되었다. 표면은 유빙열이 심하다. 기형은 내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가다 원각을 이룬 후 꺾여 올라가고, 외면은 사선으로 내려와 굽을 이룬다. 굽은 대마디 굽이며, 그릇 내저부와 굽에는 모래가 흡착되어 있다.

복원 굽지름 : 6cm, 잔존 높이 : 3cm

(2) 기와류

• 암키와편[도면 16-①, 사진 25·26]

암키와편으로 회청색 경질이며, 기심은 자주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배면은 굵은 선문이 우하향으로 베풀어져 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

인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4 정도 와도흔이 있다.

- ・ <u>크</u>기 15×12.5×1.5cm
- 암키와편[도면 16-②, 사진 27-①]

암키와편으로 회청색 경질이다. 태토는 모래가 다량 함유되었다. 배면은 굵은 선문이 얕 게 베풀어져 있으며, 밖에서 안으로 와도흔이 1/3정도 보인다.

- ・크기 7×6.5×1.3cm
- 암키와편[도면 16-③, 사진 27-②]

암키와편으로 회백색 연질이며, 태토는 정선되었다. 배면은 굵은 선문이 베풀어진 것으로 보이나 탈락이 심하다.

- · 크기 6.2×5×1cm
- 암키와편[도면 16-④, 사진 27-③]

회백색 암키와편으로 연질소성에 가깝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가 함유되었다. 배면은 무문이며, 이면은 비로 쏠은 듯한 흔적이 있다. 안에서 밖으로 1/2정도 와도혼이 있다.

- ・ヨフ] 7.5×6.5×2cm
- 암키와편[도면 16-⑤, 사진 27-④]

암키와편으로 희백색을 띠며, 연질소성에 가깝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배면 은 굵은 선문이 베풀어져 있으며, 이면은 찰과흔이 조잡하게 남아 있다.

- · 크기 6.7×6.7×2cm
- 수키와편[도면 16-6, 사진 28-1]

황갈색을 띠며 연질이다. 태토는 조질 태토에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배면은 굵은 선문이 종으로 베풀어져 있으며, 이면은 포목후이 있다.

- ・크기 7×10×1.8cm
- 암키와편[도면 16-7, 사진 28-2]

암키와편으로 회백색이며 연질에 가깝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배면에는 선문이 베풀어 졌으며 이면은 물손질 정면혼이 있다.

・ <u>크</u>フ] 7.5×8×2cm

• 암키와편[도면 16-8, 사진 29-①·30-①]

암키와편으로 회백색 연질이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흑운모가 함유되었다. 배면은 굵은 선문이 종으로 배풀어져 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뚜렷하다.

- · 크기 10×7×1.8cm
- 암키와편 [도면 16-9, 사진 29-2·30-2]

암키와편으로 회백색을 띠며 연질소성에 가깝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와 사립이소량 함유되었다. 배면은 굵은 선문이 얕게 시문되었으며, 이면은 포목흔이 보인다. 단부(端部) 내면조정이 1cm 정도 이루어졌다.

- · 크기 9×9.4×1.7cm
- 수키와편 [도면 16-10]. 사진 31-10·32-10]

희백색 연질 수키와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배면은 우하향으로 굵은 선문이 베풀어져 있으며, 이면에는 포목흔이 있다. 안에서 밖으로 1/2 정도 와도 흔이 있다.

- ・크기 6.5×8.8×1.5cm
 - 암키와편 [도면 16-⑪, 사진 31-②·32-②]

회청색 경질이며, 기심은 자주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굵은 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배면에는 작고 선명한 정격자문이 베풀어져 있다.

・크기 3.3×3.5×1.8cm

5) 처인성터의 성격

⑴ 기능상의 성격

처인성터는 우리나라의 성곽을 크게 구분하는 것에 의하면 邑城류에 속하며, 창성(倉城) 이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성터는 옛 수주(水州)시절 部曲의 하나였던 자치적인 작은 단위의 행정 중심이 되는 성이었기 때문이다. 고려 시대에 많이 존재하였던 부곡은 郡이나 縣단위의 행정조직을 두기에는 규모가 작고 호구(戶口)가 적은 곳에 많이 존재하였던 구역이다. 일반적인 군현에 비하여 이 부곡의 경우는 토성을 가지고 있는 점은 같으나, 국가의 직접적인 행정단위가 아니고, 소속된 고을의 통제를 받는 점에서는 차별적인 것으로서, 그에 따라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신분적으로도 일반 백성과는 달리 인식되었다.

그러나 부곡은 향(鄉)이라는 단위와 아울러 부곡 내부의 행정에서는 자치적인 조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다른 여러 부곡들과는 달리 처인부곡은 읍성을 가지고 있던 셈이다. 고려시대 우리나라 읍성의 존재에 대하여는 아직 자세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그 전모를 알기 어려우나, 읍성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경기도 안산군(安山郡)의 경우에도 읍성이 존재하였음이 밝혀져 있으며, 충청도 장풍현(長豊縣)에는 태자성(太子城)이란 성터가 남아 있다. 한편 고려 말기에 이르러 수축과 개축을 거치는 여러 읍성들은 당초 소규모의 토축 읍성들이 차츰 대규모의 석축 읍성으로 개수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처인성은 倉城이었다. 조선초기의 기록에는 분명히 이 성에 軍倉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군창은 물론 山城에 있는 것이 보통이기도 하지만, 처인성처럼 존재하는 경우도 있 었던 것이다. 이 성안에 있었던 창고의 규모가 얼마만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군창이 성 안에 있고, 이 창고와 창고내의 저장된 군량과 병기를 지키는 성벽이 곧 처인성이기도 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몽고군과의 싸움에 나타난 처인성은 인근 주민의 입보(入保)를 위한 성터였음을 알려준다. 즉, 김윤후는 백현원(白峴院)에 있던 승려로서 이 성에 '避兵在城中'(『고려사절요』), 혹은 '避亂于處仁城'(『고려사』)하고 있었다. 백현원은 이곳의 현재 주민들 이야기로는 이 처인성 서북방의 산줄기 아래에 절터가 있다고 하므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여겨지며, 동시에 처인성 주변의 백성들은 김윤후의 경우처럼 처인성으로 피란하여 있었다고 여겨진다. 전쟁이 일어나 피란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각 고을의 뒷산이나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산성이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몽고군이 처인성을 치려고 남하하는 길에 한양산성(漢陽山城)을 함락시키고 있는 것이나, 당시 고려 정부가 백성들을 해도(海島)나 산성으로 피란시키고, 산성에 방호별감(防護別監)을 파견하여 농성(籠城)을 지휘하게 한 것이 그것이었다.

처인성의 기능상의 특징은 이 성이 고려 시기나 그 이전에 수원의 관내에 있었던 만큼 수원 지역의 이와 비슷한 성터들과 비교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수원 지역에서 알수 있는 읍성으로는 경기도 기념물 93호인 용룡과 건룡 일대에 있었던 수원 고읍성이 있다. 이 성은 지금 약간의 토축 성벽이 남은 상태이며, 고려시기 이후로부터의 유물이 출토될 뿐이다. 당초의 규모는 『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둘레가 270보(步)이고 우물이 두곳이라 하였으나, 『新增東國興地勝覽』이후로는 둘레가 4,035척(尺)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화성군 향남면 길성리의 구룡상 토축성이 있다. 내외성으로 구성되고 유물에 있어서도 삼국시기 이른시기와 연계된 것으로 직접 비교가 힘들다.

최근에 간행된 『수원시사(水原市史)』 中(1997)에 의하면, 옛 정송현과 관련된 정남면 관

항리의 성산과, 양감면 사창 3리의 옛 쟁홀부곡과 관련된 사창리성, 평택시 청북면 용성리의 옛 용성현성, 비봉면 자안리의 재양현의 옛터와 관련된 태산성, 평택군 현덕면 덕목 2리의 옛 광덕현의 치소로 여겨지는 성터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중 사창리성은 창고의 둘레를 쌓은 창고성이란 점과 부곡이 있었다는 점에서 처인성과 비교하기에 알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보았으나, 성벽의 규모가 사뭇 다른 것이다. 이들과의 비교는 이들 성지와 함께 처인성지가 보다 많은 조사를 거친 뒤에라야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약간의 조사를 거친 토축 성곽으로서 규모가 작은 것은 충남 천안의 목천토성을 위시하여 충남 홍성군 결성면의 신금성(神衿城), 충북 충주시의 견학리토성과 충북 청주시의 정북동토성, 그리고 통일신라기 이래의 것으로 여겨지는 충북 영동읍성과 전남 완도군의 장도성 등이 있다. 목천토성은 구릉 선단부를 이용하여 토루가 구릉 선단부에 축조된 것으로서 사용년대가 통일신라 후기와 관련된 것이다. 후일 처인성지가 발굴조사 된다면 이러한 성터들과 그 축조방법, 유물의 양상 등이 비교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출토 유물의 성격

오늘날 처인성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물은 지표채집으로 기와조각과 도기편이 고작이다. 이번의 조사에서 수습된 유물은 매우 한정적인 것들이지만 처인성의 사용 연대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다. 대략의 유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기류]

처인성터에서 지표채집한 그릇조각들은 크게 도기편과 자기편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서 대략의 연대를 시사해 주는 것은 토기 ①, ⑤, ⑨, ⑩ 등의 것들로서 신라토기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토기편 ⑤는 신라 통일기에 많이 볼 수 있는 인문(印文)이 시문된 것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들 토기류와 함께 대형의 호(壺)이거나 대용(大甕)의 조각들로서 세격자문이 어깨에 타낱된 것과 단선 파상문이 목에 음각선으로 돌리어진 것, 그리고 돌대가 돌리어진 것은 그 사용년대가 대략 9세기를 중심년대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머지의 도기편들은 대부분 고려시대의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자기류의 파편 두점은 조선시기의 것으로서, 처인성에 겨우 군창이 남아 있던 시기의 것들이거나, 처인성이 폐기되고 민묘가 조성된 시기의 것들이 아닐까 여겨진다.

[기와류]

표토에서 발견되는 기와들은 막새기와와 명문이 있는 것은 찾을 수 없고, 암키와와 수 키와들이다. 특히 무늬가 시문되지 않은 것이 많으며, 수습된 것들은 대략 무늬가 시문된 것들을 위주로 하였다. 기와 ⑩은 토수기와의 조각으로서 배면의 무늬가 선조문계열의 것이다. 이런 종류의 기와는 통일신라기에는 이미 보편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여겨지며, 나머지의 것들은 고려시기에 유행된 어골문이 적고 선조문 계열의 것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복합문양의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면의 무늬는 포목문(布目文)이 잘 남은 것들과 빗자루로 쓸 듯이 처리된 것이 있다. 모골(模骨)로 제작된 흔적을 보이는 것이 없고, 와통(瓦桶)으로 제작한 것들로 여겨진다. 측면의 분할선은 대부분 한쪽 측면만 관찰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분할한 흔적이 남아 있으나 ②의 경우는 밖에서 안쪽을 향하여 자른 면이 남아 있다. 이것 과 ③과 같이 회백색이고 두께가 얇은 선조문계의 기와는 제작 기법이 대략 고려 이전의 것들로 여겨진다.

5. 할미성(老姑山城, 姑母城, 魔姑城, 魔城 혹은 麻城)

1) 위치와 환경

할미성이라 부르는 산성은 용인시 구성면과 포곡면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349.3m(현행 1 : 50,000 지형도 no.190)의 '백현'이라 불리우는 산위에 있다. 지도에도 '할미성'이라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지도상의 성벽의 윤곽은 실제 상태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도면 17]

할미성은 북쪽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능선을 따라 지적이 구분되어 있어서 서북편은 구성면 동백리(東栢里) 산23-1번지와 산23-2번지로 되어 있고, 동남쪽 절반은 포곡면 마성리산41번지와 산42번지로 구획되어 있다. 이러한 지적의 구분은 성의 내부와 성벽의 언저리를 기준으로 획정된 듯하다.[도면 19]

할미성이 있는 곳은 북쪽에서 남한산의 산줄기가 봉우리와 고개를 번갈아 이루며 남하하여 석성산으로 높아지는 마지막 봉우리이며, 이곳에 동쪽과 서쪽을 넘는 안현과 작고개의 이름이 있다. 작고개는 현재 신갈에서 분기하여 동으로 이어지는 영동고속도로(4번 고속국도)가 터널로 통과하며, 이 터널의 이름은 마성터널이고, 여기의 동록에 마성 인터체인지가 있다. 마성 터널은 용인시 포곡면 마성라(麻城里)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마성리는 할미성의 남동쪽 계곡을 이루는 곳이며, '마가실'이라는 자연부락의 이름과 마가저수지가 있다.[도면 17, 사진 33]

백현과 작고개는 같은 의미의 것-즉, 城의 순 우리말인 '잣'을 가지고 하나는 성이 있는 고개의 의미로 내려오고, 또 다른 하나는 잣을 柏으로 고개를 峴으로 한자화한 이름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이름들은 할미성이 있은 이후의 이름이라 여겨진다.

할미성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탄천과 경안천의 상류에 있으며, 동시에 신갈천의 상류를 이루는 지형상의 요충에 있으면서 분수령을 이루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교 통로 이전에도 이곳은 교통의 요충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할미성이 위치한 산은 가파른 경사면이 있으나 아주 험준한 산은 아니다.

2) 산성의 현상

할미성은 현재 석축의 성벽이 대부분 붕괴된 상태로 남아 있다. 성은 가장 높은 위치가 북쪽이고, 남향한 경사면을 포용하면서 산비탈을 따라 성벽이 내려가 남쪽의 평탄한 곳에서 끝나고 있다. 따라서 성내는 정상부와 그 남쪽 일부를 지나 급경사를 이룬 후 다시 평탄면 이 있어서 테외식의 산성이긴 하지만 紗帽形에 속한다.[도면 18]

성벽은 가장 높은 곳인 해발 349m에서 남쪽의 가장 낮은 곳을 지나는 성벽이 해발 280m로서 대략 70m의 높이 차가 있다. 이 가운데 북쪽의 높은 곳은 해발 320m를 대체적인 경계로하여 남쪽 부분과 구분된다. 남쪽 부분은 능선을 중앙에 두고 있으나, 북쪽 부분은 대체로 삼각형의 모양으로 능선을 따라 지형상의 높은 곳을 에워싸고 있다.

성의 전체적인 평면 모양은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타원형에 가깝고, 중간 부분에서 너비가 넓어지긴 하였으나, 자연적인 지형을 따라 구불거리는 벽면을 이루어 마치 고구마와 같은 모양이다.[도면 18]

할미성의 전체 성벽은 둘레가 660m이며, 안쪽을 기준하여 648m이고, 바깥으로는 672m가된다. 성의 내부는 북쪽의 높은 위치와 남쪽의 낮은 위치 사이에 별도의 석축이 있어서 이부분의 길이가 180m가된다. 결국 성의 내부가 남북으로 구분되어 마치 내성과 외성으로구분된 듯한 느낌을 준다.[도면 18]

할미성의 성벽은 남북의 전체 길이가 중심부에서 280m이고 동서의 너비가 가장 넓은 곳에서 120m이다. 성벽의 안쪽을 따라 內環道가 있으며, 이 때문에 성벽은 기본적으로 內外 겹축되어 있다. 성벽은 군데군데 아직도 벽면의 아랫부분이 남아 있는 곳이 있으며, 현재 성내외를 출입하는 小路가 4군데가 있다.

성벽은 북벽과 남벽을 굳이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북쪽의 능선으로 통하는 小路의 서축에 남아 있는 석축 잔존부를 기준하여 북벽은 둥글게 回折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석축 성벽의 외축 경사면 아래로 테라스 모양의 외환도가 있다.

북벽의 외환도는 동벽의 북측으로 돌아와 동쪽 성벽 북측의 계곡부를 감돌고 있다. 동쪽 성벽은 남쪽 성벽과 구분이 어려우며, 전체로 보아 동측의 성벽들은 북쪽으로는 두 개의 谷部를 가지고 있다. 동남쪽 성벽에 이르러 가장 큰 곡부를 가지며, 이곳에 성의 내외를 통행하는 소로가 있다.

성벽은 최남단에 이르러 북벽처럼 回折하며, 그 서측으로 역시 성의 내외로 통하는 소로가 있다. 남단에서 회절하는 외연으로 역시 회절하는 성벽의 바깥을 따라 테라스 모양의 외환도가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 성에서는 능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외곽에 평탄면을 이루며 돌아가는 외환도를 형성하는 별도의 토루를 가졌었다고 볼 수 있다.

서측의 성벽은 벽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아 내외 겹축의 상태가 확인되는 부분

이 많다. 지형에 따라 두 곳에서 밖으로 튕겨진 곳이 있으나, 치성, 혹은 곡성의 흔적은 없다.

성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쪽의 높은 부분과 남쪽의 낮은 부분 사이에 석축으로 구획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평탄지의 확보를 위한 축대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보다 자세한 성벽의 상태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성내의 가장 높은 위치인 북쪽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석축의 성벽이 남아 있는 곳을 위주로 단면 상태를 설명하기로 하겠다.

[단면 1] 북쪽 성벽 서단부 석축 잔존부[도면 21 #1, 사진 36・37]

성의 가장 높은 위치인 북쪽에 평탄한 대지가 있고, 여기에 산불감시용 초소가 있다. 그 똑바로 북쪽에 약간의 석재가 노출된 부분이 있으며 석축이 3~4m 잔존해 있다. 석축은 5~6층이 1m의 높이로 남아 있고, 윗면이 붕괴되어 무너진 성돌이 잔존한 성벽면의 외측으로 흘러 쌓였다. 성내는 평탄면이며, 이 평탄면의 외연으로 약 2m의 구간이 30도 이상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곳은 내외겹축의 성벽이었는지, 아니면 內托의 성벽인지 표면상 식별이 불가능하다. 석축이 잔존한 부분도 아래서 위로 오르면서 성의 내부로부터 밖으로 내미는 압력으로 기울어 있으며, 성벽 외면 4m의 구간을 내려가서는 경사가 현저히 줄어 약 2m의 구간에 테라스 모양의 평탄면이 돌아가고 있어서 이것이 일종의 外環道를 이루고 있다.

[단면 2] 북쪽 성벽 동측 붕괴부[도면 21 #2, 사진 38]

성의 가장 높은 위치인 북쪽에서 북향하는 소로와 동향하는 소로 사이의 부분으로 성벽의 붕괴된 모습이 완연하나, 석축이 보이지 않으며, 斜面 崩積된 석재의 외연으로 평탄면을 가진 외환도 모양의 평탄면이 있다. 즉, 성벽이 붕괴된 흔적이 두둑으로 남아 있으며, 그 바깥에 능선을 횡단하는 테라스 모양의 평탄면이 북벽 외곽을 돌아가고 있어서 마치 外環道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성벽 안쪽으로는 성내를 돌아가는 길이 있고, 이 길에서 바깥으로 2m를 나가 4m의 구간에서 60cm의 높이로 둑이 있다. 이 둑의 바깥 사면은 2m의 구간에서 경사가 40도를 이루며, 다시 3.5m의 구간으로 내려가면서는 20도의 경사를 이룬다. 이렇게 성벽 붕괴면이 형성된 아래로는 다시 10.5m의 구간에서 경사가 25~30도에 이르는 비탈이 된 다음 너비 4m의 평탄면이 돌아가고, 그 아래로는 다시 30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단면 3] 동벽 북측 곡부 석축 잔존부[도면 22 #3, 사진 41]

석축의 성벽이 북쪽에서 완만히 回折하여 동쪽에 이르러서 능선으로 이어지는 곳에 통행

하는 소로가 있고, 이곳을 지나서 성벽은 안쪽으로 내만한 谷部를 이룬다. 이 작은 계곡부에는 석축이 무너지고, 일부의 석축 외면이 드러나 있다. 석축은 3m의 높이까지 18層으로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며, 위쪽은 무너져 내린 상태이다. 성벽 안쪽의 평탄면을 기준하면당초 성벽의 높이는 5m 이상이었다고 여겨진다. 성벽 바깥으로는 경사를 따라 10m를 내려간 곳에서 시작하여 너비 3.8m의 평탄부가 있다. 이 부분이 외곽의 토루였다고 여겨진다.

성벽 외측면은 석축이 1m까지 거의 수직을 이루고 축조되다가 경사를 느슨히하여 축조 된 듯 처리되었다. 석축의 경사는 평균 80도이다. 4m의 구간에서 35도의 기울기로 붕괴된 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보다 안쪽으로는 약 7m의 구간이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단면 4] 동벽 북촉 회절부 ①[도면 22 #4, 사진 42]

북쪽에서 내만한 곡부를 지나 성벽이 밖으로 외반하며 남향하여 곧게 뻗는 곳으로 곡부와 곡부 사이의 완만한 회절부 북측이다. 석축은 지형상의 이유로 외측면 아랫부분이 남아있다.

잔존한 석축의 외면은 높이 1.5m가 85도의 경사를 이루고 7~8층으로 남아 있다. 성돌은 아래에서 위로 작아진 느낌이며, 전체적으로는 두께가 20cm가 넘는 것들이 많다.

외벽면의 안쪽으로는 4m의 구간에서 40도의 경사를 이룬 석축 붕괴면이 있다. 이 석축 붕괴면의 안쪽으로는 약 5m 너비로 내환도를 이루고, 더욱 안쪽으로는 성내의 높은 곳을 향한 경사면이다. 이러한 상태로 보아 이 부분의 성벽은 너비 4m에 가까운 부분이 內托된 성벽이고, 윗면에 약간의 겹축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탁법에 의한 축조였다고 여겨진다. 내환도 외연을 기준하면 성벽 외면은 높이가 5m에 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면 5] 동벽 북촉 회절부 ②[도면 23, 사진 43·44·45]

앞의 부분에서 남쪽으로 곧게 이어진 부분으로 석축의 외면이 2.2m의 높이로 10~11층이남아 있다. 벽면의 기울기는 85도로서 거의 수직에 가깝다.

잔존 석축부의 윗면으로는 석축 붕괴면이 3.6m의 구간에서 55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그 안쪽으로는 너비 5m의 내환도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내에서 외향으로 경사를 이룬 부분에서 보이는 內托의 방법으로 축조된 곳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곳에 해당된다. 내환도를 기준하여 이곳에서 당초의 석축 외면 높이는 6m에 달하였다고 추정된다.

[단면 6] 동벽 중간 계곡부의 성벽[도면 24 #6, 사진 46]

경사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온 성벽이 다시 안쪽으로 크게 내만하는 곳으로 성벽의 안 쪽으로 오히려 경사가 낮아진다. 성벽은 지형상 윗면에서 겹축할 수 있는 곳이며, 잔존 상 태로 보아도 그러한 흔적이 남아 있다.

성벽은 안쪽으로 6.4m의 부분에서 평탄면을 이루고, 보다 안쪽으로는 이 산성의 북부와 남부를 구분하는 석축의 붕괴면이 있다.

성벽의 외면 잔존부는 높이 1.2m가 7층으로 남아 있고, 안쪽으로 3m의 구간에서 50도의 경사를 이루는 석축 붕괴면이 있다. 이 붕괴면 위를 기준하면 성벽은 당초 최소한 3.8m의 높이가 된다. 외측면 하단을 기준으로 성안 쪽으로 5.4m의 거리에 낮은 단을 이룬 부분이 있다. 이는 성벽의 안쪽 한계선으로 여겨지며, 내탁된 성벽의 아래부분의 최대폭이 5.4m임을 추축하게 한다.

성벽 바깥으로는 7.4m의 구간에서 20도의 비탈을 이루고, 다시 바깥으로 5m의 구간에서 평탄한 테라스 모양을 이룬 후 다시 경사가 급하게 되어 있다. 이는 성벽 밖으로 짧은 가지 능선이 이어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단면 7] 동벽 중간 계곡 남측 회절부 성벽[도면 24 #7, 사진 47・48・49]

북부와 남부를 가르는 석축 붕괴면이 있는 곳으로, 동벽에서 가장 바깥으로 튀겨진 부분으로 성벽이 동남 방향에서 남향으로 느슨히 회절하는 곳이다.

성벽의 안쪽은 4m의 구간에서 평탄면을 이루고, 보다 안쪽으로 2m의 구간은 남북을 구분하는 작은 석루가 무너진 상태로 남아 있다.

성벽은 성내 평탄면이 끝나는 지점에서 외측 벽면 하단부 까지가 6.4m의 구간이며, 외측 벽면은 1.2m의 높이로 7층이 85도의 경사를 이룬채 남아 있다. 성벽 붕괴면은 외측으로 4m의 구간으로 25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안쪽으로 2m의 구간으로도 붕괴면을 이루고 있다. 붕괴면의 전체 너비가 6.4m이나, 내탁된 성벽은 4m의 너비이고, 윗면에서 보다 넓은 낮은 결축을 하였다고 추측된다. 성벽 외측으로는 16~17도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단면 8] 동벽 남단 회절부 성벽[도면 25 #8, 사진 50·56·57]

상하 혹은 내외로 구분되는 지점보다 남쪽으로 동서 방향의 최대 너비를 가지는 부분에 석축의 성벽 외측 벽면이 남아 있다. 성내는 4m 이상 평탄면을 이루다 점차 낮아지며. 성벽은 내환도의 외측으로 4m의 너비를 구분하여 붕괴면을 이루고 있다. 외면 석축은 1m 높이로 4층의 석축이 남아 있고, 성벽의 잔존부 위로 붕괴면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석축 아래로부터 윗면까지는 2m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다. 해발 318m의 부분에 해당되며, 성벽 바깥으로 급한 경사면이 있다. 이 부분은 북쪽에서 남향하는 능선 가지가 남쪽에서 두갈래로나뉘는 시점이 되는 곳이며, 이곳을 지나 성벽은 남향하여 급한 경사면을 이룬다.

[단면 9] 동남측 성벽 능선 통과부의 성벽[도면 25 #9, 사진 51·52·56·57]

성밖으로 동남향한 가지능선으로 급히 낮아지며 이어지는 부분으로 해발 315m의 부분에 내외 접축의 상태로 남아 있으며, 성벽 안쪽으로는 내환도상의 길이다. 성벽은 아래 부분에 해당한다. 성벽은 너비가 4.2m이고 외촉에서의 높이가 2.4m까지 남았다. 성벽의 바깥면은 1.1m의 높이로 6층을 쌓은 것이 남고, 안쪽 벽면은 1.3m의 높이를 7~8층 쌓은 부분이 확인된다.

성벽 외측으로 무너져 내린 석재가 쌓여 있으며, 19m의 외측으로 나가도록 경사면이 완 만하다가 급경사를 이룬다.

[단면 10] 동남벽 경사면의 성벽[도면 25 #10, 사진 53·54·56·57]

남향한 가지능선이 외측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석재가 무너져 내려 성벽 외측에 많은 양의 석재가 흘러내렸다. 현재는 성벽이 내외면을 아랫 부분에 남기고 있으며, 성벽 바깥으로 경사면을 내려가 평탄면도 남아 있다.

성벽은 안쪽과 바깥쪽에 석축의 잔존부가 있어서 내외 겹축된 것이다. 성안으로부터 밖을 향하여 대략 25도의 경사를 이룬 경사면을 따라 안쪽보다 바깥쪽의 보다 아래에 석축 잔존부가 있다. 석축의 잔존부는 80cm의 높이로 남아 있으며, 안쪽은 4~5층을, 바깥은 5~6층을 쌓은 것이 확인된다. 성벽의 너비는 4.2m이며, 윗면은 바깥을 향하여 무너져 내린 붕괴면이 단을 이루고 있다. 외측의 부분은 붕괴면이 55도의 기울기를 이룬다. 성의 외측으로는 무너져 내린 석재가 7m외축까지 있고, 경사가 완만한 부분이 16~17m를 내려가 다시 경사가 급해지고 있다.

[단면 11] 동남 계곡부 동측 성벽[도면 26 #11, 사진 55·57·58]

남동향한 계곡에 성의 내외를 출입하는 小路가 있고 이 소로는 안쪽으로 현저히 내만하는 곡부를 통과한다. 이 곡부의 동측으로 많은 성석이 무너져 내린 부분이 지형을 따라 경사를 이루며 내려오는 곳이다. 성벽은 안쪽의 지형이 바깥으로 흘러내린 때문에 마치 내탁된 것처럼 되어 있고, 외면의 석축이 아랫 부분에 남아 있다.

성내에서 성외측을 향하여는 10도 이하의 느슨한 경사면을 이루며, 이 느슨한 경사에서 경사가 급해지는 언저리로부터 4m의 외측에 외면 석축이 있다. 이 붕괴된 사면은 30~35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성벽의 외측면 잔존부는 높이 1.2m이고 6~7층을 쌓은 것이 남아 있다. 이곳의 외측으로는 무너진 석재가 약 4m의 범위까지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그 아래로 다시 7.5m쯤 경사가 완만히 내려간 다음 다시 경사가 급해지고 있다.

[단면 12] 동남 계곡부 서측 성벽[도면 26 #12, 사진 59]

남동향 한 계곡의 서측으로 낙엽으로 덮힌 상태여서 석축의 흔적이 잘 구분되지 않는 곳이나, 외면 하부의 석축 일부가 남아 있다. 곡부에서 남쪽 끝으로 回折하는 위치이며, 성내에 너비 6m의 평탄한 내환도가 있다. 이 내환도의 가장자리에서 경사가 급히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바깥으로 4.4m의 거리에 높이 60cm를 3층으로 축조한 성벽 외측 하단부가 있다. 붕괴된 경사면은 40~42도의 기울기로 급경사를 이루었으며, 외벽면 외측으로 무너진 성돌이 3m 이상 흘러내린 곳은 기울기가 32도나 되는 경사를 이룬다. 붕괴된 석재 밖으로는 경사가 더욱 가파르게 내려가 계곡으로 이어진다.

앞의 단면 11과 이곳의 사이는 성안쪽을 향하여 내만되어 있어서 물이 빠지는 水口와 문 터 등의 시설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곳이다. 밖으로는 마성터널 방향의 계곡을 따르는 길이 있어서 주요한 통로가 되므로, 계곡을 이용한 虎口 모양을 만들었다고 여겨진다.

[단면 13] 남벽 남단의 성벽[도면 27 #13, 사진 60·61]

이 산성의 가장 남쪽 부분은 남향한 능선 마루가 느슨한 경사를 이루는 부분에서 성벽이 동서 방향으로 이어져 방향을 바꾸는 回折部를 이룬다. 이러한 현상은 북쪽에서의 회절과 같은 양상으로, 거의 수평을 이룬 성벽이 등고선을 따라 돌아가면서 내부에 평탄하게 돌아 가는 내환도를 이룬다.

성벽은 윗면에서 내외 접촉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성벽의 너비는 4.5m이나, 외측 벽면은 위로 오르면서 토압에 의하여 밖으로 밀려난 상태이므로 윗면에서의 너비는 성벽의 기울기를 감안한다면 3.8~4m 정도였다고 여겨진다. 내측의 벽면은 높이 45cm 이고, 2층의 석축이보이고, 성벽의 윗면에서 안쪽으로도 붕괴 경사면이 있어서 양쪽으로 붕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벽 정상부에서 바깥을 향하여는 30도 이상의 기울기를 가진 붕괴 경사면을 이루고, 그 외측 아래에 높이 70cm이고 5~6층을 축조한 잔존부가 있다. 이 부분은 성벽이 위로 오르면서 밖으로 밀려나 있어서 지금도 붕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밖으로 무너진 성돌이 있는 부분이 약 4m의 범위에 걸쳐 있고, 그 외곽으로는 경사가 30도를 이루는 완만한 경사면 6m 아래로 다시 경사가 10도 정도의 완만한 부분이 10m나 계속된 다음에 다시 경사가 급해지는 테라스 모양의 토루 흔적이 있다. 이 외환도 모양의 평탄면은 남벽의 회절부외곽을 둘러 있으며, 서쪽과 동쪽의 성벽 외연으로도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단면 14] 남벽 회절부 서측 성벽[도면 27 #14, 사진 62·63]

성벽이 남쪽에서 크게 回折하여 서벽으로 이어진다. 성의 내부는 평탄면이 이어지면서 서측으로 길게 찍선상의 좁고 긴 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성벽이 서쪽으로 돌아 북항하는 곳 에 서향하는 小路가 있어서 동백리 방면의 주요한 통로가 된다. 이 통로의 남측부분의 성벽은 성벽의 내측 벽면이 일부 남아 있고, 외측 벽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성벽의 내면 석축은 높이 70cm를 3층으로 축조한 것이 남아 있고, 이 석축의 바로 윗쪽에서 시작된 외향 붕괴면은 8m의 범위까지 35도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도 성벽은 대략 너비 4m를 기준으로 축조되었던 흔적이 있으나, 성벽 윗쪽에서의 붕괴된 석재가계속 흘러내려 성벽의 외면 하단부 잔존부까지 덮힌 상태로 여겨진다.

붕괴 경사면의 아래로는 약 12m의 거리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다가 다시 30도의 급경 사를 이룬 후, 4m 너비의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결국 성의 외곽으로는 테라스 모양의 외 환도가 있어서 석축 성벽의 외연을 구성하고 있다.

[단면 15] 서벽 남측 성벽 ①[도면 28 #15, 사진 64·65]

성벽이 남단에서 회절하여 다시 북향하면서 낮은 부분을 지나 경사면을 오르는 곳으로, 성벽은 거의 직선으로 외측 벽면이 비교적 안정되게 잘 남은 곳이다.

성벽의 안쪽으로는 예비군 참호가 있으며, 내외 겹축된 성벽으로 여겨진다. 성벽 윗면에서 밖으로는 단을 이루며 붕괴되었고, 외축 벽면은 1.8m의 높이가 14~15층으로 거의 수직을 이루어 축조되어 있는 상태이다.

성벽 밖으로는 많은 석재가 무너져 내렸으며, 성벽의 너비는 위쪽에서 3.8m이다. 외측면의 당초 높이는 성벽 위의 최고지점을 기준하면 3.5m 이상이었다고 추측된다.

[단면 16] 서벽 남측 성벽 ②[도면 28 #16, 사진 64·66·67]

앞의 지점에서 계속하여 경사면을 북향하여 오르면서 성벽이 비교적 잘 남은 곳이다. 내외 결축의 상태를 잘 보여주며, 성안쪽에서 밖을 향하여 경사가 있는 부분에서 축조된 석축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성벽은 안쪽의 평탄한 곳에서 밖으로 경사진 곳에 축조되어 당초 외측은 낮은 위치로부터 축조되었다고 여겨진다. 성벽의 너비는 아래에서 4.6m를 기준하고, 윗쪽에서는 경사도를 감안하여 약 3.8m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현재 안쪽의 벽면은 5~6층을 80cm 높이로 축조한 상태로 남아 있고, 바깥면은 10~11층으로 1.8m의 높이까지 축조한 부분이 남아 있다.

외측 벽면 밖으로는 7m의 범위까지 무너진 석재가 있다. 외측 성벽에서 성벽 위로는 붕괴 경사면이 40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현존한 성벽 위를 기준하면 당초 외측 벽면의 높이는 4m 이상으로 추정된다.

[단면 17] 서벽 남측 성벽 ③[도면 29 # 17, 사진 64·68·69]

앞의 지점에서 직선으로 북향한 곳으로 석축은 가장 전형적인 내외 경축을 이루고 있다.

성의 안쪽과 바깥쪽의 지면 높이가 거의 같은 곳으로 성벽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를 이룬 곳이면서 동서 방향으로는 거의 평탄한 곳에 해당한다. 안쪽과 바깥쪽의 석축 벽면은 각각 1m 정도씩 남아 있고 성벽의 너비는 4.6m이다. 성의 밖으로는 무너진 성돌이 깔려 있다.

[단면 18] 서벽 중간부의 성벽과 성내 구분 석축부[도면 29 # 18, 사진 70·71·72·73]

이 산성의 북부와 남부가 지형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석축으로 된 작은 구분 석축이 남아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 대략 해발 320m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곳에 서벽의 안쪽으로 지형을 따라 단을 이룬 낮은 석축이 일부 남아 있다.

서벽은 역시 내외 겹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성벽의 외면 석축은 약 80cm의 높이를 4 ~5단으로 축조한 부분이 남아 있으며, 안쪽의 내벽면도 약 60cm를 3층으로 축조한 상태가 확인된다. 성벽의 너비는 대략 4.3m이고 성벽 잔존부의 정상에서 내외 양측으로 붕괴 경사면이 있다. 이 붕괴경사면은 외측으로 매우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현존 정상부를 기준하여 외측면의 성벽은 최하 3m의 높이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성벽의 내측은 비교적 평탄한 대지를 이루고 있다. 평탄면의 남쪽 외연으로 약 2m의 구간에 석재가 무너지고, 가장자리에는 2~3층으로 석축한 상태가 잔존하고 있다. 이 석축의 흔적은 비슷한 높이로 동향하여 이어지고 있으며, 성벽보다는 작은 규모이나, 단순한 담장의 성격으로 보기도 어렵다. 성벽으로 보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은 것이지만 이 석축 흔적이 성내를 크게 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면 19] 서벽 중앙부 석축[도면 30 #9, 사진70 • 74 • 75 • 76]

서벽의 거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곳에 직선을 이룬 성벽의 외측면이 잘 남은 곳이다. 윗 면은 내외 겹축의 상태를 보여주나, 내측은 낮게 성벽이 구분될 뿐이고, 외축 하면은 높이 3.2m로서 할미성 전체로서는 가장 높이 벽체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성벽 위는 안쪽과 바깥으로 붕괴 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너비가 4m이다. 안쪽으로는 높이 40cm 정도로 벽면이 구분된다. 외측으로는 17~20층의 석축 벽면을 이루고 있다. 석축 벽면은 아래에서 1.7m의 높이까지는 85도의 수직에 가까운 벽면이고, 중간에서 경사를 바꾸어 윗쪽 1.5m에서는 경사가 75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 보아 당초의 외축 벽면은 4.2m 이상의 높이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기울기의 내외 접축 성벽이었을 경우 아랫부분의 성벽 너비는 5.4m 정도로 추측된다.

[단면 20] 서벽 북측 성벽 ①[도면 30 #20, 사진 77·78]

서벽은 중간부에서 회절하여 방향을 동북향하고, 북쪽으로 완만히 내만한 성벽이 북부를 이룬다, 방향이 동북—서남인 부분은 외측의 성벽이 직선을 이루어 잘 남아 있는 부분이 된 다. 이 부분의 중간부에 대한 단면이다.

성의 내부는 헬리포트가 조성되어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성벽은 위쪽에서 내외 겹축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내벽면의 석축은 무너졌다.

외측 벽면은 80도의 경사를 이룬 19층으로 축조한 성벽이 2.6m 높이로 남아 있다. 성벽 위에서는 안쪽과 바깥쪽으로의 붕괴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다. 안쪽 경사면의 안쪽에 석축의 부분은 현재 매몰되어 있다고 여겨지며, 현존의 성벽 윗면을 기준하면 당초 성벽의 높이는 4.2m 이상 되었다고 환산된다.

[단면 21] 서벽 북측 성벽 ②[도면 31, 사진 79]

서벽 북측 성벽의 내만된 부분에 남아 있는 성벽은 성내에 접축된 상태를 보여주는 뚜렷한 혼적이 없다. 그러나 약간 도드라진 곳의 외측으로 완만한 붕괴면이 형성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벽의 위쪽은 겹축되었던 것이라 추측된다. 현재 외측 벽면은 11층을 2m의 높이로 축조한 부분이 남아 있다. 성벽은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석재를 조금씩 뒤로 물려 축조하는 방법으로 쌓아 올리다가 일정한 높이(1.2m 정도) 위에서는 안쪽을 향하여 경사가지도록 재조정하여 축조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석축면의 기울기는 80도에 이르며, 위쪽의 붕괴면은 20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3) 문터와 내부의 시설

할미성의 성벽을 따라 돌아보면 현재 이 성의 안팎을 통행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어느 곳도 문터로서의 혼적인 門口部의 石築이 드러나 있는 곳은 없다.

할미성의 안팎을 드나드는 小路는 북쪽의 능선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오르내리는 곳이 두 곳이고, 남쪽의 계곡을 따라 드나드는 곳이 두 곳이 있다. 이들 모두 네 곳의 소로는 방향으로 보면 각기 동서남북의 방향이 되므로 이들이 모두 문터일 경우 할미성은 사방에 통행문을 가진 것이 된다.

북쪽의 소로는 성내 최고 정상에서 북쪽으로 능선을 따라 난 길이며, 성벽에 開口部를 만든 형적이 나타나 있지 않아 문터인지의 여부는 의심이 된다.

성 전체의 북동쪽인 동쪽 통행로의 경우에도 동향하여 낮아지는 능선을 따라 나 있는 길이며, 역시 문구부라고 확인할만한 확실한 유구가 지표상에 드러나 있지 못한 곳이다.

위의 두 길은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능선을 따라 오르내리는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다.

남쪽의 문터로 여겨지는 곳은 성의 남단 동측으로 동남향한 계곡부에 있다. 이곳은 성내에서 물이 모여들어 배수가 되어야 되는 위치가 되며, 성벽 밖으로 계곡을 따라 등산로가나 있다. 성벽은 이 통로의 좌우에서 성안쪽으로 內彎되어 있으며, 통행로는 급경사를 이루

고 있다. 이 계곡부의 좌우로는 석축의 외곽으로 토루를 만든 듯하게 양축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며, 계곡에서 오르는 사람은 성벽의 남쪽에서 훌륭히 관찰된다. 이곳은 따라서 排水口와 문이 입지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문이 있었다면 안팎의 높이차가 너무커서 아마도 懸門의 형식을 취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성의 안팎을 통행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는 할미성 남단의 서쪽 지점에 있는 통행로이다. 이곳은 석축의 성벽이 일부 단절된 開口部의 형상이 약간 확인되는 곳이며, 성내가 평탄하고 성밖으로는 좌우가 작은 능선을 이루어 통행로가 비교적 느슨한 경사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곳은 성의 서반부에서 내려온 물이 배수될 위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곳이 가장 중요한 문터일 가능성이 있다. 남쪽과 서쪽의 두 문터로 여겨지는 통행로는 할미성 전체의 가장 남단에 속하며, 성내에 평탄지가 돌아가고 있는 곳이다. 성의 남반부가 남북 방향의 능선으로 나뉘어 양쪽으로 작은 谷部를 이룬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성안에는 평탄지가 몇 개의 평지로 조성되어 있으나, 우물의 형적은 남아 있지 않아서 이미 매몰되었다고 여겨진다.

성내의 평탄지는 높은 부분인 내곽에 정상부 대지와 헬리포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성벽 안쪽으로 돌아가며 좁고 길다란 대지가 있다. 남쪽으로는 주로 남단의 성벽 回折處를 따라 역시 좁고 길다란 대지가 U자 형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지표상에 남아 있는 건물터의 礎石은 없다. 할미성 안에는 북에서 남으로 경사가 급한 부분이 성의 거의 중앙부에 있으며, 이부분의 동서 방향으로 단을 이룬 좁은 대지도 있다.

4) 채집 유물

• [도면 32-①, 사진 81-①]

회청색 경질의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굵은 모래가 많이 섞였다. 아가리는 바깥으로 벌어졌으며, 입술[口緣端]은 바깥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도록 처리되었다. 내외면으로 물손질 되었다.

· 추정 입지름 : 17.4 cm

• [도면 32-3, 사진 81-2]

회갈색 경질 토기의 목[脛部], 어깨[肩部]부분 조각으로, 바탕흙[胎土]에는 굵은 모래가 섞여 있으며,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아가리는 모두 깨어져 나가서 그 형태를 알 수 없다. 외면에는 평행 두드림무늬[打捺文]가 찍혀 있으며, 내외면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 [도면 32-4], 사진 81-3]

회갈색 경질 토기의 목[脛部], 어깨[肩部]부분 조각으로, 바탕흙[胎土]은 잔모래가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에는 얕은 횡침선(橫沈線)이 2 줄 돌려져 있으며, 내외면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 [도면 32-②, 사진 81-④]

회백색 연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유약이 시유되지 않은 사발조각으로 추정된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였으며, 표면 풍화가 심하다. 몸통 외측면은 바닥에서부터 완만한 곡선으로 휘어져 올라갔으며, 굽은 깨어져 나갔다. 바닥 안쪽에는 받침으로 사용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외면은 물손질 정면되었다.

·현재 높이 2.2cm ·추정 굽지름 : 6.2cm

【도면 32-⑤, 사진 81-⑤】

회청색 경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였다. 외면에는 문살무늬[格子文]에 가까운 두드림무늬[打捺文]가 찍혀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 【도면 32-⑥, 사진 81-⑥】

회청색 경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굵은 모래가 섞여 있다. 외면에는 2줄의 횡침선(橫沈線)이 돌려져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 【도면 32-⑦, 사진 81-⑦]

회갈색 연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내면은 적갈색을 띤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였다. 외면에는 문살무늬[格子文]에 가까운 두드림무늬[打捺文]가 찍혀 있으나 표면 풍화와 마모가 심해 희미하다.

• 【도면 32-8, 사진 81-8】

짙은 회청색 경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기심은 자주색이다. 외면에는 평행 두두림무늬[打捺文]가 찍혀 있으며, 표면 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내면에는 문살무늬[格子文]에 가까운 두드림무늬[打捺文]가 찍혀 있으며, 일부에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 【도면 32-9. 사진 82-11】

짙은 회청색 경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기심은 자주색이다. 두드림무늬[打捺文]가 희미하게 찍혀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한 혼적이 남아 있다.

• 【도면 32-⑩, 사진 82-②】

회색 연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홁[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외면에는 평행 두드림무늬[打捺文]가 서로 교차되어 찍혀 있으며, 내면에는 손가락으로 눌러다진 혼적이 남아 있다.

• 【도면 32-①, 사진 82-③】

회색 경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내외면으로 물손질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32-⑫, 사진 82-④】

회색 경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외면에는 평행 두드림무늬[打捺文]가 찍혀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다.

• 【도면 32-14, 사진 82-⑤】

회색 경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은 잔모래가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에는 횡침선(橫沈線) 1줄이 돌려져 있으며, 횡침선의 위, 아래로는 여러줄로 이루어진 물결무늬[密集波狀文]가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32-⑥, 사진 82-⑥】

회백색 와질 소성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은 잔모래가 섞인 정선 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표면 풍화가 심하며, 내면에는 손가락으로 눌러 다진 흔적이 남아 있다.

• [도면 32-(3), 사진 82-(7)]

적갈색 연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였다. 외

면에는 두드림무늬[打捺文]가 희미하게 찍혀 있으며, 내면에는 손가락으로 눌러 다진 흔적이 남아 있다.

• [도면 32-46, 사진 82-8]

적갈색 연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무늬는 없으며, 내외면으로 표면 풍화와 마모가 심하다.

5) 축조 유형과 성격

이제까지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와 포곡면 마성리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491.3m의 백령산 위에 있는 할미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할미성은 산의 정상부에서 남향한 능선을 에워싼 일종의 테뫼식 산성이며, 지형상 사모형의 산에 축조된 것이다. 축성은 석축을 하되 기본적으로 석축은 내외 겹축의 기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경사면이 이중으로 되거나, 현저히 내외의 고저차가 있는 곳에서는 일부 내탁의 방법을 취한 곳도 있음을 알게되었다.

할미성에는 성안에 건물터로 여겨지는 평탄면도 있고, 성밖으로는 외환도가 돌아가고 있으나, 성벽에 덧붙여진 치성이나 곡성의 시설이 없고, 또한 성벽을 보완한 시설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성벽은 이곳에 많은 화강암류를 사용하여 대체로 직장방형으로 다듬어 사용하였으며, 벽면 축조에서의 특이한 방법은 없고, 거의 일반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 즉, 성벽은 기본적으로 아랫부분의 너비를 5.4m 이내로 하고, 성벽의 윗면 너비는 최하 3.8m가 되게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성벽의 높이는 4m 이상 되었다. 성의 안쪽으로는 성벽을 따라 통행하는 내환도가 있으며, 외측으로도 기본적으로 외환도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할미성은 성내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대하여는 실제로 내외로 구분된 성곽으로서 존재한 것인지, 당초 내성 부분이 있다가 후일 석축 과정에서 확대되어 축조된 것인지 갑자기 판단할 수가 없다.

할미성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이해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할미성을 보개 산성과 혼동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할미성은 성의 평면 형태와 성벽의 축조방법에 있 어서 보개산성과는 크게 다르다. 이제 할미성에 대한 요약된 성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할미성은 산의 정상과 그 남쪽 사면 일부를 에워싼 紗帽形에 가까운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 할미성은 바로 남쪽과 북쪽으로 동서로 넘는 중요한 고갯길을 控制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 할미성은 성내가 남북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 두 구역은 성벽과 성벽 안쪽의 內環道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 o 할미성의 석축 성벽은 기본적으로 內外夾築을 하고 있으며, 성벽의 둘레는 내축 기준 642m, 외측 기준 672m로서 성벽의 둘레가 660m라고 할 수 있다.
- 할미성의 성벽은 아랫 너비 5.4m, 윗너비 3.8m, 높이 4m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부분에 따라 너비와 높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 O 할미성의 성벽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따라 축조되었으므로 별도의 曲城이나 雉城은 시설되지 않았다.
- 할미성의 석축 성벽 외측으로는 토루를 형성한 단이 형성된 부분이 있다. 이 형식은 당초 토축이었던 성을 석축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석축 성벽의 기단 외촉 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고려되었을 것임을 알려준다.
- 할미성의 석축 벽면은 수평 가로 어긋눈쌓기를 하였으나, 수평의 규칙성이나 성돌의 사용, 쐐기돌의 제한적 사용 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성벽의 축조 시기가 고려 후기 이전의 형식에 속한다.
- 할미성에서는 표토에서 유물을 거의 찾을 수 없으나, 일부 수습된 유물들은 토기와 도기편이 있다. 이들 유물들은 그릇의 전체 모양을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나, 대 체로 목이 짧은 항아리에 해당한다. 유물들은 대체로 이웃한 보개산성(석성산성)에서 수습되는 것들보다 오래된 형식에 속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할미성은 보개산성보다 전에 사용되었던 산성으로 볼 수 있다.
- 할미성에서 수습된 약간의 유물들은 적갈색 내지 회갈색의 연질토기를 포함하고, 회 청색 경질의 타날문토기가 있으므로, 대체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에 결친 유물들이 섞여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산성의 경영은 삼국시대 이래의 것이라고 잠정적인 시대를 설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6) 할미성의 보존 방안

할미성은 고대의 석축 산성으로서는 축조 상태가 꽤 많이 남아 있는 중요한 산성이다. 특히 서북쪽의 성벽은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곳이 많다. 인근에는 에버랜드를 비롯한 위락 및 교육 문화시설이 있다.

할미성의 경우는 성내의 당초 표면이 매몰되어 지표에서 유물의 수습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용인지역의 고대문화를 간직한 寶庫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산성은 文化財로 指定하여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할미성에 대한 보존조처가 1차적인 행정적 조처라면, 2차적으로는 원상이 더 훼손되지 않

도록 보존하고,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 마성터널을 지나 보개산을 잇는 등산로를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조차할 필요가 있다.

할미성을 그대로 보존하려면 석재의 반출이 없도록하고, 현재 무너진 석축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조처가 필요하다. 현재 성안에 있는 민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장하고, 성내의 토사가 더 이상 유실되지 않도록 통행의 제한도 필요하다.

6. 보개산성(寳蓋山城:石城山城)

위치와 환경

보개산성이 위치한 보개산은 현행 1:50,000 지형도(no. 190 水原 도엽번호 nj52 -9-19)에는 해발 471.5m의 삼각점이 표시되고, 석성산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 산은 용인시 일원에서는 가장 중심되고, 우뚝 솟아서 멀리에서도 바라다 보인다. 산은 행정구역상으로 용인시 구성면과 포곡면 및 기흥읍에 걸쳐 있으며, 산의 서쪽 사면은 구성면 중리(中里)이고, 동쪽 사면은 포곡면 마성리와 용인시 유방동(柳防洞)이다.[도면 1·33·35]

보개산의 산성은 석축의 산성이므로 석성산이란 이름이 보개산이란 이름과 함께 하였다고 여겨지나, 보다 오랜 이름은 보개산이라 여겨진다. 석성산은 석축의 산성이 축조된 후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이 산에는 현재도 성의 내부에 通華寺가 있고, 동쪽 사면 아래에는 白靈寺가 있다. 그만큼 이 산은 옛 구성현의 동쪽에 있으면서 산줄기가 경안천과 신갈천을 가르는 분수령을 이루고 있었다. 산의 사면은 낮은 구릉이 잘 발달되어 작은 골짜기마다 자연부락들이 형성되어 있다.

산의 북쪽으로는 잣고개의 깊은 鞍部를 지나 할미성이 있다. 이 할미성은 보개산의 북쪽 능선에서 빤히 내려다보인다.[도면 35]

석성산은 주변의 평야지대를 건너 사방을 조망하기에 좋은 위치이다. 이 때문에 일찍이 이 산위에는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보개산 봉수는 동남쪽의 죽산 건지산에서 받은 신호를 북쪽의 광주 천천현 봉수로 이어주는 곳이었다. 이러한 통신상의 요충은 이 산이 한강유역에서 차령산맥을 잇는 최단거리에 있는 산으로서 매우 요충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도면 2]

보개산은 노출된 거대한 암반이 많고, 산세가 가파르다. 산세는 남쪽의 큰 계곡 방향으로 비교적 완만하다. 이 계곡의 아래에는 金嶺驛이 있어 고려시대 이래로 교통의 요충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성은 가장 높은 정상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여러 개의 암반으로 된 봉우리를 감싸고 축

조되었고, 성안에 봉수대도 시설되었다. 성벽의 내부는 지적이 다음과 같이 세 부락으로 나뉘어 있다.[도면 35]

- 구성면 중리 산40-1 임야, 산40-2 임야 서쪽 사면
- 포곡면 마성리 산77-33 임야, 산78-1 임야 북동쪽 사면
- 용인읍 유방동 산90-1 임야에서 산90-7 임야 남쪽, 동남쪽 사면

보개산은 광주 남한산에서 남으로 뻗은 산줄기의 남단에 우뚝 솟은 것으로 城山이라 흔히 부르기도 한다. 보다 남쪽으로는 負兒山(403m)과의 사이에 메주고개라 불리는 고개가 있다. 이 고개는 본디 멱조고개(覓祖嶺)로서 할아버지를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부아산을 일명 祖峯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조봉산 기슭에 살던 용이 승천하다가 자기가 살던 조봉이 어딘가 싶어 되돌아 보았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13)

2) 보개산성(寶蓋山城 : 石城山城)의 현황

보개산성은 보개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해발 471.4m의 지점을 북쪽 끝으로하여 남남서 방향으로 465m 이상의 봉우리 3개를 지나, 남쪽의 계곡 상단을 남향하는 능선과 동남향한 능선과 함께 포용한 성벽으로 되어 있다. 서향한 작은 가지능선과 최정상에서 동향하여 급히 낮아지는 가지능선을 에워싸고 있어서 매우 불규칙한 평면형태를 가진다. 북쪽에서는 좁고 남쪽으로 넓어져 불규칙한 마름모 꼴을 하고 있다.[도면 4]

성벽은 외면을 할석으로 축조하고 안쪽으로 석재를 채워 內托한 성벽이 대부분이며, 경사가 급하거나, 암반으로 된 곳도 있다. 경사면이 급하여 성벽을 축조하였으나, 이미 붕괴된 부분이 적지 않다. 지형이 구역에 따라 구불거리고 들쪽날쪽하여 별도의 치성이나 곡성을 시설할 필요가 덜하였다고 여겨진다. 다만 현저히 돌출된 부분은 자연 상태를 최대한 이용하여 치성이나 곡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 통행하는 길은 4곳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은 동남쪽에 있는 문터로 통행하는 길이며, 이 길은 백령사에서 작은 계곡을따라 오르는 가장 가깝고 요긴한 통로이다. 남쪽 계곡의 서측으로는 남향 능선으로 돌아가는 길이 뚫려 있고, 남쪽 능선을 따라 군용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북쪽의 최고봉에서 북향하여 낮아지는 등산로가 있으며, 성문을 시설한 문터는 동남쪽 한군데가 남아 있을 뿐이다.

석축된 성벽은 북쪽에서 동쪽을 돌아 남쪽으로 돌아 오르는 곳까지 확인이 가능하나, 서쪽의 성벽은 출입이 불가하고, 많이 훼손되어 간신히 윤곽만을 확인할 수 있다.

¹³⁾ 용인군지편찬위원회, 『용인군지』(1990, 용인군) 11쪽.

성내에는 현재도 이용하는 우물이 두곳이 있으며, 곳곳에 건물지의 흔적이 남아 있고, 전 체적으로 기와와 그릇 조각들이 산견되고 있다.

성벽의 총 둘레는 기록에 2,529尺으로 보이고, 일제시대의 조사 기록에는 약 700間으로 나타나 있다. 2,529尺은 布帛尺으로 환산하면 대략 1,182m가 되며, 700간은 1,260m가 된다. 이러한 수치는 현존하는 성벽의 도면상 실측치인 1.65km 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본디의 기록상의 길이가 천연 암반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석축을 쌓은 수치 만을 계산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며, 현존의 성벽이 후대에 넓혀진 결과로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사정을 알 수가 없다.

성벽은 북쪽 끝에서 최남단을 이룬 서남쪽 끝까지의 직선 거리가 560m이고, 북쪽 끝에서 동남쪽 끝까지는 470m, 서남쪽 끝에서 동남쪽 끝까지는 350m이고 서쪽 돌출부에서 동벽으로는 310m가 된다.

성의 내부에는 현재 헬리포트가 2개소나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최북단의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약 100m가 떨어진 곳으로 이곳에 봉수대터가 남아 있다. 봉수대가 있는 곳은 암 반으로 구성된 봉우리로 북쪽의 최고봉 다음의 봉우리가 된다. 보다 남쪽의 봉우리와 가장 남쪽의 봉우리는 군 시설이 들어서면서 암반으로 된 묏부리가 발파되어 원래의 형상을 찾을 수 없다.[도면 34]

성의 평면형태가 북쪽에서는 동서 방향의 너비가 좁아들고, 남쪽에서는 넓은 까닭에 성 벽은 동쪽(정상에서 문터까지), 남쪽(문터에서 도로까지), 서쪽(도로에서 북쪽 최정상까지) 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정확하지가 못하다.

여기서는 봉수대를 기준하여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성벽의 잔존 상태를 단면도와 함께 설명하기로 하겠다.

[단면 1] 봉수대 북측 헬리포트 서쪽 성벽[도면 37 #1, 사진 87·88]

성내는 능선의 鞍部를 이룬 곳에 헬리포트를 조성하여 너비 17m가 평탄하다. 헬리포트의 동쪽으로 성내는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2m의 구간을 30도 경사로 내려가 3m의 구간이 평탄한 內環道를 이루고 있다. 이 부분의 외측 가장자리 아래로 성벽이 있었다고 여겨지나, 성벽을 축조한 부분은 급경사로 되어 있을 뿐 잔존한 성벽 흔적은 없다. 급경사인 자연 지세 자체로도 성벽을 대체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 부분에서 북쪽으로는 노출된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벽의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등산로는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구불거리며 나 있다.

[단면 2] 북벽 서측 암반 사이의 성벽[도면 37 #2, 사진 89]

북쪽의 등산로에서 회절하여 등산로가 남쪽을 향하는 지점으로 암반 사이에 겨우 흔적을

남긴 성벽이 잔존되어 있다.

성벽은 바깥의 45도 각도의 경사면 위에 능선의 정상부를 이용하고 있으며, 너비 3.7m의 범위가 성벽의 너비임을 안쪽과 바깥에 남은 1층의 석재로 알 수 있다. 바깥쪽의 석재는 크고 두께가 두텁다. 안쪽은 보다 얇고 면이 직각을 이루지 못한 석재이다. 성안쪽으로는 4m의 거리까지 22도의 기울기를 보이다가, 다시 안쪽으로 4m의 구간은 15도 각도로 경사가 완만해진 다음 급경사로 낮아진다.

[단면 3] 북벽 회절부의 성벽[도면 38 #3, 사진 90·91]

북쪽 끝지점으로 성벽은 서쪽에서 북쪽으로 튀겨져 급히 동벽쪽으로 회절한다. 성벽은 위쪽에 너비 2m 정도의 너비로 높은 곳에서 안쪽과 밖으로 붕괴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이 붕괴 경사면의 안쪽으로는 3m 정도의 거리까지 경사가 완만하다. 그러나 밖으로는 40도의 경사를 이룬다. 붕괴 경사면의 너비는 7m에 달하며, 이곳에서 성벽은 너비가 넓고 높이 축조되어 북쪽 능선으로 오르는 길을 차단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성벽의 바깥은 거대한 암반 露頭이다. 이 암반 노두의 높이는 6.8m나 되며, 북쪽 능선으로 가파르게 올라와 있으며, 성내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이 높은 암반 노두를 올라 성벽에 닿아야 된다. 따라서 북쪽 능선을 차단하는 북쪽 회절부의 성벽은 이 암반 노두를 합하여 최소한 9m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 된다.

[단면 4] 북단 동측 회절부의 성벽[도면 38 #4, 사진 92]

북쪽의 등산로에서 동남향하여 회절한 성벽이 느슨한 경사를 이루는 능선을 이루다 갑자기 가파른 암반 노두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능선 외측에 급경사가 있어 성벽은 능선 정상을 이용하여 급경사면 상단에 흔적만 남기고 있다. 능선 정상에서 외측면 하단까지는 4.2m이며, 외면 석축은 1층이 열을 이룬다. 성 안쪽으로는 6m의 구간에서 20도의 경사를 보이다가 암반을 가지고 있다. 성벽은 이와 같이 능선의 정상부 바로 외측면을 이용하여 성벽 윗면이곧 통행로인 내환도의 구실을 하고 있다.

[단면 5] 북동쪽 능선 위의 성벽[도면 39 #5, 사진 93·94]

최북단에서 동남향한 작은 가지능선이 암반 노두로 연결되어 급경사로 낮아진 후 다시 암반 절벽을 이루는 위쪽 부분으로, 성벽의 안쪽과 바깥쪽이 모두 벼랑을 이루는 곳이다. 암반으로 형성된 능선 상면을 이용하여 내외 겹축의 성벽을 구성하고 있다.

성벽의 외측은 50도 경사를 이룬 암벽이고, 이 암벽의 위로 20도의 경사를 이룬 구간이 1.2m이다. 성벽은 외측 벽면이 1.2m의 높이로 남아 있다. 이 벽은 아래쪽에 커다란 할석을 사용하고 이에는 안쪽으로 들여서 보다 작은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의 내측 벽면은 2층만이 남아 있다. 성벽의 너비는 아래쪽에서 5.6m이고, 위쪽에서 5.4m이다. 성벽의 윗면은 성내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성내쪽으로 1m의 간격을 둔 다음 50도의 경사로 벼랑을 이룬다.

능선 줄기 전체를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한 것으로서 암반 위의 망대, 혹은 초소와 같은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성벽의 너비를 넓게 축조한 좋은 예에 해당한다.

[단면 6] 동벽 북측 급경사 계곡부의 성벽[도면 39 #6, 사진 95 • 96]

북쪽으로 암반 위에 치성이나 망대처럼 축조한 곳에서 남쪽으로 다시 거대한 암반 절벽의 사이에 좁은 계곡이 있어서 급경사를 이루고 사태가 진행중인 곳이다.

성벽의 안쪽은 좁은 계곡을 이루어 경사가 35도나 된다. 성벽은 한총의 외면 성석이 남아 있는데, 이 외면 석의 밖으로 1m의 간격을 평탄히 하고 그 바깥은 다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 계곡부는 좌우의 암벽 사이를 성벽으로 막아 축조하였던 것이 사태로 말미암아 붕괴되어 성벽을 축조하였던 흔적만 있다.

[단면 7] 동벽 북측 제2 돌출부의 성벽[도면 40 #7, 사진 97]

암벽 사이의 좁은 계곡의 남쪽으로 거대한 암반이 있는 북측에 암반 위에 축조하였던 성 벽의 일부가 남아 있다. 앞의 단면 5와 같이 이곳도 작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치성이나 망 대처럼 좌우의 계곡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성벽은 내환도를 이룬 평탄면의 너비가 2.4m이고, 외측 벽면이 85cm의 높이로 5층을 축조한 것이 남아 있다. 성벽 정상부는 내환도와 구분되며, 성벽의 너비는 3.8m이다. 그러나 안쪽의 벽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성밖은 45도 경사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단면 8] 동벽 북측 제3 돌출부 북쪽 성벽[도면 40 #8, 사진 98·99]

거대한 암벽의 남측으로는 다시 좁고 작은 계곡을 이루어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의 남쪽으로는 약 50m의 구간에 밖으로 돌출하는 부분이 있다. 성벽은 굴곡을 가지고는 있으나 비교적 직선상으로 이어져 있다. 세 번째 돌출부와 거대한 암벽 사이의 중간지점에 석축이 약간 남아 있다.

성내는 가파른 경사면이 갑자기 평단해져 암반 외측으로 3m의 지점에 성벽의 안쪽 벽면 한계로 여겨지는 석재가 있고, 이로부터 4.6m의 외측에 2층으로 축조한 높이 60cm의 석축 외벽면이 있다. 성밖은 1m쯤의 역유를 둔 다음 급한 경사면을 이룬다.

성벽은 기본적으로 내외 경축을 하고 있으며, 안쪽에 내환도를 만든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단면 9] 동벽 북측 제3 돌출부의 성벽[도면 41, 사진 99·100]

제 3 돌출부는 남향하던 성벽이 남서방향으로 각을 이루어 방향을 바꾸는 곳이며, 보다 남쪽으로는 성벽이 서서히 내만한다.

성벽은 비교적 커다란 할석으로 외면이 가지런하지 못하게 축조하였다. 성벽 안쪽은 4m 너비의 내환도상 평탄지가 있고, 성벽 위에서 안쪽으로 붕괴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서 내외 겹축의 성벽임을 알 수 있다. 성벽의 너비는 안쪽으로의 붕괴 경사면이 끝나는 지점을 기준하여 5m이다. 외측 벽면은 커다란 할석을 6층 쌓아 2m의 높이로 축조하여 평균 30cm가 넘는 두께의 할석이다.

성벽의 바깥은 1m의 여유를 둔 다음 30도의 경사로 낮아진다.

[단면 10] 동벽 중앙 내만부 북측 성벽[도면 41 #10, 사진 101·102]

동쪽 성벽의 중앙부는 제 3 돌출부에서 제 4 돌출부까지 크게 성벽이 안쪽으로 굽어들었다. 이 굽어든 부분은 단순하게 弧形을 이루지 않고 북쪽에서 보다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이다. 이 부분은 성벽이 성내로부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외측 벽면이 바깥으로 현저히 밀려나 있다.

성벽의 안쪽은 5m의 너비로 평탄하며, 내환도를 이룬다. 성벽은 3m의 너비를 보이고 안쪽 한계에 석재가 세워지듯 하였다. 외면 석축은 1.2m의 높이를 5층으로 축조하여 커다란 석재와 납작한 석재를 혼용하였다. 성벽 위는 밖을 향하여 붕괴 경사면을 이루고, 성벽 외측은 2m의 여유를 두고 다시 25도의 경사로 내려간다. 이 부분에서 성벽의 너비가 좁으나, 윗면은 내외 겹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면 11] 동벽 중앙 내만부 중앙 성벽[도면 42 #11, 사진 102·103·106]

내만부의 중앙은 다시 밖으로 약간 나간 상태이다. 이는 아마도 지반에 있는 커다란 암반을 기초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듯하다. 성내는 9m의 범위가 평탄한 대지를 이루고, 주초로 여겨지는 할석이 불규칙하게 남아 있다. 성벽의 윗면에는 안쪽으로 함몰한 커다란 석재가 있어 역시 주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 성벽의 외측 벽면은 12~13층을 3.6m의 높이로 축조한 부분이 잘 남아 있다. 이로서 보면 당초 이 부분의 성벽 외측 벽면의 높이는 5m가 넘었고, 기초석을 이룬 암반까지 합하면 7m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성벽은 50도 경사를 이룬 천연 암반 위의 가장자리를 기점으로 할석을 80~85도의 경사로 축조하였다. 천연 암반의 외축으로는 45도의 급한 경사면을 이룬다.

현재 보이는 양상으로는 內托에 가까운 듯하나, 당초에는 내외 겹축된 성벽이라 여겨진다.

[단면 12] 동벽 중앙 내만부의 남측 성벽[도면 42 #12, 사진 104·106]

내만부의 남측은 성내에 넓은 평탄지를 가지고 있다. 이 평탄지는 성벽 윗면을 합하여 너비가 20m나 된다. 성벽은 동벽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잘 남아 있다. 17~18층으로 축조된 외측 벽면은 높이가 3.7m나 남아 있으며, 성벽의 경사는 75도를 나타낸다. 성내 평탄면과 비교하여 당초의 성벽은 적어도 높이가 4.8m 이상 되었다고 추정된다. 바깥으로는 4m의 구간이 15도의 완만한 경사를 이룬 후 급경사를 이루며 낮아진다.

[단면 13] 동벽 제4 돌출부의 성벽[도면 43 #13, 사진 105·106]

동쪽 성벽 중앙에서 크게 내만한 성벽의 중앙에 曲城모양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의 성벽은 곡성, 혹은 치성의 前面과 남면은 붕괴가 심하고 북면에 석축이 남아 있다. 성내는 평탄지가 가장 넓고, 성벽의 외측면은 3.2m의 높이를 12층으로 축조한 것이다. 성벽의 외측면 위쪽은 안쪽으로 함몰되면서 둥근 모습을 하고 있으나, 성벽의 전체 기울기는 80도를 가지고 있다. 성벽 하부는 1m의 범위가 마치 기단부를 조성하듯 처리하였고, 외측으로 다시 한번 段을 주어 외환도 모양으로 되어 있다.

[단면 14] 동벽 제6 돌출부의 성벽[도면 43 #14, 사진 107·109]

동쪽 성벽 중앙 내만부에 있는 돌출부의 동남쪽으로 암반 절벽으로 구성된 제5 돌출부가 있다. 이 부분은 암반 자체를 성벽으로 삼은 것이다. 이 제 5 돌출부의 동남쪽으로 좁은 계곡을 이루고 내부에 건물지로 여겨지는 평탄면이 있다. 이 평탄면은 현재도 경작지로 일부이용되고 사찰(통화사)에서 관리한다. 이 평탄한 경작지의 중앙은 다시 내만되어 있으며, 앙쪽으로 돌출부가 있다. 북쪽 돌출부는 성벽이 북동향으로 남아 있으며, 남쪽 돌출부는 다시 거대한 암반 절벽으로 되어 있다. 이 북쪽 돌출부는 동벽의 북쪽으로부터 여섯 번째의돌출부이다. 이 돌출부에서 성벽은 동남향하다가 서남향으로 거의 직각으로 회절한다.

성벽은 성벽 안쪽의 건물터로 여겨지는 평탄한 대지 가장자리에 석축의 외면벽이 밖으로 붕괴되는 상태로 남아 있다. 4층을 1.1m의 높이로 축조한 상태는 위쪽이 밖으로 붕괴되는 진행상태임을 보여준다. 성벽 안쪽으로 5.2m 들어와서 석재가 하나 보이는데, 이것이 성벽의 안쪽 한계선이라면 성벽의 너비는 5.2m가 된다. 성벽 외측으로 붕괴 경사면이 있어서 붕괴는 지속되고 있으며, 당초의 성벽 높이는 2.8m 이상으로 산정된다.

[단면 15] 동벽 제6 돌출부 남쪽 내만부 성벽[도면 43 #15, 사진 108·109]

제 6 돌출부의 남쪽으로, 평단한 대지의 중앙에서 성내의 빗물이 빠지는 작은 계곡 방향에 성벽이 남아 있다. 남측으로는 암반 절벽이 제 7 돌출부를 이루는 내만부이다.

성내의 대지는 약 7m의 너비이며, 그 외촉 가장자리는 약한 붕괴 경사면이다. 성벽의 외촉 벽면은 7~9충을 1.2m의 높이로 축조한 것으로 벽면은 거의 수직이다. 성벽의 아래에는 기단부를 만든 부분이 있다. 기단부는 성벽 아래로부터 80cm의 밖으로 80cm의 높이인데 맨아래의 석재는 두께가 40 cm에 달한다. 이 기단석에서 2~3충을 계단식으로 들여서 성벽이 축조된 것인지, 아니면 성벽의 하부에서 밀려난 것인지는 갑자기 판단하기 어렵다. 기초부를 합한 외벽면의 높이는 2m이고, 성내 평탄면을 보아 성벽은 최소 3m의 높이를 가졌다고 여겨진다. 성벽 외측으로는 45도 이상의 급경사로 낮아진다.

[단면 16] 동벽 남단 내만부의 성벽[도면 44, 사진 110·111·117]

제 7 돌출부의 남쪽으로, 성벽은 지형을 따라 굴곡이 있다. 통화사 앞의 암반 절벽이 동항하여 작은 가지능선을 이루는 곳에서 동문터까지는 성내가 작은 골짜기를 이루며, 성벽은 내만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 산성의 동남쪽에 있는 통화사 언저리의 물이 빠지는 水口가 있어야되는 위치이다.

이곳 주변은 석축이 비교적 견고하였던 탓인지 잘 남아 있다.

성벽은 8m 너비의 평탄지에서 15도의 느린 붕괴면을 가진 후 암반 위에 6층을 1.8m의 높이로 축조하였다. 벽면은 80도의 경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성벽은 아래에 비교적 대형의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 성벽은 암반 모양의 자연석을 기초로 하여 축조되었고, 그 외측으로 는 20도 경사를 이루며 낮아진다.

이 내만부는 현재도 소량의 물이 배수되는 곳이며, 당초 수구가 있었던 곳으로 타처에 비하여 견고한 성벽을 구축하였던 곳으로 여겨진다.

[단면 17] 동문터의 세로 방향 단면[도면 45·46 #17, 사진 115·116·118]

동문터는 이 산성의 동남쪽 끝 부분의 남향으로 나 있다. 동남쪽 끝 부분은 동벽의 남단에서 회절하여 서쪽으로 둥글게 돌아가며, 이 회절부분은 이 산성의 중앙부 능선이 남쪽에서 돌출한 부분에서 동향하는 작은 가지능선의 끝이 된 부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돌단부는 성밖을 판망하여 근접하는 외부인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인 동시에, 좌우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방어에도 유리한 위치이다. 성을 통행하는 동쪽 통로로서 백령사에서 골짜기를 따라 서쪽으로 올라 동문터를 향하여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파르게 오르도록되어 있다.

문터는 커다란 장대석으로 만들었으며, 門口部의 좌우 側壁이 3~4층 남아 있다. 현재도 이 문구부를 통하여 통행한다.

성벽이 문구부의 동측으로는 겨우 형적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1~2층으로 남은 석축의 외벽면은 윗쪽에 붕괴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고, 성벽 외측으로는 절벽으로 되어 있다.

이 성벽의 외연에서 서측으로 5.6m의 거리에 동문 문구부의 동측 측벽이 올라가고 있다. 이 측벽은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조금씩 물려 쌓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원상태로부터 조금씩 석재가 놓인 상황이 교란되었다. 동쪽 측벽은 높이 1.1m를 3층으로 장대석 모양의 큰 석재로 축조한 것이며 벽면은 약 75도의 기울기이다.

서측 측벽도 3~4층으로 1.1m의 높이가 남아 있다. 문구부의 평균 너비는 2.6m이며 윗쪽으로 벌어진 모습이다. 서측 측벽의 위에서 서쪽으로 1.6m를 떨어진 위치에 주초석 모양의석재가 남아 있다. 이 석재는 성문의 측벽이 최소한 이 높이까지 축조되었을 것임을 알려준다. 이 경우 측벽의 높이는 최소한 1.8m가 되어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없었을 것이다. 한편이 석재를 성문 위의 城樓 초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동측에서는 붕괴되었다고 여겨진다.

동문의 동측은 문구부의 측벽에서 현존하는 성벽 외측면과의 간격이 5.7m에 불과하므로 문 자체가 남쪽 성벽의 최동단에 마련된 셈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동벽은 문의 동측에서 시작되어 북으로 수구를 이룬 작은 계곡의 내만부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다. 이를테면 이 동 문은 위에 있던 城樓가 곧 角樓 혹은 鋪樓의 기능을 함께 가진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단면 18] 동문의 가로 단면 성벽[도면 45·46 #18, 사진 113·114·117]

동문 문구부의 바닥은 현재 외측에 2층을 60cm의 높이로 축조한 부분이 있고, 여기서 안쪽으로 6.3m를 들어가는 길은 경사가 10도를 이루며 높아진다. 다시 성의 안쪽으로는 역시 10~15도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문은 이 6.3m의 법위에 있으며, 문구부의 외측은 문구부보다 넓은 개구부를 이루고, 그 외측으로 낮게 단을 두었던 것이다.

[단면 19] 남벽 동단의 겹축 성벽[도면 46 #19, 사진 119·121]

동문에서 서쪽으로는 작은 가지능선이 동향하는 상단부를 따라 성벽이 축조되어 있어서, 서쪽으로는 경사를 오르게 된다. 능선의 鞍部가 되는 곳에는 동문으로 오르는 길을 더욱 올라서 통행하든지, 아니면 곡성부를 돌아 남쪽 계곡으로 통하는 小路가 있다. 이 부분에 당초 暗門이 시설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에 대한 유구의 혼적은 보이지 않는다.

능선의 안부를 이룬 곳에는 내외 겹축의 석축 아랫면이 일부 남아 있다. 성벽 안쪽에서는 1층의 축석부만 보이고, 바깥쪽에서는 3층의 석축이 남아 있다. 바깥쪽의 석축은 기초를 이루는 커다란 석재에서 약 70cm의 안쪽에서 석축을 시작하였다. 이 바깥의 석축은 높이 1.1m가 남아 있다. 기초부의 성벽 너비는 5m 이상 되지만, 성벽부의 너비는 4.4m이고, 성벽의 윗면은 내외 붕괴 경사면이 각각 단을 이루고 있다. 잔존 성벽의 위까지의 높이는 기초부에서 1.9m에 불과하나, 기초석의 외축에 약 1.5m의 간격이 완만한 다음 급경사로 낮아지고 있다.

성의 안쪽은 내환도가 3.5m 너비의 평탄면을 이룬 후, 25도 경사로 낮아져 암반의 단을 이루고, 다시 동문과 통화사를 잇는 1m 너비의 길이 있다.

[단면 20] 남벽 동측 곡성부 동측의 성벽[도면 47 #20, 사진 120·121]

남벽은 남향한 큰 계곡을 횡단하는 내만부가 있고 능선을 따라 내려온 지점에 돌출부를 만들고 있다. 이 돌출부는 동측의 중앙 능선을 돌아가는 曲城과 서쪽의 능선 및 암반부를 이용한 곳 동 3곳이 있다.

동축의 곡성부가 돌출되기 전에 동향한 경사면을 따라 성벽이 직선상으로 뻗은 곳도 외축으로는 암반을 이용한 기초 위에 석축되었다. 성벽의 안쪽으로는 물론 외축으로도 급경사를 이룬 곳이다.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성벽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준다.

성벽은 50도의 경사를 이루는 암반 위에서 1.1m의 높이를 3층으로 축조하였다. 석재는 커다란 할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80도 이상의 거의 직립한 벽면을 이룬다. 성벽 위에서는 외축으로 거의 평탄한 경사면이고, 안쪽으로는 30도의 붕괴 경사면을 이룬다. 이 경사면은 외축 벽면 하단부와 같은 높이까지 지속되다가 더욱 가파른 경사로 떨어진다. 따라서 성벽의 기단부 너비는 5m가 되며, 성벽의 높이는 1.5m에 불과하다.

이처럼 능선 자체가 양쪽으로 경사가 심하여 성벽의 구실을 하는 곳에서 성벽을 높게 축 조하지 않고 女墻보다 나은 정도로 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이후의 산성에서는 흔히 보이는 수법이다.

[단면 21] 남벽 동측 곡성부 횡단면[도면 47 #21, 사진 122]

보개산성의 정상부 능선에서 동남향한 중앙 능선의 남단이 鞍部를 이루는 곳에 성벽이 능선을 횡단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밖으로 凸形으로 돌출된 평면을 이루며, 성벽은 雉城처럼 말각 장방형으로 돌출되었다. 현재는 성벽 위를 따라 돌아다니며, 좌우의 전망이 매우 좋은 위치이다. 성벽은 內托된 모습을 보여주며, 동축과 서축의 벽면은 많이 붕괴되었다.

동측의 성벽은 50도의 급경사면 위에 1~2층의 커다란 할석으로 축조한 부분이 남아 있다. 석재는 두께가 65cm나 되며 위로는 급한 붕괴 경사면이므로 높이가 2m이다. 서측 성벽은 암반 위로 50도의 급경사를 이룬 윗쪽에 4m의 구간이 경사도 35도의 붕괴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동측과 서측벽 사이의 윗면은 중앙이 약간 오목한 평탄지이다. 동측 성벽의 외면과 서측 성벽의 외면 붕괴 경사면 하단부와의 사이는 11.6m이나 성벽 윗면에서의 너비는 8~9m에 달하였다고 여겨지며, 이 경우 성벽의 너비는 평균 너비의 곱이되는 셈이다.

[단면 22] 남벽 동측 곡성부 종단면[도면 47 #22, 사진 123]

곡성부의 남쪽 벽면은 25m의 높이를 5층으로 축조한 벽면이 잘 남아 있다. 석축은 아래에 높이 1m나 되는 커다란 할석을 놓고 위로 오르며 안쪽으로 조금씩 물려 80도의 경사를 이루었다.

성벽 외측은 약간의 평탄면을 지나 급경사를 이룬 능선이 된다. 안쪽은 20m까지 평탄면에 가까운 느린 경사로 성내를 향하여 낮아진다. 성벽 외면에서 안쪽으로 2m의 거리에서 성벽 윗면을 이룬 높은 곳이 되고 안팎으로 느린 붕괴 경사면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곳 남쪽 벽면의 당초 성벽의 높이는 3.5m 정도였다고 여겨진다.

[단면 23] 남벽 동측 곡성부 서측 내만부의 성벽[도면 48 #23, 사진 124]

중앙부 능선이 동남으로 내려와 현 통화사가 있는 작은 谷部와 남쪽의 큰 계곡을 가른다. 남쪽의 큰 곡부에서 성벽은 내만되어 있으며, 동측으로는 능선 鞍部에 최근에 건립한 석탑 이 있다. 이 석탑 남쪽의 성벽은 곡성부에서 서쪽으로 완만한 弧線을 그리며 내만한다. 이 부분에서부터는 서쪽으로 성벽의 안쪽이 내환도상의 좁고 긴 대지로 되어 있다.

성벽은 거의 붕괴되어 외촉 벽면의 하부 석축 일부가 관찰된다. 능선이 뻗는 곳이므로 능선을 따라 성벽이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성벽 위로는 곡성부로 이어지는 길이며, 여기서 안팎으로 붕괴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안쪽의 경사면은 25도이고, 외측으로는 40도의 경사를 내려가 2층 65cm의 높이로 남은 외측 벽면이 있다. 이 벽면은 현재도 붕괴가 지속되고 있다. 외측 벽면 아래로는 20도 경사를 이룬 3.2m의 구간을 지나 경사는 매우 가파르게 되어 있다.

성벽은 외측면 하단의 석재로부터 3.2m의 높이가 되며, 성벽 안쪽으로 小路가 있다.

[단면 24] 남벽 중앙 동측 성벽 ①[도면 48 #24, 사진 125·126]

남벽 중앙의 계곡부 중앙은 물이 배수되는 곳으로 샘이 하나 남아 있다. 이 부근의 언저리 성벽은 이미 붕괴가 극심하여 수구의 형상을 지표에서 관찰할 수가 없다. 이 중앙부 계곡의 동측으로는 통화사와의 사이에 趙光祖를 모신 사당 건물이 있다. 이 사당의 남쪽부분은 성벽의 외측 벽면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성벽의 안쪽은 10m 이상의 너비를 가진 평탄지이며, 여기에 조광조를 모신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의 남쪽 끝에서 바깥을 향하여 약 6m의 평지가 마당처럼된 성벽의 내환도이다. 성 벽은 內托된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평탄면의 외측 가장자리에 있는 외측 벽면은 80도의 경사를 이룬 11층의 석축을 2.3m의 높이로 쌓았다. 석축은 비교적 고른 할석을 이용하고 위로 오르면서 접차 규모가 불규칙한 석재로 축조하였다. 성벽의 외측은 20도의 경사를 이론 부

분이 1m쯤 되다가 50도의 급경사를 이룬다.

이 부분의 성벽은 안쪽으로 내탁된 듯한 외형을 보이고 있으나, 경사면에 축조된 성벽이 이처럼 잘 남은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안쪽 벽면 위를 덮거나, 내외 결축한 성벽의 안쪽을 후대에 사태로 메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단면 25] 남벽 중앙 동측 성벽 ②[도면 48 #25, 사진 127]

조광조 사당의 서측으로 중앙 내만부에서 약간 외측으로 돌출한 듯한 성벽의 동축이며, 조광조 사당의 서측 마당 외측에 해당한다.

성내는 12m의 너비를 가진 평탄면을 이루고 있으며, 외촉 가장자리를 향하여 약간 높아진 다음 단을 이룬 붕괴 경사부가 있다. 석축의 외벽면은 1.8m의 높이로 8층으로 축조하였고, 70도의 경사를 보인다. 석축은 위로 오르면서 안쪽으로 조금씩 물려 쌓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붕괴면 위까지의 높이는 2.5m이다. 성벽의 외측은 2m의 구간에서 30도의 경사로 낮아지다가 그 바깥으로는 급경사로 낮아진다.

[단면 26] 남벽 중앙 동측 성벽 ③[도면 49 #26, 사진 128]

조광조 사당과 남벽 중앙 계곡의 중간쯤으로 성벽의 안쪽은 너비 8m의 평탄지가 내환도를 이루고 있다. 석축된 외측 벽면은 거의 수직으로 4층을 쌓아 높이가 1.2m이고, 그 위로는 커다란 할석이 80cm나 안쪽으로 들어간 지점에 얹혀 있다. 본디의 성벽 높이가 이 석재까지라면 2.2m가 된다.

성벽은 비교적 큰 할석을 사용하고, 외측으로는 25도 경사면이 1m 지속된 후 급경사를 이룬다.

[단면 27] 남벽 중앙 서측 통행로 서측 성벽[도면 49 #27, 사진 129·130]

남벽 중앙의 계곡에서 성벽은 서남향한다. 동측으로부터 조금씩 낮아지던 성벽의 통과 위치는 계곡을 지나 다시 조금씩 서측 능선을 향하여 높아진다.

구성면 중리에서 오르는 도로가 성벽 외측의 서남쪽에서 동향하여 통화사로 통하는 통행로가 성벽을 자르고 개설되어 있다. 이 부분이 본디 성문이 있었던 혼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 통행로의 바로 서측으로 성벽이 남은 곳이 있다.

성벽은 안쪽으로 내환도가 2m의 너비로 있으며, 석축 외벽면은 14층 2.8m의 높이가 75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석재는 정연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위로 오르면서 크기가 작아진다. 윗쪽의 붕괴면을 기준으로 성벽의 너비는 3.8m이고, 성벽 외측으로는 25도의 경사로 2.4m를 내려간 지점에 노출 암반이 쐐기모양으로 박혀 있다. 암반 아래는 통행로가 2m의 너비로 나 있고, 통행로 외측으로는 급한 경사면이다. 이 부분은 남벽 전체에서 가장 높게 석축

이 잘 남은 부분이며, 벽체 외면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단면 28] 남벽 서측 경사면의 성벽[도면 49 #28, 사진 130·131·132]

남벽의 중앙 계곡부에서 서측으로 능선을 향하여 올라간 곳으로 성벽은 남향 경사면의 지형을 따라 조금씩 굴곡이 있다. 성내로는 내환도가 있으며, 석축된 외측 벽면은 경사가 가파른 부분에 축조한 탓으로 지금도 붕괴가 지속되고 있다.

성안은 20도의 경사를 이룬 경사면에 1.2m의 너비로 내환도가 있고, 성벽은 내탁된 모습으로 외측 벽면이 80cm의 높이로 3층을 축조한 부분이 남아 있다. 벽면 외측으로도 20도의 경사로 1.4m를 나가서 급경사로 내려간다. 벽면은 아래보다 위로 오르면서 바깥을 향하여 밀려나 있으며, 성벽 위까지의 최대 현존 높이는 1.5m이다. 이 부분은 지형상 급경사면에 축조되어 높은 성벽이 아니더라도 방어가 가능한 위치가 된다.

[단면 29] 남벽 서측 暗門 부분의 성벽[도면 50 #29, 사진 133・134・135]

남벽의 서측 부분은 성벽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산의 주능선이 남향하여 뻗은 부분을 횡단하는 곳에서 성벽은 동남향하는 암반부를 이용하여 동측에서와 같은 곡성부를 만들고 있다. 이 곡성부의 동서 양측은 모두 내만하고 있으면서 급경사면을 이룬다.

곡성부의 암반으로 된 남쪽 벽면과 서측 벽면의 사이에 내환도를 따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성벽 밖으로 통하는 小路가 있다. 이 소로의 통행로는 천연의 암반을 깎아내어 만든 길로서, 성의 暗門으로 마련된 시설로 여겨진다.

문의 외측은 3.6m의 높이가 되는 수직 암반으로 차단되며, 문의 안쪽은 70~75도의 경사를 가진 거대한 암반이다. 이 사이에 너비 1.2~1.3m의 부분을 凹形으로 만들어 통행로가되어 있다. 성의 외부 아래쪽에서는 암반이 아래에서 위로 절벽을 이룬 모습만이 보일 뿐이다. 통행로의 외측 가장자리는 1.1m의 높이를 1.5m의 너비로 여장처럼 만들고 있다. 이러한 暗門의 구조는 이 산성이 가지는 여러 특징적 구조 가운데 하나로서 매우 흥미롭다.

[단면 30] 남벽 서축 작은 계곡 동측 성벽[도면 50 #30, 사진 136·137]

보개산의 최고봉에서 남주하는 능선이 평탄지를 이룬 곳에 헬리포트가 있고, 이곳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커다란 암반 노출부가 있는 곳에서 성벽이 회절한다. 능선이 낮아지는 동측의 사면에 거대한 암반이 낮아진 곳에 곡성 모양으로 성벽을 마련하므로서 두 돌출부 사이는 경사가 급한 좁은 곡지가 되고, 여기에 小路가 있다. 이 소로는 능선을 따라 오르는 통로였으며, 내만하는 만곡부 직전에서 동쪽으로 暗門으로 통과하는 길로 나뉜다.

이 경사면 동측의 돌출부 서측 사면의 성벽은 거의 직선을 이루고 있으며, 성벽의 외측 벽면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성벽의 너비는 4.3m이고 외측 벽면은 4~5층으로 1.5m의 높이를 75도 각도로 축조하였다. 성벽의 윗면은 안팎으로 느슨한 붕괴 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성벽 안쪽으로 경사가 급하나, 외축으로는 5m의 곳까지 평탄하고 비탈면에 小路가 있다.

[단면 31] 남벽 서측 회절부 동측 성벽[도면 50 #31, 사진 138·139·140]

이 산성의 남서쪽 모서리에 해당하는 회절부 동축은 좁은 내만부로 이어지는 곳이며, 거대한 암반의 동축으로 성벽이 동쪽에서처럼 좁게 내만하여 小路가 있는 곳이어서, 당초 이곳은 양쪽으로 虎口狀을 이룬 내만부에 성문이 시설되었던 곳으로 추축된다.

성벽은 거의 허물어졌으나 외측 석축의 벽면이 2층 75cm의 높이로 남아 벽선의 통과선을 알려준다.

성벽은 외측을 향한 경사면에 축조되어 30도 경사의 붕괴 경사면이 4.5m의 구간으로 되어 있고, 그 외측 하단 석축의 바깥으로는 15도 경사면이 1m를 나가며, 다시 급경사로 낮아진다.

[단면 32] 서벽 남단의 성벽[도면 51 #32, 사진 141]

성내는 능선을 횡단하는 도로가 있어서 평탄면이 10여 m나 이어지고, 그 가장자리에 2m 너비의 배수 홈이 있다, 그 외측으로 40도 경사를 이룬 붕괴 경사면이 있고, 외축 벽면이 14~15층으로 3m 이상 남은 곳이 된다.

성벽의 외측 벽면은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거의 수직에 가깝다가 80도의 경사면을 이루며, 2.3m의 위쪽에서부터는 65도의 경사로 안쪽으로 조금씩 물려 쌓았다. 붕괴 경사면을 포함하여 성벽의 높이는 최소 4.2m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된다.

[단면 33] 서벽 남부 경사면의 성벽[도면 51 #33, 사진 142]

서쪽 능선 아래의 헬리포트에서 서쪽으로 경사진 곳의 성벽으로 서벽의 남부에서는 석축이 겨우 남은 부분이다. 성안에서 55도를 이룬 급한 붕괴 경사면을 이루며, 외축 석축은 얇은 할석으로 3층을 50cm의 높이로 축조한 것이 남아 있다. 외축으로는 30도 경사로 3.7m를 내려가 경사가 완만해져 15도 경사로 6.8m를 나가 급경사로 이어진다. 이 느슨한 경사면은 바로 위의 헬리포트 조성시 위로부터 붕괴된 성벽이 아래로 밀려 내려가 덮인 것이고, 바로 남축의 구불거리는 도로 개설 때에 삭토된 흙을 도로의 굴곡부에 덮어 굴곡지점 외축에 얼마간의 평탄면을 조성한 것이다.

서쪽 성벽은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는 군 시설이 들어서고, 경계용 철조망이 있어서 당초의 성벽 모습은 희미한 흔적만 간혹 보이고 있다. 다만 서쪽에서 작은 가지능선이 鞍部를 이룬 곳이 한 곳이 있으며, 성벽은 이 작은 가지능선의 鞍部 평탄면을 타원형으로 감싸고

돌아 북향하여 급한 경사면을 따라 이어지고 있다.

3) 보개산성의 성문과 내부 시설

【성문】

현존하는 보개산성은 서쪽 성벽의 실상을 잘 알 수 없는 관계로 성문이 몇 개나 있었는 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존하는 성문의 유구는 3곳이 있고, 당초에는 이보다 많았으리라 추측된다. 여기서는 현재 유구의 일부를 남기고 있는 세 개의 문터에 대하여 현존상황을 살피고, 나머지 문터가 있었을 가능 지역을 언급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문터로서 가장 확실한 것은 동남쪽에 있는 동문터라 불리는 것과 남벽 서측에 있는 暗門의 성격을 가진 문터, 그리고 양쪽 성벽이 내만한 곳의 남문터가 있다.

[동문터][사진 113·114·115·116]

동문터로 불리는 문터는 門口部의 석축 일부가 남아 있다. 할석을 잘 치석하여 武砂石으로 만든 장대석 모양의 대형 석재로 문구 側壁을 축조하였다. 문의 안쪽과 바깥에는 문을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시설이 없다.

문을 설치한 위치는 남동쪽의 통화사가 있는 작은 계곡에서 물이 빠지는 谷部의 남측으로 약간 올라와 성벽이 동벽에서 남벽으로 급히 回折한 부분의 바로 서측이 된다. 이처럼 문을 등성이의 끝쪽에 만든 예는 潭陽 金城山城의 예가 있다. 이 경우 동남단의 회절부 자체는 水口와 문을 동시에 공제하는 敵臺의 구실을 하게 된다. 성밖에서 문으로 오르는 길은 매우 가파르다. 동쪽의 계곡쪽으로 접근한 적을 문으로 나가 협공하기에 알맞는 위치가 되기도 한다. 즉 문이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염려가 가장 적기 때문에 별도의 甕城 등을 시설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시설을 만들 공간도 없는 곳에 문을 만든 것이다.

문길은 밖에서 안쪽으로 단을 이루어 좁혔으며, 너비가 2.3m이다. 현재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서 문은 사각문의 형태에 門樓를 갖추었었다고 여겨진다. 이 문이 산성으로 진입하는 가장 쉬운 길에 마련된 문의 하나로 여겨진다.

[남 암문터][사진 133·134·135]

남벽 서측에 있는 문터의 자취는 暗門의 형식으로 마련된 느낌이다. 암반으로 이루어진 절벽을 이용하여 작은 문을 만든 것으로서, 棧道를 이룬다. 즉, 남서쪽 능선과 계곡으로 올라서 성내로 진입하는 위치에 다시 작은 계곡을 이룬 부분이 양측에 암벽을 이룬 위치이고, 여기의 암벽을 이용한 천연적인 성벽을 이용하여 너비 1.1m의 좁은 통로를 암반을 깎아 만든 것이다. 내측의 측벽은 70~75도의 경사를 이루는 암벽 그 자체이고, 외측의 측벽은 높

이 3.6m의 암벽 위에 1m 이상의 높이를 너비 1.5m로 축조하였다. 외측에서 보면 성벽이 꺾인 지점 바로 안쪽이어서 문이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고, 거대한 암벽만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성안에서 본다면 가파르지 않은 성벽 안쪽의 環道를 서쪽으로 나가는 곳이며, 곧 급경사로 이어진다. 이곳에는 門樓 등의 시설은 마련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남문터][사진 139 • 140]

남문터는 남벽의 서측에 있으며, 이곳은 앞의 암문으로 오르는 길에서 곧장 경사면을 따라 오르는 길이다. 성벽은 좌우에서 현저히 안쪽으로 내만되며, 특히 동측의 성벽은 가파른 경사를 따라 내만되며 오른다. 평면이 八자처럼 된 곳은 언뜻 보아서는 그저 가파른 경사로보이나, 문구부의 언저리가 길이 나 있고, 서측으로는 능선을 따라 거대한 암반을 동반한부분이 튀겨나가 있고, 동축도 暗門 쪽으로 내려가 암반이 절벽을 이루고 있어서 門口部 외측은 자연적으로 양측에 敵臺 혹은 曲城을 가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농선에서 갈라진 좁은 谷部를 이용한 문터로서 문에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는 초석의 잔해 일부가 문구부의 서측에남아 있다.

문구부의 잔존 상태는 谷部 서측으로 드나드는 작은 소로가 있을 뿐으로 정확한 문구부 측벽을 알 수 없으나, 문이 이러한 지형에 마련된 점으로 보아 懸門의 양식을 취하였다고 여겨진다. 문구부 외측은 지형상 가장 방어하기 쉬운 虎口를 이루고 있다.

[기타]

이밖에 문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곳은 북쪽 끝에서 동벽을 따라 내려오는 암벽으로 이루어진 곳에 역시 暗門처럼 문을 낸 혼적이 희미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서쪽 성벽이 밖으로 돌출된 부분으로 군용시설이 있는 위치에 西門의 시설이 있었다고 여겨지나,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개산성은 이와 같이 대략 동문과 남쪽 성벽에 南暗門 및 南門, 그리고 아마도 서문이 있었다고 여겨지며, 남암문과 북문은 暗門적 성격으로 마련되었다고 여겨진다. 남암문과 북문은 능선으로 올라 험준한 암벽 사이로 좁은 암문을 마련하고, 서쪽과 남벽의 서측 및 동쪽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면서 방어에도 가장 용이한 지형을 이룬 곳에는 보다 규모가 있는 문을 만든 것이 큰 특징으로 여겨진다.

[수구]

보개산성에는 현존하는 수문 혹은 수구의 유구는 없다. 그러나 성내의 물이 배수되어야 하는 위치는 여러 곳이 있다. 능선에서 사방으로 경사를 이루며, 곳곳이 작은 谷部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이 빠져야 되는 바깥을 향한 谷部는 동쪽 성벽에서 가장 많다. 북쪽으로부터 谷部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 단면 #6 부분
- ② 단면 #7과 #8 사이
- ③ 단면 #8과 #9 사이
- ④ 단면 #12와 #13 사이
- ⑤ 단면 #13 남쪽
- ⑥ 단면 #14 북쪽
- ⑦ 단면 #15 부근
- ⑧ 단면 #16과 #17 사이

이 가운데 수구의 형적을 그대로 남긴 부분은 없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배수 관련 시설이 설치된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처럼 배수가 되는 곳은 지형상의 이유도 그러하며, 동시에 성벽은 성의 내부를 향하여 彎曲되어 있다. 성벽이 안쪽으로 만곡 된 경우에는 성의 내부에서 경사를 이루어 내려가는 水壓을 견디는데도 유익하다.

남쪽 성벽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남쪽 계곡의 물이 중앙의 계곡으로 모여들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성벽이 최대한 내향으로 彎曲한 부분인 谷部가 배수처이고, 현재도 이곳으로 샘물이 배수되고 있다. 좌우 사면의 물은 성벽의 안쪽 내환도를 따라 곡부쪽으로 모여들도록 성벽이 통과하고 있다. 이 彎曲된 부분에는 석축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수구의 존재 여부는 토사로 쌓인 부분을 제거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남벽의 서쪽 끝에 이르러 성벽이 다시 한 번 彎曲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능선에서 약간의 물이 배수되어야 하는 곳이며, 성벽도 현저히 내만되어 있다. 문터가 있었을 것으로 도 추정되는 곳이며, 얼마간의 배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서쪽 성벽에 있어서는 현저히 외측으로 튀겨져 내려간 부분의 좌우가 배수처로 여겨지나, 역시 군용 시설 때문에 현상을 알기 힘들다.

【건물터】

보개산성에는 현재 통화사가 있는 곳을 비롯하여 여기 저기에 평탄한 건물터의 흔적이 있다. 특히 정상부의 烽燧臺가 있던 북쪽의 헬리포트와 여기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정상을 따라 요소 요소에 좁지만 평탄한 곳이 산재하여 있고, 현재의 통신시설이 들어선 곳에서 남쪽으로 헬리포트가 있는 곳 등은 가장 높은 곳에서 사방을 조망하기에 좋은 위치들이다.

이들 정상부 능선상의 건물지들은 이미 파괴가 심하여 全貌를 알기 어렵다. 다만 봉수대 북쪽은 헬리포트 이외에는 파괴가 심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면으로의 건물지는 서쪽의 성벽이 현저히 외부로 돌출된 곳이 있으나, 표토가 두텁게 덮인 상태이다. 동쪽 사면으로는 크고 작은 평탄지가 군데군데 남아 있다.

동쪽 사면의 가장 위쪽 건물지는 봉수대터의 헬리포트에서 급경사로 남향하여 내려온 곳으로서, 우물과 건물의 초석 일부와 축대가 남아 있다. 이 건물터는 지금도 등산객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축과 남측에는 커다란 할석으로 높이가 1~2.5m에 달하는 높은 축대를 마련하여 평탄지를 조성하였다. 서측은 암벽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한 통로는 남쪽으로 나 있다. 건물의 초석은 제 위치인 것도 있어 보이지만, 교란된 상태이고, 서측의 암반절벽 아래 샘물이 솟아나 사철 마르지 않는다. 이 샘물은 남동향하여 배수로를 지나며, 이배수로의 동측 평면이 넓고, 서측으로도 건물지 평면이 아어져 있다.[사진 148·149·150]

샘을 동반한 이 건물지의 서남측으로 보다 높은 위치에 역시 축대를 가진 장방형의 건물 터가 있다. 약 6m의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면 남동향의 사면에 단을 이루고, 거기에 1~ 1.5m의 석축을 마련한 건물지가 있다. 폭은 좁고 길이는 길쭉하며, 고려시대로 여겨지는 어 골문 기와편과 조선시대의 기와가 산포되어 있다.[사진 151]

샘이 있는 건물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서 서측의 가파른 경사면에도 길이가 5m 남짓한 작은 건물터가 두곳이 있다. 아마도 샘이 있는 건물에 부속된 작은 건물들이 있었던 곳이라 여겨진다.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은 현재의 통화사가 있는 곳과 그 주변, 성의 동쪽 성벽 안쪽을 따라 이어진 계곡부의 평탄지가 가장 크다.

통화사는 우물을 동반한 곳으로 좁은 평탄지가 계단식으로 이어진 곳의 위쪽에 있다. 현재의 통화사는 경사면 위쪽에서부터 동남향하여 삼성각, 천불전, 관음전, 요사채가 자리하고 있으며, 미륵불과 창고 등이 있다. 그 아래로 이어진 채소를 경작하는 밭과 보다 북동쪽으로 넘어간 곳에도 넓은 평탄지가 있다.[사진 117·118]

통화사의 서측으로 능선상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석탑이 있고, 이 석탑에서 서쪽으로는 靜庵 趙光祖를 모신 사당이 있다. 통화사에서 이곳까지는 모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 이 되며, 서쪽으로 계곡까지 좁고 길다란 內環道狀의 평면은 계속된다.

성의 동벽 안쪽 커다랗게 내만된 안쪽으로는 길이 약 100m나 되고 너비가 10~20m에 달하는 평탄지가 있어서 주요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던 곳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밭으로 경작되다가 휴경지가 되면서 덤불이 우거져 있으나, 이동된 덤벙주초석이라 여겨지는 석재들이 군대군데 남아 있고, 기와조각이 산재한다.[사진 109]

성내의 전체에 걸쳐서, 심지어는 가파른 경사면의 도치에서 기와조각이 발견된다. 대체로 정상부쪽의 것과 사면 아랫쪽의 기와들은 시기적으로 다른 느낌을 준다. 즉, 정상부쪽에서 발견되는 기와들은 황갈색과 회색 내지 회청색의 기와 조각들로서 등무늬가 線條文을 포함 하여 이른 시기의 전형적인 어골문이 있고, 기와의 제작 수법도 내면의 布目痕이 뚜렷하고 측면 다듬기도 잘된 것이 많은데 비하여, 사면의 아랫쪽에서 발견되는 기와 조각들은 대부분 어골문과 복합문이 많고 조선시대의 青海波文도 섞여있다. 이러한 기와조각의 분포는 동시에 발견되는 土器片과 陶器片들이 거의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면, 보개산성의 정상부근에는 보다 이른 시기부터의 건물이 존재하였고, 경사면에 축대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차 건물은 늘어났다고 여겨진다.

4) 성내 출토 유물

(1) 토기류

• 【도면 54-②, 사진 152-①】

회색 또는 회갈색을 띠는 경질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2分된 것을 접합시켜 놓았다. 바탕흙[胎土]에는 굵은 모래알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표면 풍화와 박리가 심하다. 아가리[口緣部]는 바깥으로 말아 붙여 입술[口緣端]을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가운데 부분은 볼록렌즈 모양으로 관통되어 있다. 아가리와 목[脛部]의 경계부에는 얕은 돋을띠[突帶]가한 줄 돌려져 있다. 내외면으로 물손질 정면되었다.

· 추정 입지름 30.0cm

• 【도면 54-③. 사진 152-②】

회색 또는 회갈색을 띠는 경질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2分된 것을 붙여놓았다. 바탕훍[胎土]에는 모래알이 많이 섞여 있으며, 표면 풍화와 박리가 심하다. 아가리[口緣部]는 바깥으로 말아 붙여 입술[口緣端]을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가운데 부분은 볼록렌즈 모양으로 관통되어 있다. 입술 바깥쪽으로는 한쪽에 지름 0.8cm 가량의 원형 구멍이 반쯤 뚫려 있다. 아가리와 목[脛部]의 경계부에는 얕은 돋을띠[突帶] 한 줄이 돌려져 있다. 내외면으로 물손질 정면되었다.

· 추정 입지름 30.4cm

• 【도면 54-④, 사진 152-③】

회색 또는 회갈색을 띠는 경질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2分된 것을 붙여놓았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알이 많이 섞여 있으며, 표면 풍화와 박리가 심하다. 아가리[口緣部] 는 바깥으로 말아 붙여 입술[口緣端]을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가운데 부분은 볼록렌즈 모양 으로 관통되어 있다. 입술 바깥쪽의 접합부위에는 지름 0.8cm 가량의 원형 구멍이 반쯤 뚫 려 있다. 내외면으로 물손질 정면되었다.

· 추정 입지름 29.6cm

• 【도면 54-①, 사진 152-④】

회색 경질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일부 깨진 것을 붙여놓았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알이 많이 섞여 있으며, 일부에 표면 풍화가 있고, 부분적으로 박리가 매우 심하다. 외면 일부에는 녹색의 이물질이 묻어 있다. 아가리[口緣部]는 바깥으로 말아 붙여 입술[口緣端]을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가운데 부분은 볼록렌즈 모양으로 관통되어 있다. 입술 바깥쪽에는 6.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곳에 타원형 구멍이 반쯤 뚫려 있다. 내외면으로 물손질 정면되었다.

· 추정 입지름 45.6cm

【도면 54-⑤. 사진 153-①】

회색 또는 회혹색을 띠는 와질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아가리 일부와 몸통[同體部]의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알이 많이 섞여 있으며, 전체적으로 표면 풍화와 박리가 매우 심하다. 아가리는 대부분이 깨졌으나, 바깥으로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내외면으로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 추정 목지름 24.2cm

【도면 54-⑥, 사진 153-②】

회청색 경질의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아가리와 목[脛部], 어깨[肩部]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에는 잔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일부에 표면 풍화가 있다. 아가리는 수평으로 급격하게 꺾여 있으며, 끝이 둥글고 윗면을 넓적하게 처리하였다. 목[脛部]은 안쪽으로 기울어져 올라갔으며, 어깨[肩部]에는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고, 한 줄의 돋을띠[突帶]가 돌려져 있다. 내외면으로 물손질 정면되었다.

·추정 입지름 22.8cm

• 【도면 54-⑦, 사진 153-③】

회청색 경질의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아가리와 몸통[同體部]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은 잔모래가 섞인 정선된 점토이며, 일부에 표면 풍화가 있다. 아가리는 수 평으로 급격하게 꺾여 있으며, 끝이 둥글고 윗면을 넓적하게 처리하였다. 목[脛部]은 짧게 직립 하였으며, 몸통과 어깨[肩部] 사이에 회미하게 턱을 만들어 어깨를 짧게 표현해 놓았

다. 아가리와 목은 내외면으로 물손질 정면되었다.

- · 추정 목지름 20.0cm
- 【도면 55-①, 사진 153-④】

회색 또는 회백색을 띠는 와질에 가까운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바탕홁[胎土]에는 모래알이 섞여 있으며, 표면 풍화와 박리가 심하고, 외면 일부에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 아가리는 수평으로 급격하게 꺾여 있으며, 끝이 다소 뾰족하고 윗면을 넓적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으로 물손질 정면되었다.

- · 추정 입지름 34.4cm
- [도면 55-②, 사진 153-⑤]

회청색 경질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바탕홁[胎土]은 잔모래가 섞인 정선된 점 토를 사용하였다. 아가리는 수평으로 급격하게 꺾여 있으며, 끝이 다소 뾰족하고 윗면을 넓 적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으로 물손질 정면되었다.

- · 추정 입지름 24.0cm
- 【도면 55-③. 사진 153-⑥】

질은 회청색 경질의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바탕흙[胎土]은 잔모래가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아가리는 수평으로 말아 붙여 끝을 둥글고 윗면을 넓적하게 처리하였으며, 목[脛部]과 어깨[肩部]는 짧게 표현하였다. 몸통[同體部] 외면에는 문살무늬[格子文]에 가까운 두드림무늬[打捺文]가 희미하게 찍혀 있다. 기벽(器壁)은 0.2~0.4㎝ 정도의두께로 얇은 편이다.

- ·추정 입지름 22.4cm
 - 【도면 55-④, 사진 153-⑦】

회청색 경질의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바탕흙[胎土]은 잔모래가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부분적으로 표면풍화가 매우 심하며, 일부 바리가 있다. 아가리는 바깥으로 벌어졌으며, 입술[口緣端]은 두텁고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으로 물손질 흔적이 남아있다.

· 추정 입지름 9.6cm

• [도면 55-⑤, 사진 153-⑧]

회청색 경질의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있다. 아가리는 바깥으로 벌어져 있으며, 입술[口緣端]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아가리 안쪽으로는 자연유가 전체에 걸쳐 흡착되어 있으며, 내외면으로 회전 물손질 정면되었다.

- · 추정 입지름 8.0cm
 - 【도면 55-⑥, 사진 153-⑨】

회갈색 경질의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아가리는 바깥으로 벌어져 있으며, 입술[口緣端]은 다소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목[脛部]은 약하게 벌어져 있으며, 가운데에는 돋을띠[突帶]가 한 줄 돌려져 있다. 내외면으로는 전체에 걸쳐 연녹색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 · 추정 입지름 14.8cm
- [도면 55-⑦, 사진 153-⑩]

회청색 경질의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片]으로, 바탕흙[胎土]은 모래가 섞인 정선된 점 토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표면 풍화가 심하다. 아가리는 약하게 바깥으로 벌어졌으며, 입술[口緣端]은 수직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되었다. 내외면으로 회전 물손질 되었다.

- · 추정 입지름 14.6cm
 - 【도면 55-®, 사진 153-⑪】

회청색 경질의 토기 아가리조각[口緣部편]으로, 아가리 일부와 목[脛部], 어깨[肩部] 일부가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표면 풍화가 심하며, 흠집이 많이 생겨 있어 상태가 다소 불량하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아가리는 일부가 남아 있어, 바깥으로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목 이하의 전체와 내면 일부에는 황갈색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물손질 정면되었다.

- ·추정 목지름 9.6cm
 - [도면 56-①, 사진 154-①]

회청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에는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고, 기심은 자주색을 띠며, 표면 풍화와 일부에 흠집이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점토띠 형성혼이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불규

착한 굵은 횡선(橫線)이 돌려져 있다. 바닥은 안쪽이 약간 들린 납작바닥[平底]으로, 한쪽에 토기를 구울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받침의 일부가 부착되어 있다.

- · 추정 바닥지름 29.0cm
 - 【도면 56-②, 사진 154-②】

흑회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섞여 있고, 기심은 자주색을 띠며, 표면 풍화와 일부에 흠집이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한쪽에 토기를 구울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받침의 일부가 부착되어 있다.

- · 추정 바닥지름 34.0cm
 - 【도면 56-③, 사진 154-③】

혹회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섞여 있고, 기심은 자주색을 띠며, 내외면으로 일부에 흠집이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다듬기 위한 얕은 침선이 보이며, 몸통과 바닥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매우 거칠며, 한쪽에 토기를 구울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받침의 일부가 부착되어 있다.

- ·추정 바닥지름 28.2cm
- 【도면 56-④, 사진 154-④】

질은 회청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깨진 것을 접합하여, 바닥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섞여 있고, 기심은 자주색을 띤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문살무늬[格子打捺文]가 희미하게 찍혀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불규칙한 굵은 횡선(橫線)이 돌려져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다소 거칠다.

- · 추정 바닥지름 24.4cm
- 【도면 56-⑤, 사진 154-⑤】

회청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섞여 있으며, 표면 풍화와 일부에 흠집이 있다. 몸통[胴體部]과 바닥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고,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매우 거칠다.

· 추정 바닥지름 40.2cm

• 【도면 56-⑥, 사진 154-⑥】

회갈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 일부와 몸통의 극히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은 잔모래가 섞인 정선된 점토이며, 표면 풍화와 일부에 박리가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점토띠 형성흔이 남아 있으며, 몸통과 바닥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다소 거칠다.

· 추정 바닥지름 22.8cm

• [도면 56-⑦, 사진 155-①]

짙은 회청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고, 기심은 적갈색을 띠며, 표면 풍화와 일부에 흠집이 있다. 몸통[胴體部]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굵은 횡선(橫線)이 다소 규칙적으로 돌려져 있으며, 바닥 내면에도 물손질 혼적이 남아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매우 거칠다.

· 추정 바닥지름 19.2cm

· 【도면 57-①. 사진 155-②】

짙은 회청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홁[胎土]은 잔모래가 섞인 정선된 점토이고, 기심은 자주색을 띠며, 일부에 흠집이 있다. 몸통[胴體部] 내외면으로는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으며, 몸통과 바닥 일부에 걸쳐 흑반(黑斑)이 형성되어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매우 거칠다.

· 추정 바닥지름 19.8cm

• 【도면 57-②, 사진 155-③】

회청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에는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고, 일부에 홈집과 잔 균열이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 전체에 걸쳐서는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다소 거칠다.

· 추정 바닥지름 16.2cm

【도면 57-③, 사진 155-④】

짙은 회청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과 몸통의 극히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섞여 있고, 기심은 자주색을 띠며, 표면 풍화와 일부에 흠집이 있 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다듬은 혼적이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횡선(橫線)이 돌려져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매우 거칠며, 일부에 토기를 구울 때 사용한 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 추정 바닥지름 27.2cm

• 【도면 57-④, 사진 155-⑤】

회청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의 극히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홁[胎土]은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적갈색을 띠며, 표면 풍화와 일부에 흠 집이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에 점토띠 형성흔이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다 소 규칙적인 굵은 횡선(橫線)이 돌려져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다소 거칠다.

· 추정 바닥지름 7.0cm

• 【도면 57-⑤, 사진 155-⑥】

회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士]은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표면 풍화와 일부에 흠집이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손으로 눌러 다진 흔적이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표면 박리가 매우 심하다.

· 추정 바닥지름 14.2cm

• 【도면 58-①, 사진 156-①】

질은 회청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고, 기심은 자주색을 띠며, 표면 풍화와 일부에 홈집이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문살무늬[格子文]로 보이는 두드림무늬[打捺文]가 일부에 회미하게 찍혀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불규칙한 횡선(橫線)이 돌려져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매우 거칠다.

· 추정 바닥지름 19.8cm

· 【도면 58-②, 사진 156-②】

회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에는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표면 풍화와 일부에 흠집이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에 점토띠 형성흔이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굵은 횡선(橫線)이 돌려져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매우 거칠다.

· 추정 바닥지름 24.4cm

【도면 58-③, 사진 156-③】

회청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깨진 것을 접합하였으며, 바닥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은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표면 풍화와 일부에 흠집이 있다. 몸통[胴體部]과 바닥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굵은 횡선(横線)이 돌려져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표면 박리로 인해 매우 거칠다.

· 추정 바닥지름 6.5cm

• [도면 58-4], 사진 156-4]

적갈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에는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표면 풍화와 일부에 흠집이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점토띠 형성흔이 남아 있으며, 몸통과 바닥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횡선이 돌려져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매우 거칠다.

· 추정 바닥지름 19.7cm

• 【도면 58-⑤, 사진 156-⑤】

회청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의 극히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은 잔모래가 섞인 정선된 점토이고, 표면 풍화와 일부에 흠집이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손자국이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횡선(橫線)이 돌려져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이다.

·추정 바닥지름 7.8cm

【도면 58-⑥, 사진 156-⑥]

회청색 경질의 토기 바닥조각[底部片]으로, 바닥과 몸통의 극히 일부가 남아 있다. 바탕 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표면 풍화와 홈집이 있다. 몸통[胴體部]의 바닥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횡선(橫線)이 돌려져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다소 거칠다.

· 추정 바닥지름 21.8cm

【도면 59-①. 사진 157-①】

회청색 경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굵은 모래가 섞여 있으며,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표면 풍화와 박리가 심하며, 일부에 흠집이 있다. 몸통[胴體部]

내외면으로는 물손질로 인한 횡선(橫線)이 돌려져 있으며, 내면에는 일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다.

• [도면 59-②, 사진 157-②]

회청색 경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고, 기심은 자주색을 띠며, 일부에 흠집이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문살무늬[格子打捺文]가 희미하게 찍혀 있으며, 그 위로 얕은 횡침선(橫沈線)이 한 줄 돌려져 있고, 횡침선의 위, 아래로는 각각 1줄씩의 물결무늬[波狀文]가 돌려져 있다. 또한 외면 일부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다듬은 흔적이 있으며, 내면에는 손가락으로 눌러 다진 흔적이 확연히 남아 있다.

• [도면 59-3, 사진 157-3]

적갈색 경질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내면은 회청색을 띤다. 바탕흙[胎土]에는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표면 풍화가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무늬새기개[施文具]로 굵어 표현한 선조문(線條文)이 남아 있으며, 일부는 도구를 이용하여 다듬었다. 내면에는 도구를 이용한 불규칙한 침선(沈線)이 몇 줄 그어져 있다.

• 【도면 59-④, 사진 157-④】

회갈색 연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은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몸통[胴體部] 내외면으로는 문살무늬[格子打捺文]가 시문되어 있으나, 표면 풍화와 박리로 인해 다소 회미하다.

• 【도면 59―⑤, 사진 157―⑤】

회색 또는 적갈색을 띠는 연질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내면은 회청색을 띤다.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몸통[胴體部] 내외면으로는 표면 풍화와 박리가 심하다.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횡선(橫線)이 돌려져 있다.

• 【도면 59-⑥, 사진 157-⑥]

적갈색 연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평행두드림무늬[平行打捺文]와 이와 교차되는 짧은 선이 여러 줄 찍혀 있다. 내면은 표면 풍화가 심하다.

• 【도면 59-⑦, 사진 157-⑦】

회색 경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은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두 줄의 얕은 횡침선(横沈線)이 돌려져 있으며, 횡침선의 위, 아래 로는 여러 줄의 물결무늬[密集波狀文]가 돌려져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횡선(橫線) 이 돌려져 있다.

· [도면 59-®, 사진 157-®]

회색 경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은 모래가 조금 섞인 정선된 점 토를 사용하였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문살무늬[格子打捺文]가 찍혀 있으며, 내면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그어 놓은 침선(沈線)이 여러 줄 있다.

• [도면 59-9, 사진 157-10]

회청색 경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은 모래가 조금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일부에 표면 풍화가 다소 심하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넓은 돈을 띠[突帶] 한 줄을 돌린 후 그 위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된 두 줄의 빗금무늬[短斜線文]를 위, 아래 서로 엇갈리게 찍어 놓았으며, 일부에는 황갈색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횡선(横線)이 돌려져 있다.

• 【도면 59-⑩, 사진 157-⑨】

회청색 경질의 토기 몸통조각[胴體部片]으로, 바탕흙[胎土]은 모래가 조금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일부에 흠집이 조금 있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두 줄의 돋을띠[突帶]와 함께 둥근 반원형의 막대 모양 돋을띠[突帶] 한 줄을 돌린 후 그 위에 0.8cm 미만의 빗금무늬[短斜線文]를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 놓았다. 내외면으로 물손질로 인한 횡선(橫線)이 돌려져 있다.

【도면 59-⑪, 사진 157-⑪】

회갈색 경질의 가로띠잡이조각[橫帶狀把手片]으로, 토기 몸통에 부착되었던 것이다. 바탕 흙[胎土]은 모래가 조금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일부에 흠집이 있다. 전체적으로 길고 넓적한 형태로, 위, 아래가 바깥쪽으로 다소 꺾여서 벌어져 있으며, 내외면으로는 가로방향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 크기 8.2×4.0×0.7cm

• 【도면 60-①, 사진 158】

회갈색 또는 회흑색을 띠는 와질소성의 토기조각[土器片]으로, 완파된 것을 일부 붙여 놓았으나, 완형 복원은 힘들며, 도면 복원을 통하여 기형을 파악할 수 있다. 바탕흙[胎土]은 모래가 섞여 있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일부에 표면 풍화와 박리가 심하다. 아가리는 바깥으로 짧게 벌어졌으며, 입술[口緣端]은 다소 두텁고 등글게 처리되었다. 몸통[胴體部] 외측면은 아가리 아래에서 약하게 벌어져 몸통 상부에서 최대지름을 이룬 후 다시 안쪽으로 굽어져 완만한 곡선으로 내려가며, 바닥 근처에서 약하게 한 번 휘어져 바닥에 이어진다. 몸통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굵은 횡선이 전체에 걸쳐 다소 불규칙하게 돌려져 있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다소 거칠다. 전체적으로 토기의 크기에 비해 기벽의 두께가 0.5cm 내외로 얇은 편이다.

·복원 높이 21.7cm ·입지름 28.0cm ·바닥지름 19.4

• 【도면 60-②, 사진 159】

회갈색 연질에 가까운 토기조각[土器片]으로, 전체적으로 깨진 것을 일부 접합 복원하였으나, 바닥과 몸통 일부만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은 모래가 섞여 있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표면 풍화와 박리가 심하다. 몸통[胴體部] 외면에는 3줄 1조의 횡침선(橫沈線)과 1줄로 된 횡침선이 돌려져 있으며, 일부에는 혹반(黑斑)이 형성되어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굵은 횡선(橫線)이 다소 규칙적으로 돌려져 있는데, 횡선은 바닥 쪽으로 갈수록 좀 더 굵어진다. 바닥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매우 거친 편이다.

· 현재 높이 11.6cm · 바닥지름 20.8cm

【도면 60-③, 사진 160】

회청색 경질의 토기조각[土器片]으로, 전체적으로 깨진 것을 일부 접합 복원하였으나, 바닥과 몸통 일부만 남아 있다. 바탕흙[胎土]은 모래가 섞여 있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표면 풍화와 일부에 흠집이 있다. 몸통[胴體部]외면에는 가로방향으로 다듬은 흔적이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한 횡선(橫線)이 돌려져 있는데, 바닥쪽으로 갈수록 횡선이 점차 굵어지고 있다. 바닥[底部]은 납작바닥[平底]으로, 바닥 안쪽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물손질에 의한 횡선이 돌려져 있으며, 가운데에는 두드림무늬[打捺文]가 희미하게 찍혀 있다.

· 현재 높이 14.8cm · 바닥지름 22.0cm

【도면 61, 사진 161】

회청색 경질의 짧은 목 항아리[短頸壺]로 추정되는 파편들로, 전체적으로 깨진 것을 일

부 접합 복원하였으나, 완형의 형태는 알 수 없다. 바탕흙[胎土]은 모래가 섞여 있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자주색을 띠며, 일부 표면 풍화가 있다. 아가리[口緣部]는 깨져 나갔으나, 바깥으로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목[脛部]은 짧게 직립하였다. 아가리와목은 물손질 정면되었다. 몸통[膈體部]은 큰 달걀모양[長卵形]을 하고 있으며, 몸통 최대지름은 가운데 부분에 있다. 목 아래 일부에는 황갈색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고, 몸통 상부에는 얕은 횡침선(橫沈線) 3줄이 3.5~4.0㎝ 간격으로 돌려져 있으며, 외면 전체에 걸쳐 문살무늬[格子打捺文]가 찍혀 있는데, 윗쪽으로는 다소 희미하다. 몸통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굵은 횡선(橫線)이 매우 불규칙하게 돌려져 있다. 바닥[底部]은 모두 깨져 나가서 그 형태를 알 수 없다.

- · 현재 높이 33.4cm · 목지름 17.6cm · 몸통지름 53.5cm
- (2) 기와류
- (가) 수키와편
 - 【도면 62-①. 사진 162-①·163-①】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으로 태토(胎土)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배면에는 숭석문(繩蓆文)이 불규칙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균열이 매우 심하다. 단부면은 횡으로 손으로 눌러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혼이 관찰되며, 측면은 와도로 자른후 안팎을 매끈하게 잘라 정면하였다.

- ・ 크기 14.7×19.4×1.7cm
 - 【도면 62-②. 사진 162-②·163-②】

수키와편으로 회색 연질이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함유된 매우 정선된 조질 태토이다. 배면에는 사격자문(斜格子文)이 시문되어 있으나 박리가 심하다. 이면에는 포목혼이 선명하며, 합철혼(合綴痕)이 보인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2 정도 자른 와도혼이 있다.

- · 크기 13.4×14.7×1.4cm
 - [도면 62-③, 사진 162-③·163-③]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으로 태토는 가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배면에는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단부면은 손으로 눌러 횡으로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과 합철혼이 있다.

·크기 10.4×10.2×1.5cm

• 【도면 63-①, 사진 164-①·165-①】

회갈색 연질 미구기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 상부에 右上에서 左下방향으로 선문(線文)이 시문되어 있으나 그 아래로는 무문이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있으며, 합철혼, 지두압혼(指頭押痕), 점토합혼(粘土合痕)이 있다. 한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다른 측면은 밖에서 안으로 와도흔이 있으며, 한측면은 이면쪽을 와도로 살짝 깎아 정면하였다.

- ・크기 12.4×23.0×2.2cm
 - 【도면 63-②, 사진 164-②·165-②】

적갈색 연질의 수키와편으로 태토는 굵은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기심은 회색을 띤다. 배면에는 태사선문(太斜線文)이 시문되어 있으며, 일부 균열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되나 뚜렷하지는 않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2 정도 자론 와도흔이 있다.

- ・ 크기 11.9×9.0×1.5cm
- [도면 63-3, 사진 164-3·165-3]

적갈색 연질의 수키와편으로 태토는 굵은 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태선문(太線文)이 시문되어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희미하다. 이면에는 표면 풍화로 포목흔이 보이지 않는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2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전체적으로 표면 풍화가 심하다.

- ・크기 9.1×10.2×1.6cm
- 【도면 64-①, 사진 164-④·165-④】

황갈색 연질의 수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태선문이 불규칙하게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사절흔과, 한 측면 가까이분할선이 보인다. 측면은 와도로 자른 후 양쪽을 깨끗이 정면하였다.

- ・ 크기 16.9×15.1×2.0cm
 - 【도면 64-③, 사진 166-①·167-①】

회갈색 연질의 수키와편이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태토이다. 배면에는 대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게 있으며,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2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하다.

- ・ 크기 7.7×8.0×1.6cm
- 【도면 64-②. 사진 166-②·167-②】

회갈색 연질의 수키와편으로 기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태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있으며,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3/4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 ・크기 6.8×8.8×1.2cm
- 【도면 64-⑤, 사진 166-③·167-③】

회갈색 연질의 수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태사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마모가 심하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있고, 종방향으로 굴곡이 있으며, 측면 가까이 분할선이 있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2/3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 ・크기 6.2×10.0×1.0cm
 - 【도면 64-④, 사진 166-④·167-④】

황갈색 연질의 수키와편이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태토이다. 배면에는 태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혼이 있다.

- · 크기 6.4×6.3×1.0cm
- 【도면 65-①, 사진 166-⑤·167-⑤】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람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선문이 종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일부 균열이 보인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되나 선명하지 않으며, 점토합흔이 있다.

- ・ ヨフ | 4.3×6.5×1.3cm
 - 【도면 65-②, 사진 166-⑥·167-⑥】

흑회색 연질의 수키와편이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배면에는 선문(線文)이 사선으로 교차 시문되어 있다. 지두압혼이 있으며, 단부면은 횡으로 손으로 눌러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혼이 회미하게 보이며, 종으로 굵은 홈이 있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3 정도 자른 와도혼이 있다.

・ヨフ 9.2×10.6×1.8cm

• 【도면 65-③, 사진 166-⑦·167-⑦】

회흑색 경질의 수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배면에는 어골문(無骨文)이 선명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단부면은 손으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있으며,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와도를 살짝 댄 후 쪼개어 낸 흔적이 완연하다.

- * ヨ기 8.8×13.4×1.8cm
 - 【도면 65~④, 사진 168~①·169~①】

회흑색 경질의 수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어골문이 희미하게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빗질흔과 지두압흔이 있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2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 ・ヨ기 6.8×13.3×1.3cm
- [도면 65-⑤, 사진 168-②·169-②]

4 . 5

흑회색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선문을 횡으로 시문하였으며, 단부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고, 단부내면은 약 6cm 가량 비스듬히 깍은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3정도자른 와도혼이 있다.

- ・크기 14.3×18.7×2.0cm
 - [도면 66-①, 사진 168-③·169-③]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으로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배면에는 어골문에 가까운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단부면은 사선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5cm 너비로 단부내면 조정하였다. 측면에는 와도로 안에서 밖으로 1/4정도 자른 후 분할한 흔적이 있다. 안팎으로 일부 균열이 있다.

- ・ユフ] 22.9×13.6×2.0cm
- 【도면 66-②, 사진 170-①·171-①】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과 사람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평행 타날문이 서로 엇갈리게 시문되어 있어 어골문을 연상시킨다. 단부면은 1.5cm 정도 아래로 턱을 이룬 후 3.5cm 가량 비스듬히 내려간다. 이면에는 포목혼과 사절혼

이 보이고, 일부 균열이 있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5정도 와도로 자른 후 분할한 흔적이 있다.

- ・ 크기 12.8×19.9×2.4cm
- 【도면 67-①, 사진 170-②·171-②】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과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평행 타날문이 서로 엇갈리게 시문되어 있어 마치 어골문과 같다. 단부면은 1.2cm 정도 아래로 턱을 이룬 후 3.4cm 가량 비스듬히 내려간다. 이면에는 포목혼이 선명하며, 분할선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일부에 균열이 있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와도로 살짝 자른 후 분할한 흔적이 있다.

- ・ヨフ] 12.6×25.4×2.4cm
 - [도면 67-②, 사진 172-①·173-①]

적간색 연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 상부의약 3cm 정도 횡으로 정면한 흔적이 있으며, 그 아래로 청해파문(淸海波文)이 시문되어 있다. 단부면은 약 1cm 정도 아래로 턱을 이룬 후 3cm 가량 비스듬히 기울어져 내려간다. 표면 일부에는 균열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과 점토합흔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상태가 매우불량하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2/3 정도 와도로 자른 후 분할한 흔적이 있다.

- · 크기 11.2×18.3×2.4cm
- 【도면 67~③, 사진 172-②·173-②】

흑회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청해파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단부면은 약 1cm 정도 아래로 비스듬히 턱을 이룬 후약 2.5cm 가량 비스듬히 기울어져 내려간다. 단부면은 횡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합철혼이 있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5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 ・크기 11.8×16.7×1.8cm
- 【도면 68-③, 사진 172-③·173-③】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으로 태토는 석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 상부에는 7cm 정도 종으로 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그 아래쪽으로는 청해파문이 시문되어 있다. 단부면은 약간 치켜들려 턱을 이룬 후 아래 방향으로 2.5cm 가량 내려간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며 도구를 이용하여 종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있으며, 매우 거칠다. 측면은 안에

서 밖으로 1/2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 ・ヨカ 9.2×25.2×2.3cm
 - 【도면 68-①, 사진 174-①·175-①】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청해파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상부와 중간에 약 10cm 간격으로 횡선이 돌려져 있다. 단부면은 약 1cm 아래로 턱을 이룬 후 약 3.3cm 가량 비스듬히 내려간다. 횡으로 물손질정면하였다. 이면에는 세포목흔이 선명하며 한 측면으로 분할선이 있다. 단부면 가까이에는 포목이 겹쳐 골을 이루고 있다. 양측면은 약 1/2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 ・ヨ기 16.6×23.1×2.2cm
- 【도면 68-②, 사진 174-②·175-②]

흑회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복합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단부면은 위로 약간 치켜들려 아래로 1.1cm 내려가 턱을이룬 후 약 0.8cm 가량 짧게 비스듬히 내려간다. 약 5cm 너비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며, 빗질흔과 같은 찰과흔이 있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약 1/3 정도자른 후 분할하였다.

- ・크기 7.2×15.9×2.2cm
 - 【도면 69-①, 사진 174-③·175-③】

혹회색 경질의 유단식 수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의 일부가 깨져 있으며, 문양은 원래 무문이었는 아닌지 알 수 없다. 단부면은 약 1.7cm 아래로 턱을 이룬 후 4.3cm 정도 내려간다.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굵은 올의 포목혼이 선명하며, 종으로 골이 있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약 1/3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 ・ヨフ 10.8×10.7×2.6cm
- 【도면 69-②, 사진 176·177】

회백색 경질의 완형 수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함유된 매우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전체적으로 큰 华凱文이 규칙적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비교적 굵은 올의 포목혼이 선명하며, 일부에 물손질 흔적이 있다. 단부면은 와도로 비스듬히 자른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측면은 모두 안에서 밖으로 약 1/2 정도 자른 후 분할한 흔적이 있다.

・ ヨ기 14.1×28.1×1.6cm

(나) 암키와편

• 【도면 70~①, 사진 178·179】

회흑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약 3 ~4cm 간격으로 명문이 좋으로 시문되어 있으나 '完'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자는 판독이 불가능하며, 좋으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도구를 이용하여 사선 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있고, 일부에 흠집이 있다.

- ・ヨ기 17.2×16.3×2.0cm
- 【도면 70-②, 사진 180·181】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이분된 것을 접합시켰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배면에는 숭석문이 사선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단부면에는 횡으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사절흔이 보인다. 단부면은 와도로 깎아 정면하였다. 측면은 와도로 자른 후 안팎을 매끈하게 다듬었으며, 일부는 배면 안쪽으로까지 정면하였다.

- ・크기 13.2×34.5×1.8cm
 - 【도면 71-①, 사진 182-①·183-①】

회갈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숭석문이 종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손으로 눌러 횡선을 돌렸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일부에 균열이 있다.

- ・크기 12.1×13.7×1.5cm
 - 【도면 71-③, 사진 182-②·183-②】

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기심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다량의 사립이 함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숭석문이 좋으로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다.

- ・ヨフ 10.8×13.7×1.5cm
- 【도면 71-④, 사진 182-③·183-③】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승석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혼과 지두압혼이 보이며, 측면은 와도로 자른 후 안팎

- 을 매끈하게 정면하였다.
 - ・ヨフ] 7.7×10.4×2.7cm
 - 【도면 71~⑤, 사진 182~④·183~④】

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승석문이 좋으로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과 분할선이 보이며, 측면은 와도로 자른 후 안팎을 매끈하게 정면하였다.

- ・ヨ기 9.9×8.8×2.3cm
 - 【도면 71-②, 사진 182-⑤·183-⑤】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승석문이 종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단부면은 1.8cm 너비로 납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횡으로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다.

- ・ヨ기 7.9×5.4×1.8cm
 - 【도면 72-①, 사진 184-①·185-①】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승석문이 불규칙하게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혼과 합철혼이 있다. 도구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눌러 정면하였다. 측면은 밖에서 안으로 3/4 정도 자른 후 이면쪽을 와도로 다듬어 정면하였다.

- ・ヨフ] 19.4×15.6×2.4cm
 - · [도면 72-3, 사진 184-2 · 185-2]

흑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매우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승석문을 시문한 후 凹凸부분을 손으로 쓸어 지웠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일부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측면은 와도로 자른 후 안팎을 매끈하게 정면하였다.

- ・*크フ*] 9.4×12.3×1.5cm
- 【도면 72-②, 사진 184-③·185-③】

적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두께가 매우 두껍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중석문이 종으로 시문한 후 凹凸부분을 눌러 정면하였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약 1/2 정도 자른 후 배면쪽으로 살짝 다듬어 정면하였다.

- · 크기 9.8×9.1×2.9cm
- 【도면 72-④, 사진 186~①·187-①】

황갈색 경질에 가까운 암키와편으로 두께가 매우 얇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 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종으로 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분할선 이 있고, 일부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종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측면은 와도로 완전히 잘라 정면하였다.

- ・ヨ기 10.0×10.5×0.9cm
 - · 【도면 73-②, 사진 186-②·187-②】

황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횡으로 약 1cm 내외 간격의 태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단부면은 횡으로 손으로 눌러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혼이 선명하며 단부면에 지두압혼이 있다. 측면은 약 1/2정도 와도로 자른 혼적이 있다.

- · 크기 10.9×8.7×1.8cm
- 【도면 73-③, 사진 186-③·187-③】

회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대선문이 불규칙하게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있으며, 약 0.7cm 너비의 홈이 있다.

- ・ **크**フ] 10.2×8.5×2.4cm
 - 【도면 73-①, 사진 186-④·187-④】

회혹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선문을 시문한 후 일부를 손으로 문질러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혼과 빗질혼이 있다. 일부 균열이보인다.

- ・크기 10.9×17.6×2.5cm
- 【도면 73-⑤, 사진 186-⑤·187-⑤】

회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선문이 左下 방향으로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다.

・ 크기 6.2×10.2×1.7cm

• 【도면 73-4), 사진 186-6) · 187-6)】

적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선문이 종으로 얕게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혼이 있다.

- ・ ヨブ 5.4×7.6×1.3cm
- 【도면 73-⑥, 사진 186-⑦·187-⑦】

회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기심과 이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다 항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선문이 종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다.

- ・ヨフ 6.1×7.0×1.3cm
 - 【도면 74-①, 사진 188-①·189-①】

적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선문을 시문 하였으나 희미하며, 단부면 가까이 물손질 흔적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고, 측면 에는 안에서 밖으로 와도를 살짝 그어 분할한 후 다시 와도로 살짝 깎아 정면하였다.

- ・ <u>크</u>기 8.1×11.3×1.3cm
 - 【도면 74-②, 사진 188-②·189-②]

적갈색 경질에 가까운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횡으로 선문을 시문하였으나 희미하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일부 빗질혼이 있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2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 ・크기 9.1×14.2×1.9cm
 - 【도면 74-③, 사진 188-③·189-③】

갈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표면의 일부는 혹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右下 방향으로 선문을 시문한 후 일부 손으로 문질러 정면하였다. 단부면은 손으로 눌러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빗질흔이 있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약 1/4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 ・크기 9.7×15.5×1.5cm
- [도면 74-4], 사진 188-4]·189-4]

적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

에는 종으로 선문을 시문하였으나 희미하다. 단부면 가까이 횡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굵은 올의 포목흔이 희미하게 있으며, 종으로 빗질흔이 있다.

- ・ヨ기 15.3×12.4×3.0cm
 - 【도면 74~⑤, 사진 188~⑤·189~⑤]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면에는 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이면에는 포목혼이 화미하게 보이며 빗질혼과 같은 찰과혼이 있다.

- ·크기 8.4×9.2×1.9cm
- 【도면 75-①, 사진 190-①·191-①】

회흑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선문을 시문한 후 일부 손으로 눌러 凹凸부분을 지웠다. 단부면은 2~3cm 너비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일부 빗질혼과 지두압흔이 보인다. 단부면은 0.5~1.5cm 너비로 비스듬히 깎아 매끈하게 정면하였다.

- ・ ヨフ 12.6×9.8×1.5cm
 - 【도면 75-3), 사진 190-2 · 191-2】

혹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기심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선문이 불규칙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이면에는 포목혼이 선명하다. 측면에는 2/3 정도 자른 와도혼이 있다.

- ·크기 6.5×11.6×1.2cm
 - 【도면 75-④, 사진 190-③·191-③】

적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선문을 사선으로 교차 시문하여 마치 사격자문(斜格子文)과 같다. 이면에는 포목혼이 선명하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2 정도 자른 와도혼이 있다.

- ・ 크기 13.7×13.1×1.7cm
- 【도면 75-②, 사진 190-④·191-④】

회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람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선문을 사선으로 교차 타날하여 마치 사격자문과 같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있으며 종으로 빗질혼과 같은 찰과혼이 있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와도를 살짝 댄 후 분할한 혼적이 있다.

·크기 7.4×10.4×1.5cm

• 【도면 75~⑤, 사진 190~⑤·191~⑤]

혹회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기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소량 함유 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선문을 불규칙하게 시문하였으며, 단부면은 약 4cm 너비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며,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와도를 살짝 그어 분할한 흔적이 완연하다. 전체적으로 표면 풍화가 심하다.

- ・크기 12.3×7.5×1.8cm
- 【도면 76-①, 사진 192-①·193-①】

회색 경질에 가까운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선문이 불규칙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단부면은 약 3cm 너비로 횡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일부 포목혼과 지두압혼이 있으며, 빗질혼과 같은 찰과혼이 있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와도를 살짝 댄 후 분할한 혼적이 있다.

- ・ヨ기 7.5×6.6×2.0cm
 - 【도면 76-②, 사진 192-②·193-②】

황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기심은 흑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장방형(長方形)의 격자(格子) 타날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깊이 0.2cm 가량의 와도흔이 있다. 측면은 와도로 완전히 잘라 정면하였다.

- ・크기 13.0×13.6×1.8cm
 - 【도면 76-3, 사진 192-3·193-3】

회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풍화로 인하여 희미하게 남아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있다.

- ・크기 9.0×12.9×1.4cm
- 【도면 76-④, 사진 192-④·193-④】

흑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단부면쪽 약 9cm 너비는 물손질로 문양이 지워졌다. 이면에는 포목흔과 지두압흔이 있으며, 단부면쪽으로는 물손질 정면하여 포목흔이 지워졌다.

- ・ヨフ 7.1×17.0×2.3cm
- 【도면 77-①, 사진 194-①·195~①】

흑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람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일부는 손으로 쓸어 문양을 지웠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2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 · 크기 9.5×10.0×1.8cm
 - 【도면 77-3, 사진 194-2·195-2】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사격자문을 시문한 후 중방향으로 손으로 문질러 문양을 지웠다. 이면에는 포목혼이 있으며 일부에는 손으로 문질러 포목혼을 지웠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거의 전면에 걸쳐 자른 와도혼이 있다.

- ・ 크기 8.4×7.4×2.2cm
 - 【도면 77-②, 사진 194-③·195-③】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사격자 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이면에는 손으로 문질러 정면한 흔적이 있다.

- ・크기 4.9×6.2×2.2cm
- [도면 77-4], 사진 194-4] · 195~4]

흑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기심은 갈색이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희미하다. 이면에는 포목혼이 선명하며, 분할선이 보인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3/4 정도 자른 와도혼이 있다.

- ・ ヨ기 7.2×6.4×2.0cm
- 【도면 77-⑤, 사진 194-⑤·195-⑤】

회갈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사격자문을 시문한 후 일부는 지웠다. 단부면은 약 8cm 너비로 손으로 눌러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일부 포목흔이 보이나, 전면에 걸쳐 빗질혼과 같은 찰과흔으로 포목흔을 지웠다. 단부면은 약 5cm 너비로 단부내면 조정하였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4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ヨフ] 16.7×20.1×2.0cm

• 【도면 78-①, 사진 196·197】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중간 부분에 약 4cm 너비로 어골문이 시문되어 있고, 그 아래로 격자문(格子文)이 약 3.5cm 너비로, 그 아래로 다시 어골문이 시문되어 있다. 단부면은 약 13cm 너비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일부는 도구를 이용하여 지웠다. 단부면은 3.7cm 너비로 비스듬히 정면하였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3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ヨフ] 17.8×27.8×2.3cm

• 【도면 78-②, 사진 198·199】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두께가 두껍다. 태토는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상하로 선문이 사선방향으로 시문되어 있고 그 가운데 방격(方格) 틀 안에 기하학 무늬가 시문되어 있다. 단부면 일부는 손으로 눌러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도구를 이용하여 종으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2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ヨフ 21.2×24.3×2.2cm

• 【도면 79-①, 사진 200-①·201-①】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대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청해파문과 차륜문(車輪文)이 반복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일부 보이며, 연철흔이 있다. 일부에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균열이 심하다.

・ヨフ] 19.7×20.8×2.2cm

• 【도면 79-③, 사진 200-②·201-②】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 상단부에는 방격 틀 안에 초문(草文)이, 그 아래로는 어골문이 시문되어 있다. 단부면은 5cm 너비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며, 전체적으로 도구를 이용한 빗질혼과 같은 찰과흔이 있다. 단부면은 약 5.5cm 너비로 비스듬히 물손질 정면하였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4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ヨ기 19.0×24.8×2.2cm

• 【도면 79-②, 사진 202-① · 203-①】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청해파문과 연주문(遵珠文)이 시문되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인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2/3 정도 자른 와도흔이 거칠게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소성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 ・크기 7.5×10.6×2.3cm
- 【도면 80-①, 사진 202-②·203-②]

흑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기심은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복합문이 시문된 듯 하나 일부만 남아 있어 알 수 없다. 단부면은 약 5cm 너비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다. 전체적으로 균열이 심하다.

- ・ ヨフ] 14.5×12.6×2.2cm
- [도면 80-③, 사진 202-③·203-③]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연화문(蓮花文) 등 복합문이 시문된 듯 하나 일부 편으로 알 수 없다. 이면에는 포목혼이 보이며 일부 빗질혼과 같은 찰과혼이 있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2 정도 자른 와도혼이 있다. 전체적으로 균열이 있다.

- ·크기 8.6×13.5×2.5cm
 - · 【도면 80-④, 사진 202-④·203-④】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전체적으로 집선문(集線文)을 시문한 후 일부는 손으로 쓸어 문양을 지웠다. 단부면은 약 3cm 너비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며, 단부면은 4cm 너비로 비스듬히 깎아 정면하였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3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전체적으로 균열이 심하다.

- ・ 크기 8.8×15.3×1.8cm
 - [도면 80-②, 사진 202-⑤·203-⑤]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배면에는 전체적으로 집선문을 시문하고 일부는 凹凸부분을 지웠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며,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2/3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 · 크기 6.5×9.7×2.3cm
- [도면 80-⑤, 사진 202-⑥·203-⑥]

흑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배면에는 집선문이 시 문되어 있고, 이면에는 포목흔과 연철혼이 보인다.

- ・ ヨフ 6.2×6.9×1.5cm
- 【도면 81-①, 사진 204·205】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무문이며, 단부면은 횡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선명하며, 단부면은 약 5cm 너비로 비스듬히 단부내면조정 하였다. 측면은 와도를 살짝 댄 후 분할한 흔적이 있다.

- ・ ヨ기 17.3×25.1×2.4cm
 - 【도면 81-②. 사진 206-①·207-①】

흑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람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무문이며, 단부면은 1.5~2cm 너비로 횡으로 눌러 정면하였다. 이면에는 포목혼과 분할선이 보이며, 단부면은 2cm 너비로 비스듬히 깎아 단부내면조정 하였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3 정도 자른 와도흔이 일부 보인다.

- ・ヨ기 17.3×16.0×1.7cm
- [도면 82-①, 사진 206-②·207-②]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무문이며,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나 마모가 심하다.

- ・ヨフ 8.4×8.9×1.8cm
- 【도면 82-②, 사진 206-③·207-③】

회갈색 연질의 암키와편으로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무문이며 배면에 지두 압흔이 있다. 이면에는 포목흔이 보이며, 측면에는 밖에서 안으로 1/2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하다.

・ヨフ 5.6×8.7×1.6cm

• [도면 82-3], 사진 206-4)·207-4]

적갈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무문이며, 이면에는 포목흔이 있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2 정도 자른 와도흔이 있다.

- ・크기 5.3×7.3×1.7cm
 - [도면 82-④, 사진 206-⑤·207-⑤]

회색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무문이며, 이면 에는 포목혼이 보이며, 일부 손으로 문지른 혼적이 있다.

・크기 6.8×6.5×1.3cm

(다) 塼片【도면 82-⑤, 사진 208】

일부가 파손된 전편이다. 경질소성으로 태토는 매우 정선되었으며, 적갈색을 띤다. 성형 후 거의 다듬지 않은 상태로 성형 상태가 매우 조잡하다.

·크기 6.2×10.3×4.2cm

(3) 자기류

【도면 83-①, 사진 209-①】

백자 사발편으로 한쪽 면의 일부가 남아 있다.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유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구연은 다소 뾰족하게 처리되었으며, 몸통 외측면은 사선으로 내려오다가 저부 근처에 이르러 약하게 안쪽으로 휘어져 굽에 이어진다. 굽은 낮은 수직굽으로, 굽바닥에는 모래받침이 흔적이 남아 있다.

- ·높이 8.6cm · 추정 굽지름 7.4cm
- [도면 83-②, 사진 209-②]

백자 사발 저부편으로, 굽 전체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굽바닥 일부를 제외한 외면 전체에는 청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몸통 외측면은 굽에서부터 완만하게 휘어져 올라갔다. 저부 안쪽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원이 돌려져 있는데, 바깥 원은 각을 이루고 있다. 굽은 수직굽에 가까운 형태로, 유약이 시유되지 않은 부분은 상태가다소 불량하다. 굽바닥과 저부 안쪽에는 모래받침 혼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 현재 높이 3.8cm · 추정 굽지름 5.8cm

• 【도면 83-③, 사진 209-③】

백자 사발 저부편으로, 굽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외면 전체에 걸쳐서 유약이 시유되어 있는데, 푸른빛이 은은하게 감돌고, 광택이 좋으며, 유병열이 있다. 몸통 외측면은 굽에서부터 넓게 펴져서 올라가고 있으며, 굽은 약하게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굽바닥과 저부 안쪽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 현재 높이 2.3cm · 추정 굽지름 6.2cm

• [도면 83-④, 사진 209-④]

백자 사발 저부편으로, 굽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굽바닥 부분을 제외한 외면 전체에 걸쳐서 푸른빛이 감도는 유약이 시유되어 있는데, 광택이 좋으며, 유빙열이 있다. 몸통 외측면은 굽에서부터 사선으로 올라갔으며, 굽은 수직에 가깝게 약하게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굽바닥과 저부 안쪽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 현재 높이 3.0cm · 추정 굽지름 6.2cm

• 【도면 83-⑤, 사진 209-⑤】

백자 사발 저부편으로, 굽 전체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굽 전체와 바닥 일부를 제외한 전면에 걸쳐 푸른빛이 감도는 유약이 시유되어 있는데, 광택은 좋지 않다. 몸통 외측면은 굽에서부터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갔으며, 굽은 낮은 수직굽으로 가운데에 얕은 한 줄의 턱이 져 있고, 굽 안쪽은 사선으로 휘어져 올라갔다. 저부 안쪽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원으로 된 각을 이루고 있다. 굽바닥과 저부 안쪽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 현재 높이 2.8cm · 추정 굽지름 4.8cm

• 【도면 83-⑥, 사진 209-⑥】

백자 사발 저부편으로, 굽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굽바닥 일부를 제외한 전면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유약이 시유되어 있는데, 광택이 좋다. 몸통 외측면은 굽에서부터 사선 방향으로 완만하게 휘어져 올라갔으며, 굽은 수직굽이다. 굽바닥과 저부 안쪽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 현재 높이 2.7cm · 추정 굽지름 4.8cm

• 【도면 83-⑦, 사진 210-①】

백자 사발 저부편으로, 굽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으며, 굽바닥 일부를 제외한 전면

에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유백색을 띤다. 몸통 외측면은 굽에서부터 완만한 곡선으로 휘어져 올라갔으며, 굽은 수직굽이다. 저부 안쪽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원으로 된 각을 이루고 있다. 저부 안쪽에는 모래받침혼적이 남아 있다.

· 현재 높이 2.5cm · 추정 굽지름 6.4cm

• 【도면 83-⑧, 사진 210-②】

백자 사발 저부편으로, 굽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는데, 굽바닥 일부를 제외한 전면에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며, 회청색을 띤다. 몸통 외측면은 굽에서부터 사선으로 바라져 올라갔으며, 굽은 수직굽이다. 저부 안쪽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원으로 된 각을 이루고 있다. 굽 바닥과 저부 안쪽에는 모래받침혼적이 남아 있다.

· 현재 높이 2.8cm · 추정 굽지름 5.0cm

【도면 83-⑨, 사진 210-③】

적갈색을 띠는 사발편으로, 굽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으며, 몸통 일부에만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몸통 외측면은 굽에서부터 사선으로 바라져 올라갔으며, 굽은 밑부분이 깨어져 나갔다. 저부 안쪽에는 모래받침흔적이 남아 있다.

· 현재 높이 2.1cm · 추정 굽지름 6.8cm

【도면 83-⑩, 사진 210-④】

적갈색을 띠는 사발편으로, 굽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으며, 굽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에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몸통 외측면은 굽에서부터 완만한 곡선으로 휘어져 올라갔으며, 굽은 직선으로 약하게 벌어져 있다. 바닥 안쪽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원으로 된 각을 이루고 있다. 굽바닥과 저부 안쪽에는 모래받침혼적이 남아 있다.

· 현재 높이 4.3cm · 추정 굽지름 7.2cm

【도면 83-⑪, 사진 210-⑤】

백자 사발 저부편으로, 굽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굽 전체와 외면 일부를 제외하고, 표면에는 연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나, 유빙열이 있고, 일부에는 유약이 두껍게 시유되었다. 몸통 외측면은 굽에서부터 사선방향으로 바라져 올라갔으며, 굽은 낮은 수직굽이고, 굽바닥과 저부 안쪽에는 모래받침혼적이 남아 있다.

· 현재 높이 4.4cm · 추정 굽지름 5.4cm

• [도면 83-⑫, 사진 210-⑥]

회청색을 띠는 사발편으로, 굽 일부와 몸통 일부가 남아 있다. 표면 전체에는 유약이 시. 유되어 있다. 몸통 외측면은 굽에서부터 완만한 곡선으로 휘어져 올라갔으며, 굽은 수직굽이다. 저부 안쪽에는 초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모래받침흔적이 남아 있다.

· 현재 높이 1.8cm · 추정 굽지름 5.8cm

5) 보개산성의 축조 유형과 성격

寶蓋山城(石城山城)에 대하여 우리는 문헌기록과 현재의 잔존 상태, 그리고 수습된 유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이들을 종합하여 보개산성의 전반적인 성격과 특징을 알아보아야 하겠다.

우선적으로 寶蓋山城은 石城山城이라고도 불리어 왔다. 이는 특히 烽燧를 기록할 때에는 石城山이라 한 것을 알려준다. 산의 이름은 아마도 寶蓋山이 보편적으로 불려온 듯하고, 거 기에 있는 옛 성을 석축된 것이므로 石城이라 하며, 이 성의 내부에 烽燧가 생겨서 기록상 에 그처럼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전략적으로 보아서 이 산성은 『大東地志』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地形이 險要하고 또한 直路의 要衡에 자리잡고 있어서 (서울에서 보아) 오른쪽으로는 禿城山城을 控制하고 왼쪽 으로는 南漢山城과 연결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동시에 이 산성은 용인지역에서 는 최대규모의 산성으로서 성내에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유사시에 入保 하여 籠城할 수 있는 山城으로서 기능하였다고 여겨진다.

교통로의 요충일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通信路의 중요한 요충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烽燧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 산성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나 있는 『世宗實錄』에서는 아직 폐지되지 아니한 산성으로 나타나 있으나, 成宗 때에 이르러서는 이미 성벽이 많이 頹圯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15세기 초기까지는 산성으로 경영되었고, 폐기된 것은 15세기 중엽으로 여겨진다. 朝鮮時代 前期에는 이 산성이 일시 폐지되었으나,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겪는 동안에는 서울의 외곽으로서 다시 중요시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일시적인 經營論이 일어나 약간의 수축은 있었을지 모르나, 대대적인 경영은 이루어지지 않은채 "옛성"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성안의 정상부에는 烽燧가 경영되고 있어서 중요한 통신시설로서 유지되었으므로, 성벽은 비록 허물어졌으나, 유사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이 보개산성의 처음 축조시기와 경영의 연혁은 문헌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성벽의 구축 방법이나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의하여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보개산성의 성벽은 대부분의 성벽이 內托의 방법에 의존하여 축조된 관계로 잔존 상태가 좋지 않다. 다만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산성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암반과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이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웃한 할미성(老姑城)과는 축조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할미성의 경우에는 석재를 채취하여 성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여 축조한 반면에, 보개산성에서는 문터의 문구부 석재를 제외하고는 떼어낸 석재에 가공의 흔적이 거의 없고, 성벽의 축조에 있어서도 자연석 혹은 떼어낸 일차 할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성벽의 너비와 높이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현존하는 보개산성의 성벽은 할미성이 고대적 축성법에 가까운 것인데 반하여, 고려시대에 흔히 나타나는 축조법을 따른 것임을 알려준다. 이 보개산성과 비슷한 축조방법을 가진 것으로는 江原道 原州市 雉岳山에 있는 鴒原山城이나 忠淸北道 槐山郡 青川面 城岩里의 彌勒山城(史蹟 401號) 등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산성들이 비교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 보개산성의 서쪽 성벽이 무너진 곳에서 관찰된 바로는 성벽의 안쪽으로 겹축된 석재가 박혀 있고, 그 틈에서 신라계통의 기와조각이 들어 있는 곳이 있다. 중앙의 가장 높은 위치를 에워싼 일부의 성벽은 다른 부분에 남아 있는 성벽과 다른 모습이 있고, 정상부만을 에워싼 천연의 석벽을 이용한 별도의 초기 성벽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유물의 수습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정상부로 향하여 분포하는 유물에서 보다 오랜 유물들이 수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현존하는 성벽 이전에 보다 규모가작은 정상부를 이용한 산성이 있다가 고려시대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현재의 규모와 같은 대규모 산성으로 增築되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여겨진다.

보개산성에서 수습된 유물들은 주로 도기편과 자기편 등의 그릇 파편과 건물의 지붕이나 기타의 용도로 사용된 기와편, 그리고 한 점의 벽돌 조각이 있다. 이들 유물들은 산성의 내부 전역에 걸쳐 산포되어 있으며, 특히 건물터로 여겨지는 평탄면이 있는 부근에서는 기와편이 다량으로 수습된다. 분포상으로 보면 능선 윗쪽으로는 보다 시대가 소급되는 유물의수습 빈도가 높으며, 동촉 사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건물터로 남은 곳 언저리에서는 고려시기에 유행한 어골문 기와와 그 이후의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 정상부의 북쪽 헬리포트 주변의 봉수대 주변에서는 조선시대의 백자편과 기와편이 주로 나오고 있어서 봉수대의 사용과관계가 깊다고 여겨진다.

보개산성에서 수습된 유물에서 특히 도기편들은 규모가 큰 옹(甕)류의 파편이 많다. 도기들은 입술이 현저히 보강된 유형으로서 돌대가 있는 것이 많다. 여기에 격자가 시문되거나 파상문이 시문된 것들은 대략 통일신라 후기에서부터 유행하는 것으로 고려 전기에 지속적으로 사용된 유형에 속한다. 삼국 시대의 후기와 통일신라 초기에 걸쳐 유행한 타날문

경질토기와 인문토기류 이후의 것들에 해당한다.

보개산성에서 수습된 유물에서 기와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다. 기와류는 배면에 선문과 격자문을 시문하고, 이면에 포목문이 선명한 고식이 있으며, 신라말에 발생하여 고려 시기에 유행한 것으로 여겨지는 어골문이 있다. 이보다 늦은 시기의 복합문의 기와편과 조선시대에 유행한 청해파문도 많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상부에서 주로 발견되는 기와 가운데는 측면을 완전히 자른 후에 때끈하게 정면한 기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측면의 한쪽을 안쪽에서 자르고,다른 한쪽을 바깥에서 자른 것이 있다. 이러한 기와는 삼국시대의 말기와 통일신라에서 유행한 형식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보개산성의 축조 유형과 유물의 산포 상태로 보아 우리는 이 산성이 대략 신라말에서 고려초기 경까지 소급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상부를 이용한 성의 존재는 이보다 앞선 시기에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는 보다 정밀한 발굴조사에 의하여 밝힐 수 밖엔 없다.

6) 보개산성의 보존 방안

현존하는 보개산성은 용인시의 바로 북쪽에 솟은 저명한 산에 위치하여 있고, 그 내부에 봉수터가 19세기 말기까지 운용되었던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큰 유적이다. 현존하는 성벽은 일부가 특수한 시설로 말미암아 현상파악이 어려우나, 대체적인 성벽의 윤곽이 모두 남아 있다.

보개산성은 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 여 축조한 유적인 만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우선 행정적으로 지정절차를 밟아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안에 남아 있는 봉수대에 대하여 먼저 발굴조사를 통한 검증을 거쳐 복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개산성과 보개산 봉수터의 두 유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7. 보개산 봉수터

1) 봉수대의 위치

보개산 봉수에 대하여는 『世宗實錄』권 148 地理志 京畿 龍仁縣에서

烽火一處 石城(在縣東 東准竹山巾之山 北准廣州穿川山)

이라고 한 이후, 『新增東國輿地勝覽』권 10 京畿道 龍仁縣 烽燧에서

寶盖山烽燧(東應竹山縣中之山 北應廣州穿川峴)

이라 한 것,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인 1840년대의 『京畿誌』 제 4책 龍仁 烽燧에서

寶盖山烽燧(東應竹山府巾之山 北應廣州府穿嶺峴)

이라 한 것, 이어 1871년의 『京畿邑誌』제 5책 龍仁縣 烽燧에서

覆盖山烽燧(在東邊面 距官門十五里 東應竹山府巾之山 北應廣州府穿嶺山)

이라 한 것,『大東地志』권 4 龍仁 烽燧에서

石城山(古城內)

라 한 것이 있다. 간략한 지도까지 있는 『京畿誌』와 『京畿邑誌』의 경우에는 烽臺가 나타나 있으나, 위치를 확실히 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大東地志』에서는 석성의 옛 성안에 있다고 하므로서 위치의 범위를 한정하여 지적하고 있다.

"석성산(石城山)"이라는 이름은 『世宗實錄』의 廣州에서 穿川山 烽燧를 설명하면서 龍仁 石城이라 하므로서 "寶蓋山烽燧"란 이름과 "石城烽燧"라는 이름이 같이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개산봉수는 당시 중앙의 木覓山烽燧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烽燧路로서 충청·전라·경상의 下三道로부터 보고된 사항이 忠州 望夷城烽燧에서 만나 죽산과 용인·광주를 지나는 幹線 통신망의 주요한 봉수였다. 봉수는 국경지대의 沿邊烽燧와 내륙의 內地烽燧, 그리고 京烽燧로 나눌 수 있다. 연변봉수는 수비력을 갖추고 흔히 烟臺라 불리듯 커다란 烽墩을 갖고 있었으며, 內地烽燧는 烟竈라 불리는 작은 규모의 화덕을 갖추고, 주변에 돌담을 둘러쌓아 맹수의 침입을 방지하면서 불똥이 번져 화재가 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시설을 갖춘 봉수는 1895년에 폐지되어 약 1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많이 파괴되었으나, 대부분의 봉수터는 남아 있다. 보개산봉수는 內地烽燧로서 현재 寶蓋山城의 높은 봉우리 위에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2) 봉수대의 현황

현재 보개산봉수의 터전은 보개산성의 북쪽 끝에서 남쪽으로 뻗은 높은 산능선상에 있다. 당초 봉수대터는 군용 통신시설의 건설과정에서 혹시 파괴된 것은 아닐까 염려했으나, 통신시설은 봉수대의 보다 남쪽에 건설된 것이다. 남북으로 뻗은 능선의 북쪽 가까운 암반으로 된 곳의 북축에 헬리포트가 있고, 이 헬리포트는 바로 봉수터의 북축에 해당한다. 지적상으로는 이곳이 포곡면 마성리 산77-3 임야로 된 곳이다.[도면 35]

봉수터는 남쪽으로 거대한 암반 노두로 되고, 북으로는 작은 鞍部를 이룬 사이에 타원형에 가까운 석축의 흔적이 있고, 그 북동쪽으로 건물터의 기단처럼 일부의 석축 흔적이 있으며, 남쪽의 암반노두는 사방을 전망하기에 좋다. 북쪽 능선을 따라 성안으로 진입하여서는 헬리포트까지 이른 다음 능선의 동편 계곡 아래의 샘이 있는 건물지로 내려가는 바로 서측에 해당된다.[도면 34]

봉수대의 남서쪽은 암반 노두를 그대로 이용하고,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타원상을 이룬 부분은 양쪽 측면으로 內環道 모양의 길이 있다. 암반에 의하여 기단부를 이룬 북쪽과 서쪽은 암반 자체가 외곽을 이루며, 防護壁을 축조한 부분은 남북 길이 15m의 부분이다.[도면 52]

봉수대가 위치한 부분의 능선은 동쪽과 서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능선의 너비는 최대 30m가 된다.

봉수대 방호벽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층 낮아진 암반 노두 위에 할석으로 축조된 부분이 있다. 이 방호벽과 그 기반이 되는 암반 언저리는 얼마간의 평탄지가 있다. 북쪽의 평탄

지는 길이 15m, 너비 15m의 범위로 평탄하게 조정하여 헬리포트로 되었고, 동쪽은 너비 10m, 길이 15m의 부분이 평탄지이다. 서쪽은 너비 5m, 길이 40m 이상으로 보개산성의 서쪽 성벽 안쪽으로 돌아가는 內環道를 이루고 있다.[도면 53]

봉수대는 할석으로 타원상의 모양으로 축조한 부분과 암반 부분, 그리고 동쪽의 평탄지에 마련된 건물터로 되어 있다. 이중 가장 높은 부분은 암반 부분으로, 전체의 남쪽에 해당한다. 암반 노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경사져 있으며 약 10m의 범위가 동서 방향으로 높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으나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고, 횃불로 신호하기에도 적당한 부분이다.

이 암반의 북쪽으로 할석을 축조하여 타원상으로 된 부분은 남북 두곳에 할석 더미가 있고, 현재 동쪽에 치우쳐 작은 시멘트로 건축한 초소가 있다. 중간 부분은 직경 3m의 작은 응덩이가 형성되어 있다. 할석(割石)으로 축조한 벽은 서쪽에서는 3m 높이의 암반 위에 55도 각도로 1.8m의 높이를 11층으로 축조한 벽면이 남아 있고, 봉수대 윗쪽 평탄지의 너비가 10.5m에 달한 후, 동촉의 석축은 약 30도의 각도로 난충을 이룬 윗면에 약 30cm를 3층으로 축조한 부분이 있다.[도면 53 A—A', 사진 145·146]

봉수대의 북쪽 벽은 1.8m의 암반을 기단으로 삼아 그 위에 약 75도 각도를 이루어 1m의 높이로 6층을 쌓고, 그 위에서 안쪽으로 들여서 30cm의 높이를 2~3층으로 축조하였다. 이러한 축조 상태는 1차적으로 봉수대의 외측 방호벽(防護壁)이 축조된 이후 어느 시기엔가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해 준다.[도면 53 B—B', 사진 147]

봉수대의 동북편에 있는 건물터는 남동쪽 모서리에 기단의 일부가 남아 있다. 이 건물터는 아마도 烽軍의 막사(幕舍)로 건립된 것으로 여겨지나,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다. 동서 방향의 너비는 4m이고, 남북으로의 길이는 약 6m에 달하는 범위에 해당한다. 봉수대의 남쪽으로 석축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출입구로 여겨지며, 그 언저리에도 좁고 평탄한 곳이 있어서, 烽軍이 거처할 수 있는 작은 막사가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즉 서북쪽으로 부터의 바람을 피하는 따뜻한 양지바른 위치가 된다.[도면 53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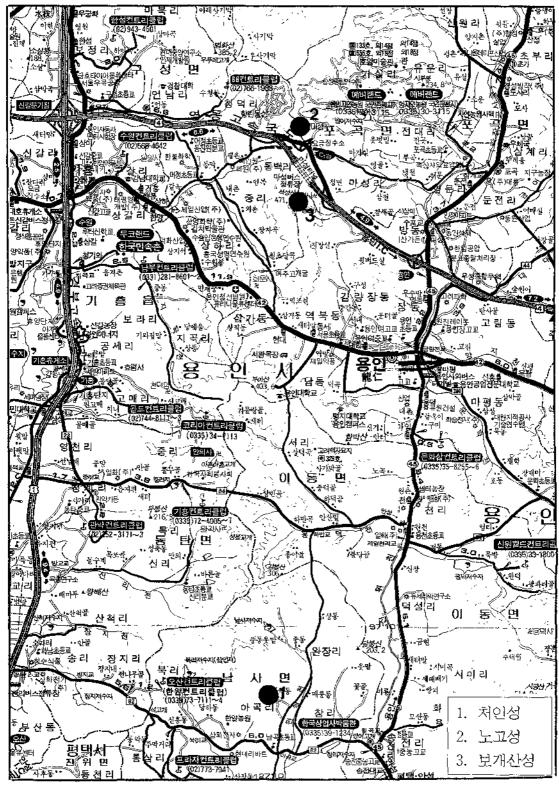
이 봉수대에는 조선 후기의 일반적 양상으로 보면 5명의 봉군이 한 조를 이루어 5교대로 근무하고, 봉군의 保人이 봉군 1명당 2~5인씩이므로 25명의 봉군과 대략 75~125명의 보인이 인근 마을 사람들로 조직되어 운영되었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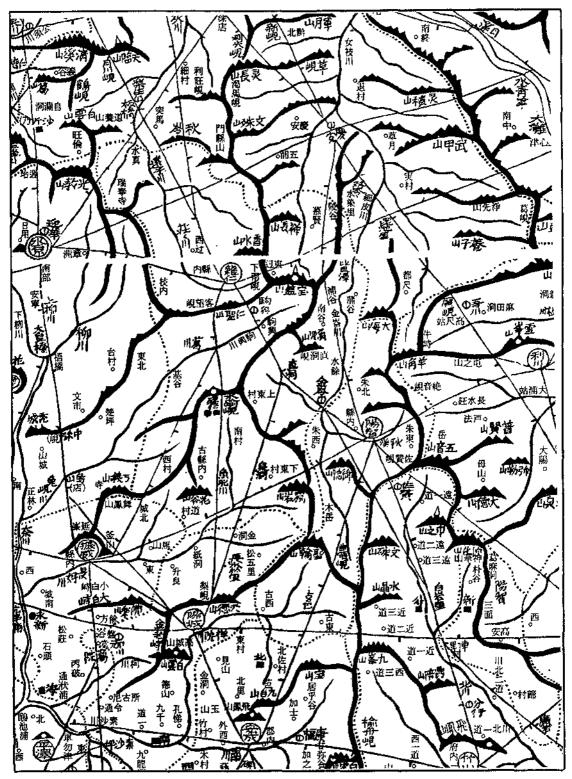
사진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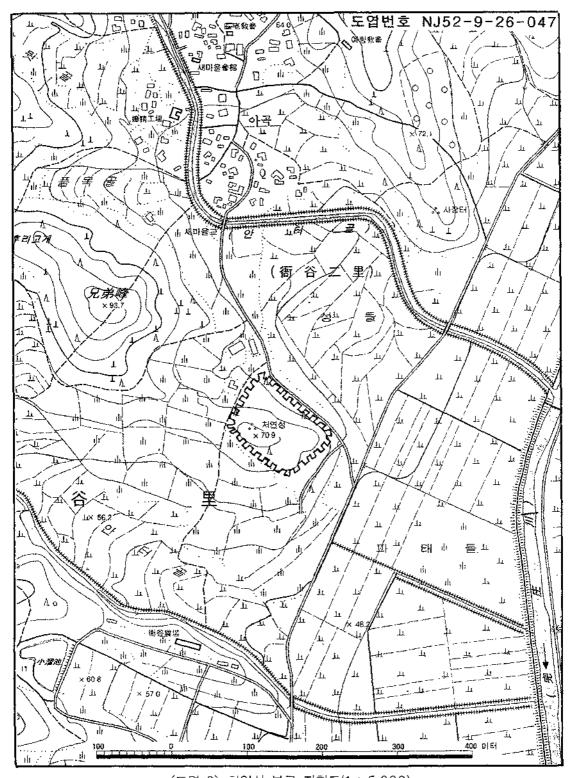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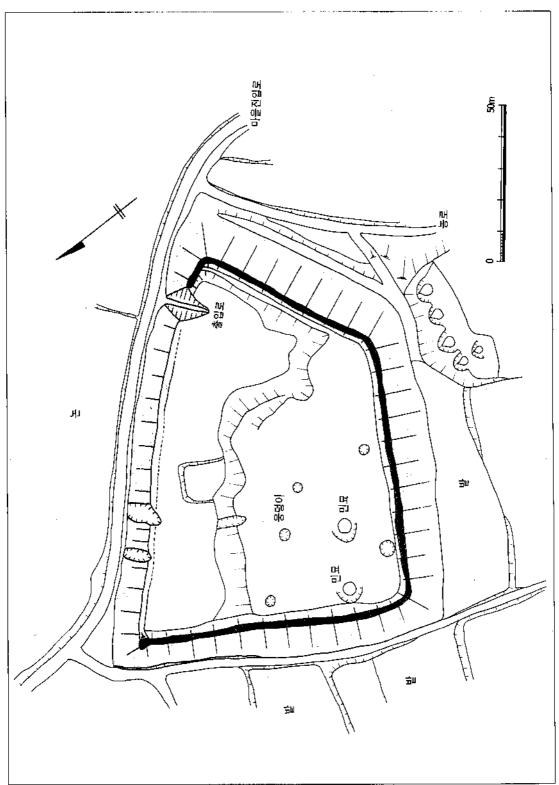
[도면 1] 처인성·노고성·보개산성 위치도(1: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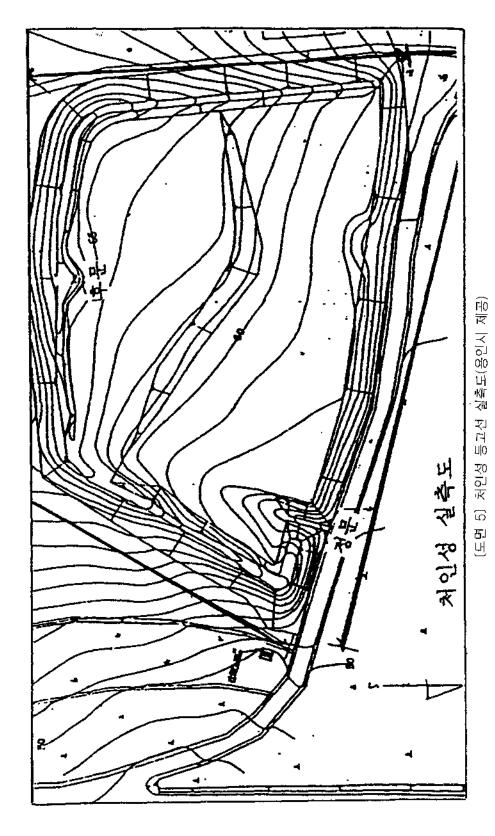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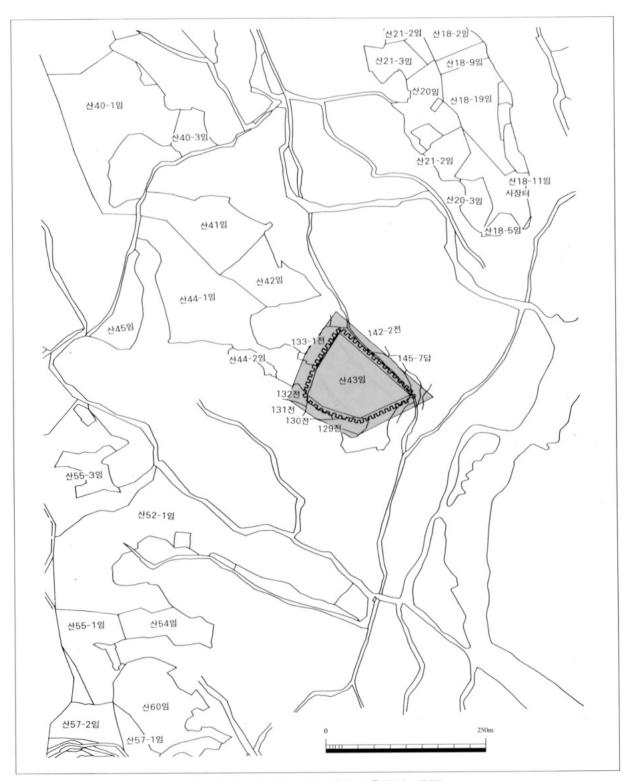
[도면 2] 처인성·보개산성 고지도(대동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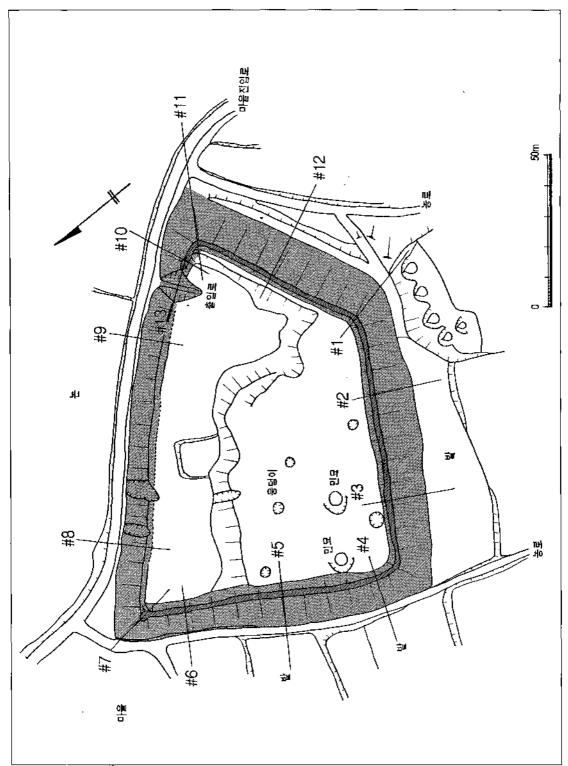
(도면 3) 처인성 부근 지형도(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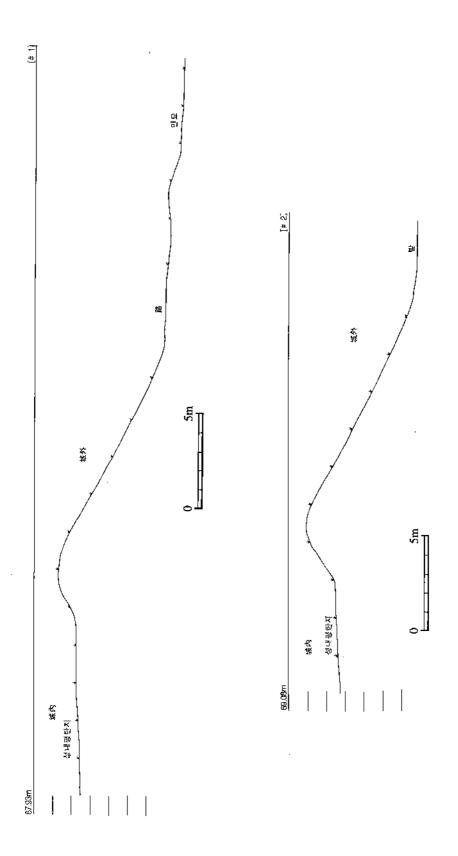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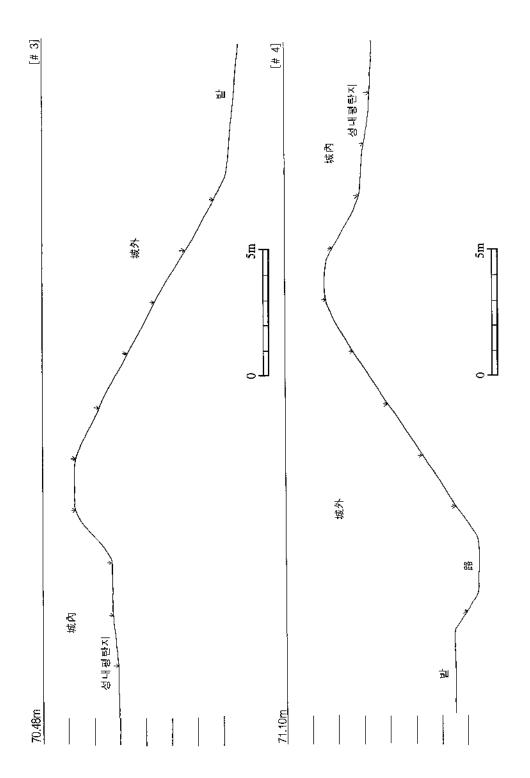


(도면 6) 처인성 부근 임야도(용인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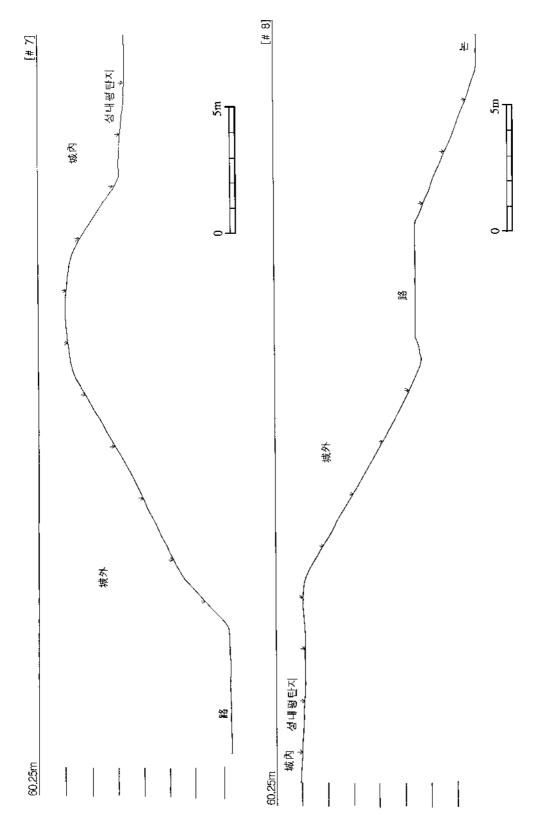


(도면 7) 처인성 단면 실측 지점 표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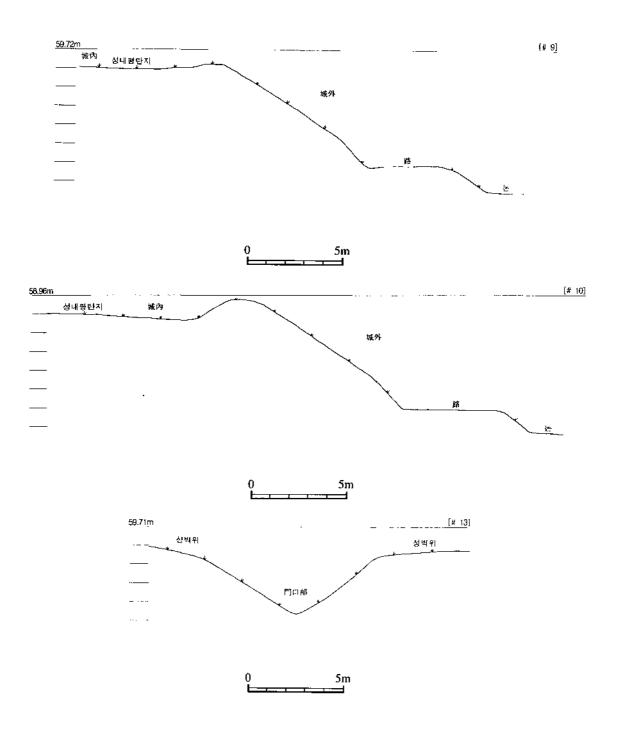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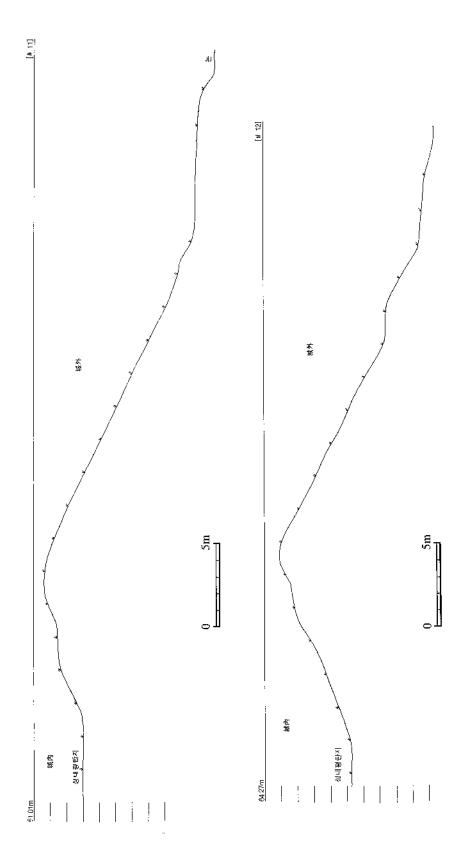
[도면 10] 처인성 단면 실측도(#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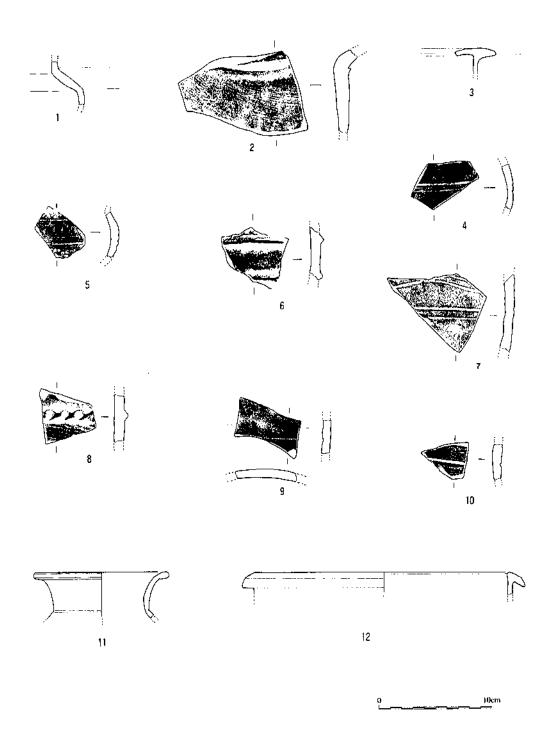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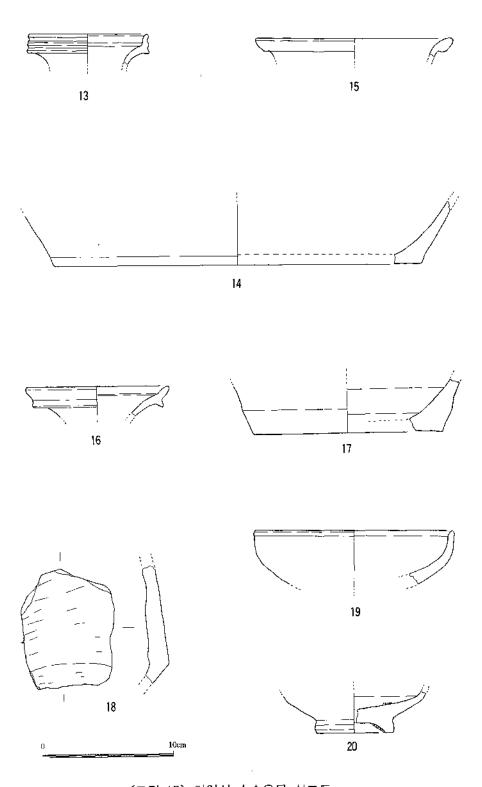


(도면 12) 처인성 단면 실측도(#9·#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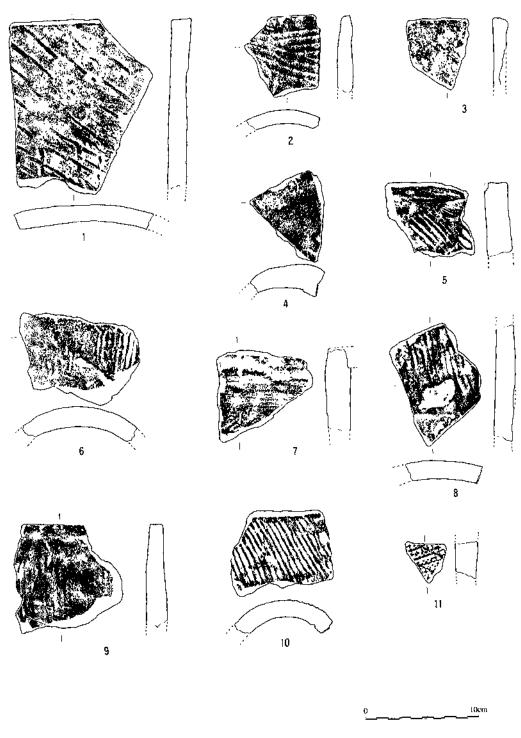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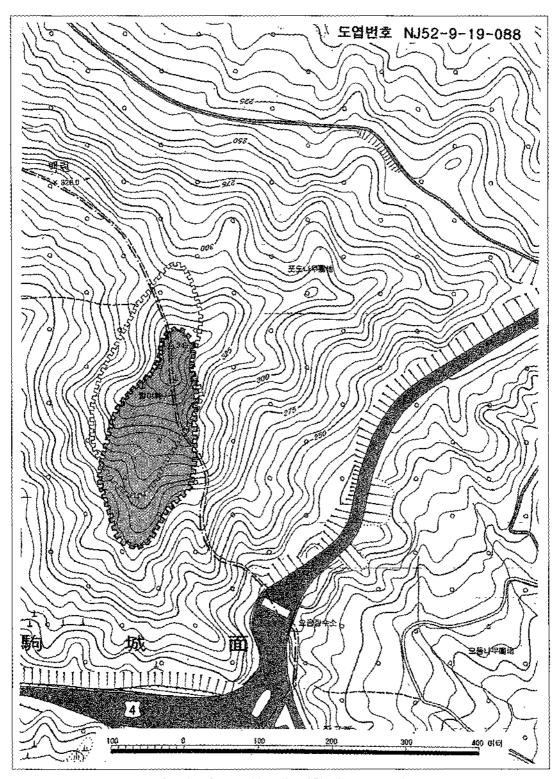
(도면 14) 처인성 수습유물 실측도



(도면 15) 처인성 수습유물 실측도



(도면 16) 처인성 수습유물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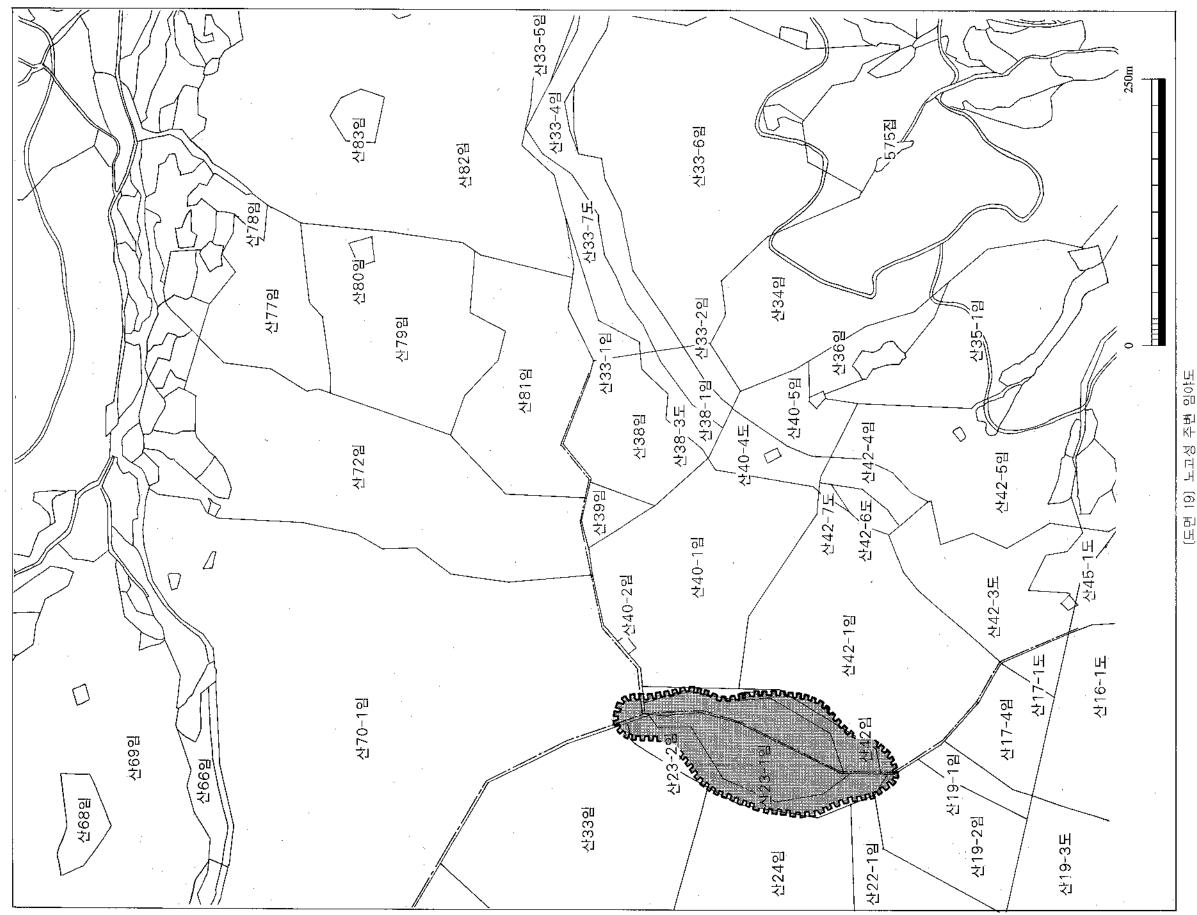
(도면 17) 노고성 부근 지형도(1:5,000)





(도면 18) 노고성 평면실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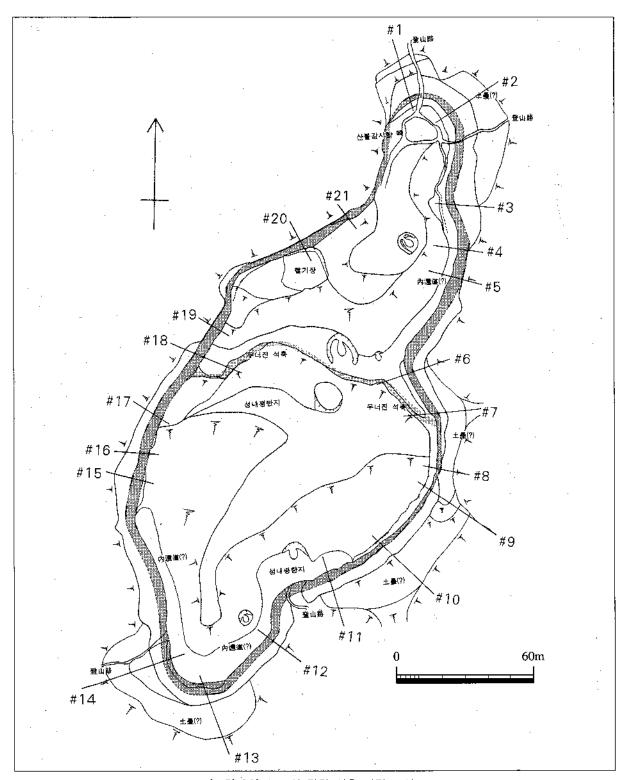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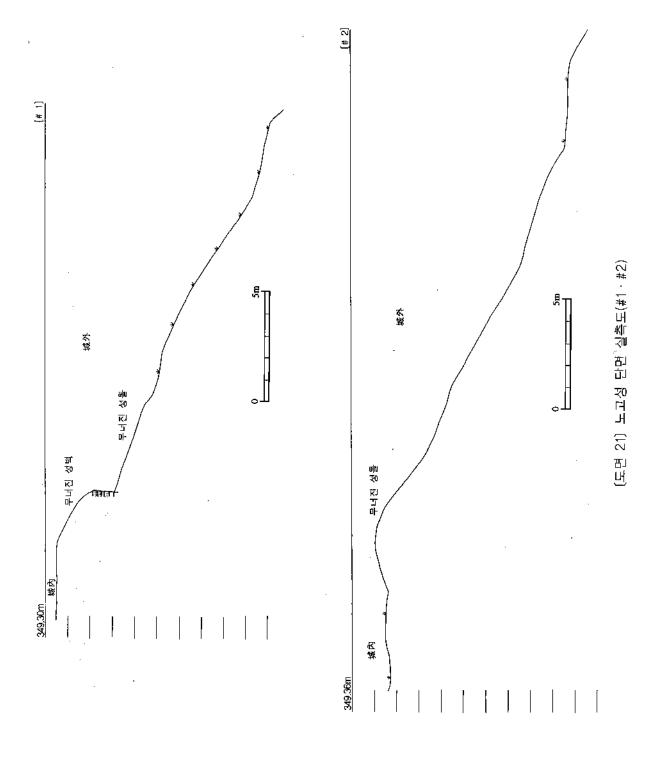
사고성 (도면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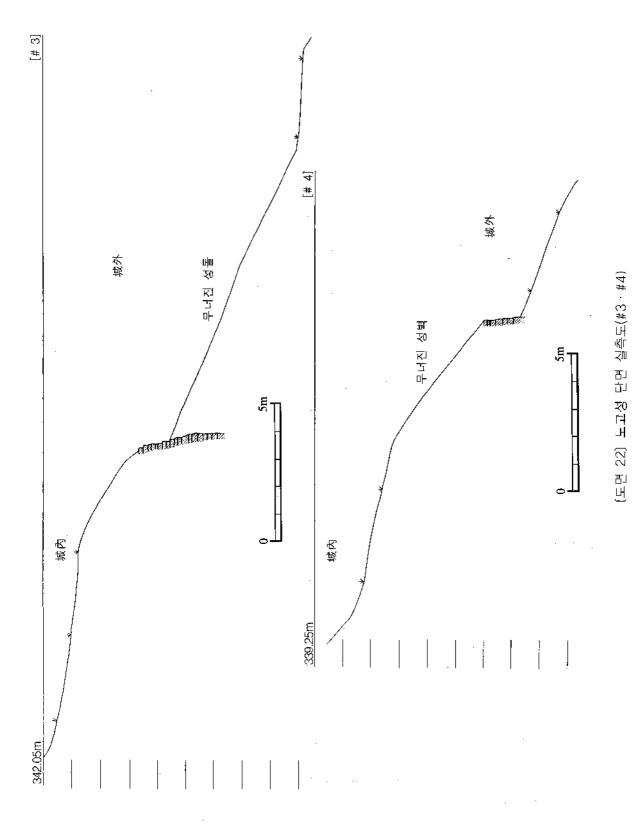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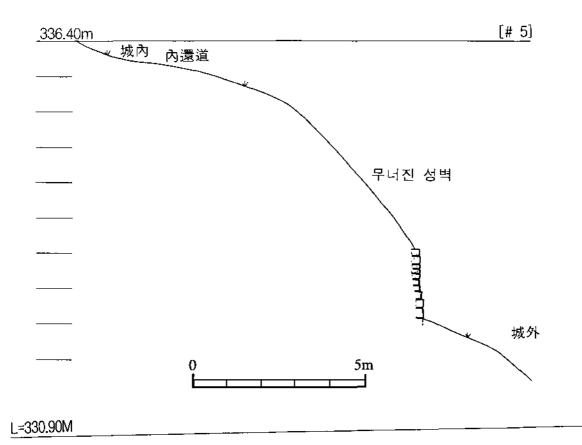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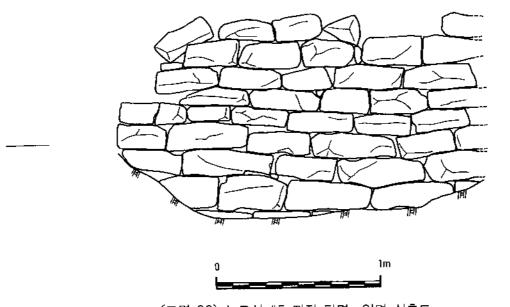


(도면 20) 노고성 단면 실측 지점 표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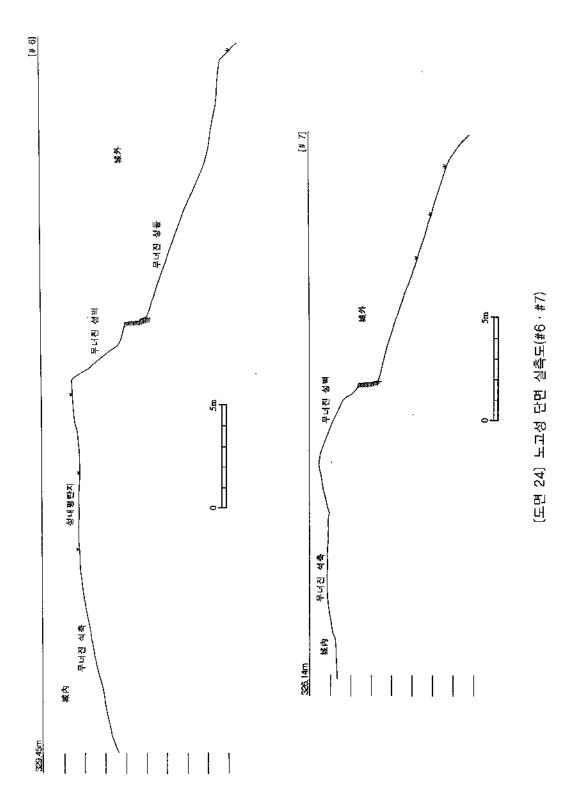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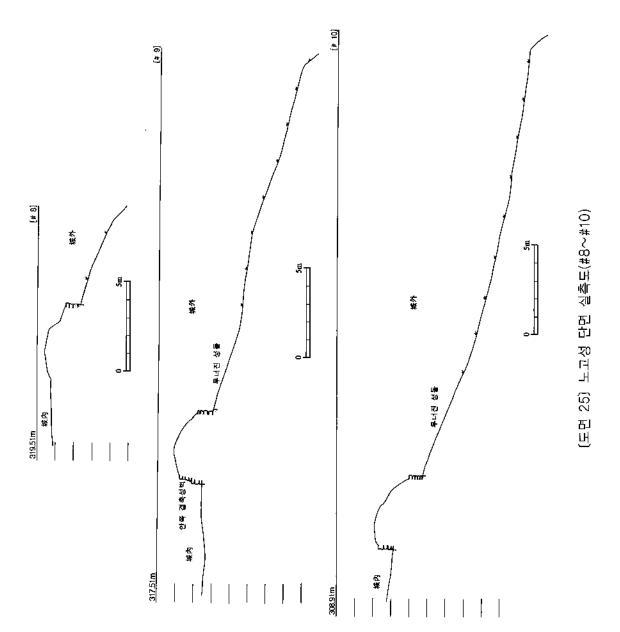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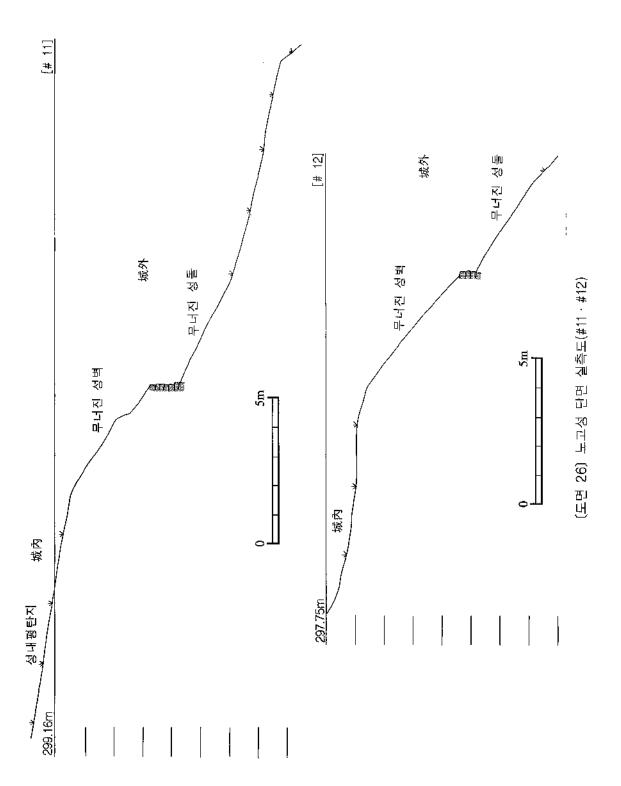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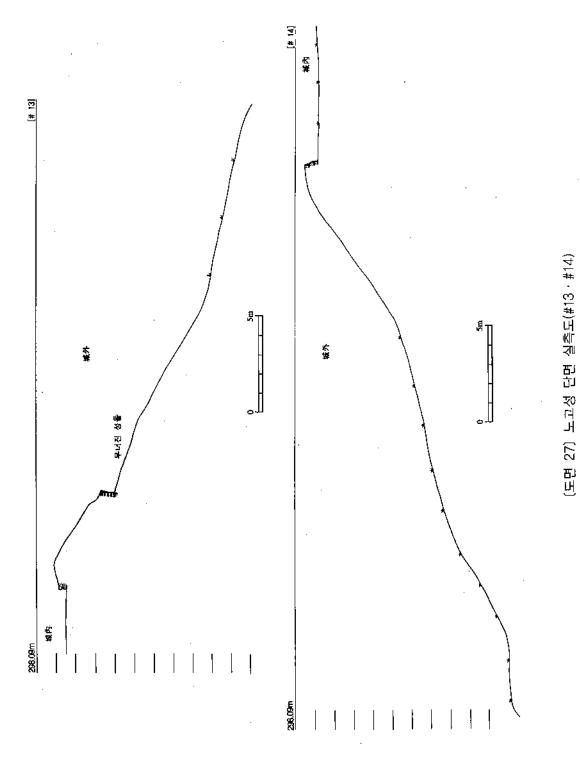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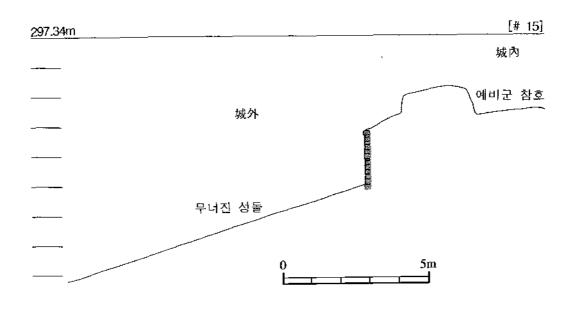
(도면 23) 노고성 #5 지점 단면·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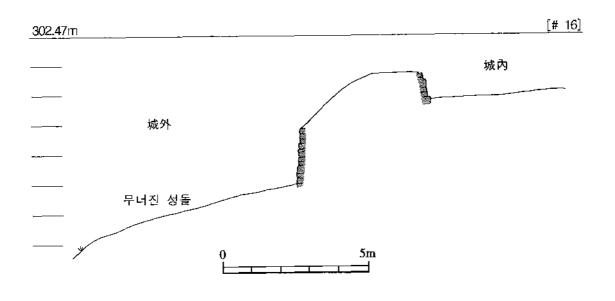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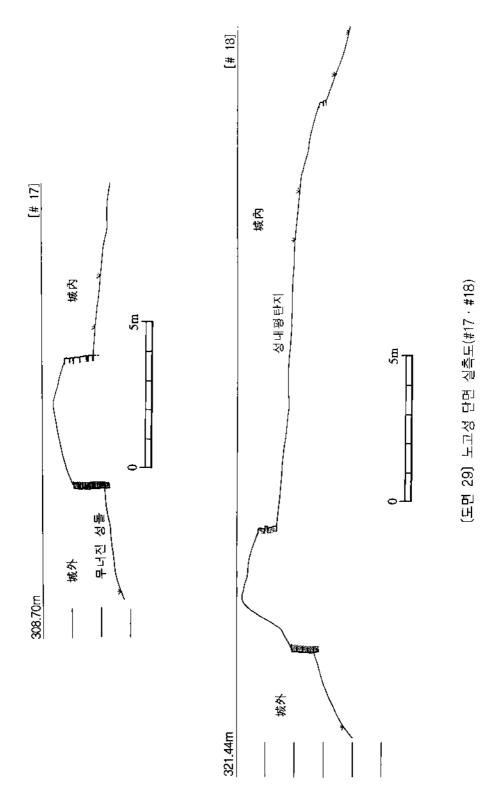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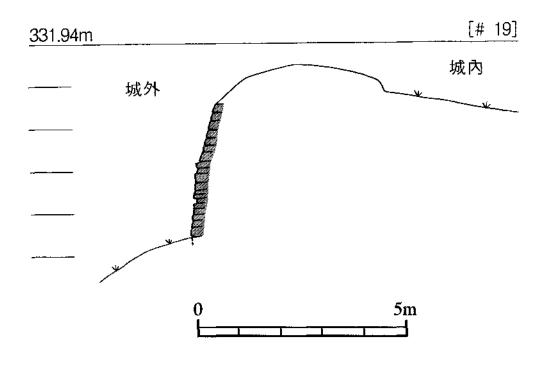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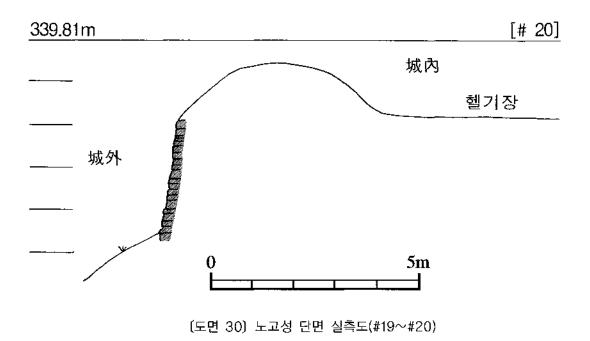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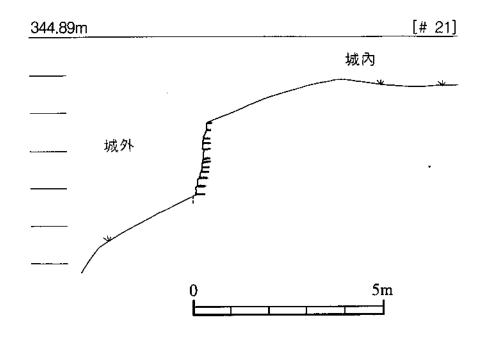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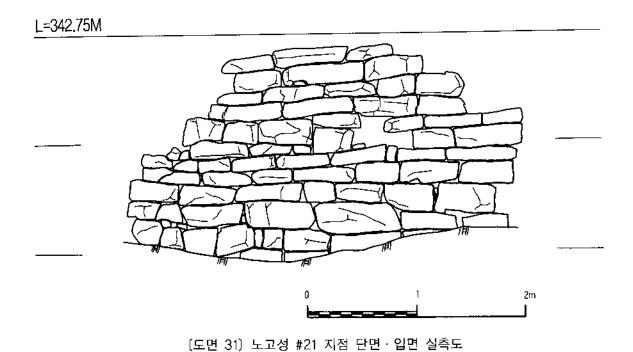
(도면 28) 노고성 단면 실축도(#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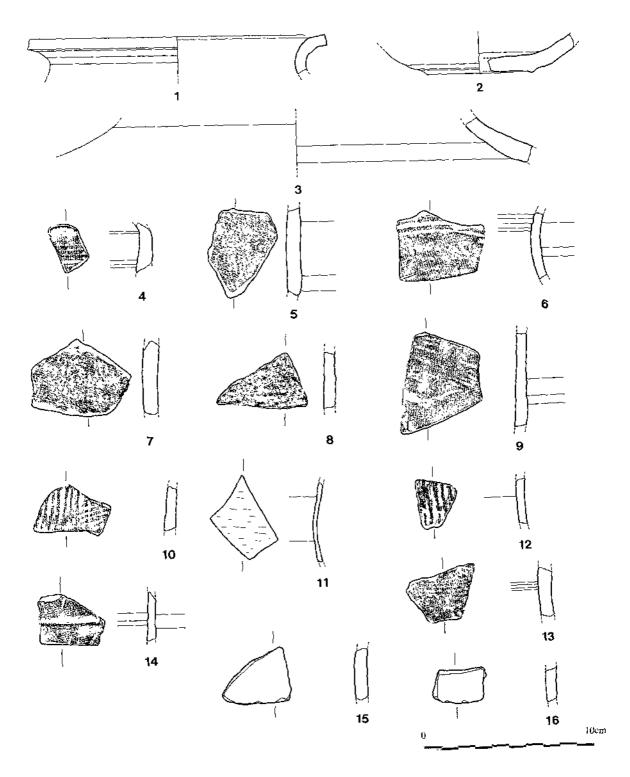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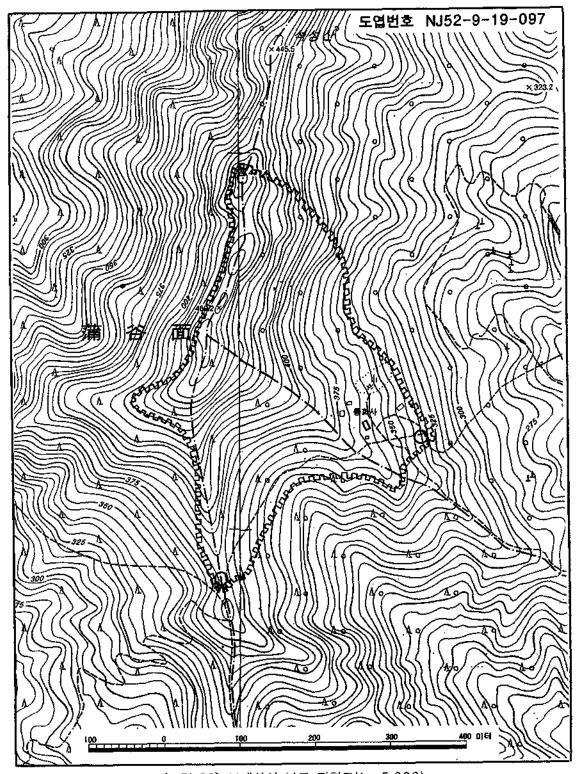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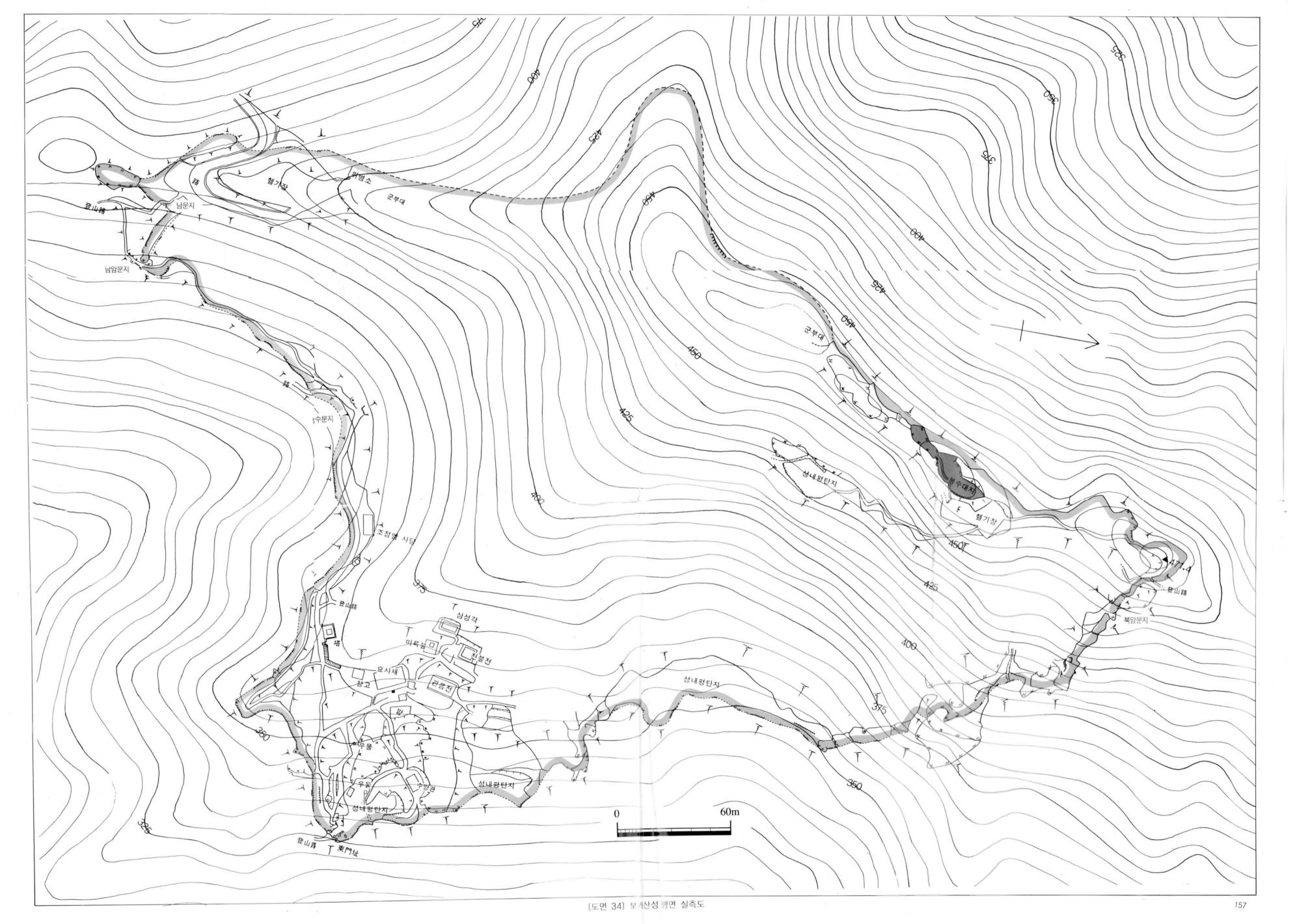




(도면 32) 노고성 수습 유물 실측도(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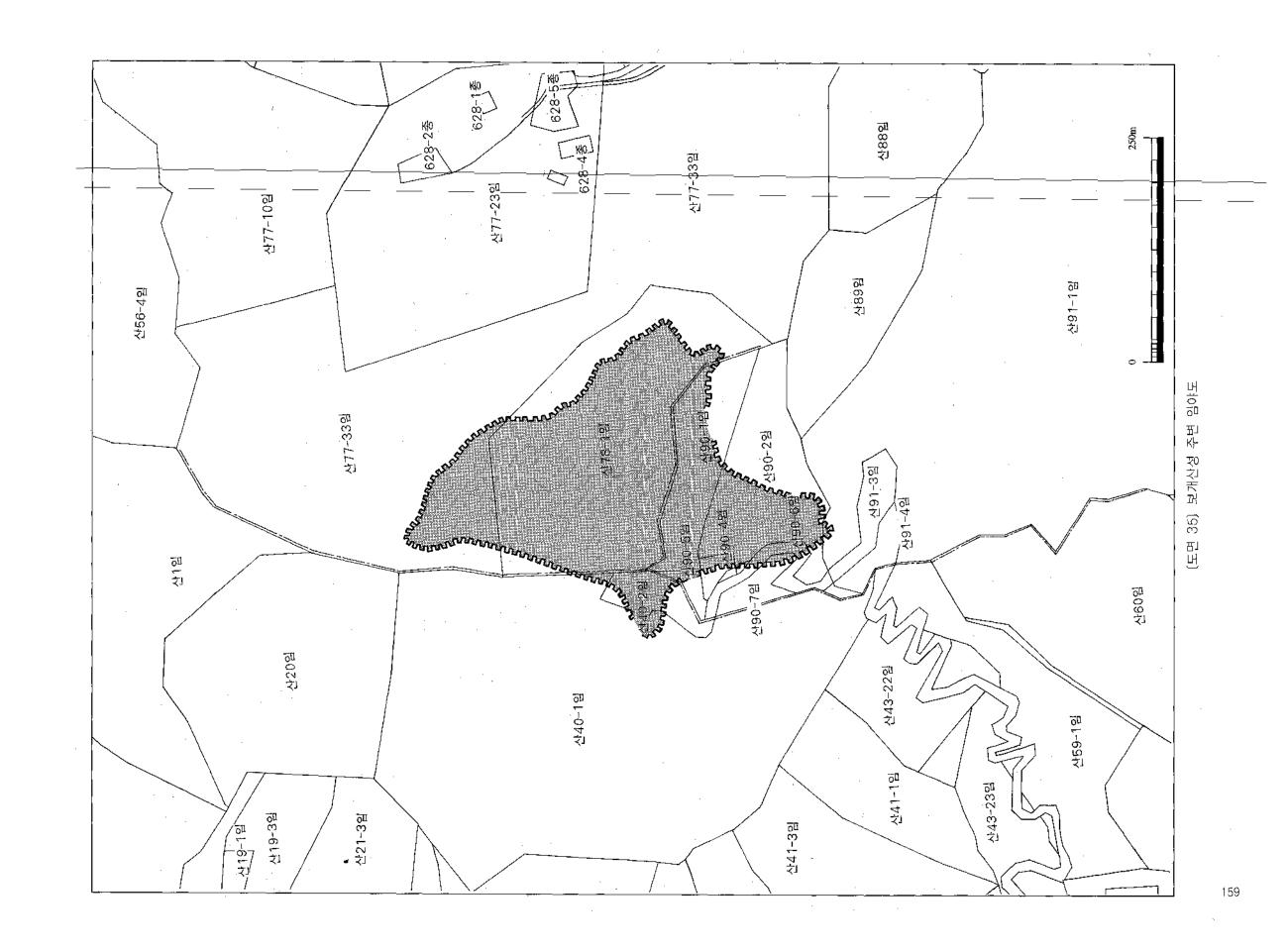


(도면 33) 보개산성 부근 지형도(1 :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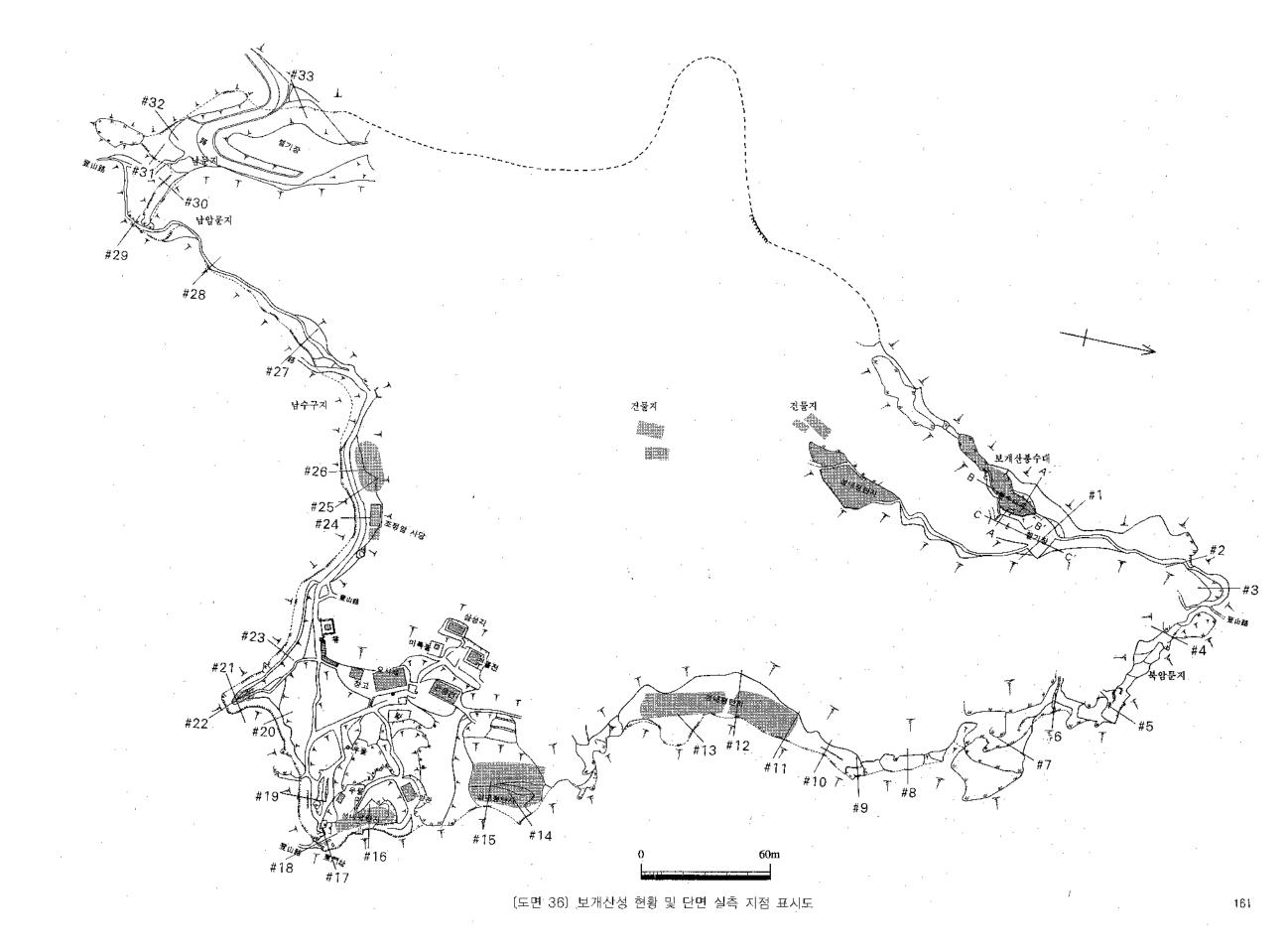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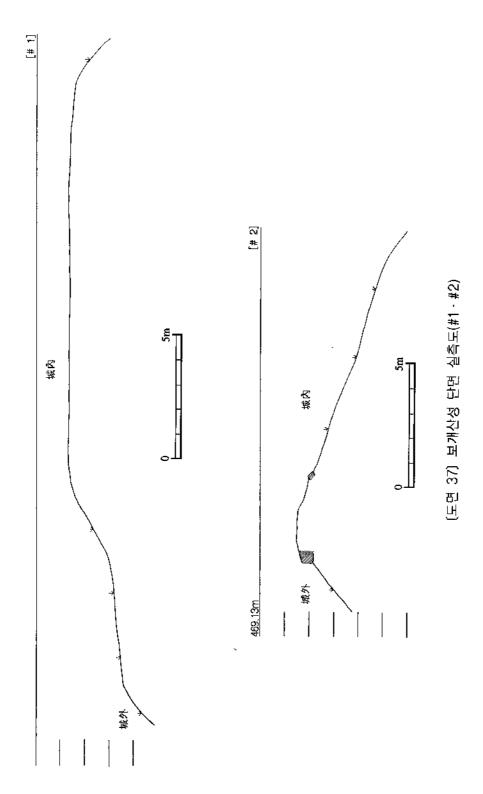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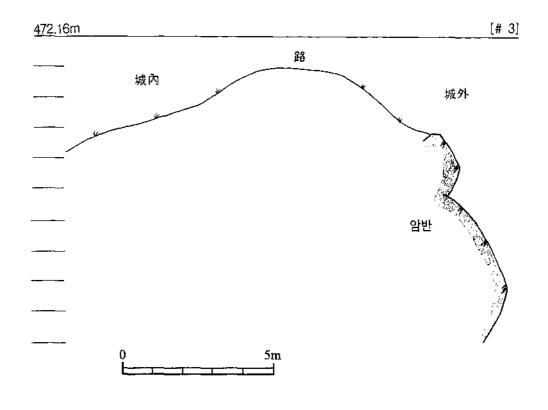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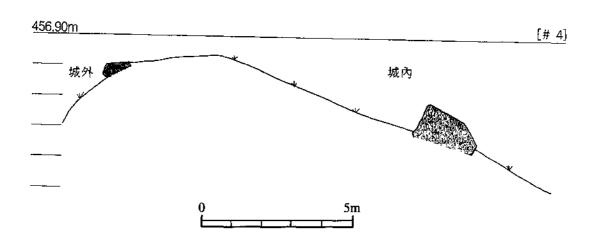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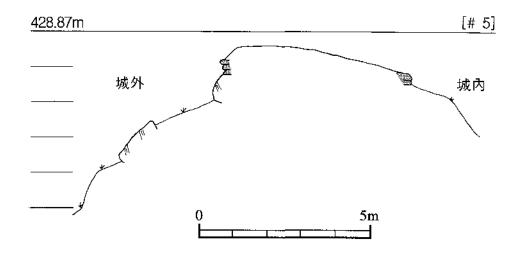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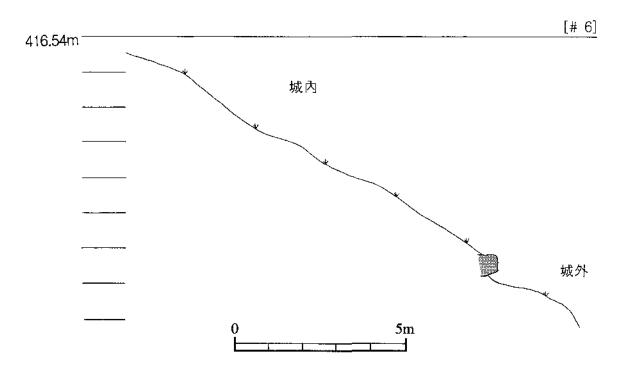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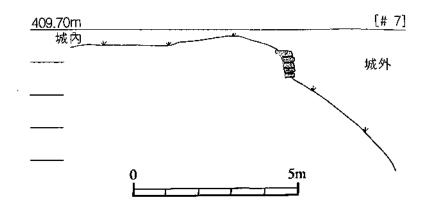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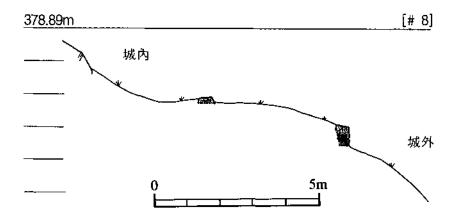
(도면 38)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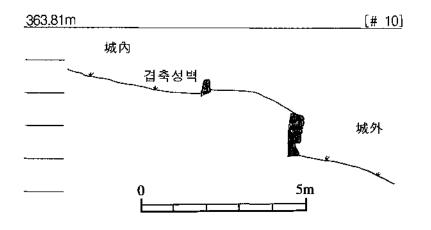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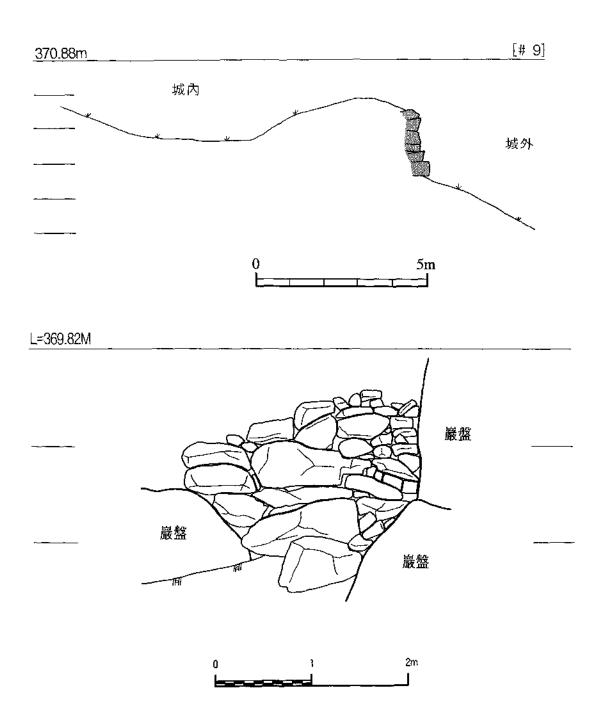
(도면 39)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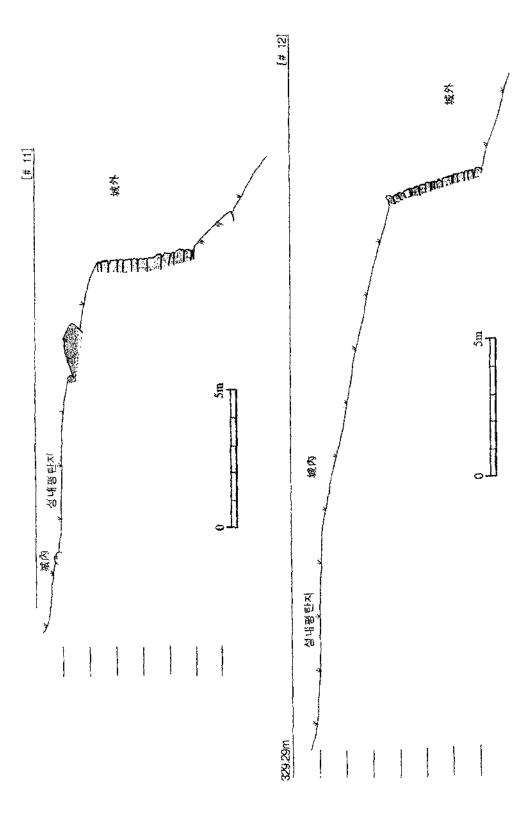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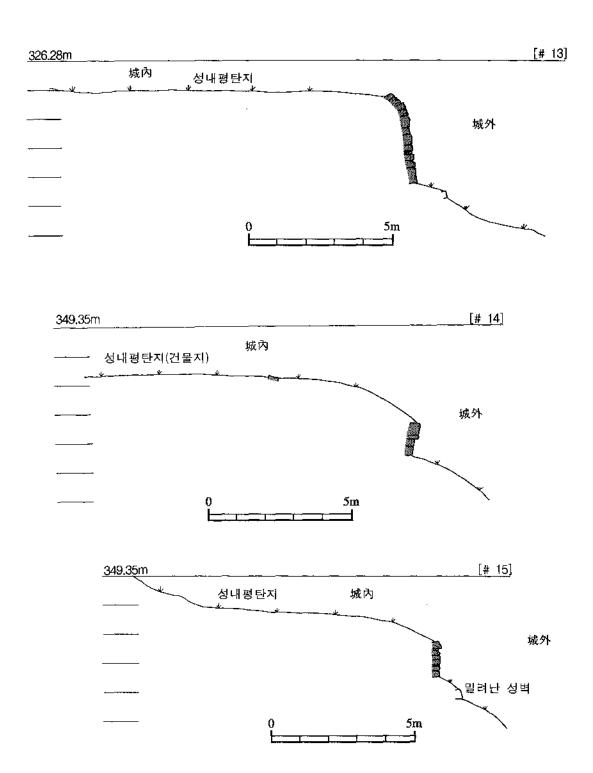
[도면 40]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7·#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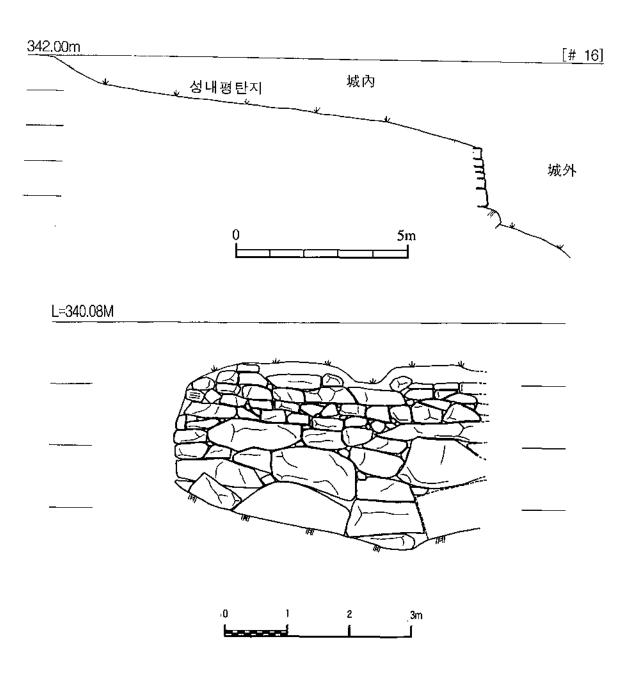
(도면 41) 보개산성 #9 지점 단면·입면 실측도



[도면 42] 보개산성 단면 실촉도(#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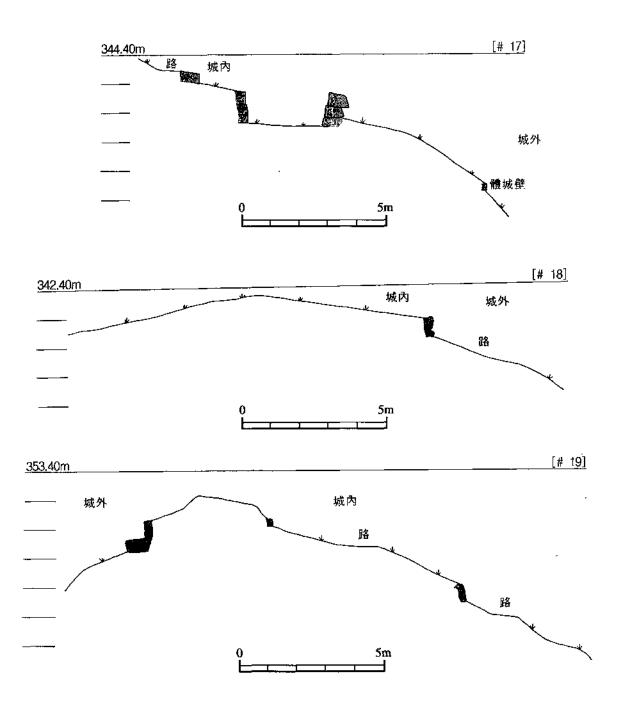


(도면 43)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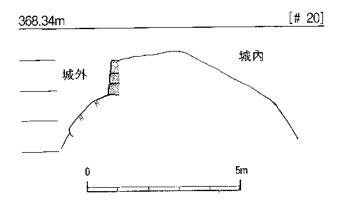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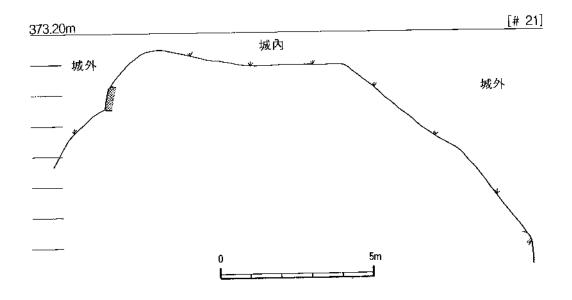
(도면 44) 보개산성 #16지점 단면·입면 실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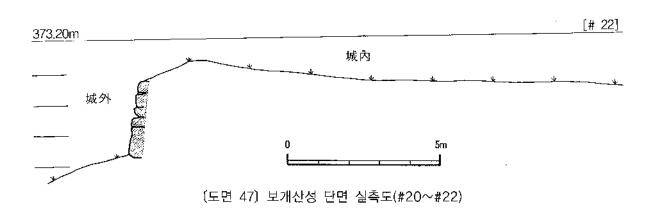
[도면 45] 보개산성 동문지 평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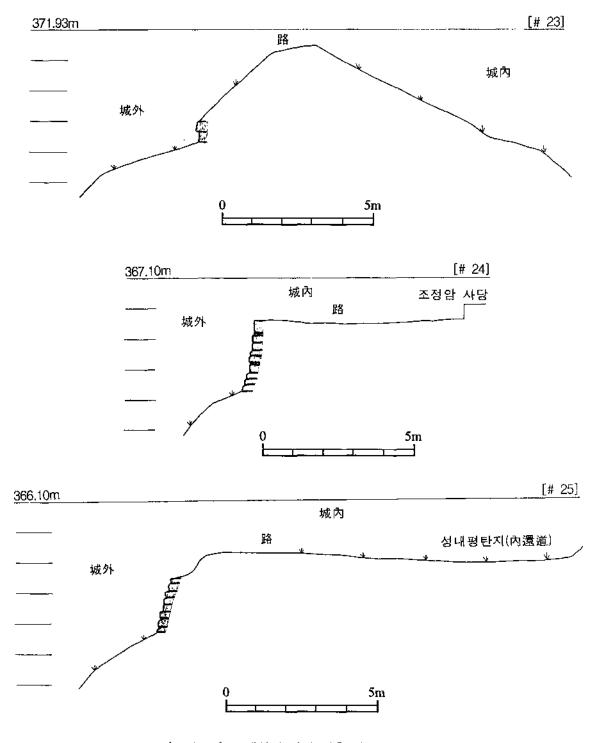


(도면 46)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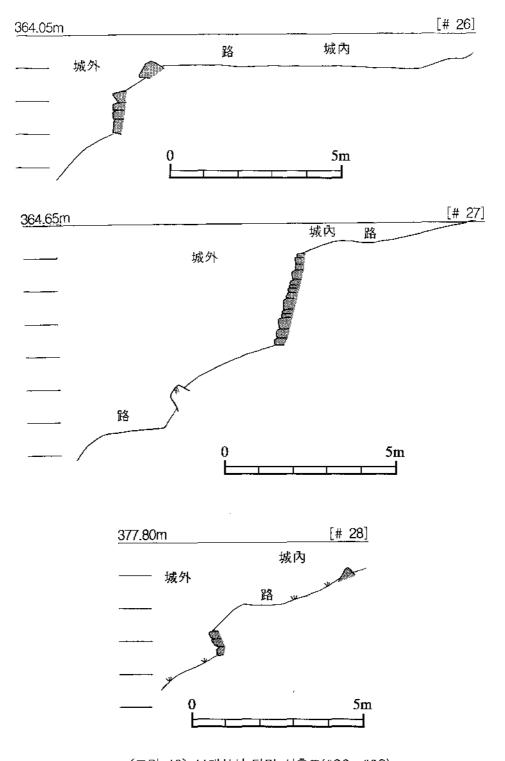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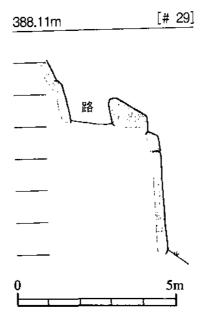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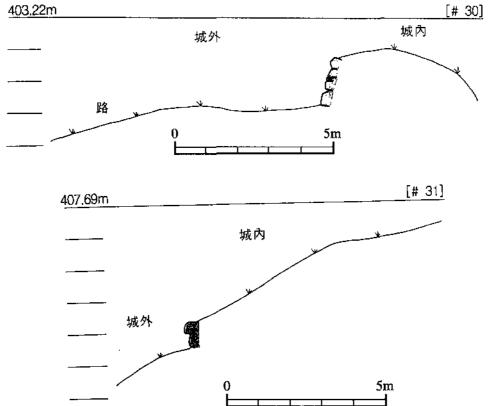


[도면 48]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2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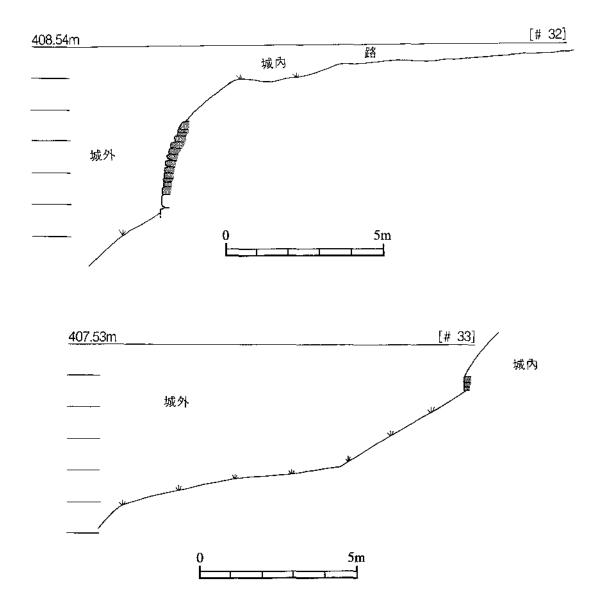


(도면 49)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2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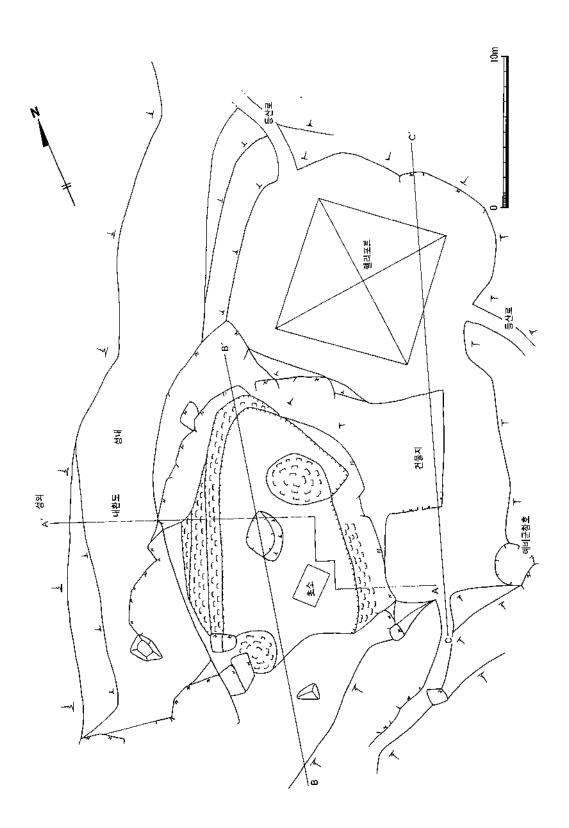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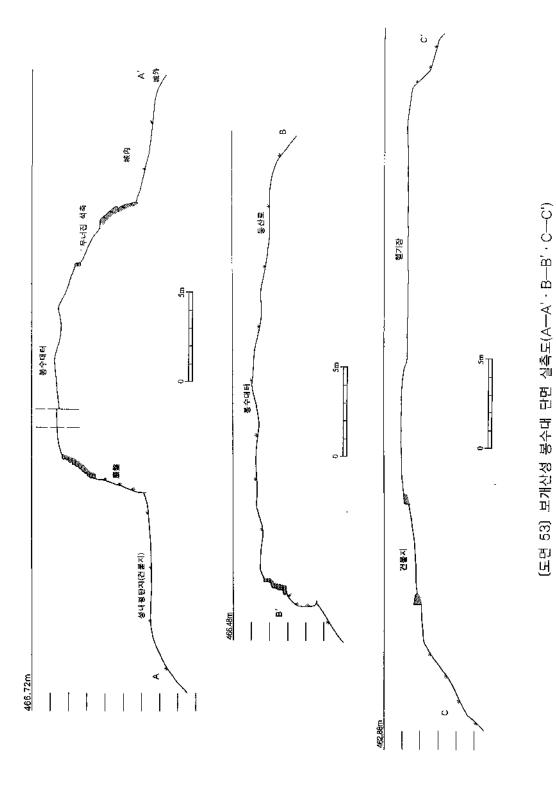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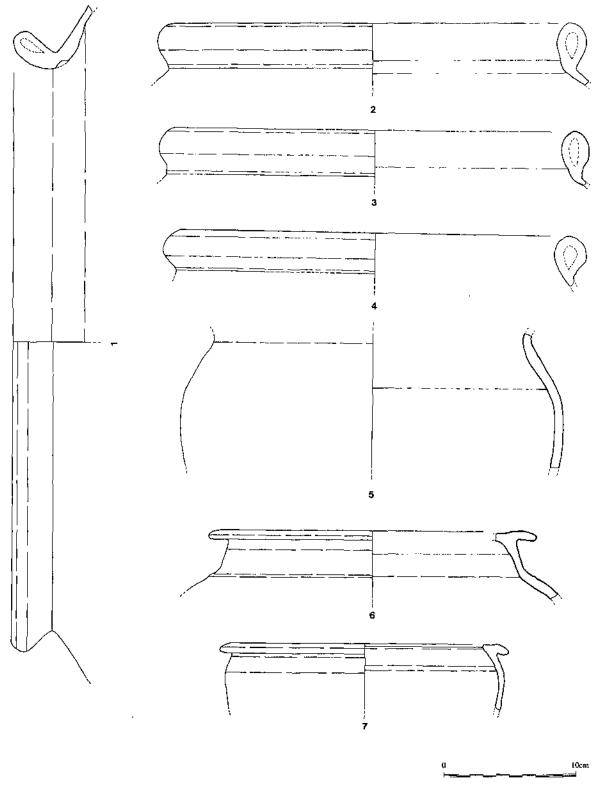
(도면 50)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2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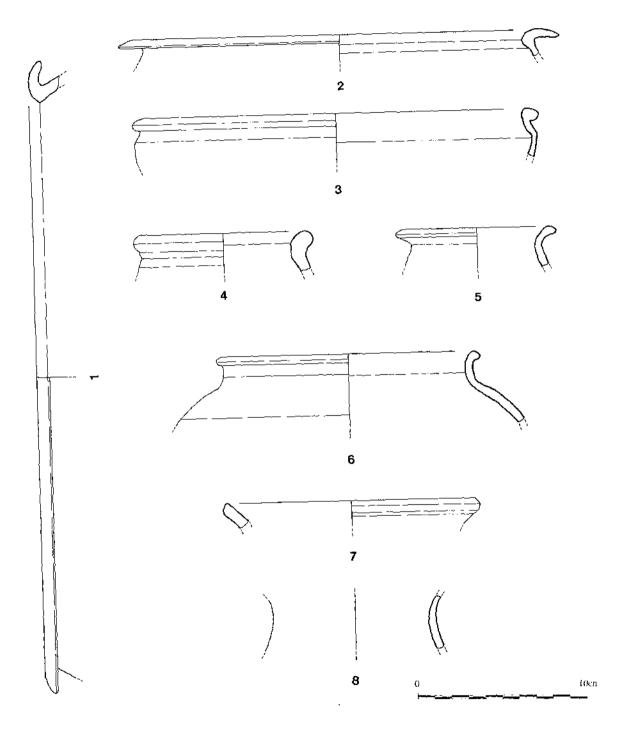
(도면 51) 보개산성 단면 실측도(#3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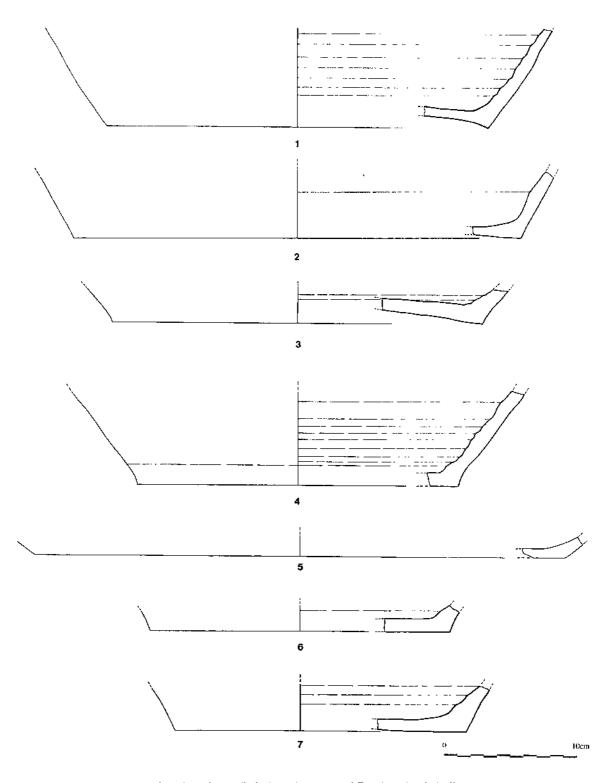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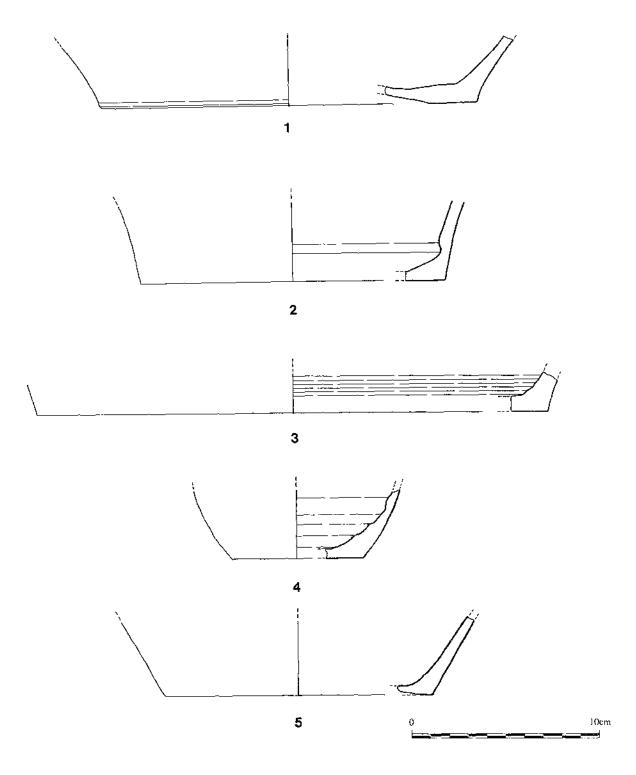
(도면 54)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촉도(토기 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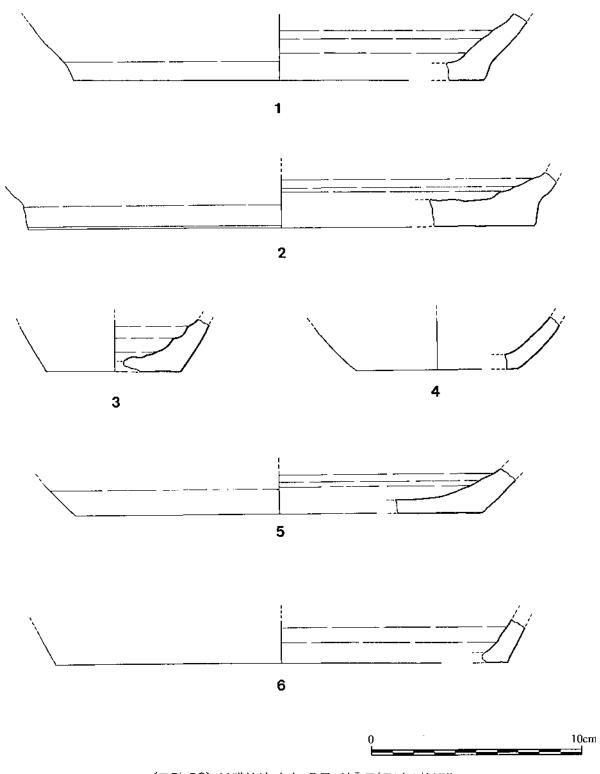
(도면 55)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촉도(토기 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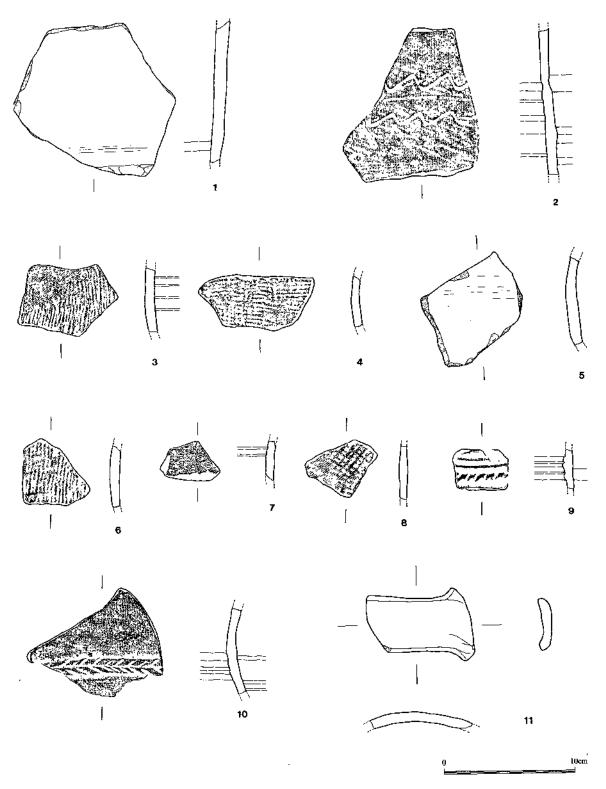
(도면 56)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토기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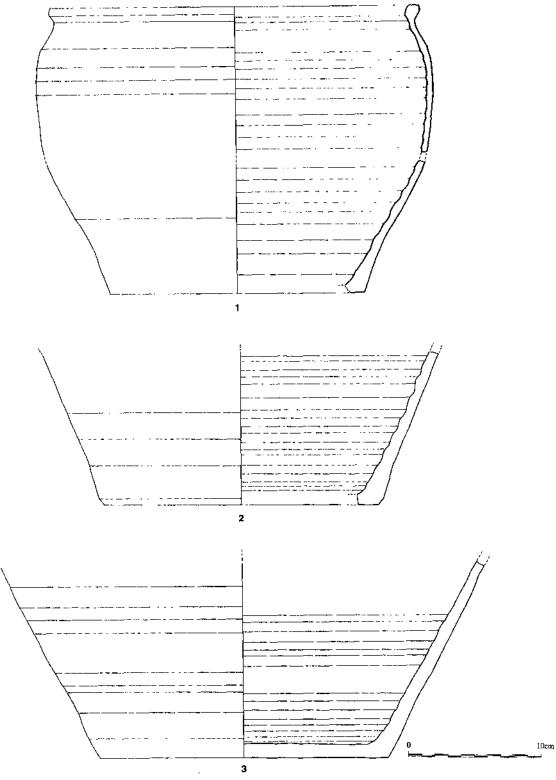
(도면 57)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토기 저부편)



[도면 58]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토기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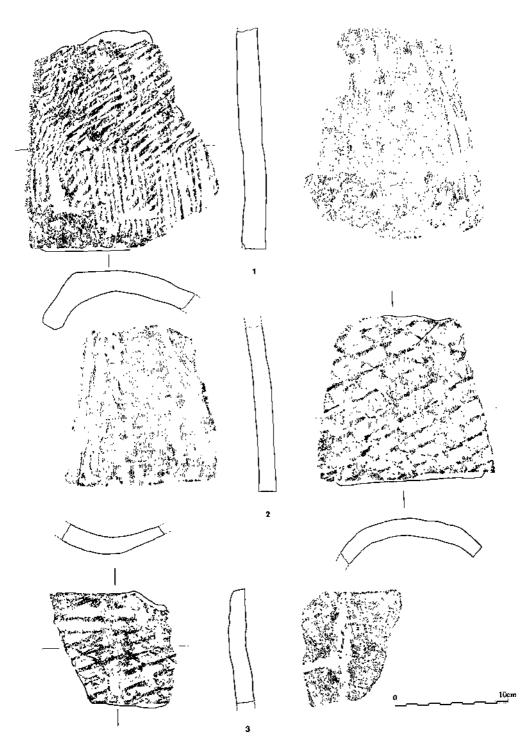


(도면 59)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동체부편·파수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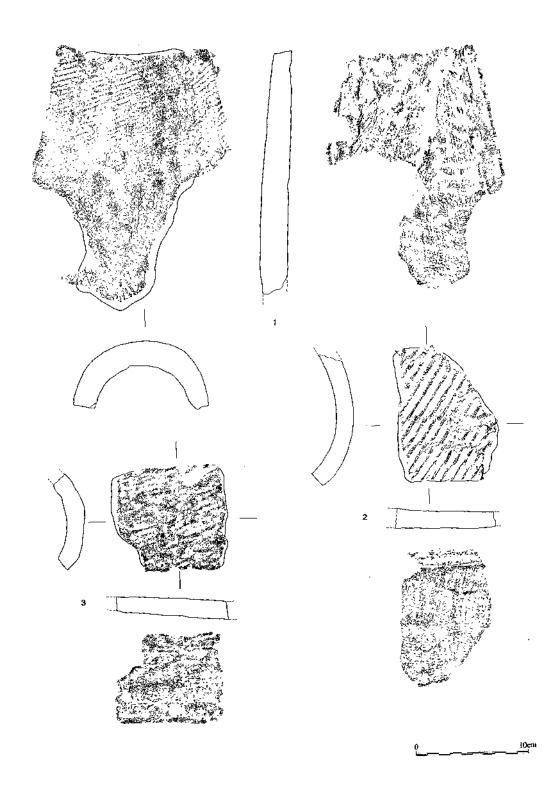


(도면 60)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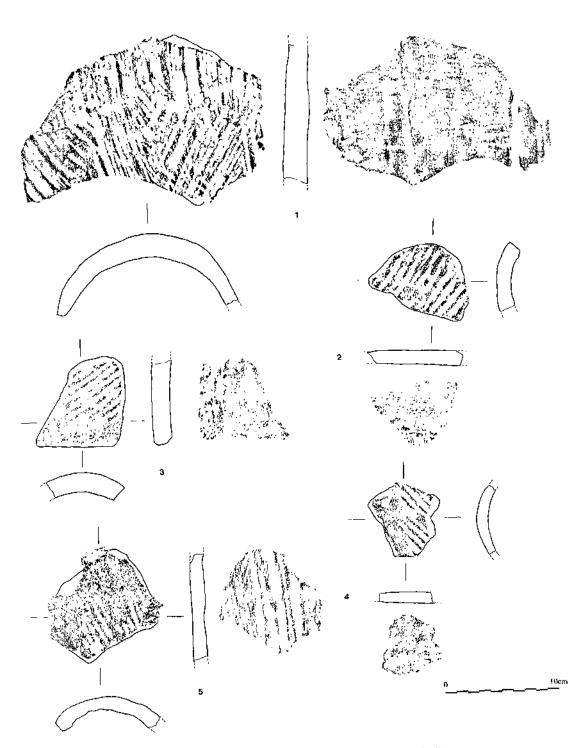
(도면 61)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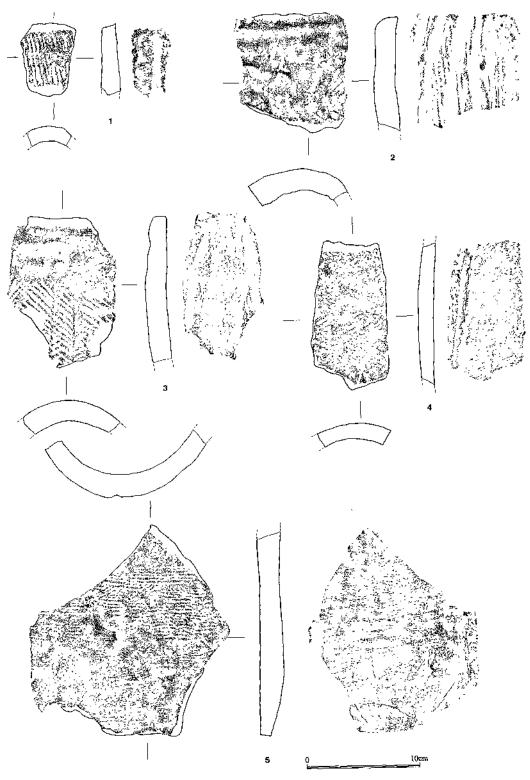
(도면 62)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수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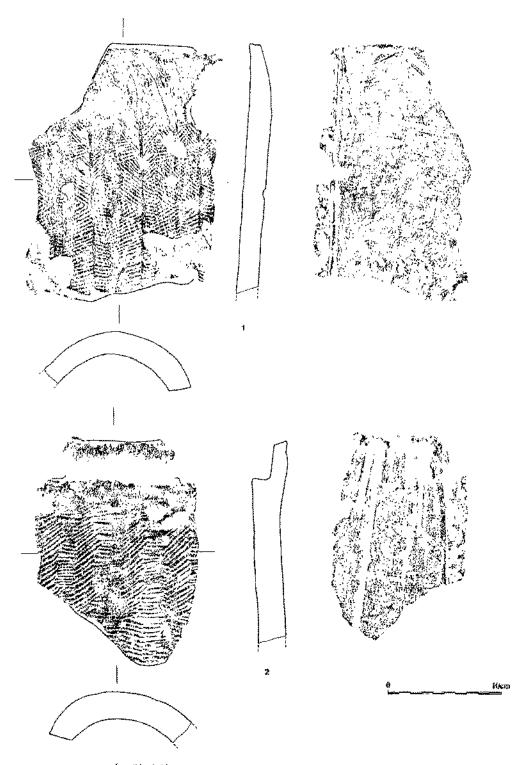
(도면 63)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촉도(수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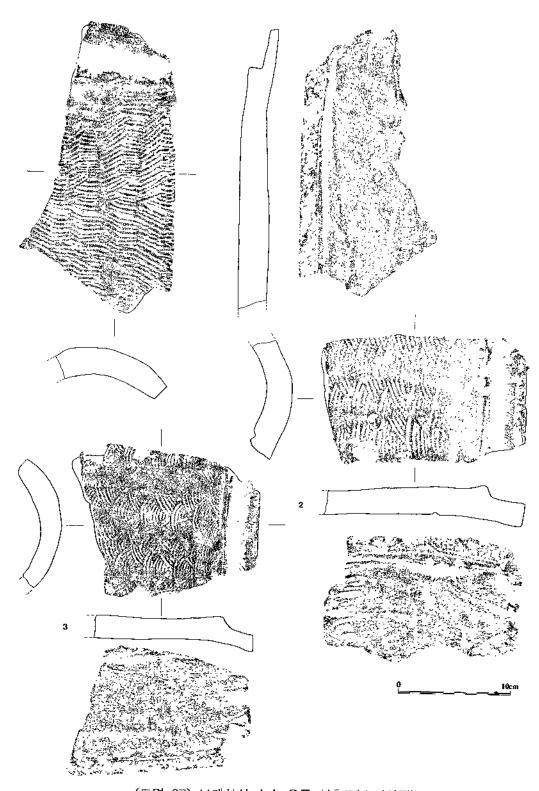
(도면 64)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수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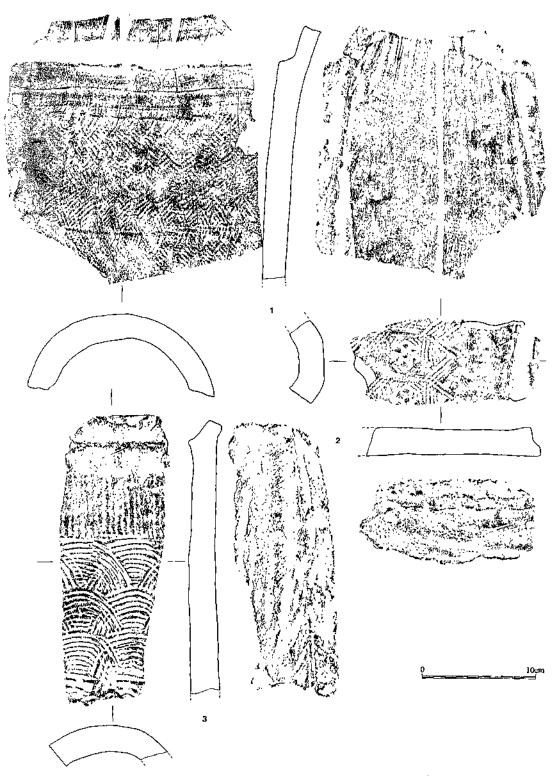
(도면 65)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촉도(수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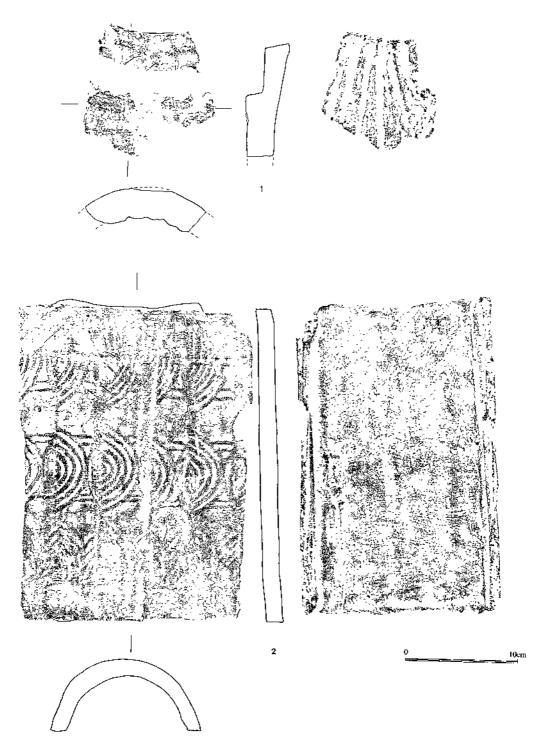
(도면 66)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수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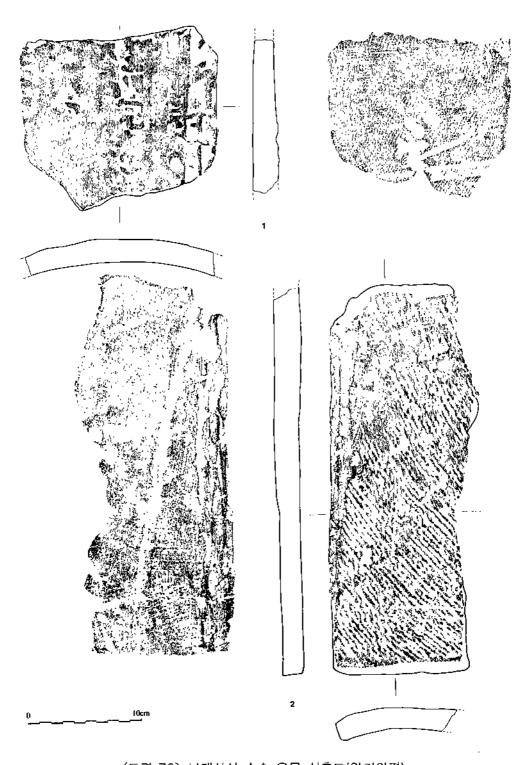
(도면 67)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수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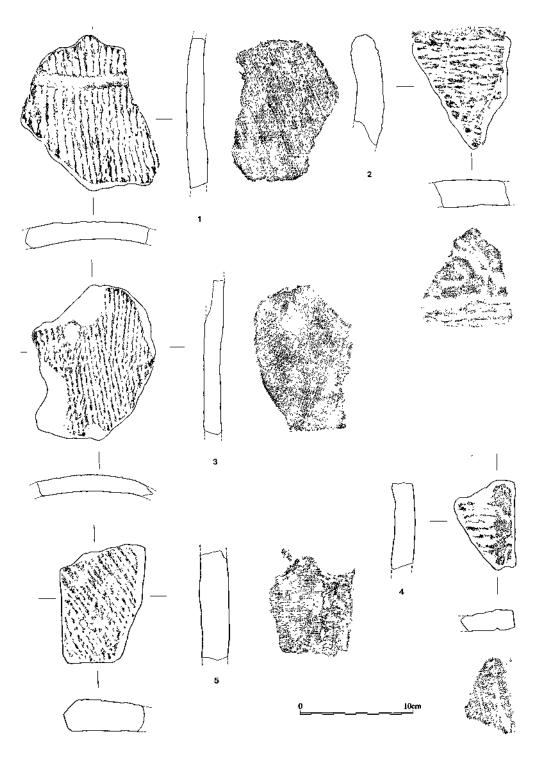
(도면 68)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수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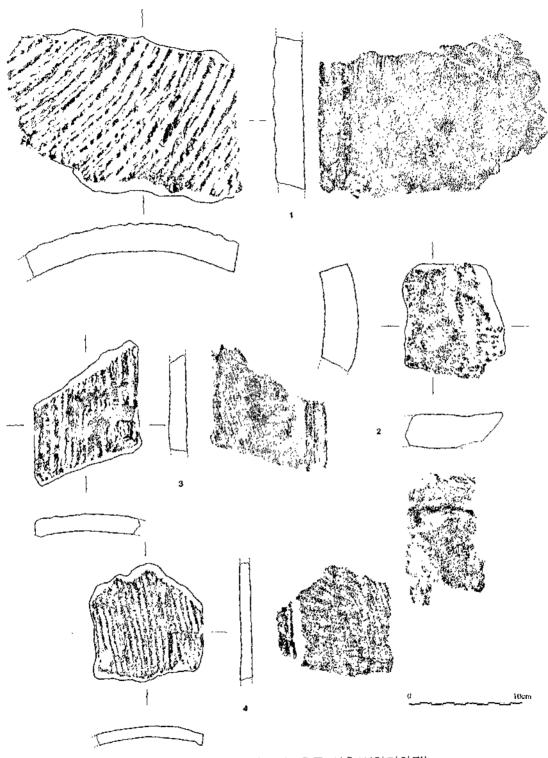
(도면 69)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수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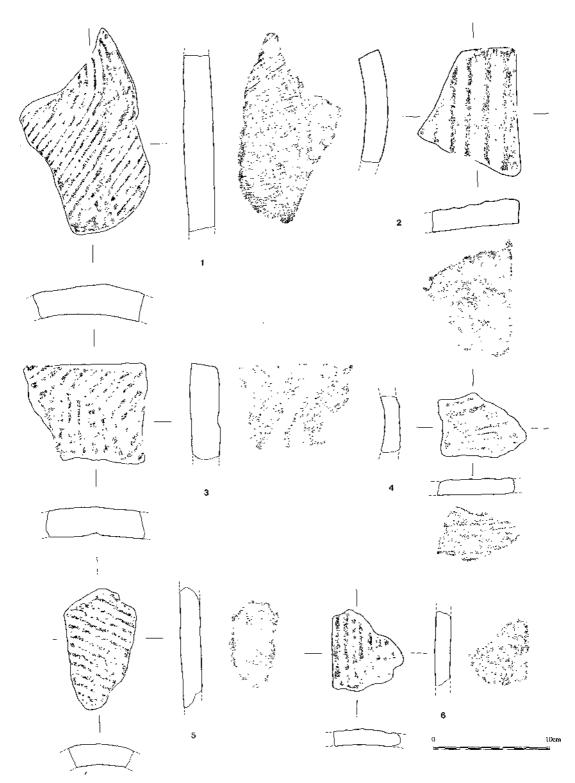
(도면 70)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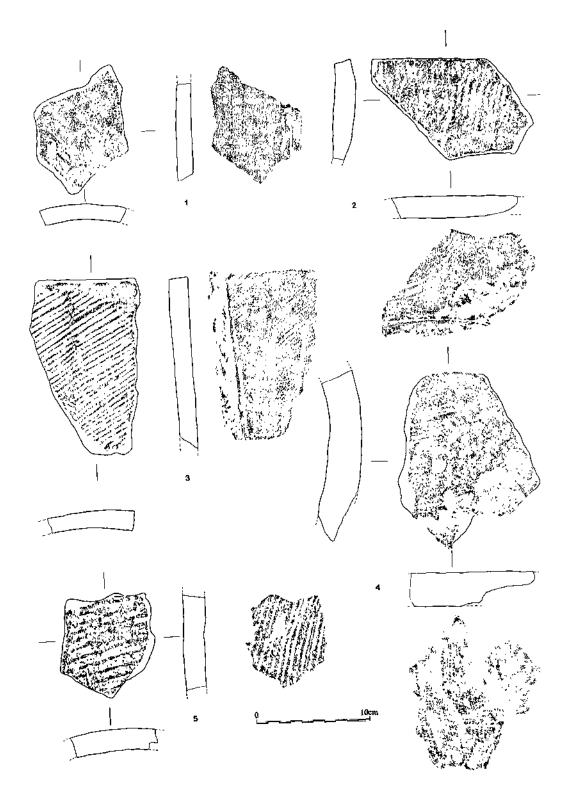
(도면 71)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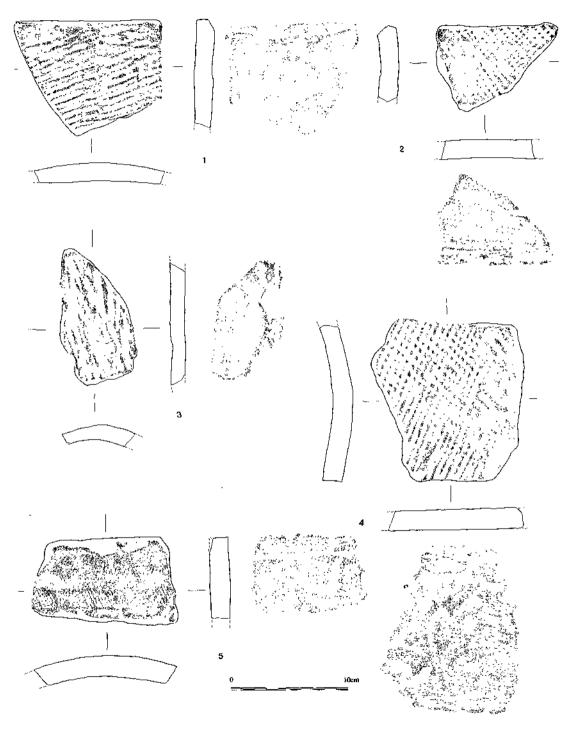
(도면 72)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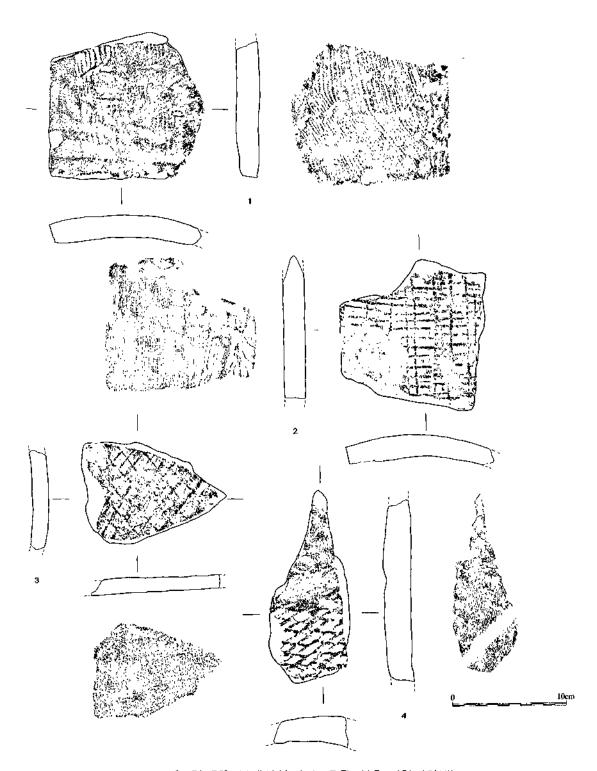
(도면 73)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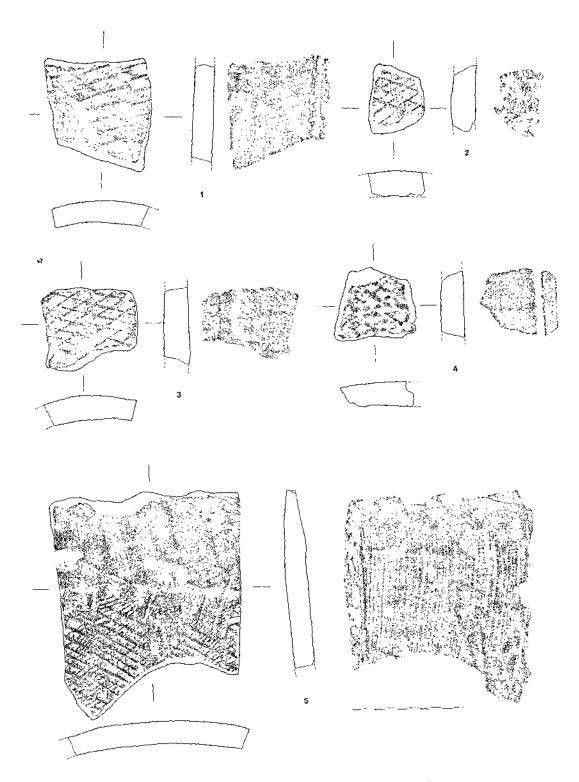
(도면 74)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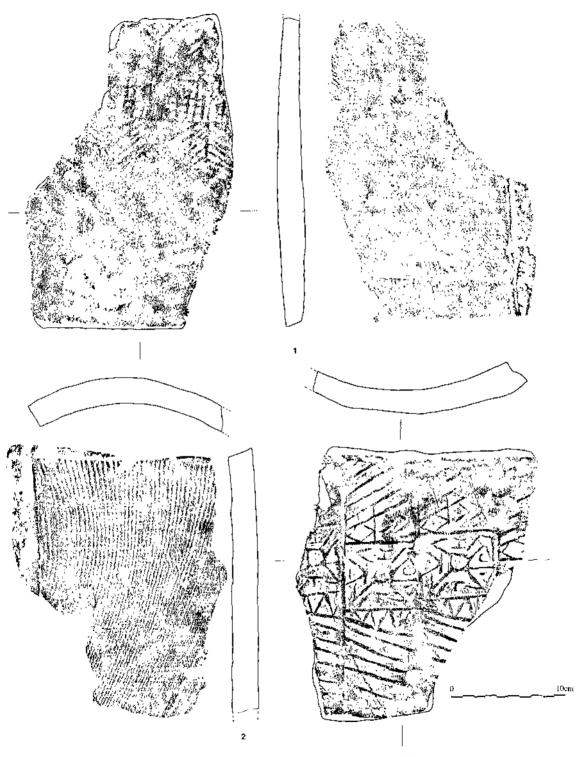
[도면 75]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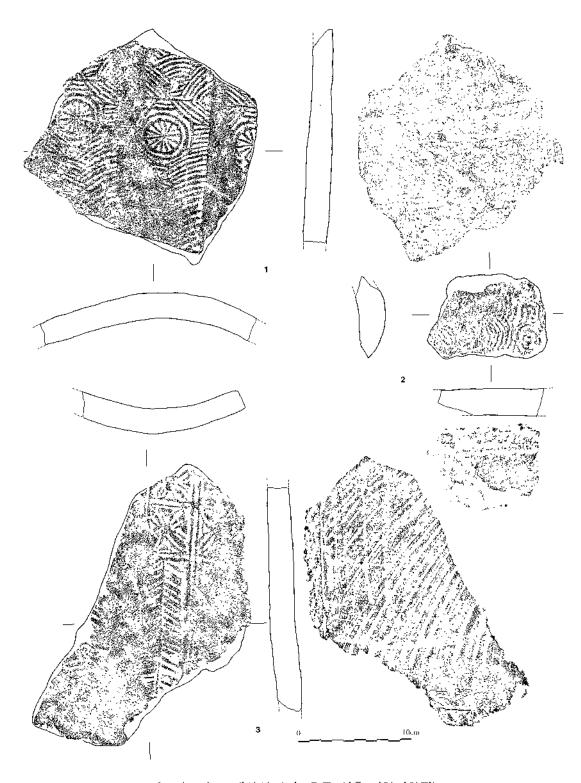
(도면 76)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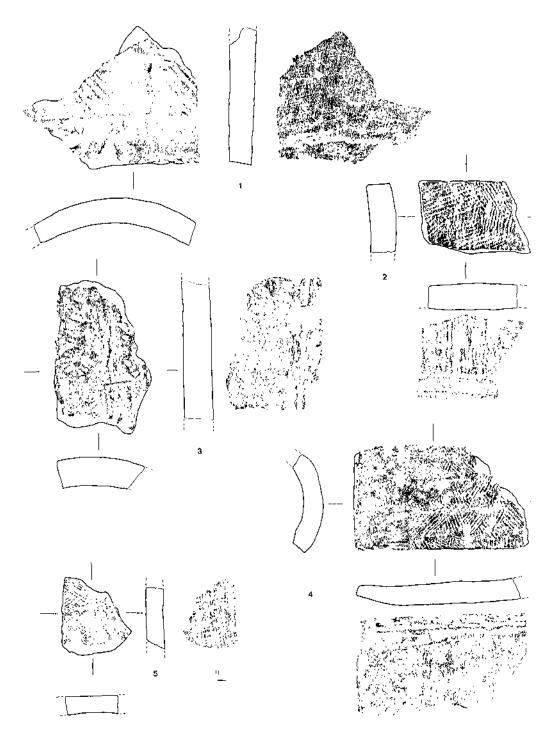
(도면 77)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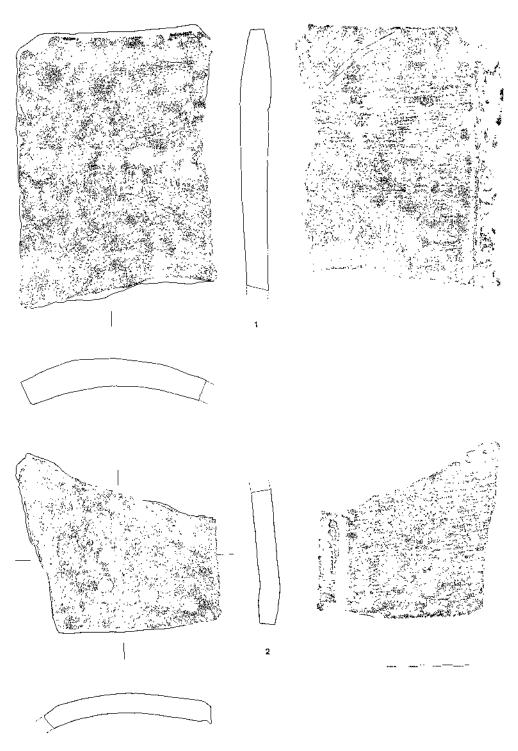
(도면 78)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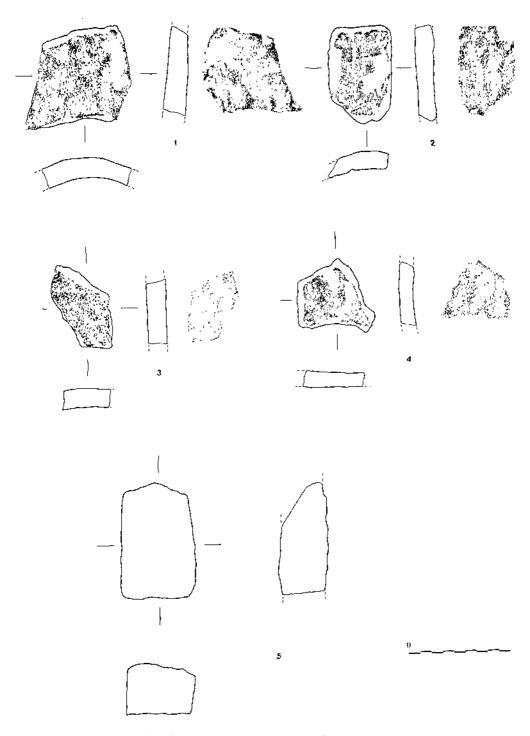
(도면 79)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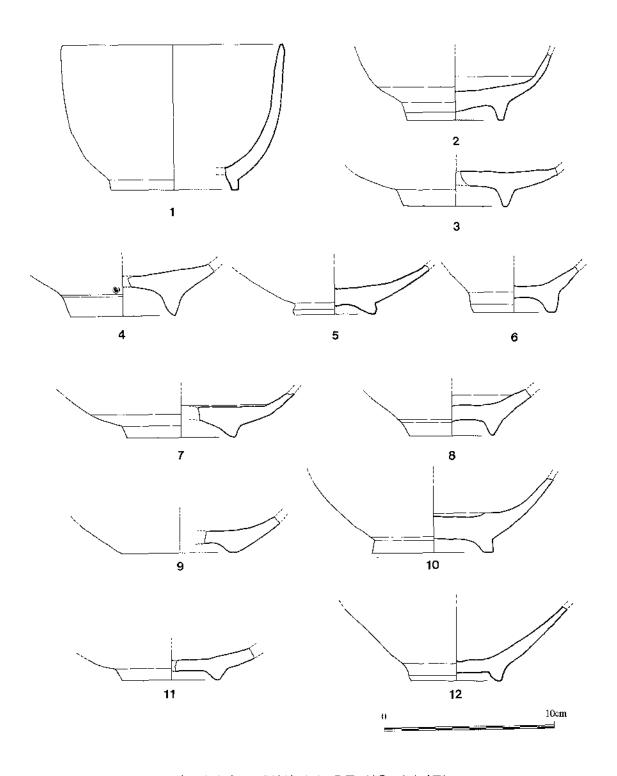
[도면 80]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촉도(암키와편)



(도면 81)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



(도면 82)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측도(암키와편·전편)



[도면 83) 보개산성 수습 유물 실축도(자기류)







[사진 1] 아곡교에서 바라본 처인성 모습



(사진 2) 사장터에서 바라본 처인성 모습



[사진 3] 남서쪽에서 바라본 처인성 모습



[사진 4] 처인성 입구의 문화재 안내판



(사진 5) 처인성 동남벽 외측의 처인성승첩기념비



[사진 6] 처인성 서남벽 외측 모습



[사진 7] 처인성 서남벽 상부 모습(서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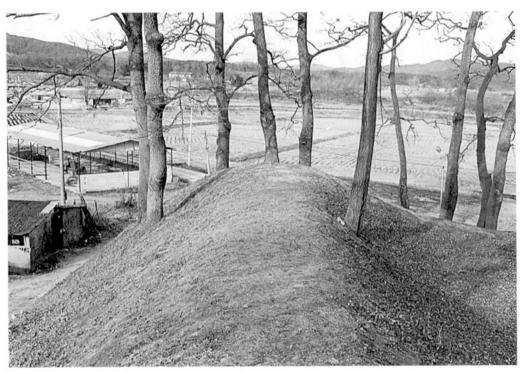
[사진 8] 처인성 서북벽 외측 모습(북쪽에서)



[사진 9] 처인성 서북벽 상부 모습(북쪽에서)



[사진 10] 처인성 서북벽과 모서리 모습(북쪽에서)



[사진 11] 처인성 서북벽 모서리 내측 모습(남쪽에서)



(사진 12) 처인성 북동벽 외측 모습(남동쪽에서)



[사진 13] 처인성 북동벽 외측 모습(북서쪽에서)



[사진 14] 처인성 북동벽 상부 모습(남쪽에서)



(사진 15) 처인성 동북벽 동측의 현 출입구(밖에서)



(사진 16) 처인성 북동벽 동측의 현 출입구(안에서)



(사진 17) 처인성 남동벽 외측 모습(동남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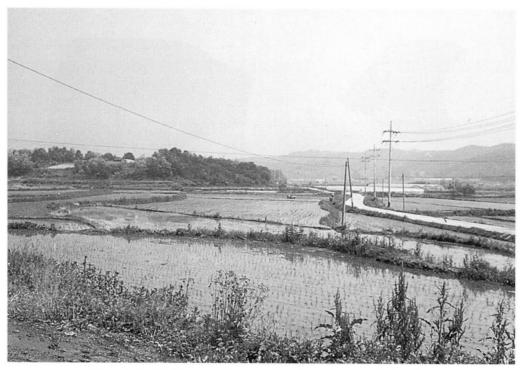
[사진 18] 처인성 남동벽 상부 모습(남서쪽에서)



[사진 19] 처인성 내부 모습(서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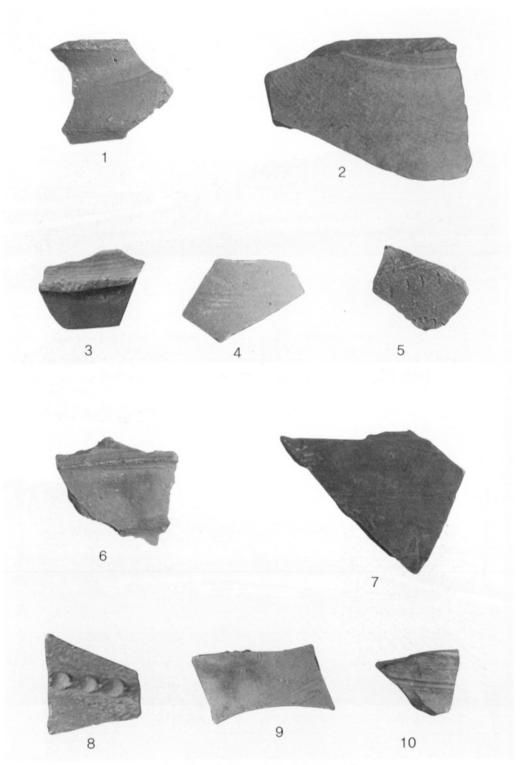
[사진 20] 처인성 내부 모습(북서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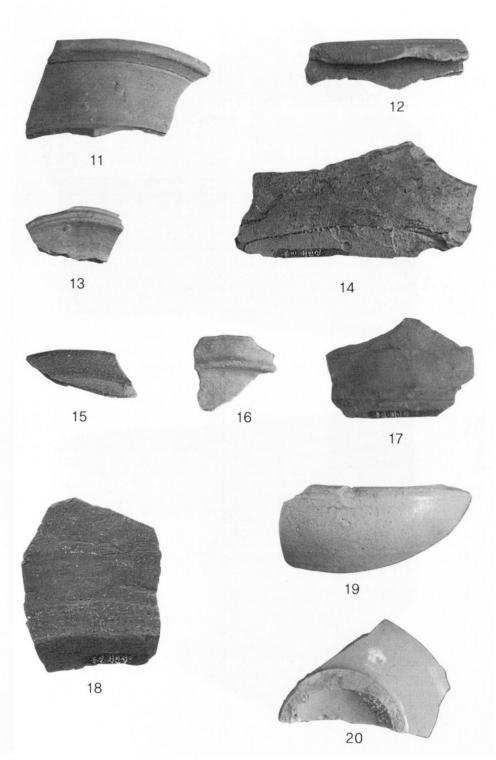
[사진 21] 처인성에서 바라본 성들과 사장터 모습(서쪽에서)



(사진 22) 사장터에서 바라본 처인성과 그 남쪽 모습



(사진 23) 처인성 수습 토기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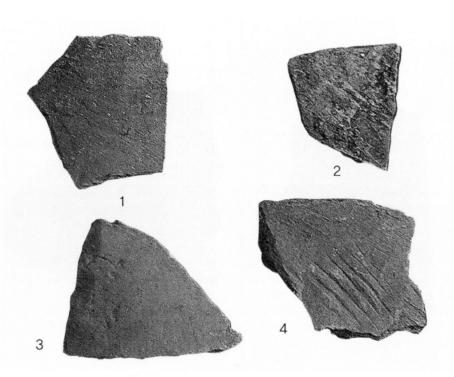
[사진 24] 처인성 수습 토기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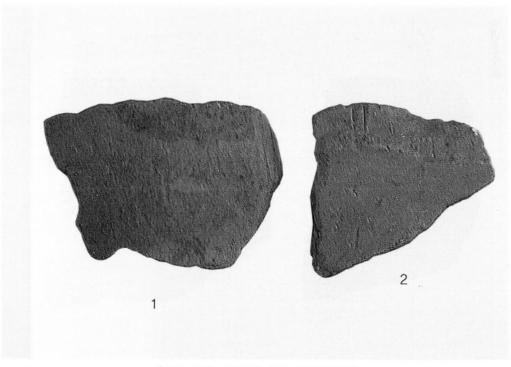
[사진 25] 처인성 수습 기와(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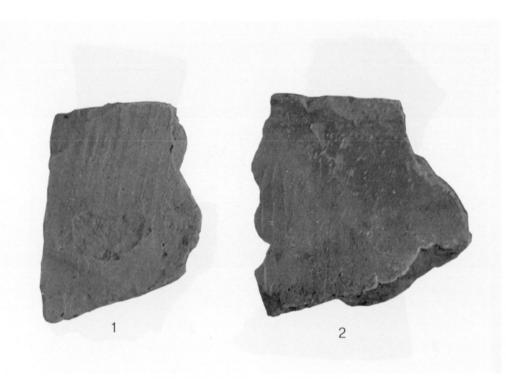
[사진 26] 처인성 수습 기와(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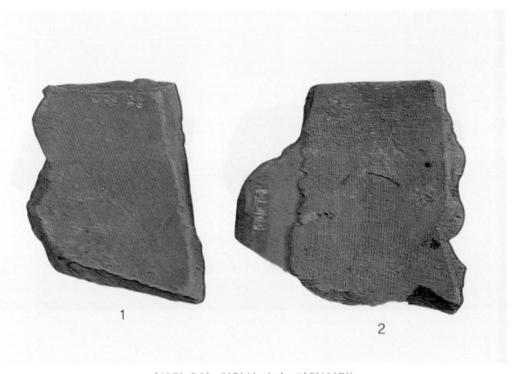
[사진 27] 처인성 수습 기와(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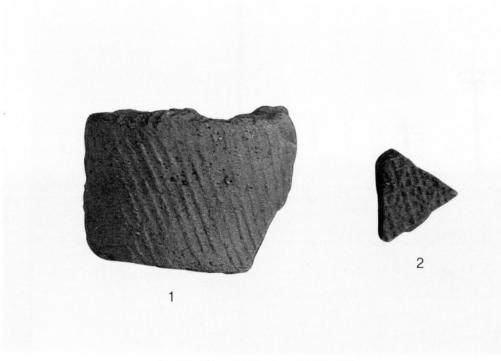
[사진 28] 처인성 수습 기와(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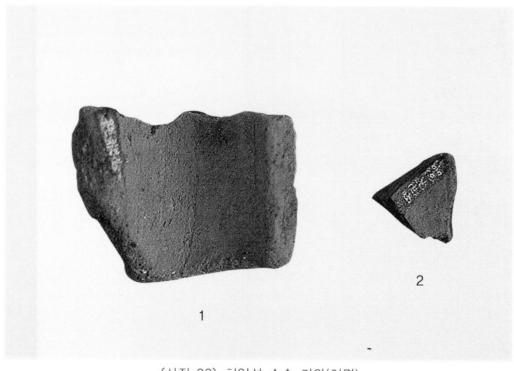
[사진 29] 처인성 수습 기와(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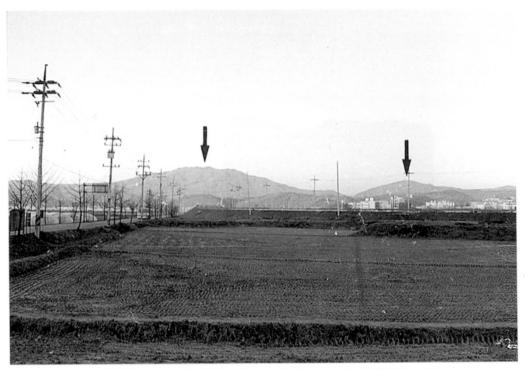
[사진 30) 처인성 수습 기와(이면)



[사진 31] 처인성 수습 기와(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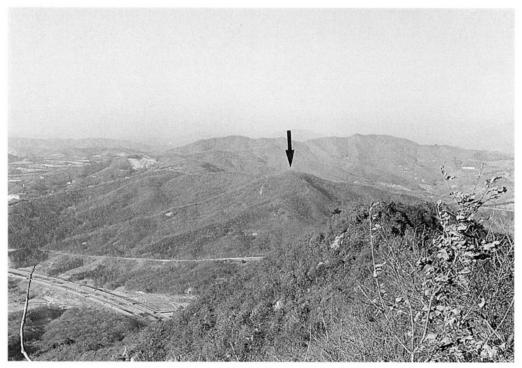
[사진 32] 처인성 수습 기와(이면)



[사진 33] 포곡면 삼계리에서 바라본 노고성·보개산성 모습



(사진 34) 에버랜드 입구에서 바라본 노고성 모습



[사진 35] 보개산성에서 바라본 노고성 모습



[사진 36] 노고성 #1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동쪽에서)



[사진 37] 노고성 #1 지점 외부 모습(동쪽에서)



[사진 38] 노고성 #2 지점 외부 모습(안에서 밖으로)



[사진 39] 노고성 #2~#3 지점 사이 잔존 성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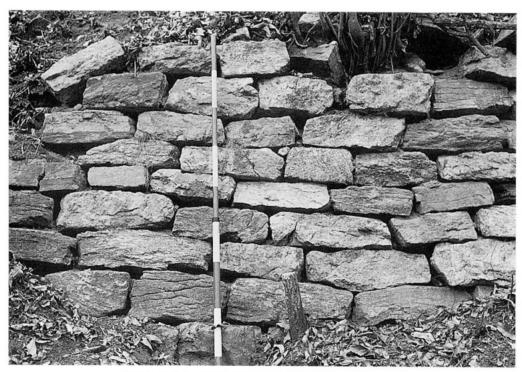
[사진 40] 노고성 #2~#3 지점 사이 잔존 성벽 모습



[사진 41] 노고성 #3 지점 잔존 성벽 모습(북쪽에서)



[사진 42] 노고성 #4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43] 노고성 #5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44] 노고성 #5 지점 성벽 외부 모습(북쪽에서)



[사진 45] 노고성 #5 지점 내부 내환도 모습(남쪽에서)



[사진 46] 노고성 #6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47) 노고성 #7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48] 노고성 #7 지점 내부 평탄지 및 남북 구분 석축 붕괴 모습



[사진 49] 노고성 #7 지점 내부 남북 구분 석축 붕괴 모습



(사진 50) 노고성 #8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51) 고성 #9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52] 고성 #9 지점 내외겹축 성벽 모습



[사진 53] 노고성 #10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54] 노고성 #10 지점 내외겹축 모습



[사진 55] 노고성 #11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56] 노고성 #8~#11 지점 사이 외부 성벽 모습(북쪽에서)



[사진 57] 노고성 #8~#11 지점 사이 외부 성벽 모습(남쪽에서)



[사진 58] 노고성 #11 지점 내부 성내 평탄지 모습(북쪽에서)



(사진 59) 노고성 #12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60] 노고성 #13 지점 내외겹축 성벽 모습



[사진 61] 노고성 #13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62) 노고성 #14 지점 내외겹축 성벽 모습



[사진 63] 노고성 #14 지점 외부 토루 모습(안에서 밖으로)



[사진 64] 노고성 #15~#17지점 사이 성벽 모습(남쪽에서)



[사진 65] 노고성 #15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66] 노고성 #16 지점 내외겹축 성벽 모습



[사진 67] 노고성 #16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68] 노고성 #17 지점 내외겹축 성벽 모습



[사진 69] 노고성 #18~#19지점 사이 성벽 모습(북쪽에서)



(사진 70) 노고성 #18 지점 내외겹축 성벽 모습



[사진 71] 노고성 #18 지점 내외겹축 성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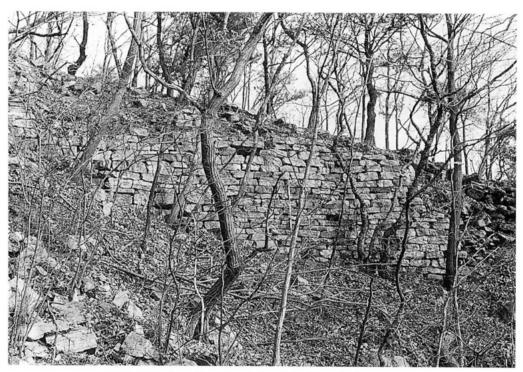
[사진 72] 노고성 #18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73] 노고성 #18 지점 남북 구분 석축 모습



[사진 74] 노고성 #19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근경)



[사진 75] 노고성 #19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원경)



[사진 76] 노고성 #19 지점 성벽 및 내부 모습(남쪽에서)



[사진 77] 노고성 #20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북서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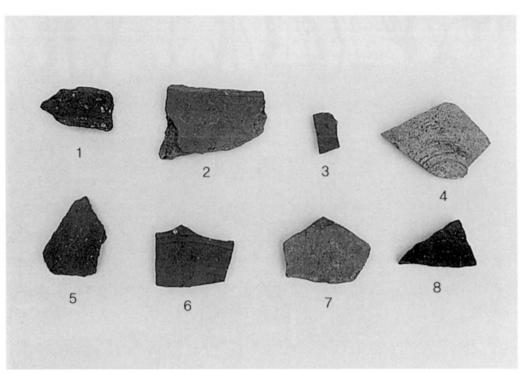
[사진 78] 노고성 #20 지점 성벽 내부(헬리포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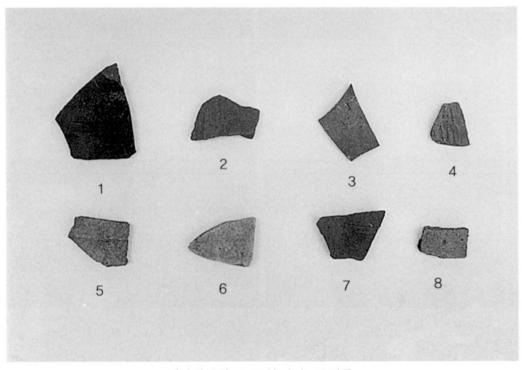
(사진 79) 노고성 #21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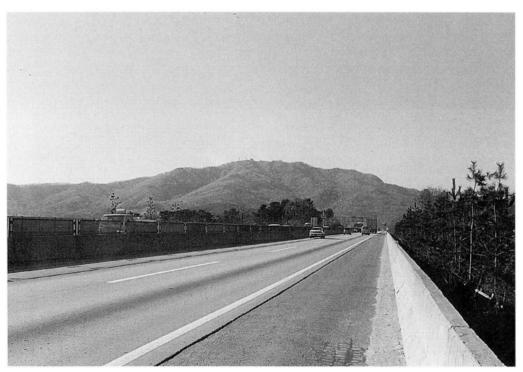
(사진 80) 노고성 #1~#21 지점 사이 외부 잔존 성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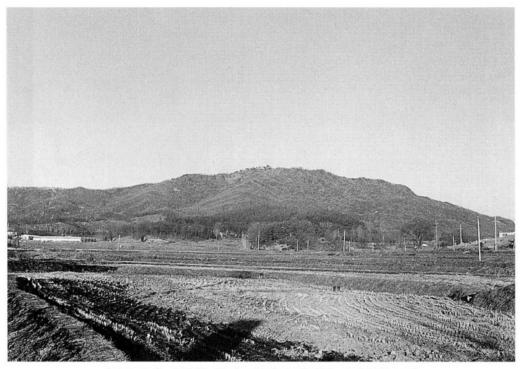
[사진 81] 노고성 수습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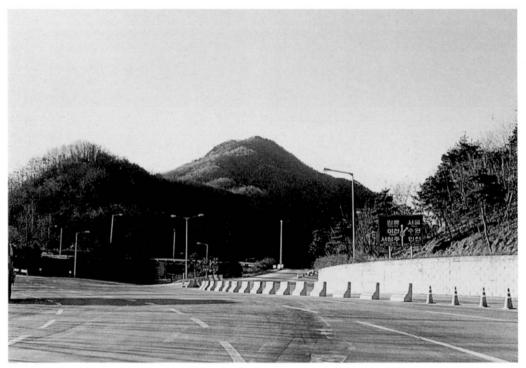
[사진 82] 노고성 수습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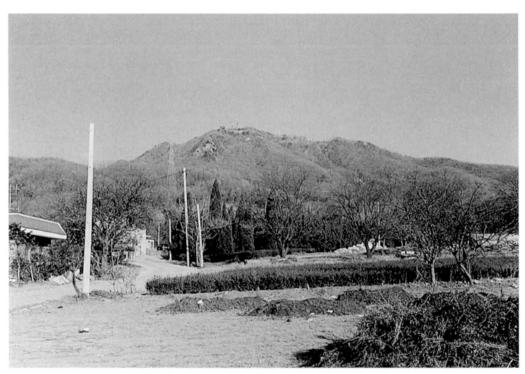
(사진 83) 영동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보개산성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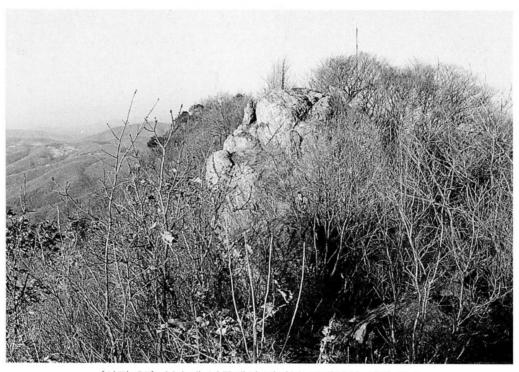
(사진 84) 유방동 윗버드실에서 바라본 보개산성 모습



[사진 85] 영동고속도로 마성인터체인지에서 바라본 보개산성 모습



(사진 86) 중리에서 바라본 보개산성 모습



[사진 87] 봉수대 남쪽에서 바라본 보개산성 서벽 모습



[사진 88] 보개산성 #1 지점 내부 헬리포트 모습



[사진 89] 보개산성 #2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90] 보개산성 #3 지점 성벽 상부 및 내부 모습



[사진 91] 보개산성 #3 지점 성벽 외부 모습



[사진 92] 보개산성 #4 지점(북문지?) 성벽 위 모습(서쪽에서)



[사진 93] 보개산성 #4~#5 지점 사이 성벽 모습(동쪽에서)



[사진 94] 보개산성 #5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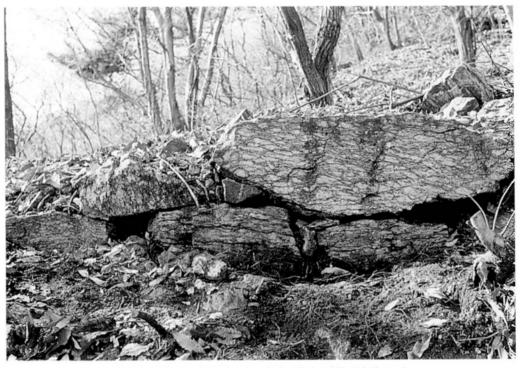
[사진 95] 보개산성 #5~#6지점 사이 성벽 모습(서쪽에서)



[사진 96] 보개산성 #6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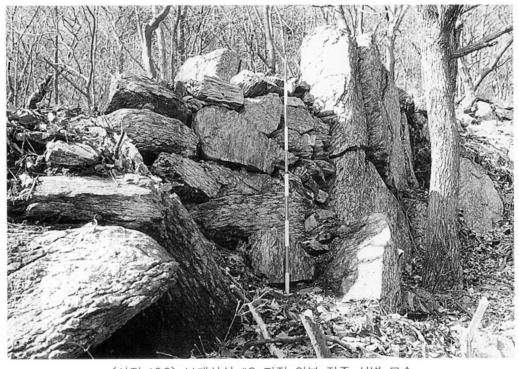
(사진 97) 보개산성 #7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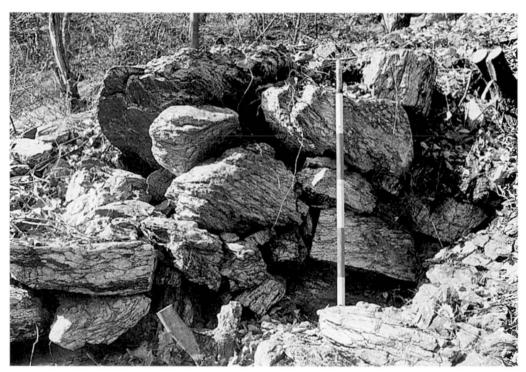
[사진 98] 보개산성 #8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99] 보개산성 #8~#9 지점 사이 성벽 모습



(사진 100) 보개산성 #9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01] 보개산성 #10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02] 보개산성 #9~#11 지점 사이 성벽 모습



[사진 103] 보개산성 #11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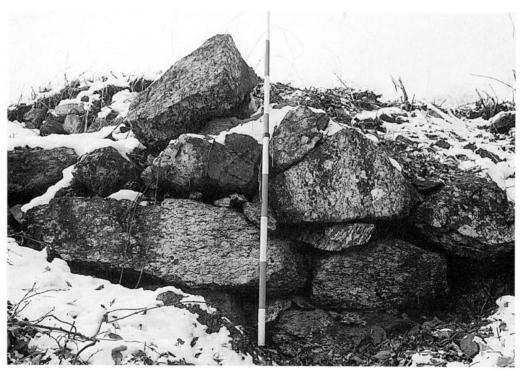
[사진 104] 보개산성 #12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05] 보개산성 #13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06] 보개산성 #11~#13 지점 내부 평탄지 모습(북쪽에서)



[사진 107] 보개산성 #14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08) 보개산성 #15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09] 보개산성 #14~#15 지점 내부 평탄지 모습(남서쪽에서)



(사진 110) 보개상성 #16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11] 보개산성 #16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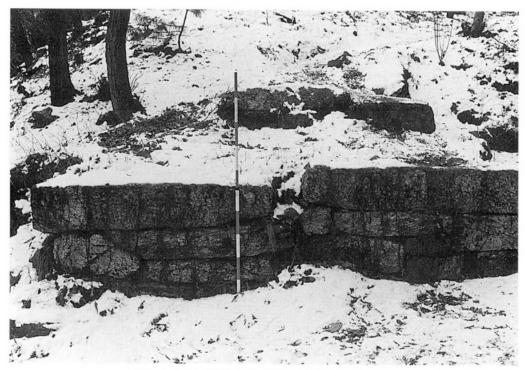
[사진 112] 보개산성 #15~#16 지점 사이 내외겹축 성벽 모습



[사진 113] 보개산성 동문지 모습(안에서)



[사진 114] 보개산성 동문지 모습(밖에서)



[사진 115] 보개산성 동문지 서쪽 측벽 모습



[사진 116] 보개산성 동문지 동쪽 측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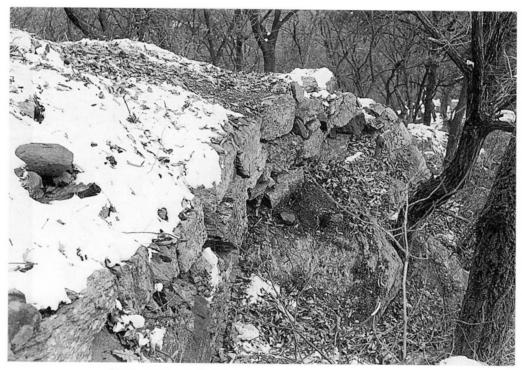
(사진 117) 보개산성 동문지 내부 평탄지 모습



(사진 118) 보개산성 동문지 위쪽 통화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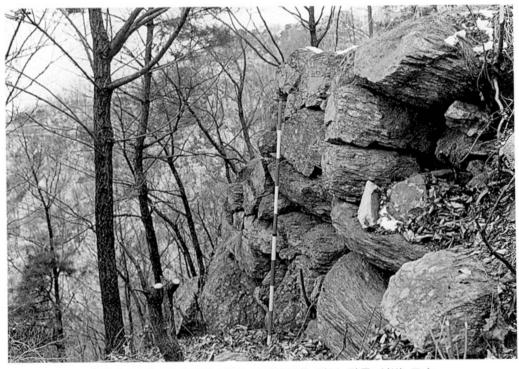
[사진 119] 보개산성 #19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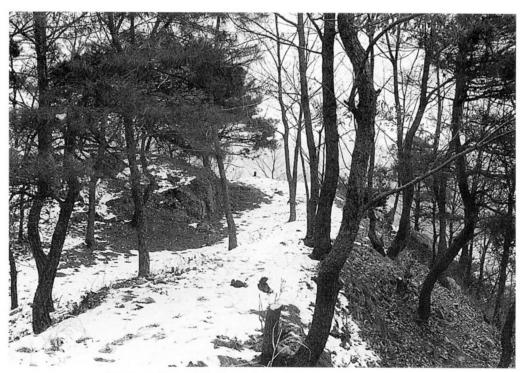
[사진 120] 보개산성 #20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21] 보개산성 동문지~#20 지점 사이 성벽 모습



(사진 122) 보개산성 #22 지점(곡성)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23] 보개산성 곡성부 서측 성벽 모습(서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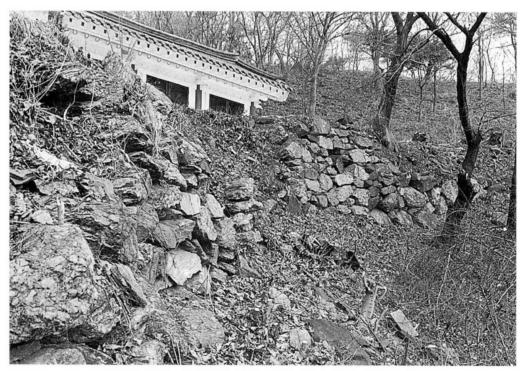
[사진 124] 보개산성 곡성~#23 지점 사이 성벽 모습



(사진 125) 보개산성 #24 지점 외부 성벽 모습



(사진 126) 보개산성 #24 지점 내부 조광조 사당 모습



[사진 127] 보개산성 #25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28) 보개산성 #26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29] 보개산성 #27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30] 보개산성 #27~#29(남암문지) 사이 성벽 모습(남쪽에서)



(사진 131) 보개산성 #28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32] 보개산성 #28~#29지점 사이 성벽 모습(북쪽에서)



[사진 133] 보개산성 #29(남암문지) 지점 내부 계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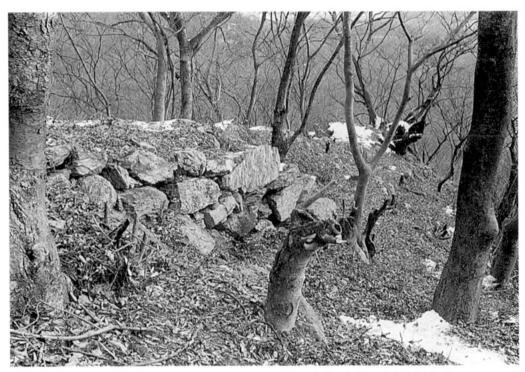
[사진 134] 보개산성 #29(남암문지) 모습(밖에서)



[사진 135] 보개산성 #29(남암문지) 모습(안에서)



[사진 136] 보개산성 #30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37] 보개산성 #29~#30 지점 사이 성벽 모습(남쪽에서)



[사진 138] 보개산성 #31 지점(남문지) 서측 성벽 외부 모습



[사진 139] 보개산성 #30~#31 지점 사이 남문지 외부 모습(동쪽에서)



[사진 140] 보개산성 #31 지점(남문지) 돌확 모습



[사진 141] 보개산성 #32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42] 보개산성 #33 지점 외부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43) 보개산성 군부대내 곡성부 위쪽 잔존 성벽 모습



[사진 144] 보개산성 봉수대터 모습



(사진 145) 보개산성 봉수대터 동측벽 모습



(사진 146) 보개산성 봉수대터 서측벽 및 내부 모습



(사진 147) 보개산성 봉수대터 남측벽 모습



[사진 148] 보개산성 북쪽 정상부 건물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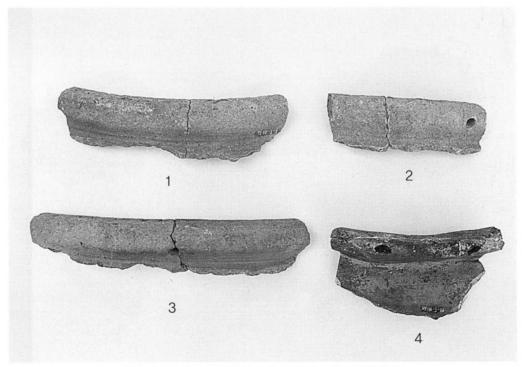
(사진 149) 보개산성 북쪽 정상부 건물지 석축 기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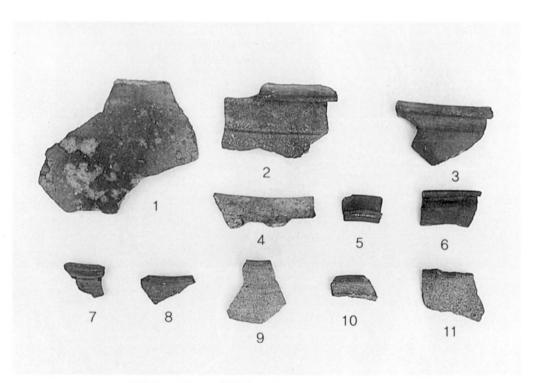
(사진 150) 보개산성 북쪽 정상부 건물지 초석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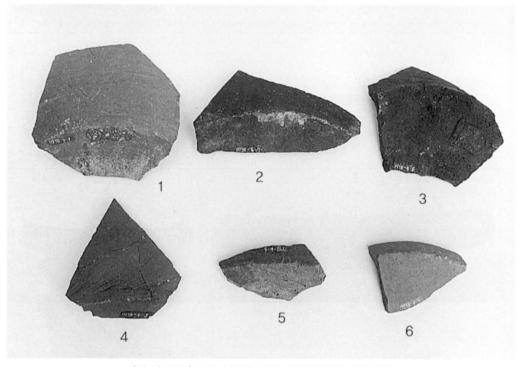
[사진 151] 보개산성 내 건물지 석축 기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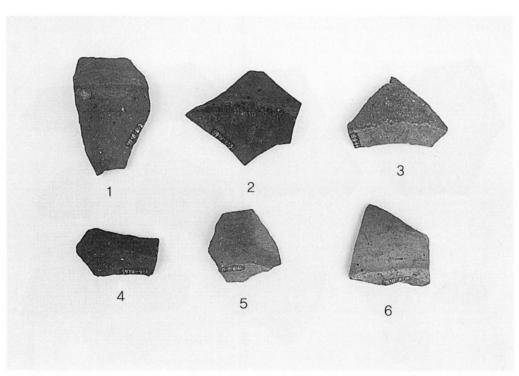
[사진 152]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 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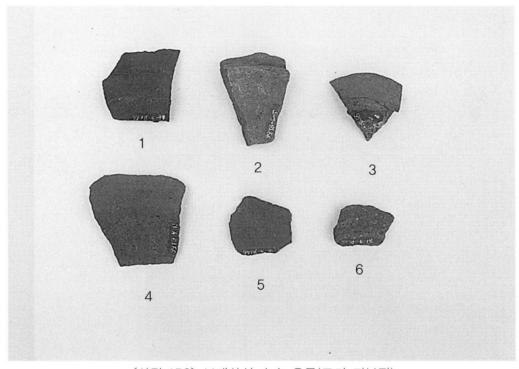
(사진 153)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 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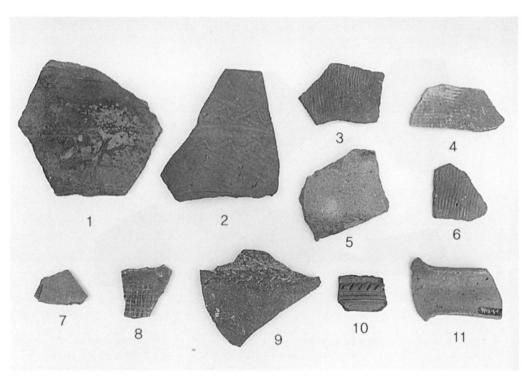
[사진 154]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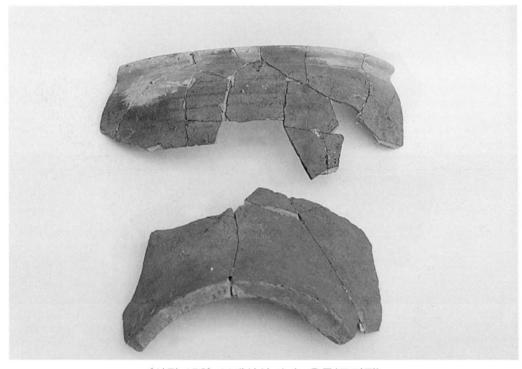
[사진 155]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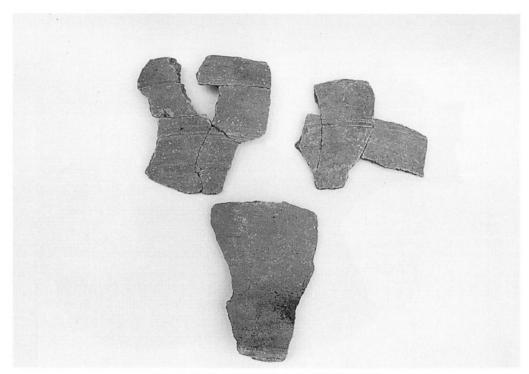
[사진 156]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 저부편)



(사진 157)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 동체부편·파수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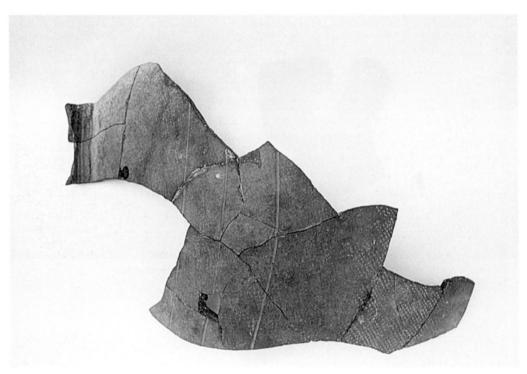
[사진 158]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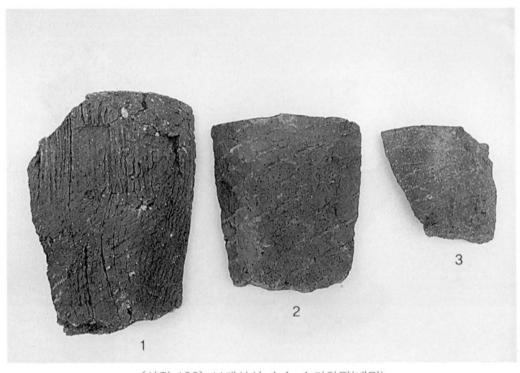
[사진 159]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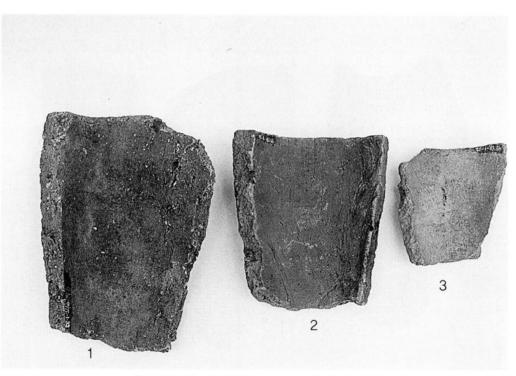
[사진 160]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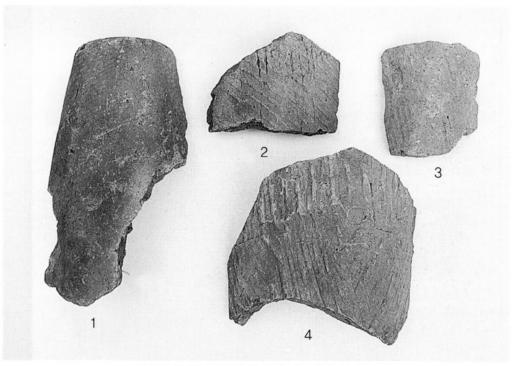
[사진 161] 보개산성 수습 유물(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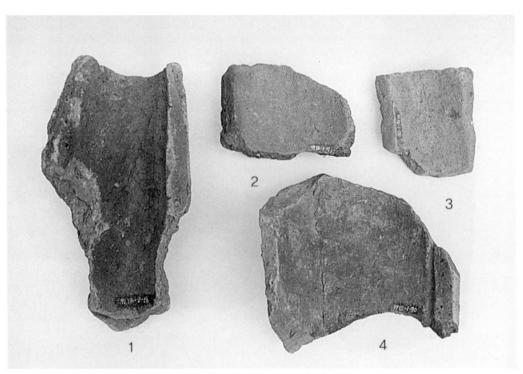
[사진 162]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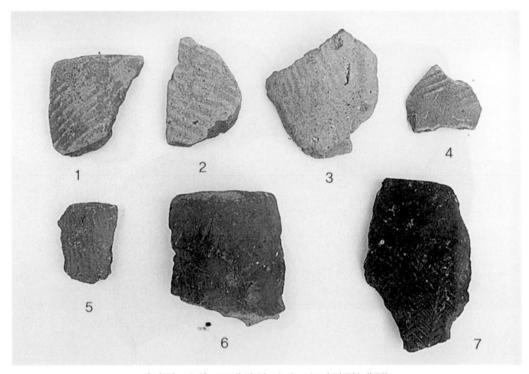
[사진 163]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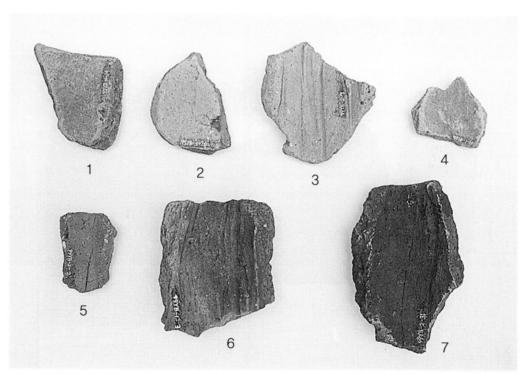
[사진 164]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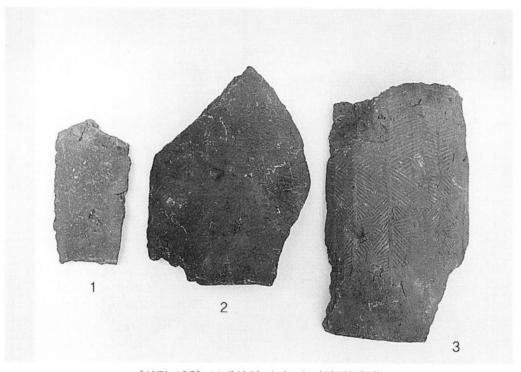
[사진 165]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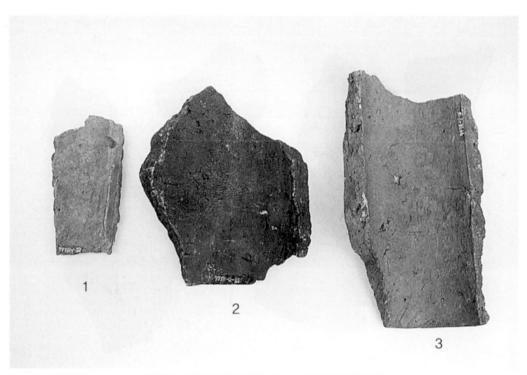
[사진 166]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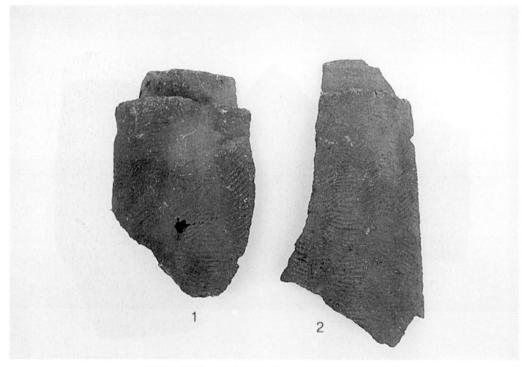
[사진 167]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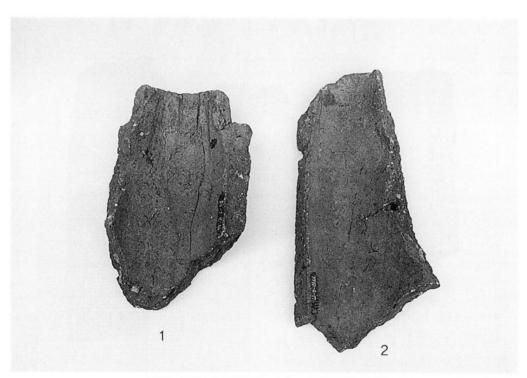
[사진 168]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사진 169]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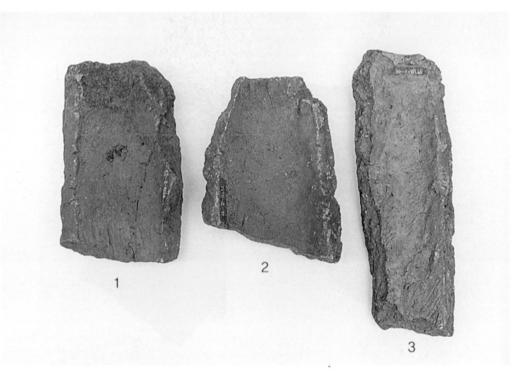
(사진 170)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사진 171]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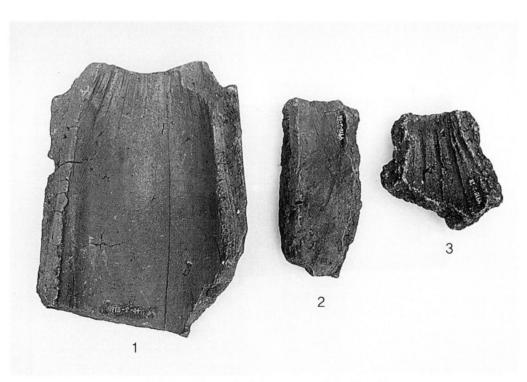
[사진 172]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사진 173]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사진 174]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사진 175]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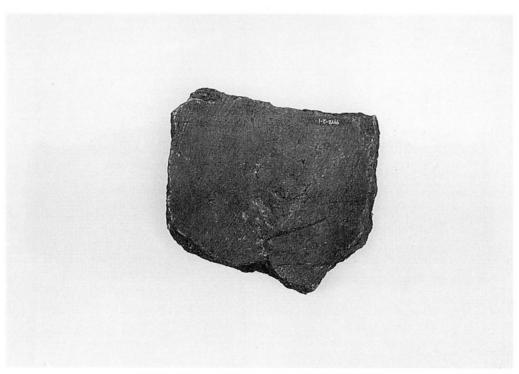
[사진 176]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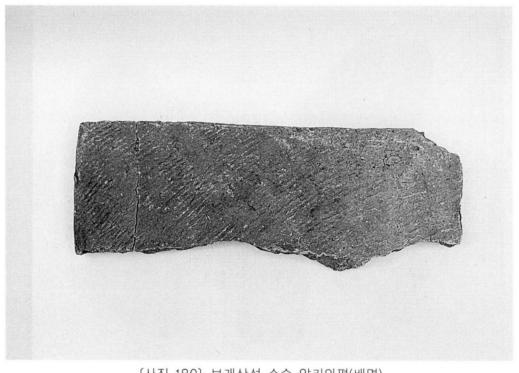
[사진 177] 보개산성 수습 수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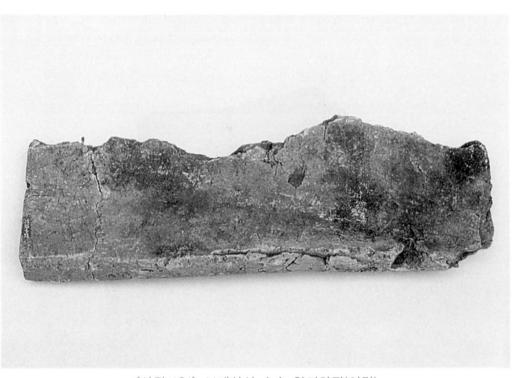
[사진 178] 보개산성 수습 명문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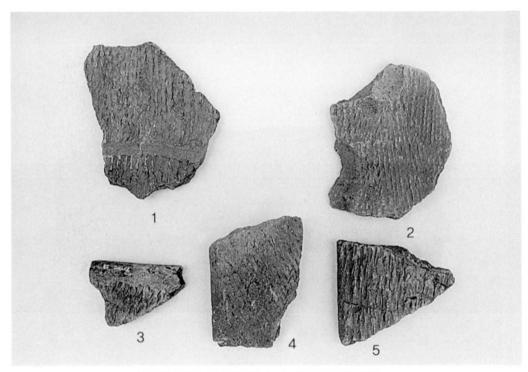
[사진 179] 보개산성 수습 명문완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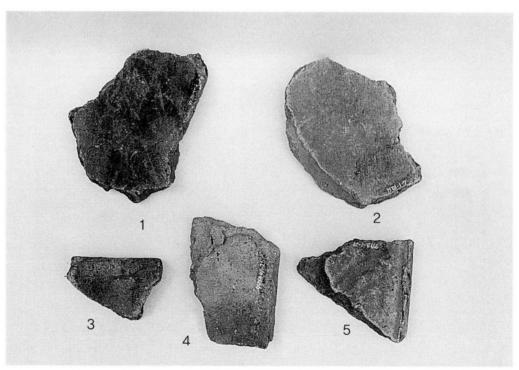
[사진 180]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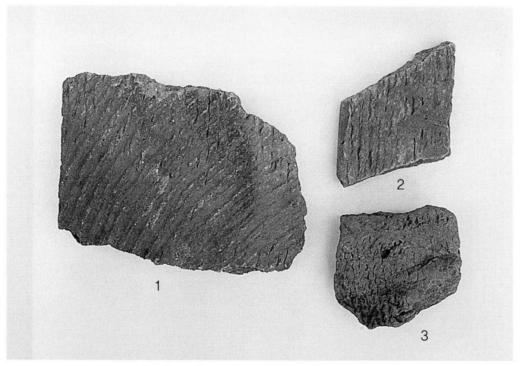
[사진 181]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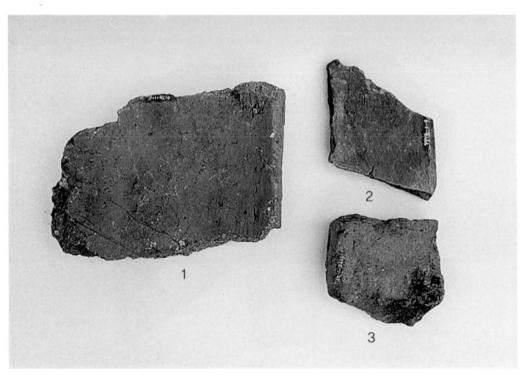
(사진 182)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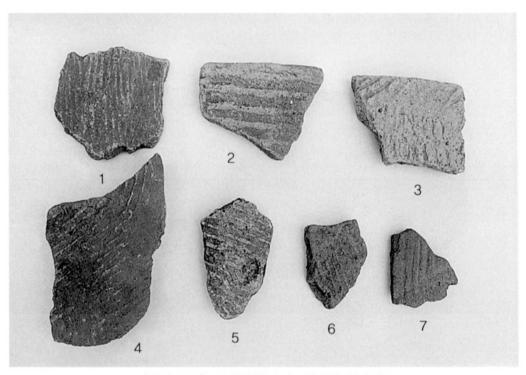
[사진 183]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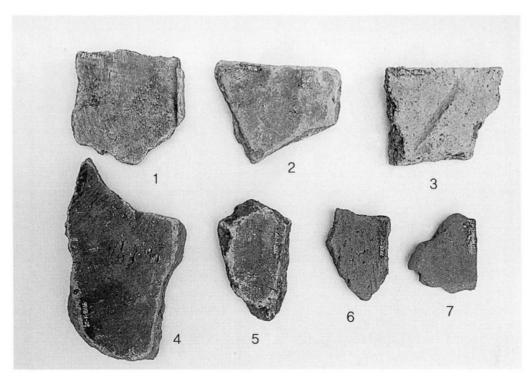
[사진 184]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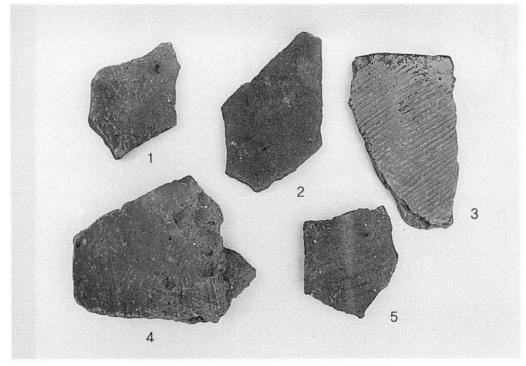
[사진 185]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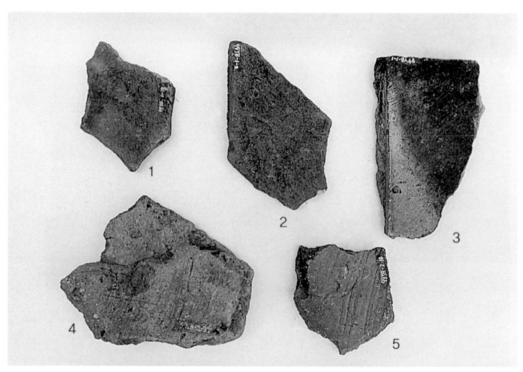
[사진 186]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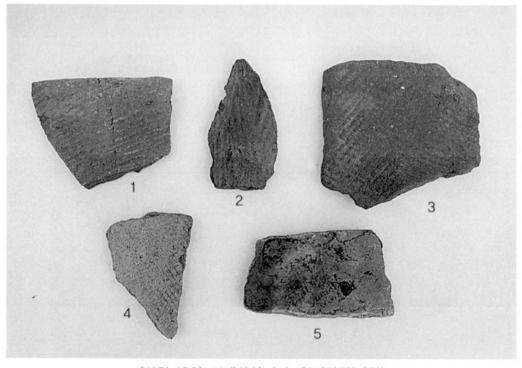
[사진 187]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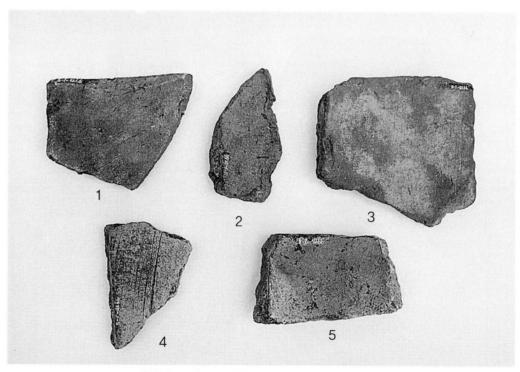
[사진 188]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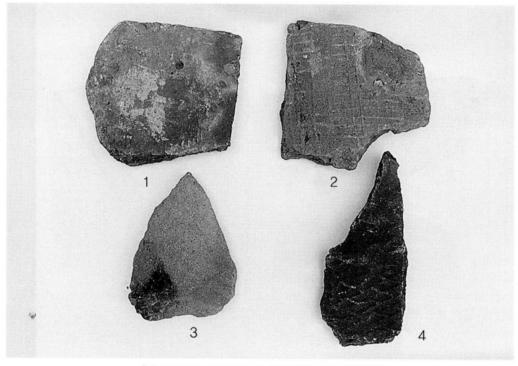
[사진 189]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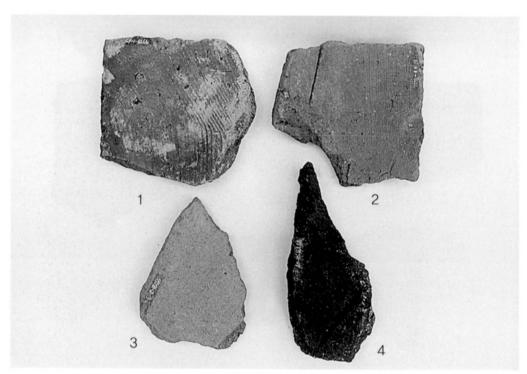
[사진 190]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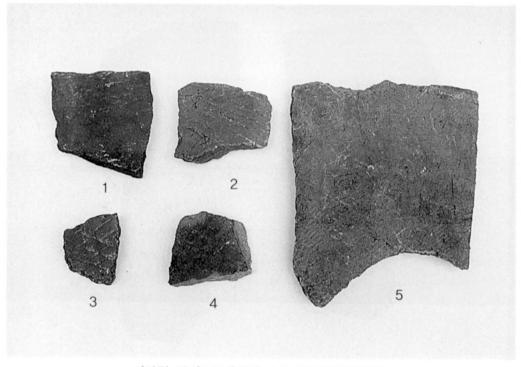
[사진 191]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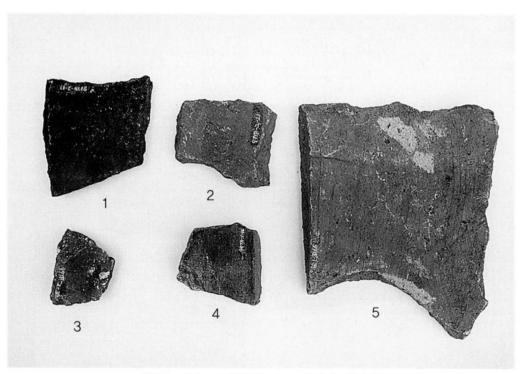
[사진 192]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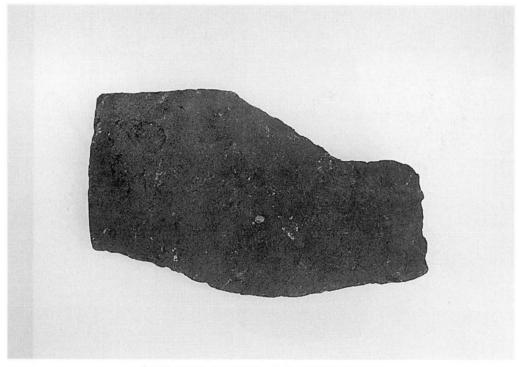
[사진 193]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사진 194]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사진 195)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사진 196]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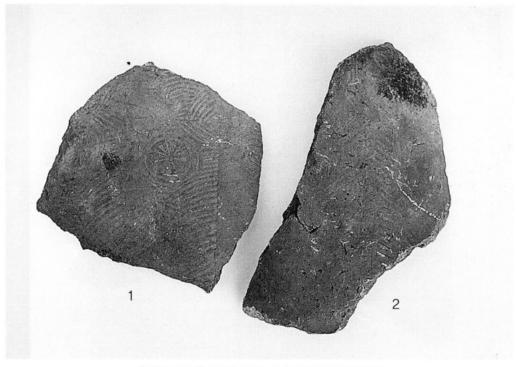
[사진 197]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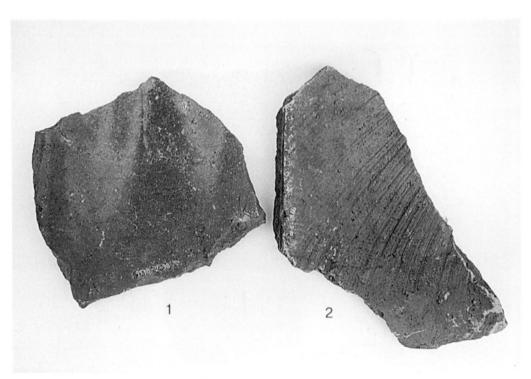
[사진 198]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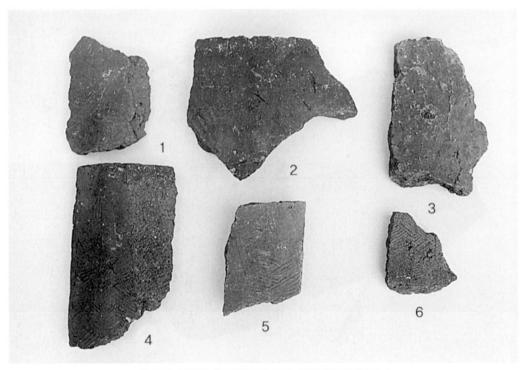
[사진 199]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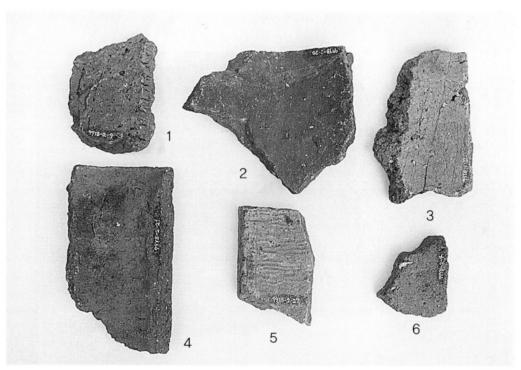
[사진 200]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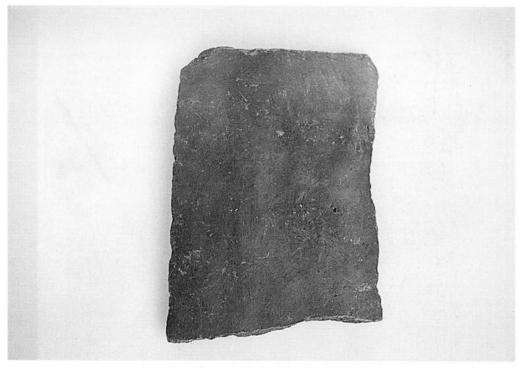
[사진 201]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사진 202]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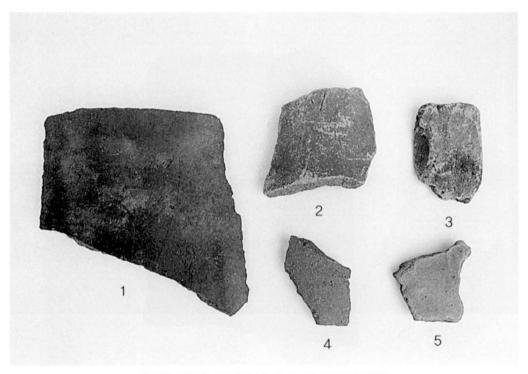
[사진 203]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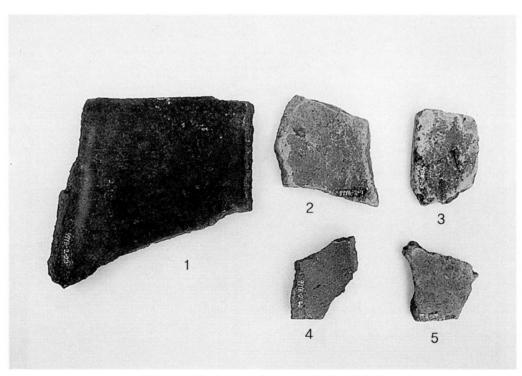
[사진 204]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사진 205]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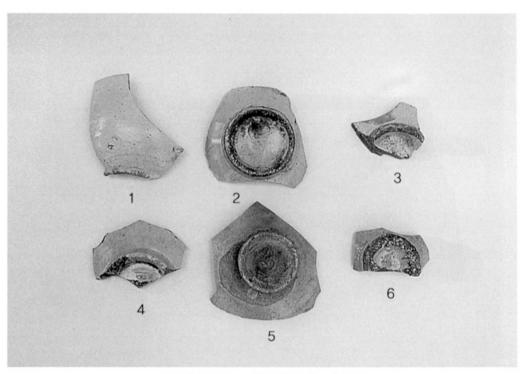
[사진 206]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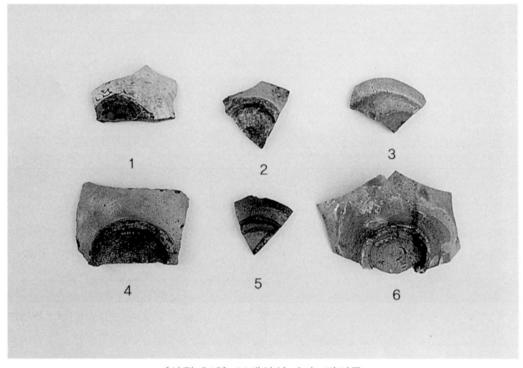
(사진 207) 보개산성 수습 암키와편(이면)



[사진 208] 보개산성 수습 전



[사진 209] 보개산성 수습 자기류



[사진 210] 보개산성 수습 자기류

용인시사총서 4

용인의 옛성터

처인성・할미산성・보개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인 쇄 일 : 1999년 4월 25일 발 행 일 : 1999년 4월 30일

편 집 용인시ㆍ용인문화원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발 행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인 쇄: 도서출판 학연문화사

2 02) 865-5072 FAX 02) 853-3679

r 911.59 용인사용

서명: 용인의 옛성터

저자: 용인시 편

RE006830

